

커서 뭐 될래!

제천간디학교 2014 인턴십 보고서

2014년 8월 26일 발행

글 2014년 제천간디학교 6학년

편집 박록리 이민지 홍지인

표지 디자인 홍지인

커서 뭐 될래!

제천간디학교 2014 인턴십 보고서

전수정 남궁홍 김한솔 박록리 박수열 김상연 김수용 김혜린 김종화 이민지
유현영 신지은 오지영 홍지인 나현준 김진규 김현정 최민현 장기중 최소은



2014년 인턴십을 정리하며

2014년 간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과 마주서는 우리 아이들의 큰 발걸음을 정리합니다. 항상 어리기만 할 것 같던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날개를 퍼덕거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아다녔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 6학년 000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을까요? 운이 좋아 한 번에 “좋아요” 승낙을 받은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여기가 너무 바빠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는 더 긴장되고 떨리고,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렇게 가슴 졸이며 인턴 단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단체에 처음으로 출근 하는 날, 등교가 아니라 출근 이라니... 걸어서 15분이면 충분한 기숙사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닌,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로 버스로 낯선 도시의 낯선 얼굴들을 마주한 그 첫 출근의 어색함은 또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였을까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많은 첫 경험들의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4주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일꾼으로 성장했던 경험들이 이 보고서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퍼덕거리다 어느 순간 붕~ 떠올라 하늘높이 날아갈 우리 아이들의 기억이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2014년 6학년 담임

황선호

차례

전수정	CAMP / 수인수알	6
남궁홍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밥퍼 줄게 이리와	22
김한솔	성심원 / 제발 가만 좀 있어 봐요!	48
박록리	한마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 한 마음을 전하다	60
박수열	시골집 / 먹음직스러운 고라니가 뛰노는 곳에서 짧고 깊은 98일	78
김상연	수원환경운동센터 / 들쥐의 수원환경운동센터	92
김수용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 인턴의 중심에서 환경을 외치다	110
김혜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가 코스프레	124
김종화	장거살롱&녹색소비자연대 / 학교에서 떠나있던 반년, 19세의 1/2	138
이민지	에코파티메아리 / 메아리를 메알메알	156
유현영	The Fair Story / 열아홉 살의 봄, 어른처럼 살아보기	170
신지은	참 신나는 옷 / 고교처세왕	184
오지영	새만화책 출판사 / 느이 집엔 이런 만화 없지?	206
홍지인	슬로워크 / 성질 급한 스무 살 느리게 걷다	222
나현준	일상예술창작센터 / 인턴십 4개월의 기록.	238
김진규	DVC 기업부설 연구소 / 나의 인턴 18세	248
김현정	맥놀이 / 맥(주)놀이	268
최민현	하자센터 / 하자에서 3개월 인턴 하자!	282
장기중	참여연대 / 100일간의 시민활동가 생활	298
최소은	인권운동사랑방 / 사람과 사람 사이	314

수인수알

- 타워빌에서 보낸 15주

CAMP / 2.26~6.9

전수정

<목차>

I. 필리핀에 가기 전에

1. 왜 필리핀에?
2. 소개
 - 1) About CAMP
 - 2) About Towerville

II. 필리핀에서

1. 적응 기간
2. 가야가야 팀
3. 타워빌 팀

III. 필리핀에 다녀온 후

1. 소감
 - 1) 관계
 - 2) 일
 2. 결산
 3. 덧붙여서

1. 필리핀에 가기 전에

1. 왜 필리핀에?

제천간디학교에서 인턴십의 개념은 애매하다. 통용되고 있는 인턴십의 뜻은 특정 기업의 직업 수련 같은 거지만 제천간디학교에서는 그 뜻만으로 인턴십을 설명하긴 어렵다. 이미 많은 선배들이 인턴십을 다녀오고 발표를 했지만 그걸 보고도 나는 감이 잡히질 않았다. 직업으로 삼고 싶을 만큼 뚜렷한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턴십 단체를 정할 때도 학교철학을 연관시켜서 찾아야 했다. 도대체 학교철학이 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걸 배우는 단체나 졸업한 후에 진로와 관련해서 단체를 찾으면 학교 철학이 걸리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대안 뒤시기 사회적기업 어찌구로 단체를 찾으려고 하니 배알이 풀렸다. 그건 두 번의 무빙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인턴십이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찬스란 걸 안다. 어디에다가 연락을 하고 들이대도 명분이 생기는 거다. 나는 그 명분을 잘 이용하고 싶었다. 그 기회를 쉽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3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한 곳에서 많은 걸 뽑아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단체보다는 장소를 먼저 물색했다. 서울에서 할 게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사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인턴십은 해외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특히 고3이라는 나이에) 3개월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게 평범하진 않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싶었다. 고생도 제대로 한 번 해보고 힘들어도 보고 그 고난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헤쳐 나가고 싶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써먹고 싶었다. 5학년 때 간디디자인 작업장을 통해서 봉제에 흥미가 생겼다.

엄마께 인턴십을 해외로 나간다고 말했을 때 캠프를 추천해주셨다. 엄마가 주신 캠프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웹사이트를 찾아보면서 봉제 공장을 운영한다는 걸 보고 딱 이거다 싶었다. 다른 단체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였다. 여러 나라 중에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도 그 전에 네팔이나 베트남을 생각했는데, 위험하고 사용하는 언어도 영어가 아니라서 '엄마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경비가 비교적 싸고 안전에 대해 계속 걱정하셨던 엄마도 이모가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서 안심하셨다. 2년 전에 학교에서 갔던 필리핀 평화여행도 너무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어 다시 가고 싶었다.

단체가 정해진 이후부터는 일이 착착 진행됐다. 바로 캠프에 연락을 취했고 나의 적극적인 모습에 흔쾌히 받아주셨다.

2. 소개

*캠프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했다.

1) About CAMP

사단법인 캠프 아시아는 'Center for Asian Mission for the Poor ASIA'의 약자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 NGO이다. 캠프는 도시빈민 밀집지역과 정부의 강제철거 이주정책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밀려나 이주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제공장과 베이커리, 기초보건 의료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About Towerville

타워빌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아가던 도시빈민들이 정부의 강제철거 이주정책과 각종 태풍과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은 5만 여명 6천여세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주민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금도 계속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도심재개발 정책과 함께 늘어나는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외곽에 대규모 이주민 지역을 조성하고 이주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워빌 사람들은 대부분 마닐라에서 이주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와 단체들의 설득을 믿고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타워빌의 현실은 생활을 위한 집, 전기, 수도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가정의 가장들이 다시 마닐라로 나가서 돈을 벌고 한두 주에 한 번 정도 집으로 돌아오는 식이다. 그러나 수입이 제대로 없다 보니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타워빌에는 한국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다. 지난 2003년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벌인 필리핀의 남부통근열차 지원사업의 사업권을 한국인이 맡아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타워빌에 등지를 들었다. 이 사업으로 타워빌의 일부 주민들에게 당시의 고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타워빌 Phase 5와 6의 모습

II. 필리핀에서

캠프는 가야가야와 타워빌로 두 개의 팀이 존재한다. 타워빌 팀은 타워빌 Phase 1~5에서 활동하고 있고 가야가야 팀은 타워빌 Phase 6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야가야는 지역 이름이다. 뭐, 가야가야도 타워빌이고 타워빌도 미누얀이라는 지역 이름이지만 그냥 편의상 가야가야 팀, 타워빌 팀으로 통칭한다. 나는 운 좋게도 두 팀 모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처음 2주는 적응 기간, 그 다음 2주는 가야가야 팀에서 일했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은 타워빌 팀에서 일했다.

기본적인 일과는 이랬다. 6시 기상 → 7시 아침 식사 → 7시 30분 출근(셔틀로 이동) → 8시 30분 오전 일과 시작 → 12시 점심 식사 → 1시 오후 일과 시작 → 5시 퇴근 → 6시 집 도착.

원래 가야가야 팀과 타워빌 팀 오피스가 각각 따로 있었는데 5월 즈음에 Tungko로 이사를 하고 오피스가 합쳐졌다. 타워빌 팀의 봉제 공장과 베이커리, 가야가야 팀의 헬스 센터, 도서관이 있는 곳을 필드라 칭한다.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없는 이상 아침회의가 끝난 후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을 타고 바로 필드로 이동한다. 그리고 3~4시 정도에 다시 오피스로 돌아오는 일정을 반복했다.

1. 적응 기간

1) 봉제 공장 Stock room 정리

봉제 공장 안에는 원단이란 제품들을 넣어두는 옷 창고가 있다. 그 창고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 네 명이(코이가 언니들 세 명과 같은 날 출국을 해서 같은 일정을 밟았다) 필리핀에 와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일이었다. 처음 일을 받았을 땐 설레기도 했

지만 어지럽혀진 창고를 정리하러니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분류하기 힘든 옷들이 많아서 곤란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간디자인 덕분인지 그냥 간디학교에서 키운 내공 덕분인지 수월하게 정리했다. 정리를 해야 했지만 이 큰 창고를 정리할 만큼 시간이 남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방치했다던데, 마침 우리가 왔다고 했다. 이틀 동안 고생한 만큼 깔끔해져서 만족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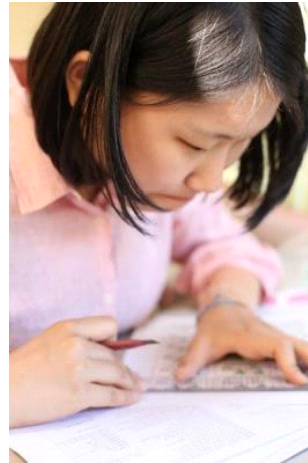
2) Sewing machine 테이핑 작업

봉제 공장 재봉틀에 넘버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 간단해보였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컷팅을 하고 테이프를 붙이고 또 소잉 머신에 테이프를 붙이고. 소잉 머신이 많은 터라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하필 종이 재단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컷팅을 하면 옆 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일일이 칼로 컷팅을 했다. 테이프까지 싹 다 붙이고 만족하고 나나이들께 드렸더니 나나이들이 한 번 더 손 봤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저 재봉틀에 라벨을 붙일 거예요~ 이걸 잘라주세요! 만 말해줘서 자르면서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없고 그냥 무의미했던 작업이다. 사실 엄청 대충했다.



라벨이 붙여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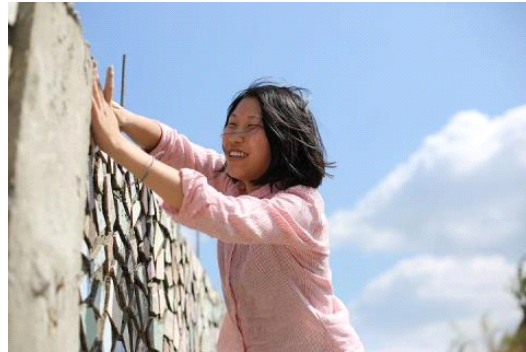


입 양 다물고 집중

3) 페타일 붙이기

봉제 공장과 타워빌 사이에 있는 담에 페타일을 조각내어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봉사단체가 오면 자신의 단체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작업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넣지 못하고 그 전에 왔던 단체가 미완성으로 만든 벽을 완성시켰다. 필리핀에는 태풍이 많이 불어 건물이 자주 쓰러지는데, 페타일을 벽에 붙이면 몇 배 더 튼튼하고 페타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작업이라고 한다.

페타일을 부셔서 잘게 만들고 만들어진 시멘트를 타일에 발라 벽에 붙인다. 이름을 쓸 때는 어두운 타일을 골라서 붙였고 남은 배경에는 연한 색의 타일로 붙였다. 앉아서 할 때는 괜찮았지만 담이 높았기 때문에 올라서서 할 때는 힘들었다. 나중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질 즈음엔 언니들이 어차피 우리 이름 안 박혀있으니 괜찮다며 대충대충 했던 기억이 난다.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무더운 날 팔이 빨갛게 익을 정도로 힘들게 작업한 거라 완성해놓고 보니 꽤나 뿌듯했다.



- 책상 위에 올라서서 하는 작업들은 다 내가 했다. 자기들은 똥똥하다나 뭐라나... 내 허벅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 저래 보여도 나름 연출 컷이다. 힘들어 죽겠는데 웃으러서 웃었다.

4) 헬스 센터 약품 정리

처음 일주일엔 타워빌 팀 적응 기간이였고 다음 일주일엔 가야가야 팀 적응 기간이었다. 가야가야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다. Health, Livelihood, Education.

헬스 센터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약품 창고를 정리했다. 있는 약품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 버리고 몇 개가 남았는지 카운팅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네 명이나 와서 미뤄왔던 잡노동거리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았다. 계속 일어서서 정리하는 작업이라 다리가 아파 조금 농땡이를 부릴까 했었는데, 오래 걸리는 건 더 싫어서 오히려 열심히 했다.

2. 가야가야 팀

1) Activity report 번역 & Facebook 포스팅

2주간의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는 가야가야 Education 팀으로 배정받았다. 처음으로 한 일은 Facebook 포스팅이었다. 가야가야 팀 매니저인 Norby가 영문으로 된 글을 주면 내가 그 글을 번역하고 사진을 셀렉해서 Facebook에 업로드를 하는 일이었다. 그 전에 가야가야 팀에 있던 이예지 언니가 조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중간이 붕 떠버려서 일이 많이 밀렸었다. 내가 오기 전에 했던 일들을 번역하려니 맥락도 안 잡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도 판단하지 못했다. 심지어 번역하다 자신 없는 문장은 아예 뛰어넘기도 했다. 아마 틀리고 잘못된 기록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 후엔 Activity report를 번역했다. Health 팀은 'Community Chest of Korea'에서 후원을 받고 있고 Education 팀은 삼성 꿈 장학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작성하는 건 현지 스텝이하고 번역하는 건 한국 봉사자가 한다. 정말이지 Activity report는 곧 전쟁이었다. 현지 스텝이 Activity report를 빨리 작성해서 우리에게 넘겨줘야 그걸 우리가 번역하고 정리해서 Community Chest of Korea에 넘기는데 아예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미루니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을 했을 당시 4월 이었는데도 나는 작년에 진행했던 일을 번역했다.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언니들한테 부탁받은 거지 언니들은 그게 아예 자신의 임무인데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정말 한국인의 급한 성격이 문제인지 아니면 필리핀 사람들의 느긋한 성격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Good Health Festival and Fun Run 2014 (사진: 11장)

캠프아시아는 필리핀 산호세알판데시 도시 빈민 경제 이주 지역인 타워빌 제6지구 가이가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일'을 주제로, 영산의 관심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 지역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8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굿헬스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각종매체, NGO, 지역주민, 지역정부, 한국인들을 포함한 15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With a theme, "Be aware, show you care, and let us take the action for a Healthy Community together", the Center for Asian Mission for the Poor Asia, in partnership with the community members of Towerville Phase 6 Barangay Gaya-Gaya, SDOMB thru the funding support of Community Chest of Korea spearheaded a Good Health Festival last February 8, 2014, Saturday from 5:00am to 5:00pm. The event was attended by one thousand five hundred forty participants (1540), representing the media, non-government organizations, community membe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Korean nationals.



중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10개

Towerville Phase 6 ETS Volunteers' General Assembly 2014 (사진: 12장)

필리핀 산호세알판데시 도시 빈민 경제 이주 지역인 타워빌 제6지구 가이가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 기반의 응급 수송 시스템(ETS)을 구축하기 위한 캠프아시아의 노력으로 지난 3월 12일 마랑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응급 수송 시스템 봉사자들과 함께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타워빌 제6지구의 응급 수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봉사자들의 역할 교육을 포함한 중요소제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봉사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토론 주제는 응급 수송 시스템의 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봉사자 역량 개발 교육의 수혜와, Community health map을 만들기 위한 가정 방문 중의 면에서 토론하였습니다.

As part of CAMP-Asia's effort of working closely with community members in building up a community-based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 a General Assembly of ETS Volunteers was held last March 12, 2014, at Marangal Elementary School Covered Court. The event was sub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of the program proper focused on the presentation of milestones of Towerville Phase 6 Health Project, as well as the succeeding steps for the ETS component, specifically the Capacity Building Training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part was designed as a Community Kapitan Session where volunte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o discuss the preparations and potential concerns and issues related to the conduct of Capacity Building Training and Home Health Visit vis-a-vis Community Health Mapping.



중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9개

내가 번역한 글들 중 일부. www.facebook.com/camp.asia 에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2) 지출결의서 작성

영수증 내역을 지출 결의서로 옮기고 영수증을 카피하고 붙이는 작업이었다.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는 구매한 제품을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잘 보이게 카피해서 붙여야 한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담당자 사인을 받은 종이를 같이 엮어서 클립으로 찍고 그걸 날짜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한다. 중요한데도 귀찮은 일이라서 언니들은 빈둥거리는 나한테 이 일을 많이 맡겼다. 사실 나는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걸 무척 좋아했다. 귀찮을 뿐이지 일 자체는 쉽고 그렇다고 일찍 끝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3) 웹사이트 홍보용 글 번역

캠프 웹 사이트(icamp.asia)에 올릴 글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Facebook 포스팅 번역하는 거나 Activity report 번역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양부터가 남다르다. 직접 사진을 선택하고 Norby에게 받은 글을 영문 웹사이트에 올리고 번역해서 한국 웹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영어를 잘 하진 않지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가야가야 팀으로 배정받고 많이 해 봐서 내공이 더 생긴 것 같다. 처음에는 로그인하는 방법도 몰랐다. 번역도 어려워서 계속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번역기랑 단어 사전 다 쳐놓고 9시까지 컴퓨터 부여잡고 공공 대면서 번역했었는데 후에는 영어도 늘고 방법을 알고 나니까 훨씬 더 능숙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

4) World No Tobacco Day 현수막 배너 작업

5월 즈음에 가야가야 팀과 타워빌 팀의 사무실이 합쳐지고 난 뒤 이도 저도 아닌 나는 팀에 상관없이 일을 부탁받았다. Health 팀이 5월 10일에 진행하는 'World No Tobacco Day' 행사의 현수막과 배너를 부탁했다. 포토샵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는 나였지만 한 번 작업하고 나니 언제부터인가 현수막, 브로슈어, 사진 보정 같은 포토샵 작업은 모두 나에게 부탁했다. 총 네 개의 현수막과 배너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미 만들어진 거를 살짝 바꾸는 정도라 작업 자체는 쉬웠다. 근데 Norby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는지 계속 수정을 요구했다. 일이 없었을 차나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완성본이 사실 내 맘에 들진 않았지만 Norby가 만족스럽다면 잘한 거다.



내가 만든 4개의 현수막 중 메인 현수막

+ 돌이켜보면 가야가야 팀에 있었을 때가 인턴십 기간 3개월 중 가장 행복했던 때 같다. 같이 일했던 마크, 놀비, 에릭, 프레스스 모두 유쾌하고 재밌었고 한국인 스텝들 역시 다 좋았다. 필드에 나가면 헬스 센터랑 도서관 자원봉사자랑 서로의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학교랑 근접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해 줬다. 도서관 앞에 있는 칸틴(한국으로 치면 분식집 같은 거다. 분식을 파는 건 아닌데 학교 앞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짬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게 분식집 같다고 생각했다.)에서 뇌부터 발끝까지 열려지는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웨이크를 먹고, 먹을 때마다 아저씨에게 “Not cooked enough”라고 말하지만 매일매일 항상 덜 익은 핫케이크도 먹고, 점심 도시락을 안 싸올 때면 시오마이(만두 같은 것)나 감자튀김을 사서 먹기도 했다.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현자인 스텝과 친했던 기간이다. 친구처럼 매일 서로를 놀리고 웃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일했다. 보고 싶다. 그 친구들이.

3. 타워빌 팀

1) 브로슈어 만들기

가야가야 팀에서 타워빌 팀으로 새롭게 재배치 받았다. 원래 타워빌 팀으로 이동한 건 효진 언니랑 같이 가방 샘플을 만드는 것 때문이었는데, 바로 며칠 뒤에 ‘Igtng Store Opening’ 행사가 있어서 먼저 부영 언니랑 선인 언니가 부탁한 브로슈어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포토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런 부탁을 받아서 당황스러웠다. 오피스에 인터넷만 댔어도 강의 같은 걸 검색해서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했을 텐데 인터넷도 안 되서 효진 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익팅 베이커리 브로슈어를 먼저 만들었다. 당최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일단 선인 언니가 부탁한 대로 빵 사진을 넣고 동그랗게 만들고 대충 나열했다. 그리고 효진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언니가 더 쉽게 하는 방법과 컨셉을 잡아 주셨다. 브로슈어의 컨셉은 ‘Igtng Eeating’이었다. 내가 봐도 기발한 브로슈어 제목이다. 하나 끝내면 효진 언니 찾아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또 그거 끝내면 다시 찾아가고. 내가 이걸 선인 언니를 도와준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효진 언니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 다음 익팅 쇼잉센터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진행했다. 같은 익팅 브랜드인 만큼 컨셉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작업하기가 훨씬 편했다. 후에 angelo가 디자인한 플라이어 까지 총 3장의 브로슈어가 완성되었다. 세 장의 브로슈어를 각 100장씩 컷팅을 해야 했는데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인쇄기가 너무 느려서 컷팅하는 속도를 못 따라왔다. 한 장 자르고 한 장 기다리고.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결국 다 못 끝내고 집 와서 미리 프린터를 하고 행사 당일 급하게 다 잘랐다.

IGTING EATING

*Prices negotiable based on customized orders
 Contact Number 0918 736 2944
 Address
 Lot A-2, Upper Quarry, Brgy. Minuyan,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IGTING MAGANDA

Contact Number 0905 198 9629
 02 781 9296
 Address
 Lot A-2, Upper Quarry, Brgy. Minuyan,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내가 만든 브로슈어. 필리핀에 살더니 필리핀 스타일이 되었나 보다. 지금 보니 되게 촌스럽다.

2) 가방 샘플 만들기

내가 타워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뻔했던 일이다. 7-8월에 있을 비전트립을 대상으로 가방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봉제공장 베스트셀러인 타워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 가방을 더 진화시키고 개발하는 작업을 효진 언니랑 같이 진행했다. 각을 쥐서 만들어 보고, 혈렁하게 만들어 보고, 도시락 가방만큼 작게 만들어 보고, 타워빌 옆에 야자수를 그려 넣기도 하면서 많은 샘플을 만들어냈다.

근데 마땅한 결과물이 없다. 사실 효진 언니가 4월 중간에 가서 갑자기 나에게 일을 주고 돌봐 줄 사람이 없어졌다. 너무 아쉬웠다. 어떻게든 일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재봉틀 자리도 뺏는 것 같고, 캔버스 천도 계속 낭비하는 느낌이라 너무 미안했다. 비전트립도 이제 진행될 텐데 내가 만든 샘플을 사용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



내가 디자인한 가방

3) Feeding program

매주 토요일에는 Feeding program을 진행한다. Feeding program은 방학기간인 4~5월에 유치원과 학교에 가지 않아 굶는 타워빌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나이들과 같이 상을 차리고 아이들을 줄을 맞춰 세워놓고 식판에다가 급식을 담는다.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우유와 밥을 주면 아이들은 “마사랍(맛있다!)”을 외치면서 맛있게 먹는다.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괜히 뿌듯해지는 느낌이다. 급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집에 가지 않고 뒷정리를 도와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다. 너무 착한 아이들.

4) 카탈로그 사진 촬영

봉제 공장 옷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이는 카탈로그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교회 사람들 중에서 모델로 적합한 한국인 3명과 봉제 공장 나나이 딸, 아들 3명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텝 한 명이 모델이었다. 나는 사진 촬영을 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사진 촬영은 예지 언니랑 나랑 동시에 진행했는데 예지 언니는 이미지 촬영을 했고 나는 제품 상세 부분을 찍는 역할이었다.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제품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다른 제품 가져와서 코디도 해보고 사진 샘플 가져와서 보여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는 작업이었다. 단지 토요일에 출근했던 게 짜증났을 뿐. 날씨가 너무 짹짹해서 사진을 찍는데도 계속 그림자가 지는 건 맘에 들지 않았다. 해가 가렸을 때 재빠르게 찰칵! 원래는 상세 촬영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촬영 실력을 인정받아 이미지 촬영까지도 내가 맡아서 했다. 고생했다고 SM에 가서 피자도 먹었다.



내가 찍은 사진들

5) 디비소리아

원단을 구매하러 '디비소리아'에 다녀왔다. 그 전에 디비소리아에 대한 풍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부영 언니랑 나나이가 가신다고 하셔서 살짝 붙어서 따라갔다. 동대문이랑 남대문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해서 정말 그런지 궁금했는데 진짜 비교가 안 된다. 규모에 깜짝 놀랐다. 신기했다. 가게 안에 또 가게가 있고 문을 열고 또 가게를 지나 복도가 나오고 미로 같았다. 처음 가 본 사람이라면 길도 못 찾고 납치될 것 같다.

나나이랑 부영 언니는 티셔츠 천을 더 사려고 갔고 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캔버스 원단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다 더 좋은 질의 캔버스 원단을 찾으려고 갔다. 근데 좋은 걸 찾기도 비싸서 못하고 안 좋은 걸 사자니 너무 얇고 입자가 굵었다. 캔버스 천은 찾지 못했지만 상인들이랑 따갈로그어로 대화하면서 천을 고르는 건 정말 재밌었다.

6) 국토해양연구소 앞치마 작업

국토해양연구소에서 캔버스 천으로 200만원 어치의 앞치마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부영 언니가 가방 샘플이랑 앞치마 샘플 중에 뭐가 더 쉽고 물어봐서 앞치마 샘플이라고 했다. 그래서 앞치마 샘플을 내가 맡았다. 나는 샘플만 만드는 줄 알았지 이렇게 모든 과정 하나하나 도맡아하게 될 줄 몰랐다.

처음에는 어떤 캔버스 천을 사용할 것인지 논의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캔버스 천은 아이보리 색 하나밖에 없었는데 국토해양연구소에서는 어두운 색의 천을 원했다. 부영 언니가 직접 디비소리아에 가서 캔버스 천을 골랐는데 검정색 말고는 어두운 색이 없어서 새파란 캔버스 천을 골라왔다.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 나는 까맣게 몰랐다. 그 천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나나이들이 만드신 앞치마를 보완해서 샘플을 만들었다. 근데 뒤에 앞치마를 고정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꼬아도 보고 벨크로를 붙여보기도 했다. 완성된 내 샘플을 나나이들이 이제 제작하려는 찰나 부영언니가 길이가 너무 짧고 벨크로 하는 부분도 짧아서 넓적하게 보인다고 하셔서 제작을 멈추고 전면 수정을 했다.

근데 또 제작을 하다 보니 앞치마의 파란 물이 너무 빠지는 것이다! 앞치마를 만드는 나나이들의 손이 파란색으로 물들어갔다. 이 사태를 어떡하지. 부영 언니랑 나나이들이랑 고민하다가 빨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멈추지 않았다. 세제를 넣고 빠느냐 그냥 빠느냐를 두고 또다시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세제를 넣으면 앞치마가 얼룩덜룩해 질 것 같다는 나나이들의 의견과 세제를 넣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주장이 부딪혔다. 결국은 세제를 넣지 않고 불려서 빠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

나나이들이 대야에 앞치마를 담고 빠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고 세탁기를 가져와 주셨다. 그런데 이 세탁기가 한국어로 되어있는 세탁기라 나나이들은 설치를 할 수 없었다. 내가 설명서를 읽어도 설치를 못하는 건 똑같았지만 일단 꾸역꾸역 그 좁은 공간에서 세탁기를 넘어 다니면서 설치를 했다.

빨고 나서 다 마른 앞치마는 정말이지 절대 새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냥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결국 200개의 앞치마를 다 다렸다. 하지만 다려도 꼬질꼬질한 것 같아서 한숨밖에 안 나왔다. 다리고 난 다음엔 프린팅을 했다. 캠프 로고는 어디에다 달고 국토해양연구소 로고는 어디에다 달지? 부영언니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했다. 고민한 결과 태그를 아예 안 쪽에 프린팅해 버리고 국토해양연구소 로고는 앞치마 주머니 왼쪽 위에 넣었다.

그 다음엔 포장을 했다.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캠프를 소개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다. 부영 언니가 앞치마의 나나이들의 사진과 "I'm happy to meet you!" 문구를 넣어서 포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나는 쉬울 줄 알았다. 프린터는 아무래도 나를 싫어하나 보다. 사진용으로 사온 두꺼운 종이가 일반 A4용지보다 작은 사이즈여서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빗나가고 선이 맞지 않고 삐뚤어지게 나왔다. 반대로도 넣어보고 글씨를 줄이고 줄여 어떻게든 네모 박스 안에 글씨가 들어가게 만들고 컷팅을 했다. 하루를 남기고 포장에 돌입했다. 다음 날 출국하는 목사님 편으로 앞치마를 보내기 위해선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나나이 글루와 함께 포장을 했는데 갑소사 이번엔 포장 비닐이 부족했다. 그래서 큰 포장지로 돌돌 묶어 포장을 했다. 시간이 오버돼서 4시 반까진 오피스에 가야 셔틀을 탈 수 있는데 5시 반까지 계속 포장한 것 같다. 잘 받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영 언니랑 나랑 같이 해낸 거라 너무 뿌듯하다. 정말 고생했지만 그만큼 내 손길이 많이 닿아있어서 애착이 많이 간다. 힘든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다.



Ⅲ. 필리핀에 다녀온 후

1. 소감

1) 관계

쌤들이 우리를 인턴십 보내는 수많은 이유 중, 새로운 공동체의 조화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 21명은 각기 다른 단체에 갔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관계일 거라고 추측한다. 사실 번역을 하고, 앞치마를 만들고, 창고를 정리하고, 페타일을 붙이는 일들은 일도 아니었다. 제일 힘든 건 관계였다.

오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현지인들과 만남을 즐겁게 여기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올 것.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나나이들(봉제공장 어머님들)의 쏟아지는 관심은 나를 상당히 부끄럽게 만들었다. 혼자서 위축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봉제공장 나나이들, 가야가야 팀 자원봉사자 등 캠프 스텝들 전부를 통틀어서 내가 제일 막내였다. 어리게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용기내서 말을 걸어 보면 대화가 이어지는 건 한 5분? 그 이상으로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들도 나를 어려워했던 건 내가 마음을 온전히 열고 다가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들을 영어며 따갈로그어며 핑계를 대고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냥 막 들이대고 말을 거는 방법이다. 일단은 오피스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괜히 컴퓨터 하는 척 하면서 딴 짓 할 테니까) 봉제 공장에 많이 가있었다. 나나이들 사이에 끼어서 뭐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보고 실밥을 뜯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은 이거다 정도로 가벼운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나나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갑자기 뜯금없이 친한 척을 해도 모든 얘기를 다 받아주셨다. 그냥 정적이 싫어서 건넌 쓸데없는 질문도 기분 좋게 대답해 주셨다. 그런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밥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Fearless다. 즉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공 들어서 인연을 맺고 친해질 수도 있지만 조금은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서 쉽게 관계를 맺는 방법도 있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뭐, 사실 Fearless며 뭐며 아는 척을 해도 나나이들의 따뜻한 환영과 열린 마음이 아니면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진짜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인턴십을 통해 느꼈던 또 다른 점은, 수많은 집 밖 살이, 학교 밖 살이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다. 무빙스쿨이나 교환학생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봐도 새롭지 않았다. 대안교육 어찌고... 유기농 친환경 어찌고... 진보 어찌고내가 찍은 사진들... 그런 사람들 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공감 할 수 있는 사람들뿐이었다.

이번 인턴십으로 호모포비아, 보수 지지자, 종교인(내가 느끼기엔 광신도)을 만났다. 지나가다 '마주친 것'도 아니고 '만났다'. 게다가 3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도 못 봐서인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 갔던 단체는 모두 다 좋을 곳이라는 환상 때문인지 충격이 컸다. 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줄 몰랐다. 소수의 사람이 인터넷으로만 그러는 줄 알았다.

욕을 하려는 게 아니다. 한 주제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건 나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학교에서 야매로 진행되는 토론 같은 게 아닌 진짜 뱃속부터 의견이 다른 사람과!!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머리가 핑할 정도로 강한 펀치를 날려줄 만큼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얘기를 하다가도 가끔씩은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단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반대로 그들이 모르는 사실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의견을 어필했다. 잘못된 정보가 아닌 확실한 정보를 위해 자세히 검색도 해 보고, 고등학생이라 취급하고 무시할까봐 누구의 말을 빌려서도 얘기해 보고, 내 경험을 자세히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의견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내 말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었고, 그들이 내 의견에 동조할 수 있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할 수 있었다.

처음이었다. 정말 그럴 기회가 없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보기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의외였다. 동조하는 척 하며 마음속으로는 험담을 하거나,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알았다고 하며 넘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창피해하지 않고 혹시 미워할까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얘기했고 그들을 설득시켰다. 학교에서 했던 수많은 실습과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이제 곧 학교를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지 조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자신감이 생겼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2) 일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내가 이만큼이나 컸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었다. 300만원이나 드는 돈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엄마 때문이라도 나는 3개월 동안 시간 낭비 돈 낭비 없이 많은 걸 경험하고 왔어야 했다. 어떻게 보면 300만원을 주고 경험을 산 것과 다름없으니까.

하지만 당장 출국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언제 출국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같이 교육받았던 언니들은 정해주시 않아도 전공과 관련된 임무를 받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나는 내가 어떤 임무를 맡을지 몰랐다. 캠프는 가봐야 알게 될 것이란 말을 반복했고 나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불안함과 초조함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가봐야 알게 될 것이란 캠프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출국하고 난 후에도 불안함과 초조함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냥 방치되었다.

초반 2주 적응 기간을 끝내고 가야가야 팀에 있을 때는 이런 초조함이 없었다. 가야가야 팀에는 팀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어 나에게 끊임없이 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 의문이 들었다. 봉제 공장을 보고 캠프에 왔던 것인데 재봉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야가야 팀으로 배정을 받은 걸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효진 언니와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타워빌 팀으로 재배치 받았고 나는 그렇게 방치되었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아무것도 없었다.

핑계를 대보자면 나를 지도해 줄 멘토가 없었다. 공식적인 멘토는 목사님이었지만(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서 감히 투정부리기도 미안했다. 고작 19살짜리 인턴이었다.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공동체 속에 내가 끼어들 곳은 없었다. 재봉을 배우고 싶어요! 라며 봉제 공장에 왔지만 몇 년씩 재봉틀을 만지신 나나이들에 옆에서 나는 계속 작아져갔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내가 욕심을 부렸다. 이만큼의 돈을 투자하고 왔으니 이 정도의 욕심은 부려도 되겠지? 라는 합리화가 문제였다. 그냥 나는 인턴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었다. 가야가야 팀에 있을 때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했다. 캠프로선 공석을 메우기 위해 그 일을 줬던 건데 이해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렸다. 그리고 타워빌 팀으로 옮겨 났더니, 받아놓 고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캠프를 원망했다.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저였으면서.

나는 겁이 났었다.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탄탄한 공동체에 겁 없이 발을 디뎠다가 어울리지 못하는 나를 보며 소속감을 느끼 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자신을 깎아내리며 공동체와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혼자서 나를 가두었다. 그리고 가둬진 곳에서 생각했다. 처음에 캠프로 온 목적이 뭐였지?

그냥 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난을 혼자 헤쳐 나가고 싶었고, 무언가에 성취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해외 인턴십의 목적이 될 순 있어도 캠프에 온 목적이 될 수 없었다. 한 마디로 나는 목적이 없었다. 뚜렷하지 않은 목적은 나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원래 인턴십 단체를 결정하기 전에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내가 채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무게 있게 고민해보고 선택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나는 인턴십이 끝난 후에 내 부족함과 채워야 할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정면 승부를 두려워하고, 거 짓말을 자주 하고, 거만하고, 끝맺음을 못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자신의 미숙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 인턴십은 실패했지만 이 인턴십을 통해 나에게 자그마한 변화가 왔다. 조금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3개월 동안 내 부족한 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나는 정말 창피했다. 그리고 후회했다.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 못되는 나의 거침없이 돌진하는 성격이 이런 실속 없는 인턴십을 만든 것 같다. 진중한 성격이 되어야 했다. 돌다리를 건너더라도 수십 번 두드려보고, 작은 돌다리 에서 건너는 연습도 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변화했다. 돌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숨을 잠시 고르고 천천히 출발하는 사람으로. 자신 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의 인턴십은 실패도 성공도 아닌 자신을 완숙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구멍투성이지만 이 발돋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완숙해지 면 나의 인턴십은 성공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2. 결산

1) 결산을 하기 앞서

나는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줬기에, 필리핀에서 정말 풍족하게 생활했다. 곳곳에 들어간 생활비나 사치스러운 짓에 쓴 돈 은 정산하기가 어려워 생활비로 묶였고, 비자 연장비와 노트북 값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반올림했다. 결산은 '후에 인턴 십을 나가게 될 후배들을 위해 쓰는 거'라 하셨는데 내 것은 참고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심으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서 예산에 맞는 지출을 했으면 한다. 나처럼 하지 말고...

2) 한화

비행기 712,400원

여행자 보험 69,870원

노트북 500,000원

주거비, 식비, 교통비 1,200,000원 (월 400,000원)

3) 페소

비자연장비 ₩11,500 (1차연장 ₩3,500 2차연장 ₩8,000)

병원비 ₩1,250

생활비 ₩15,000 (월 ₩5,000)

3. 덧붙여서

+ 봉사란 뭘까.

사실 이 부분을 넣을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쓰자니 너무 창피하고 안 쓰자니 중요한 점을 빼 것 같고. 인턴십을 썬다지 했어도 보고서에 표현이 안 되면 아무도 못 알아준다는 선호쌤의 말씀에 창피함을 감수하고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봉사에 대한 생각을 조금 써볼까 한다. 기승전결 없이 그냥 주저리주저리.

나는 봉사를 하러 갔지만 내 머릿속에 봉사라는 개념이 없었다. ‘해외’라는 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영어, 봉제 공장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낮은 자세고 배려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마냥 설렘 ‘해외 간다 룰루’ 상태였다. 가기 전에 봉사에 대한 개념 정리도 없었고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자료 조사도 안한 상태였다.

때로는 한국 사람을 우월하게 보는 환경 때문에 거만했던 적도 있다. 마카티라는 부자 동네에 주말마다 나가서 브랜드샵에 들어가 환영해주는 시선을 즐기기도 하고, 엄마가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줬기에 물가가 싼 필리핀에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는 싼 거야!’라며 돈을 펄펄 쓰기도 하고, 뷔페며 고급 식당에 들어가서 700페소짜리 밥을 먹기도 하고, 집 옆에 있는 스타벅스는 퇴근하면 무조건 들렀다. 정리하자면, 나는 말마따나 ‘된장녀’ 생활을 한 거다.(정말 창피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리고 번뜩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나 이러라고 썬다지게 돈 벌어서 보내준 거 아닐 텐데.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깨닫고 난 후 필리핀의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바라봤다. 필리핀이 다르게 보였다. 저 ‘된장녀’ 생활로 필리핀의 빈부를 격하게 느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자원봉사자로 그들과 함께했지만 봉사에 대한, 그리고 캠프의 존재에 대한 의아함이 계속해서 들었다.

처음 느꼈던 것은 왜 굳이 봉사를 해야 되나 였다. 우리나라는 돈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필리핀은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다. 타워빌 사람들은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보이는데 한국식 자본주의 발상으로 돈이 없으니 불행할 거야라는 생각이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에게겐 가족과 있는 시간을 빼는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캠프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남은 타워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였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타워빌에 사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캠프의 도움을 받고 있다. 나나이들은 봉제 공장이랑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고, 따따이(아버님)들을 건축 노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Feeding program으로 밥을 먹고 있다.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자치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한국인들한테 너무 기대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스텝들은 오래 일해 봤자 2년이다. 2년 지나고 떠나 버리면 그 공석을 누가 메울 것인지 걱정이 된다.

세 번째로 생각한 건 수많은 누군가의 수많은 NGO가 필리핀에 와 있지만, 필리핀의 지금 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미하다는 것이다. 디비소리아에 들렀을 때, 나나이들이 바늘을 사러 가셨고 나는 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DVD를 파는 아저씨를 봤다. 매대를 천으로 감싸놓고 매대 밑에서는 아이한테 분유를 주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아빠는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아기를 달래줬다.

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디비소리아는 정말 더럽고, 냄새도 심하고, 공기 역시 안 좋다. 나는 잠시 들린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었는데 아이는 매일매일을 거기서 지낸다. 그 상황에서 빈부가 개선될 거라는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저렇게 지내다가 병나고, 교육 못 받고, 밥 못 먹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한 건, 그래도 캠프 같은 NGO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힘을 써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캠프가 떠나면 어떡하지, 가족과 있는 시간을 뺏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쓸데없는 고민은 그 후에 하는 거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빈부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이 많다. 인턴십을 다녀오고 충격적인 빈부를 목격한 후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걸거나 할 때 그 전엔 몰랐던 빈민촌, 사회활동가, 시위 현장, 복지센터, NGO의 간판이 새롭게 보인다. 국가가 해 주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걸 깨닫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걸 필리핀까지 갔다 온 후에야 깨닫다니. 이 세상에는 쉽게 간과하고 넘기는 게 너무 많다.

++ 인턴십 제안 사항

목적을 분명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활동계획을 사전에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다. 목적을 잃는 순간 방향도 같이 잃게 된다. 무엇보다도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진로프로젝트에서 사무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번 진로프로젝트에서 한 수업은 그렇게 인턴십과 연관되지 않았다. 엑셀이나 워드, PPT 같은 걸 배우는 게 훨씬 인턴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같은 부류의 단체로 나가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디자인 조, 시민단체 조, 봉사 조, 예술·문화 조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제안이다. 나로서는 이번 진로프로젝트가 많이 심심했으니 참고하면 훨씬 풍성하고 인턴십의 도움이 되는 진로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건 돈에 관한 문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기엔 돈 부담이 너무 크다. 차비, 식비, 집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인턴십을 하는 애들은 주거비도. 단체에서 따로 페이를 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마당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인턴십을 해외로 나간 애가 이런 말하는 게 웃길 수도 있다만 무빙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며, 친구들을 보며 늘 생각해왔던 거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 제목의 비밀

최근 인터넷에서 본 줄임말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신조어가 하나 있다. 'OO 인생 OO 알아서'의 줄임말인 'O인O알'. 저 줄임말이 재치 있고 누구 이름을 붙여나도 감겨서, 살짝 변형해 인턴십 보고서 제목으로 활용했다. 인생을 인턴십으로 바꾸고 OO 칸에 제 이름을 넣으니 '수정 인턴십 수정 알아서'가 되겠다.

선배들의 인턴십 보고서 자료집을 훑어보다가 재치 있는 보고서 제목을 발견하면 실실 웃음이 터지고 제천간디학교만의 장난스러운 매력이 보여 좋았다. 원래는 이 제목을 록리한테 추천해줬는데 '록인록알'이 '로그인 로그아웃' 같다면서 거절했고, 아쉬운 마음에 내가 물었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나를 신경써 주지 않았던 캠프를 향한 소심한 디스랄까. 하하

밥퍼 줄게 이리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1.15~4.29

남궁홍

목차

1. 해외 인턴을 생각한 동기
2.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기 전 준비
3. 캄보디아
 - 3-1. 우기
 - 3-2. 건기
4. 다일공동체
5.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6. 친해지기
7. 밥퍼
 - 7-1. 수제 햄버거 만들기
 - 7-2. 프놈펜 밥퍼
8. 밥 먹기
9. 설거지, 청소
10. 빵퍼
11. 주일예배
 - 11-1. 프놈 끄라움 예배
 - 11-2. 쓰룩부억 예배
12. 아동결연
 - 12-1. 거저 축제

13.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다녀와서
14. 인턴십 시간표
15. 결산
16. 사진

1. 해외 인턴을 생각한 동기

나는 작년 필리핀으로 평화여행을 가서 어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이들 나이가 적으면 2~3살 많으면 7살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비록 말은 안 통했지만 아주 짧은 영어 실력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빈곤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침 다일공동체라는 봉사단체를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만 활동 하는 게 아니라 해외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다일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껴 나도 같이 일하고 배우고 싶어서 이 단체를 선택하게 됐다.

2.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기 전 준비

예전부터 외국으로 봉사 가는 것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어서 캄보디아 다일에서 와도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냥 좋기만 했다. 그러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다일공동체에 대해서 알아갈 수록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캄보디아의 날씨, 인구, 문화, 캄보디아 화폐, 음식, 크메르어 등 온갖 것들을 검색해 보고, 언어도 영어보다는 현지어인 크메르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기본 문장들부터 숫자, 호칭 등을 프린트해서 틈나는 대로 보고 외우면서 방학하기 전까지 혼자 정신없이 지냈다.

방학하고 나서는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 내 멘토 역할을 해주신 이애리 실장님이라 궁금한 점들을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다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청량리역에 있는 다일천사병원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그 때까지 언제 갈지 날짜를 못 정해서 고민이었는데 같이 가는 간사님이 계신다고, 그 분이랑 일정 얘기하고 다일에서 티켓이라 날짜랑 정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 밖의 것들을 준비했다. 다일천사병원 방문 이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정말 정신없이 준비했다.

그러다가 1월 초에 실장님이 1월 15일이 출국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게 되었다.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출국 날짜를 들으니까 마음이 다급해지고 출국 날이 다가올수록 다신 안 돌아올 사람처럼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구나, 동생이라 장난칠 때도 마지막 장난이구나.... 모든 일들이 다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출국 하루 전날에는 짐을 몇 번씩 짚다 풀었다를 반복하다가 거의 밤을 새고 당일에는 식욕도 떨어져서 엄마가 오골계 백숙을 해줬는데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이었다.

공항에서 같이 가시는 지원 간사님을 만나서 짐을 붙이고 5시 비행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앉아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3시 30분쯤 헤어져서 지원 간사님이라ugh 면세점을 돌아다니고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얘기를 나눴다. 지원 간사님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초창기에 지금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님인 김학용 원장님과 2007년에 1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 그 때 다녀온 후로 6년 만에 다시 가는 거라서 센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자랐는지 엄청 궁금하다고 하셨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어서 캄보디아로 가는데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전날 밤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캄보디아로 떠났다.

3.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정식 국가 명칭은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이다. 수도는 프놈펜(Phnom Penh)이고 민족은 크메르족,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이 있다. 언어는 크메르어, 불어, 영어를 사용한다. 화폐는 리엘이라고 하고 1달러 당 4천 리엘이라고 한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두 시간이 느려서 초반에는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개운했다.

3-1. 우기

캄보디아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 우기에는 하루에 한차례씩 비가 오고 일반적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우기가 지속된다. 인도 쪽에서 불어오는 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이라고 한다. 비는 한 시간 가량 물폭탄을 퍼붓듯이 쏟아붓는데, 비가 오고나면 대지가 시원해진다. 공기도 깨끗해지고 기온도 많이 내려간다. 재미있는 것은 비오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5월 중순에는 오후 늦게 비가 오고 이주일에 2~3일 정도 비가 온다.

그러다가 7~8월에는 점심때쯤 비가 온다. 그리고 9월에는 오후 3~4시쯤에 비가 온다. 9월말부터는 저녁에 비가 오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한밤중에 비가 오며, 새벽까지 오게 된다. 이때 바람의 방향을 살펴보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아스팔트에 물이 차면 가끔씩 물고기들이 헤엄쳐가는 재미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일 스태프들은 비가 많이 온 날 오토바이를 타면 정말 재미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은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그 즐거움은 느낄 수 없었다.

3-2. 건기

건기는 1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인데 비는 거의 오지 않는다. 이중에서 12~1월은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와 비슷하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어떤 경우에는 쌀쌀하다. 내가 1월 초에 갔을 때는 새벽에 추워서 잠에서 깬 적도 많았다. 꼭 겨울에 기숙사 다락방에서 자다가 새벽에 추워서 깨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거의 3주 동안은 이불을 두 개씩 덮고 자야 했고, 숙소에서 같이 지내는 크마에 스태프는 전기장판까지 들고 잔다고 했다. 캄보디아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드라이브 하러 저녁에 오토바이를 탈 때 뒷 모르고 반바지를 입었다가 정말 추워서 혼났다.

그러다 3월부터는 폭풍 쪼다. 비도 오지 않으면서 대지는 뜨겁게 달구어진다. 그리고 망고, 두리안 등 열대과일이 가장 싸고 맛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때는 캄보디아 과일들은 대량으로 재배하는 과수원이 거의 없다. 각 집 마당에 과일 나무를 심어 놓고 재배하는데 농약도 살포하지도 않는 완전 유기농이다. 숙소 옆에도 망고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노란 망고가 되기 전 그린 망고가 되었을 때 좀 따서 망고 김치를 해먹거나 심심할 때 따 먹기도 했는데 새콤달콤하고 엄청 상큼한 맛이였다.

4월에는 참지 못할 정도로 덥다. 4월의 기온은 40℃ 안팎이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저절로 나는 달이다. 너무 더워서 정신까지 놓게 된다. 땅은 뜨겁게 달구어져 있고, 집들은 태양에 달구어져 보기도 안쓰러울 정도이다. 이때는 밥퍼 하면서 파만 썰었을 뿐인데도 땀이 목을 타고 흐를 정도로 더웠고, 12시만 지나면 공기도 엄청 뜨겁고 심지어 물탱크마저 뜨겁게 달궈져서 설거지하려고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더운지 밥퍼에서 점심 먹고 집에 가면 밖으로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조그만 아이들은 울 누드로 뛰어 다니면서 노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센터에 같이 계시던 간사님은 캄보디아의 날씨를 좀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엄청 더운 날씨, 짭 더운 날씨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다 4월 말부터는 비가 와서 조금은 시원해진다고는 하지만 스태프들은 항상 덥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날씨도 한국 날씨보다는 아니지만, 한국이 추우면 캄보디아의 날씨도 선선해져서 한국이 추울 때가 캄보디아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다.

4. 다일공동체

다일이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다일공동체의 설립 정신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의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실천하자는 것이다.

5.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굶주림으로 국경을 넘어와 베트남에 노숙하는 캄보디아 아이들과 최일도 목사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04년 3월 14일 설립·개원하였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킬링필드에 인접한 프놈펜과 씨엠립에서 집단 빈민촌 결식아동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KB다일천사클리닉'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기초적인 진료와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T&G다일수상 유치원', '샘물다일유치원', '다일체육관', 'KB다일도서관'을 열었다. 2011년에는 '다일코이카 조선소'를 개원하여 수상빈민촌 지역주민들에게 배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유지 수단 및 아이들의 통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아시아의 청년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실천현장교육을 통해 섬김의 리더로 성장하는 장이 될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웠다.

다일공동체를 통해 캄보디아 땅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더욱 새로워졌고, 그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었다. 아시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해외다일공동체 가운데 가장 활약이 큰 NGO로 나아가고 있다.

6. 친해지기

내가 원래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 아이들이랑, 사람들이랑 빨리 못 친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첫 날에는 할 줄 아는, 쭈어 쓰다이(안녕), 싸얏(예쁘다), 성하(잘생겼다), 엇때(안 돼), 네약 츠무 어바이?(넌 이름이 뭐니?) 라는 말로 스태프들이랑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지냈다.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쓰는 단어를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매일 책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얘기하고 그랬다. 2주일 동안은 아이들이랑 친해지려고 쉬는 날에도 센터에 나와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아이들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외우면서 지냈다.

아이들이랑 친해진 이후로는 매일 봉스라이(언니, 누나)흥! 이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도 있었다. 특히 쪽이라는 네 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쪽은 나를 너무 좋아했다. 처음 센터 와서 아이들이랑 놀 때도 쪽이 처음 보는 나를 거리낌 없이 다가와 안아줬다. 쪽은 집이 센터 바로 앞에 있어서 내가 밖에서 놀고 있거나 설거지할 때면 매일 달려와서 다리에 붙고 매달리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스태프들이 쪽만 보면 나한테 데려다 줬다.

스태프들이랑은 본격적으로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센터 밖에서 만나는 일도 많아졌다. 현지 스태프랑 8시간 동안 모토 타면서 놀거나 밥퍼 스태프들끼리 바라이라고 사람이 직접 땅을 팠다는 인공호수에 가서 놀고, 저녁에 모토 타고, 앙코르와트 석양 구경도 가고 그랬다. 앙코르와트는 오후 5시 넘어서 가거나 현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앙코르 톨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

아이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친해지고 나서는 토요일 쉬는 날이나 일찍 퇴근하는 날이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졌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캄보디아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현지 스태프들이나 아이들이 지내는 환경을 알게 되고, 아이들의 성향을 알게 되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쁜이 호아



나를 너무 좋아했던 썩!!

7. 밥퍼 (밥퍼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밥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밥퍼에는 냉장고가 없다. 냉장고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가 없다고 한다. 내가 밥퍼에서 한 일들은 모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었다.

계란 200개를 까서 계란 지단을 몇백 장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부쳐보고 계란말이를 혼자서 500인분을 만들고 썰고(군대에 서도 많아야 200인분이라는데) 음식 준비도 11시 30분까지는 해야 했다. 진짜 고도의 집중력으로 크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고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속까지 잘 익혀야 했다. 거의 한 달 동안은 처음에 기본으로 계란 200개를 까고 시작했다.

그래서 주방 갔을 때 계란이 보이면 몸이 먼저 계란 요리를 할 준비로 프라이팬 세 개 준비, 식용유 퍼놓고 도마 두 개, 칼 두 자루, 뒤집개 준비를 했다. 계란말이 만들 때는 뒤집개보다 숟가락 두 개만 있으면 각 잡힌 계란말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도 계란 요리는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는 시기인 1월~3월 초까지만 거의 계란 요리를 했다. 계란 요리를 하는 날에는 토마토와 닭고기가 들어간 국이 같이 나오는데, 국에 토마토가 들어가서 먹기 두려웠지만 먹어 보니 굉장히 신선한 맛이였다.

계란 까기 다음으로 했던 일은 파 썰기였다. 파는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 메뉴에 맞게 송송 썰기와 큼직하게 썰기를 했다. 파 씻을 때는 수도가에서 씻는데 수도가 높이가 좀 낮아서 허리를 숙이고 씻어야 했다. 밥퍼를 하면서 칼질하다가 손 베어서 아픈 것보다 뜨거운 불 앞에서 계란 요리하는 것보다, 500인분의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파 씻는 일이 허리가 아파서 제일 힘들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다.

파 다음으로는 마늘도 모든 요리에 들어가서 두 접 까고 다지는데, 절구통은 잘 안 쓰고 정육점에서 쓰는 넓은 칼로 마늘을 다진다. 다지고 나면 손끝이 얼얼하고 손에 배인 마늘 냄새는 웬만해서는 안 없어지고 머리를 감아야지 냄새가 사라진다. 아이들 후식으로는 거의 수박이 많이 나왔는데 수박이 한국 수박처럼 크지 않고 큰 토마토를 다섯 개 붙여놓은 크기다. 자를 때는 껍질을 다 벗기고 자른다.

그 밖에 바이 사찌룩과 바이 차라는 음식이 있는데, 만들기도 간편해서 봉사자분들이 없을 때 많이 하는 요리다. 바이 사찌룩은 돼지고기를 간장에 졸여서 잘게 썬 계란 지단과 오이를 밥 위에 얹고 간장과 칠리 소스를 뿌려서 먹는 덮밥 같은 음식이다. 바이 차는 캄보디아식 볶음밥인데 만들기가 간단하고 계란도 따로 요리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 바이 차 역시 간장과 칠리 소스를 뿌려서 먹는데 향신료를 잘 못 먹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밥 볶을 때 커다란 솔에다 넣고 볶기 때문에 팔 힘이 엄청 들어간다. 캄보디아식 카레도 있는데, 카레가 걸쭉하지 않고 묽어서 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파인에

플이 들어가서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닭죽과 똑같은 범버라는 음식이 있는데, 범버를 만들 때 닭날개만 사용하는지 생닭 날개를 씻는 일을 했다. 요리되지 않은 닭은 처음 만져보는 거여서 만지기도 꺼려했다. 씻다가 가끔씩 피가 안 빠져있는 곳이나 털이 안 뽑힌 곳이 있으면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기겁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닭 털 뽑는 재미로, 남아있는 닭 피 짜내는 재미로 손질을 했다. 주방장인 슬레이머이 손질된 닭 날개를 무랑 같이 푹 삶아서 건져주면 스태프들이랑 손으로 고기를 잘게 찢는데 찢다가 가끔 스태프들이랑 하나씩 먹고 그랬다. 맛은 백숙이랑 똑같지만 일하다가 몰래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밥퍼 메뉴는 아니지만 센터 대청소를 하거나 가끔 빵퍼에 빵 4000개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슬레이머이 그린 망고로 만든 망고 김치랑 말린 가자미 튀김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맛있었다. 특히 망고 김치는 너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서 슬레이머한테 한국에서도 만들어 먹으려고 망고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다. 한국에 노란 망고는 많은데 그린 망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너무 먹고 싶은데 아직도 못 만들어 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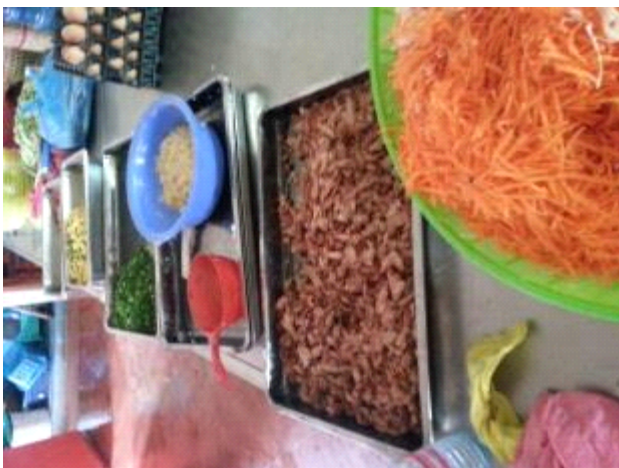
밥퍼도 처음에는 잦은 실수로 밥퍼 스태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민폐를 끼쳤지만 한 달 지나니깐 몸에 배었는지 완전 적응을 해서 간사님들한테 칭찬 같은 소리로 현지 스태프 같다는 소리도 들었다. 아마도 현지 스태프들처럼 일을 잘 한다는 소리인 것 같다.



바이 차



바이 사찌룩



재료 준비



재료 준비하는 슬레이머



범버 만들기



계란 요리



바이 차 만드는 론

7-1. 수제 햄버거 만들기

언제는 수제 햄버거 만들기를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이 캄보디아 다일 아이들한테도 햄버거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오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부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550개를 목표로 하고 만드는데 양상추가 없어서인지 비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상추 대신 상추를 사와서 했다. 상추가 싱싱하지 않고 상추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상추였지만 상추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햄버거 패티도 직접 만들고, 소스도 직접 만들고, 빵도 빵퍼 스태프들이 만든 모닝 빵으로 사용한,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재료를 수제로 만들었다. 토마토 대신에는 사과를 사용했다. 빵 위에 소스, 고기, 소스, 상추, 사과, 빵을 올리고 호일로 싸서 아이들이 먹기 쉽게 반으로 잘라 봉지에 음료수 한 병, 햄버거 하나 해서 딱 550개를 만들었다.

그 날은 배식 방법도 다르게 했는데 아이들은 앉아 있고 스태프들이랑 직접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했다.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찬송가 부르고, 진지기도 드리고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가는 식으로 배식을 했다. 그런데 햄버거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스태프들도 가족 수만큼 가져가고 우리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햄버거 패티 만드는 봉 슬라이펠라~~~



소스 바르기~~



햄버거 세팅~



햄버거를 기다리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나누어 주는 리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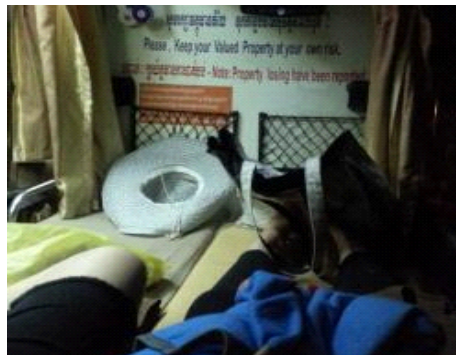
햄버거 받고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

7-2. 프놈펜 밥퍼

당일치기로 프놈펜 밥퍼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나이트 버스로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침대 버스를 타봤다. 생각보다 아늑하고 정말 괜찮았다. 오전에 밥퍼하고 밤늦게 타서 그런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프놈펜으로~



나이트 버스 안

프놈펜은 확실히 도시여서 그런지 높은 건물도 많고 정말 도시 같았다. 시엠립은 앙코르와트보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서 고층 건물은 본 적이 없었는데, 프놈펜은 사방에 고층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프놈펜이 서울이면 시엠립은 경주 같은 느낌이었다. 프놈펜 현지 스태프가 데리러 와서 툭툭이 타고 가는데 프놈펜 밥퍼는 시내에서 30분 정도 들어가서 좀 외진 마을에 있었다. 그런데 시엠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길거리 노숙자가 정말 많이 있었고, 주변에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곳도 많았다. 길거리 경찰들도 모두 총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다.

프놈펜 밥퍼의 크기는 시엠립 밥퍼의 반 크기였고 따로 기도하는 공간도 없어서 기도도 서서 하고, 식당도 없고 그냥 주방 앞에 유아용 식탁 몇 개가 다였다. 주방도 크기는 작았는데 주변이 뚫려있고 산이 많아 환기가 잘 되서 음식하면서 힘들지 않고 좋았다. 그리고 바이 차 만드는 방식도 좀 달랐다. 우리는 밥을 볶으면서 계란을 넣었는데 여기는 고기든 계란이든 한 번씩 다 볶아 놓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볶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확실히 좋았던 건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는 설거지든 청소든 마지막에 한꺼번에 했는데 여기는 중간 중간 설거지, 청소까지 병행하면서 하니깐 확실히 보기에도 깔끔하고 일하기도 수월했다. 음식 만들면서 따로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주방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식판에 음식 담는 일도 도와줬는데 일을 야무지게 잘 해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밥을 모두 나누어주고 설거지를 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다. 비 온지 거의 20분 만에 주변에 물이 가득 찼고 거의 두 시간을 쉬지 않고 폭우처럼 비가 왔다.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라 오는 거라고 하는데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했다.

밥퍼 하면서 이렇게 땀을 거의 안 흘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재료 손질할 때부터 덥고 땀나고 그랬을 텐데 아이들 수가 적어서인지 날씨가 시원해서인지 평소 쓰는 에너지의 반의 반도 안 쓴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일을 해도 일한 것 같지 않은 기분이었다. 밥퍼 끝나고 프놈펜 시티 투어 하고 다시 나이트 버스로 시엠립으로 돌아왔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시에서 시골 내려온 것 마냥 마음이 땥 뚫리는 기분이었고 빨리 프놈 끄라움 꼬맹이들이 보고 싶었다.



배식



진지기도 드리기



어꾼 브레아 예수~

8. 밥 먹기

11시 30분부터 아이들한테 밥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 스태프들이랑 식당에 식판 하나 하나, 그릇 하나 하나에 음식을 담기 시작하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배식을 시작하는 줄 알고 손을 씻고 식당에 오기 시작한다. 집이 멀어서 오기 힘든 아이들은 다일 트럭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프놈 끄라움 마을에서 아이들을 데려 오고 데려다 주고 있다.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아이들이 저 멀리부터 동생을 안고 뛰어 오는 아이부터 훌쩍 벗고 뛰어오는 아이 등 밥을 먹으려고 하던 일을 미루고 오는 아이도 있다.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500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당에 모두 모이면 너무 많아서 열두 테이블을 다 앉고도 식당 뒤편까지 뻗뻗하게 앉을 정도다. 밥을 먹기 전에는 초등학생 아이들 몇 명이 나와서 찬양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현지 스태프랑 같이 찬양을 부르고 진지기도를 드린 후 배식을 시작한다.



찬송가 부르기



진지기도 드리기



식판에 밥을 푸는 봉사자 분들

배식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아이한테 “어꾼 브레아 예수(감사합니다 예수님)”라고 말하면서 밥을 나누어 준다. 무릎 꿇고 밥을 나누어 주다 보면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볼 수 있어서 좋다. 원래는 다른 스태프들이랑 간사님들이랑 교대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가끔 모두 바빠서 교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이들 스무 명쯤 하다 보면 발이 저려서 끝날 때쯤엔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다리에 감각이 없는 채로 계속 하다가 설거지해야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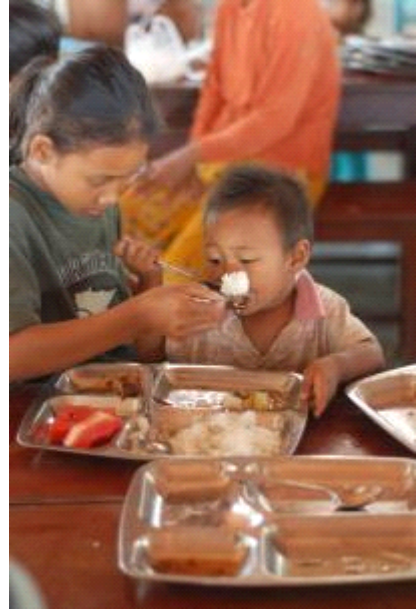
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밥은 잘 먹는지, 못 먹으면 옆에서 도와줬다. 비닐봉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몫을 가져가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간다는 거였다. 한 사람 당 1인분씩 밥을 주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나누어 먹기에는 적은 양인데,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자기 몫을 나누어 가져가는 모습이 왠지 대견하기도 하고 짝하기도 하고 항상 볼 때 마다 마음이 먹먹했다.



밥 먹는 다윗



혼자서도 잘 먹는 쓰~



쩜라 밥 먹여주는 네약사~



어꾼 브레아 예수~~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



식당을 꽉 채울 정도로 줄을 서 있다.



물 마셔야징~



9. 설거지,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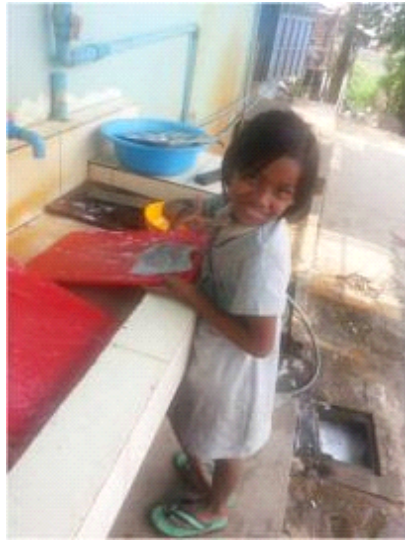
설거지에는 세 가지 룰이 있다. 첫 번째는 음식물 걸러내기 작업으로 비누 물을 푼 큰 대야 하나와 두 개의 소쿠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소쿠리에는 잔반을 버리고, 나머지 소쿠리에는 수저는 따로 모아두고 간단하게 그릇을 물에 담갔다 빼는 과정이다. 초반에는 느긋하게 그릇을 하나씩 담갔다 빨 수 있지만 점점 아이들이 몰려올 수록 대야에는 물보다 그릇이 더 많아지고 물 깊숙이 있던 그릇이나 식판은 서로 붙어서 잘 안 빠져서 힘들다. 식판은 모양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예쁘게 쌓아 두기가 힘들다. 마지막에 물 버릴 때는 잔반 소쿠리를 밑에 받치고 물을 버리는데 남은 음식이 엄청나게 나온다.

잘 먹는 아이들도 많지만 편식이 심하거나 입이 짧은 아이들은 음식을 많이 남겨온다. 차라리 싸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아이들도 별로 없다. 아이들이 밥을 직접 퍼가는 게 아니라서 양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다. 가끔씩 죽이나 볶음밥이 나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남은 음식을 개들이나 닭들이 먹긴 하는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만든 음식이 버려지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진지기도 하기 전에 음식

남기지 말라고 매번 말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



첫 번째 과정



설거지 도와주는 예쁜 스라이 빼아



설거지 하시는 학생 봉사자 분들

두 번째로는 수돗가에서 비누칠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릇들을 날라주고 나머지는 비누칠을 한다. 이때 물을 틀 수 있는 사람은 숟가락을 씻는 사람만이다. 정말 설거지하면서 그릇들로 거의 네 살 된 아이 키만큼 그릇들로 탑을 쌓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세 번째 과정으로는 헹구기 과정이 있다. 아이들이 그릇을 날라주면 두 개의 대야에 한 사람이 그릇의 비눗물을 제거하면 한 사람은 그릇을 맑은 물에 헹구는 작업이다. 그릇 헹구기를 할 때는 작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준다. 근데 항상 설거지를 할 때마다 훌쩍 젖어 있어서 그릇 나르다가 젖은 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일부러 자기 몸에 물을 묻히면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물놀이를 하는 거였다. 심지어는 샤워까지 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 외에는 음식 만들 때 사용했던 조리도구들을 설거지하면 하루 설거지는 끝이다. 매일 수북이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한다.



그릇 옮겨요~



그릇 헹구기~





물놀이인지 설거지인지



군말 없이 도와주는 아이들 너무 예쁘다~

청소는 아이들이 밥 먹은 식당이랑 식당 주위를 청소한다. 빗자루로 식탁 쓸고, 바닥 쓸기를 한다.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만 먹는 게 아니라 놀면서 먹고 불량식품을 손에 들고 와서 바닥에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비질을 할 때마다 쓰레기가 엄청나다.

그리고 비질할 때 밥은 그래도 잘 쓸리는데 국이나 죽은 질척거리고 쓰는 건지 바닥에 바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안 쓸리고 평소보다 힘이 배로 들어간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배고픈 개들이나 닭들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면서 구석에 박혀 있는 음식물까지 깔끔하게 치워준다. 좀 큰 아이들은 물 튀기는 설거지보다 비질을 더 좋아해서 비질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잘 도와준다. 작은 아이들은 빗자루가 자기보다 더 커서 빗자루가 굉장히 벅찬지 하다가도 은근슬쩍 놓고 설거지 쪽으로 가 버린다.



자기보다 큰 빗자루로 청소하는



쩜므라

10. 빵퍼

빵퍼는 원거리 빈민촌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빵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영양개선 및 캄보디아 자조 그룹의 자활 훈련(제빵 기술)과 교육을 통한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빵퍼는 현재 프놈펜 밥퍼, 시엠립 인근 초등학교 등 매주 여러 곳에 빵을 납품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프놈 끄라옴 아이들과 쓰록부억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빵을 만들고 있다. 빵퍼에서는 모닝빵, 도넛, 소보루빵, 바게트빵, 팔빵을 만들고 있다. 첫 출근 날 밥퍼 하다가 빵퍼 빵을 얻어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다. 빵 속은 엄청 부드럽고 특히 소보루 빵을 제일 좋아했는데 소보루도 골고루 많이 묻혀있고, 속도 부드럽고, 크기도 컸다.

언제는 합창대회 때 쓸 소보루 빵 40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들 동안 하루 종일 소보루 빵을 만들었다. 빵퍼 스태프랑 같이 소보루 고명을 만드는데 그때 처음 소보루 고명에 땅콩버터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웬지 모를 충격을 받았다. 소보루 고명 만들면서 내가 살핀 이유를 알아냈다. 빵에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땅콩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설탕, 밀가루까지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처음 센터 출근했던 날부터 거의 몇 달을 밥 먹으면 후식으로 소보루빵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도 소보루빵이 너무 맛있어서 끊지는 못했다. 내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다 보니까 빵 4000개를 만들면서 계속 맛있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리고 빵퍼에는 웬지 모르겠지만 스태프들이 모두 여자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에 눌러서 쉽게 못 다가갔다. 그러다가 소보루 고명 만들면서 어설픈 크메어어 실력으로 얘기했는데 모두 나보다 한 살 아니면 네 살 차이 밖에 안 나는 내 또래였다. 얘기 주제는 거의 남자 스태프들 뒷담화 아니면 연애 얘기로, 센터 와서 정말 오랜만에 내 또래와 얘기하는 거였다. 생각해 보면 빵퍼 스태프들이랑은 소보루빵 덕분에 친해진 것 같다.

예전에 봉사자분들이 다 다른 곳에서 400명이 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원래는 도넛 500개만 만들면 됐는데 봉사자분들이 센터에서 청소해야 할 곳은 모두 청소를 했는데도 할 일이 없어서 도넛 개수를 500개를 더 늘려 예배 때 아이들한테 나누어줄 뭇까지 해서 1000개를 만들게 됐다. 그래서 봉사자 분들이랑 반죽 짚고 튀기고 설탕 묻히고 포장하는 일을 했다. 빵퍼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그 날 만들 빵 반죽을 해놓는다. 빵퍼 스태프들이 센터 내에서 오피스 스태프 다음으로 부지런한 것 같다. 한국 와서 거의 몇 달은 빵퍼에서 만든 빵이 먹고 싶어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빵퍼에서 만든 빵들을 모두 먹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소보루빵~

11. 주일예배

11-1. 프놈 그라움 예배

매주 일요일마다 프놈 그라움과 쓰룩뿌억에서 예배를 한다. 프놈 그라움에서는 센터 위에 있는 체육관에서 하는데 첫 순서로는 청소년 예배로 청소년 아이들과 스태프들, 마을 어른들과 함께 한다. 중창단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 간사님이랑 크마어로 찬양을 하고 한국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크마에 스태프가 크마어로 통역을 한다. 통역하는 스태프는 한국어 말하기 쓰기 자격증이 있어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막힘없이 통역을 잘한다. 이 스태프 덕분에 크마에 스태프들이랑 얘기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도와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청소년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한테 빵을 나누어주고 세 개로 조를 만들어서 한국 간사님, 크마에 스태프 몇 명이 붙어서 성경공부를 한다. 성경공부는 거의 놀이처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매주 할 때마다 아이들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예배가 끝나면 바로 어린이 예배를 한다. 처음은 크마에 스태프인 분생이 아이들처럼 같이 노래하고 율동하고 예배를 시작한다. 아이들이 흥이 많아서 율동 시간에는 아이들 흥이 최고조를 찍어서 넘치는 흥을 주체를 못할 정도다.

다음으로 성경 말씀 전할 때는 어린이 성경 동화책을 읽고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누어 주는 빵이 먹고 싶어서 온 아이들이 대다수라 그런지 말씀 들을 때는 율동할 때만큼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 등 간단한 성경 퀴즈를 내서 맞힌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빵 먹는 즐거움이 아닌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선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 중간에 일어나서 장난치는 아이도 없었다. 나중에는 선물 없이도 빵 먹는 즐거움 때문도 아닌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예배 시간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기



예배 듣다가 잠든 로아타~



11-2. 쓰룩뿌억 다일교회

지뢰피해자 마을에 세워진 작고 아름다운 쓰룩뿌억 다일교회에는 매 주일마다 약 500명의 아이들(약 400명)과 청소년들(약 100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운다. 다일공동체는 단순히 떡만 나누는 NGO가 아니라 복음으로 캄보디아 땅에 영과 육이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한다.

쓰룩뿌억 가는 길의 반은 포장도로지만 반은 굴곡이 굉장히 심한 비포장도로여서 차가 옆으로 쓰러질 것 같이 흔들거리는 길이었다. 쓰룩뿌억은 딱 보는 순간 왠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마을이었다. 지뢰 피해자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 지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 어르신들이었는데 다리 한 쪽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다. 근데 다리 한 쪽이 없어도 자전거와 오토바이 모두 능숙하게 타시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예배당도 예쁘고 그냥 너무 예쁜 마을이었다. 예배는 어린이 예배와 똑같이 울동하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 빵 나누어 주고, 아동결연 조사를 한다. 쓰룩부억에도 아동결연을 절실히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올 때마다 아이들 가정 조사와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다. 쓰룩부억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찬송가 부를 때 합이 잘 맞아서 들을 때마다 명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쓰룩부억에서 예배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 이름을 궁금해 하지 않았던 점이다.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청소 하면서, 빵을 나누어 주면서 얼굴이 익숙해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센터에 있을 때에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못 다가갔던 것 같아 너무 아쉽다.



쓰룩부억 예배당



예배하기



빵 나누어 주기~



빵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12. 아동결연

1:1 결연을 통해 아동 교육을 지원하고, 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한다. 아동결연의 대상은 형제가 셋 이상이거나 부모 둘 중 한 명이 일을 안 하거나 대가족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결연을 해주고 있다. 아동결연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후원을 받고, 여러 생필품들을 지원 받는다.

크마에 스태프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스태프가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운전 학원을 못 다니고 있었는데 후원자 분께서 운전면허 딸 때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다.

그리고 밥퍼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 중에 찐이라는 12살 남자 아이가 있는데 후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아이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길거리 빵 장사를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했다. 찐이 학교에 다니지 않자 그 비용이 아이한테 가지 않고 결연이 끊겼다고 한다.

찐은 항상 교복을 입고 밥퍼에 밥 먹으러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한글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다. 찐의 집 사정을 몰랐을 때는 아이가 밥 먹으러 오는 횟수가 줄어서, 좀 컸다고 부끄러워서 안 오는 건가 그랬다. 거의 3주 동안 센터에 안 오다가 오랜만에 왔을 때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바빠서 못 왔다 그래서 단순히 집안일이 많은 줄 알았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찐이 빵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아동결연 담당 간사님이 찐의 집 사정을 말해 주셔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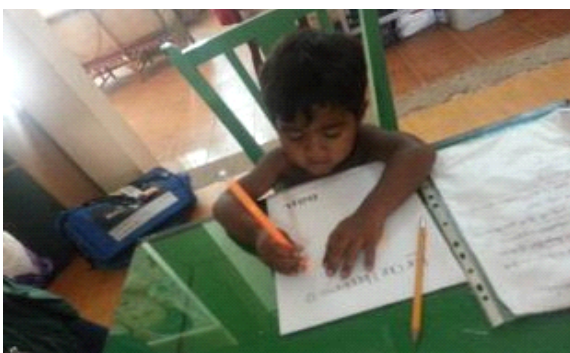
찐을 보면서 나는 학교 가기 귀찮아서 온갖 피병을 다 부렸는데, 찐이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미안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그 뒤로 며칠 후에는 장사를 그만뒀는지 거의 매일 밥퍼에 와서 밥을 먹었다. 나중에 들어 보니까 아직도 가끔씩 장사를 하고 있어서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후원자분이 생겼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었고 하루 빨리 찐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에 아동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있다. 물품을 700개 가까이 물품을 준비해서 프놈 그라움에 600개의 물품을 나누어 주고, 쓰룩부억에는 아직 아동결연을 하고 있는 아이가 몇 안돼서 40~50개 정도 밖에 가져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물품은 패턴이 매번 비슷하다. 라면 한 박스와 담요일 때도 있고 쌀 한 포대, 식용유 한 병, 세제 한 병, 수저 세트 등 큰 거 한 개, 작은 거 한 개씩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리고 후원자분들께서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선물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렇다고 툭툭이를 타고 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후원자분께서 돈을 보내주시면 아이한테 적합한 자전거를 사서 선물한다.

아동결연이 있는 날에는 아이들이 평소의 배로 와서 센터 마당을 빼곡히 채운다. 물품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뿌듯했다. 아이들이 아동결연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처럼 카드 목걸이를 하고 오는데, 아직 아동결연을 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 카드 목걸이를 정말 부러워하고 카드 목걸이를 매고 있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도 그 카드 목걸이가 좋은 걸 알고 있는지 의기양양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카드 목걸이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후원자분들한테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편지를 써서 후원자분들한테 보내고,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한다. 아이들이 후원자분들한테 편지 쓰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워서 나도 아이들을 후원해주고 싶었는데, 아직은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 때 꼭 아이들한테 아동결연을 해주고 싶다.



후원자 분께 편지 쓰는 다윗과



호아~



아이들에게 나눠줄 물품들이 배달되어 왔다.



물품 받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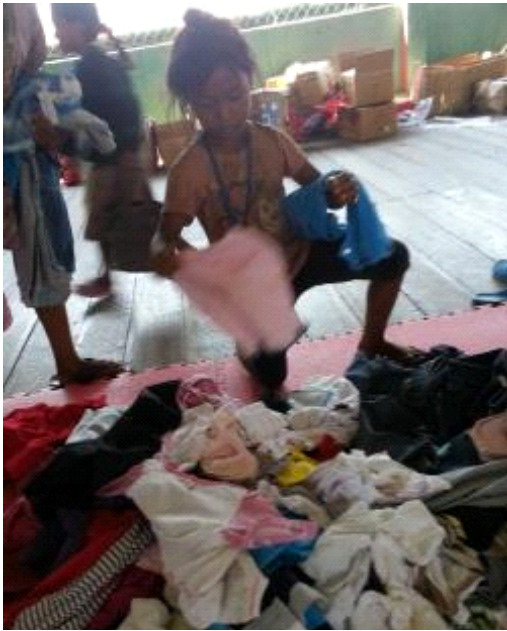
결연 카드 체크하기



물품 받아가는 아이들~

12-1. 거저 축제

거저 축제는 거의 세 달에 한 번씩 봉사자분들이 기부해 주신 옷, 신발, 학용품 등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다. 내가 지내는 동안에는 거저 축제를 한 번 했다. 2층 체육관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 50명씩 열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10 분 동안 한 사람당 옷이나 신발, 학용품을 다섯 개씩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에게 예쁜 옷들을 추천해 주는 역할을 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예쁜 옷을 찾고 있다.



막바지



엄청난 속도로 옷을 가져가는 아이들

13.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다녀와서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은 몰랐다. 아직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지냈던 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렇게 쏠살같이 지나가니까 뭔가 허무했다. 인턴십을 하면서 내 안에 있던 많은 고정관념들이 많이 바뀌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한국 간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불편했던 적은 많았지만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었던 적은 없었다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고 그러셨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사춘기가 절정을 찍을 때는 돈이 제일 좋았다. 사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돈이 없는 나를 보고 한탄하기도 했다.

밥퍼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학교 생화학장실 크기보다 작은 집에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살지? 라는 생각을 했다. 우기 때 태풍 피해로 집이 무너져서 판자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물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정말 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

점은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겠지만 커서 돈을 좀 모으면 캄보디아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매일 뜨거운 날씨 속에서 밥퍼를 하고 아이들과 놀면서 온몸에 있는 땀구멍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땀이 줄줄 흐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꼈다.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밥퍼를 하면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생전 처음 해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계란 혼자서 200개 까기, 계란말이 500인분 하기, 500인분 설거지하기, 500명의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밥 나눠주기, 40°C가 넘는 날씨에 아이들처럼 뛰어 놀기, 12시간 동안 누워서 버스 타기, 8시간 동안 모토 타기, 들어서 1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기, 4000원에 마사지 받기, 15,00R(150원)에 커피 마시기, 현지인처럼 현지어로 말장난하기 등 정말 많은 특별한 일들을 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1년 동안 계신 간사님이 모든 일이 익숙해지면 떠나는 시간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려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있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가까운 시간들이 많았다. 더워서 아이들처럼 뛰기보다는 앉아서 많이 놀았는데 어차피 찢으면 되는 거 너무 몸을 아낀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많이 못 외웠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 아이들은 내 이름을 알아서 인사해주고 그랬는데 정작 나는 아이들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 부르면서 인사도 못 해주고 크메인(어린이)이라고만 불렀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름 부르면서 인사해 주고 그랬으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억해 주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정말 동남아 체질인지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사람 관계라든지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크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잘 지낸 것 같다.

해외 NGO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가지 빈곤에 처해 있는 많은 아이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도와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건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나를 정말 잊기 전에 다시 가서 좀 더 오랫동안 아이들 옆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14. 인턴십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40~ 센터 출발	7:40~ 센터 출발	7:40~ 센터 출발	7:40~ 센터 출발	7:40~ 센터 출발	쉬는 날 ♡♡♡♡	8:20~ 센터 출발
8:30~ 아침 조회, 밥퍼&빵퍼 시작	8:30~ 아침 조회, 밥퍼&빵퍼 시작	8:30~ 아침 조회, 밥퍼&빵퍼 시작	8:30~ 아침 조회, 밥퍼&빵퍼 시작	8:30~ 아침 조회, 밥퍼&빵퍼 시작		9:30 청소년 예배 (프놈 그라운드)
11:30~ 배식 시작	11:30~ 배식 시작	11:30~ 배식 시작	11:30~ 배식 시작	11:30~ 배식 시작		10:30 어린이 예배 (프놈 그라운드)
12:00~ 설거지, 청소	12:00~ 설거지, 청소	12:00~ 설거지, 청소	12:00~ 설거지, 청소	12:00~ 설거지, 청소		2:00 쓰룩뿌억 예배
12:30~1:30 점심시간, 휴식 시간						4:30 퇴근
1:40~ 여러 사업 보조, 다일 조선소 배 만들기, 빵퍼, 아동 결연, 성경 공부, 한글 교육						
4:00 퇴근	4:00 퇴근	4:00 퇴근	4:00 퇴근	4:00 퇴근		

15. 결산

뭐에	얼마를 쓴거?
비행기 값	932,600원
숙박 (식사, 전기세 포함)	1,000,000원
개인 (비자 연장 비용 포함)	1,000,000원

16. 사진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밥을 가져가는 아이들



밥 먹기 전 샤워?하는 찜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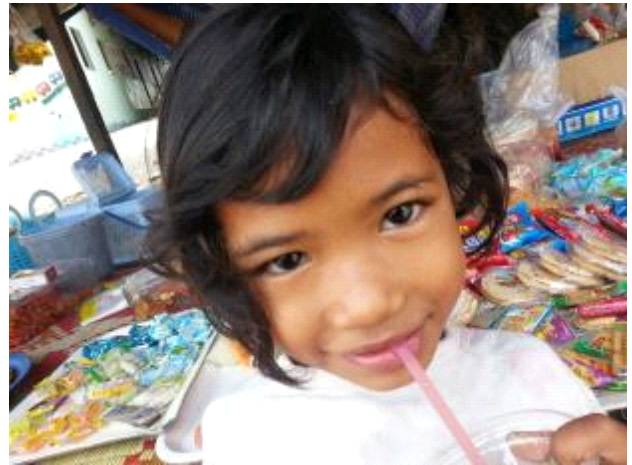
쏘이웃~



밀가루 포대 나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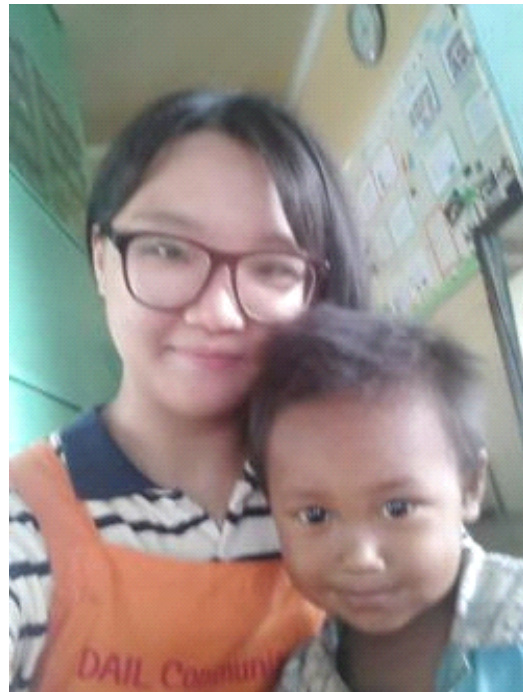
5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곳



쏘이웃 언니~



한국말을 정말 잘 하지만 장난기가 너무 많은
밥퍼 스태프 분생☺



두 살 밖에 안 됐지만
항상 날 설레게 했던 찜므라~♥



밥퍼 주방장 슬레이엄~



밥퍼 스태프 찜니~



밥 먹기~



☺♥♥



짱니와 론~



점심 먹고 간사님들이랑 항상 갔던 센터 앞 매점



사탕수수 주스~



연유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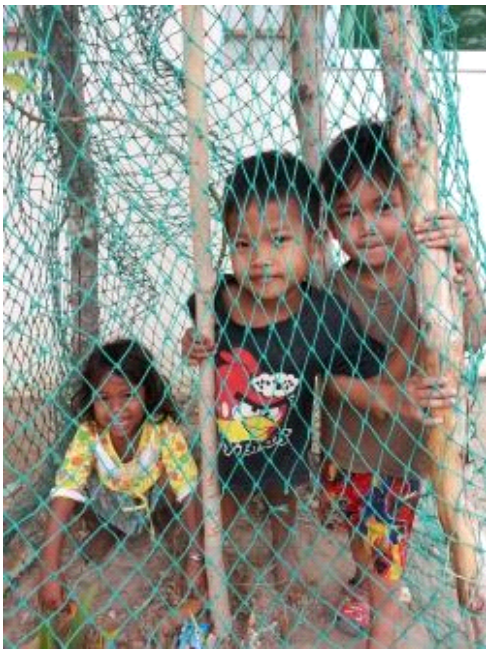
제일 좋아했던 딸기 스무디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원장님



벌써부터 잘생긴 복



말 많은 네 살들



예배 시간 잠든 로아타



시아누크 빌



쓱 써바이~

제발 가만 좀 있어 봐요!

성심원 / 2.24~5.30

김한솔

목차

I. 소개

1. 성심원은 어떤 곳인가?
2. 한센병이란?
3. 인턴십을 시작하기까지.

II. 무슨 일을 했나요.

1. 드디어 시작 (전문요양 팀)
 - 1-1. 식사 보조
 - 1-2. 목욕
 - 1-3. 제발 가만 좀 있으세요!! (기저귀 갈기)
 - 1-4. 조심, 신중하게.
 - 1-5. 느낀 점
2.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 (일반요양 팀)
 - 2-1. 기본적인 일
 - 2-2. 진심
 - 2-3. 김형조 어르신
 - 2-4. 마무리
3. 프란치스코의 집 (생활복지 팀)
4. 성심원의 하드웨어 (시설관리 팀)
 - 4-1. 이놈의 풀들
 - 4-2. 성심원의 하드웨어
 - 4-3. 성심원 광내기
 - 4-3-1. 합심
 - 4-3-2. 소오름
5. 음식에 사랑을 담다 (식품영양 팀)
 - 5-1. 까다로운 어르신들
 - 5-2. 해피 스마일

III. 그래서 결론이 뭐야

1. 애매한 위치
2. 후리다운
3. 한센병과 어르신들의 과거
4. 시작 직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성심원

1. 소개

1. 성심원은 어떤 곳인가?

1959년 설립된 성심원은 한센병이 있는 어르신들의 요양 공간이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케어한다. 어르신들의 몸 상태에 따라 직원들의 일이 나뉜다. 현재 산청 성심원에 계시는 한센인 어르신들의 숫자는 대략 200명 정도이며, 이는 처음 설립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약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직원은 60명 정도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며 성심원에는 크게 7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전문요양 팀, 일반요양 팀, 생활복지 팀, 시설관리 팀, 식품영양 팀, 행정관리 팀, 간호의무 팀.

2. 한센병이란?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한센병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나균이 침투하여 생기는 병으로, 증상은 대부분 피부로 나타나며 손끝과 발끝 등에서부터 감각이 점차 없어져,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나도 본인이 직접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발견이 어려울 뿐더러,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몸에 큰 상처가 많다.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 등에 의해 병이 악화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어느 부위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다. 나균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많지만 이하 생략한다.

3. 인턴십을 시작하기까지

본격적으로 인턴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입직원교육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방학 때 미리 인사드릴 겸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다. 무빙으로 봉사를 하러 몇 번 다녀왔지만 이곳 성심원은 여태 가본 곳들과 다르게 '직장'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나의 인턴십 생활을 걱정케 했다. 직원교육을 받고 이틀간 일을 체험할 겸 봉사를 하고 왔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생겨서 돌아왔던 것 같다.

사실 난 인턴 준비 기간 때부터 되는 일이 없어 애를 좀 먹었다. 음악과 관련해서 가면 좋을 듯한 단체를 발견해서 연락을 해 보았지만 너무 바쁜 관계로 인턴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들었다. 그래도 너무 가고 싶어서 한 번 더 매달려 보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깨끗이 포기했다. 이후 희라 쌤의 권유로 '꽃다지'라는 노래패에도 연락을 드려봤지만 그곳도 너무 바빠서 결국 못 가게 되었다.

무빙스쿨 때에는 척하면 척! 연락드린 곳마다 깔끔하게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두 번이나 부딪혀 여간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렇게 방향(?)하던 도중, 난 이번에도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희석 쌤께 도움을 받았고 여러 군데 추천해 주셨던 곳 중 한 곳인 성심원을 택하여 세 달간의 여정에 첫발을 내딛었다.

II. 무슨 일을 했나요.

1. 드디어 시작 (전문요양 팀)

성심원 여러 곳의 부서 중 내가 처음 일했던 곳은 전문요양 팀이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다. 식사와 목욕 등 모든 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신다. 여 회복실과 남 회복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곳 어르신들의 수는 20명가량이다.

이곳에 와서 내가 처음 했던 일은 청소였다. 출근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청소와 가습기에 넣을 물을 떠오는 일이

다. 이러한 일들로 시작하는 하루는 처음의 나에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1-1. 식사 보조

식사 보조를 할 때면 어르신은 내가 먹여드리는 죽을 다섯 손가락도 드시지 않고서 무작정 먹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밥시간이 지난 후에 대충 정리가 되면 서랍장에 있는 베지밀을 달라시며 아이 같이 떼쓰신다. 4주 정도 그 어르신께 식사를 드리면서 너무 안 드셔서 때론 짜증이 난 적도 있다. 굳이 드시기도 싫어하는 음식을, 내가 봐도 맛없어 보이는 죽을 억지로 드리려고 하니 왜 이래야 하는가 싶으면서도 어르신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드시게 하는 것이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하니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다.

1-2. 목욕

목욕은 날짜를 정해 한꺼번에 해드린다. 목욕용 침대에 어르신을 옮긴 뒤에 목욕실로 가서 옷을 벗겨드리고, 세심하게 물 조절도 하고, 샴푸도 해드리고 비누칠도 해드린다. 물론 이 동안에도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르신들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한다. 몸을 드러눕히고, 돌려서 씻기고,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은 뒤 옷을 다시 입혀드리고 원래 계시던 자리로 옮기기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목욕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상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상처도 이곳의 어르신들께는 조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상처로 번질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1-3. 제발 가만 좀 있으세요!! (기저귀 갈기)

몸을 전혀 가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른용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신다. 기저귀 교체는 아침 9시, 낮 2시, 저녁 6시에 이루어진다. 새벽에도 물론 갈아드린다. 이때 변을 보셨을 경우 설사인지 아닌지, 몇 그램 정도 보셨는지도 모두 기록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내가 전담해서 기저귀를 갈아드린 어르신께서는 치매가 있으셔서 항상 기저귀를 갈려고 빼 놓으면 그때 볼일을 보신다. 그래서 그분 기저귀를 갈아 드릴 때는 차고 있던 기저귀를 빼기 전에 지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완전 초스피드로 갈아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손에 닿는 것을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1-4. 조심, 신중하게.

이 밖에 이곳에서 했던 일은 어르신들과 산책하기, 간식 드리기 등이 있다. 크고 임팩트 있는 일들과 자잘한 일들. 다양한 일을 했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행동해야하기 때문에 친밀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특히 한센인 어르신들은 과거 한센병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병되었을 당시 오로지 전염된다는 이유로 억압과 질타를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게 닫힌 분도 계시고, 그때의 악몽을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나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쉽게 열어주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나를 손자처럼 항상 웃으며 대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성심원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잔소리하는 직원 말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자뻘 되는 봉사를 오는 학생들을 많이 반가워하신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역할이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 느낀 점

전문요양 팀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직원과 봉사자들의 고충은 정말로 크고, 또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 본인이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직원들의 손길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과연 우리는 절반이라도 이해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만약 전문요양 팀에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은 기간을 지냈다면 어땠을지 또 모르겠다.

인턴 초반에 했던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이를 깨닫게 되면서 점차 사라진 것 같기도 하다. 성심원에서 내딛은 첫 발이 중요한 깨달음과 동기부여를 가져다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힘들고 외로웠던 전문요양 팀에서의 4주는 서툴지만 열심히 일하는 학생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2.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일반요양팀)

인턴 시작할 때 했던 걱정들은 다행히 전문요양 팀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어느새 4주가 지나 두 번째 팀인 일반요양 팀으로 갈 때가 되었다. 일반요양 팀은 식사와 거동이 되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들께서 모여 계신 곳이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숫자는 대략 60명 정도 되며 그중 50명 정도가 할머님들이다. 나머지는 모두 남자 어르신분들이다.

2-1. 기본적인 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거동은 가능하시나 먼 곳에 다녀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장을 대신 봐오거나, 필요한 것들을 사다드리는 것이다. 또 항상 라운딩을 돌며 어르신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특히 기분이 좋지 않으시거나 몸 상태에 이상이 생긴 어르신이 있다면 더욱 붙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

2-2. 진심

나는 이러한 직원분들의 관심이 듬뿍 묻은 행동들에 사실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성심원에서 처음 했던 걱정은 ‘직장’의 느낌이 커서 과연 여기 있는 분들이 진심으로 이 어르신들을 대할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요양 팀에서도 먼저 봐왔지만 이곳 일반요양 팀의 직원 분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세심하고 각별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다. 말동무가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빠르게 알아채고 “요새 OOO 어르신 기분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좀 침울하신 것 같아요”하며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몸이 안 좋은 것인지 바로 알아보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도 이러한 직원들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다. 나도 이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몇 안 되는 어르신들 이지만 그분들과 얘기도 많이 했다.

2-3. 김형조 어르신.

그 중 한 어르신은 내가 갔을 당시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어 우울증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했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되서 많이 불편하시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셨다. 팀에서 나는 그 어르신에 가까이 붙어 살펴보는 일을 맡았고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 어르신께서는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으셨던 몇 안 되는 어르신들 중 한 분이였다.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식당으로 식사도 하러 가시고,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시던 분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다. 결국 혼자 하시던 모든 일은 타인의 손길이 필요해졌고, 아마 그렇게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시는 것도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가시던 식당에는 내가 옆에서 잡아드려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화장

실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건들도 모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외워 두어야 할 처지이고, 한센병의 특성상 손발에 감각이 거의 없으신 어르신께서 음식으로 착각해 이상한 것을 잘못 집어 드시거나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데 발이라도 한 발 잘못 디디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 항상 지켜봐야 했다.

매일 점심시간이 끝나고 두 시경에는 2층에 있는 ‘찾집’이라는 곳에 가시곤 하셨다. 찾집은 어르신들이 특정 시간이 되면 약속이라도 하듯 모이셔서 커피도 드시고 TV도 보시며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다. 사실 항상 침대에 누워계시며 어디 한번 나가기도 힘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거라 생각한다. 모두 외롭고 긴 삶을 살아 오시면서 각자 하실 이야기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항상 직원들한테 잔소리만 들으시다가 그나마 연령층이 비슷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 하시면 어르신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실 것이다. 물론 김형조 어르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두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채워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같이 서투르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만 하다.

사람은 오랜 기간 어느 것에 의지하게 되면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 곁을 떠난 이후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나의 임무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반찬을 집어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에다가 반찬을 다 집어넣고 드시게 한다. 정말 맛이 없지만 그조차도 드시기 힘드시다. 감각이 둔한 탓에 그릇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죽이 현재 손가락이 올라와있는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습관을 들여 스스로 감을 익히시게 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물론 내가 떠난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 분께서 항상 지켜보시겠지만 언젠간 많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으시길 바라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이고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2-4. 마무리

처음 하는 일이기엔 많이 서투르고 부족했을 것이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 폐도 많이 끼쳤다. 나중에 가서야 어느 정도 일이 눈에 익으면서 따로 시켜주시지 않아도 조금은 따라할 정도가 되었다. 그저 나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다. 내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은 일들이었으면 한다. 짐만 될 것이 아니라 믿을만한 봉사자 정도로 남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전문요양 팀에서 크게 배운 만큼 이곳에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얻은 것 같아 좋았다. 실수도 가끔 하고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껏 했던 것처럼 별일없이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모든 일이 쉽게 풀릴 리는 없지만 벽을 마주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3. 프란치스코의 집 (생활복지 팀)

이 기간 동안에는 출근을 생활복지 팀 사무실로 해서 아침 모임 및 알림 사항을 들은 뒤에,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루를 시작한다. 참고로 생활복지 팀에서는 크게 세 곳의 일을 맡는다. 첫 번째로 한센인들 중 부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정사’. 이곳은 성심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빌라 형식으로 1동부터 4동까지 있다. 두 번째로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300호’. 이곳은 성심원의 3층에 위치해 있는데 3층에는 앞서 말했던 곳인 일반요양 팀이 있고 어르신들이 사시는 방 호수가 있다. 예를 들면 270호~299호 등등. 이곳이 300호인 이유가 바로 맨 끝 방인 300호에 지적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이다.

무빙 때 장애인들과 생활을 했던 내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일정상 이곳에는 가있지 못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있던 곳인 프란치스코의 집은 이 밖의 어르신들이 사정상 가정사나 요양 팀에 있지 않게 되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직원의 추천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처음 이곳에 갔을 때에는 생활이 가능하신 한센인 어르신들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다. 어르신들의 숫자는 총 여덟 명 정도로 소규모였다. 이곳에서 나는 성심원의 사정과 일정상 일주일밖에 있지 못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잘해주시고 아직 성심원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했을 나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항상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이곳에서는 짧은 기간 있었던 만큼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다. 워낙 이곳이 여유로운 공간인 이유도 있다. 아침에 청소를 하고, 쉬거나 잡일을 하다가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또 쉬거나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까지 드시면 마무리 후 하루가 끝난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들 중 가장 여유롭고 간단했지만 이곳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먹던(?) 시간은 아쉽지만 짧게 끝났다. 생활복지 팀에서는 팀 안에서도 세 곳으로 일이 나뉘어 있는 만큼 모두 가서 일을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 복지 관련 팀에서의 체험으로 본다면 사실상 중요한 시간이겠지만 다른 팀에서 많이 배운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4. 성심원의 하드웨어 (시설관리 팀)

시설관리 팀에서는 성심원에서 하는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제외한 모든 하드웨어적인 일들을 맡고 있다. 이 일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다. 성심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총 200명, 직원들 수는 60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과 보일러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의 스케일도 클 수밖에 없다. 5~6명 정도의 관리팀 멤버가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나는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나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사실 생활복지 팀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있지 못했던 이유는 시설 팀의 인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딱 그 시즌이 무척 바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가 시설관리 팀에서 있게 된 시간은 4주. 이 시간동안 나는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일을 하는 동안에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성취감’이라는 것도 제대로 느끼며 일할 수 있었다.

4-1. 이놈의 풀들

내가 관리 팀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일은 제초 작업이었다. 성심원의 전체 부지는 10만평이라고 들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이지만 물론 이 전체에서 풀이 자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 풀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없애도 없애도 끊임없이 자라는 이놈들 때문에 하게 되는 제초 작업은 1년에 총 4번 정도 한다. 5월부터 11월까지. 나는 한 바퀴만 돌고 또 다른 팀으로 갔지만, 그 이후에 시설 팀에서는 계속 제초 작업에 매달렸을 것이다.

제초 작업에 모든 팀원이 매진할 때면 내가 거의 맡았던 일은 갈고리질이었다. 풀을 잘라내는 기계인 예초기를 쓰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 그분들이 솟아있던 풀들을 잘라 눕혀 놓으면 나는 갈고리를 가지고 그 풀들을 군데군데 모아둔다. 그 후 트럭이 돌면서 모아둔 풀떼기들을 실어 날라서 버리는 곳에 버리고 온다. 갈고리질을 하도 많이 해서 갈고리질을 했던 그 모션과 포즈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다. 정말 많은 반복된 작업과 땀병에서의 고된 일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도 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불안했지만 이미 나는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서도 잘 해낸 경험이 있었기에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물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4-2. 성심원의 하드웨어

시설관리 팀에서는 틈날 때마다 제초 작업을 해도 시간이 빠듯한 마당에 다른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참 바쁘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다 지난 겨울인데도 춥다고 하시면 보일러도 떼어드리고, 또 그 보일러도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고,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성심원 건물 내부의 어마어마한 보일러실도 관리와 동시에 점검도 해야 하고, 커튼이 고장 나면 커튼도 고치고, 침대가 고장 나면 침대도 고치고, 탁자가 부러지면 탁자도 고치고, 여하튼 이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일들을 관리 팀에서 맡는다. 이러한 일들은 말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에 맡긴다.

4-3. 성심원 광내기

내가 관리 팀에 있는 동안에 성심원 내부 전체 세정 작업이 있었다. 성심원 곳곳의 바닥에 말 그대로 세정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방이나 사무실마다 탁자 같은 물건들을 다 빼고 1차로 액을 부어 기계로 바닥을 닦고 깎은 뒤 걸레로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닦아주고, 이 작업들이 모두 끝나면 세정액을 부어 걸레로 골고루 닦아 주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것을 성심원 내부인 1층부터 3층까지 몇몇 곳들을 빼놓고 모두 해야 한다. 물론 복도는 모두 한다. 이러한 큰일이 있을 때에는 다른 부서의 지원이 온다. 성심원의 많은 직원이 이 일에 매진하여 빠르게 끝내는 것에 중점을 뒀다. 빠른 진행을 위해 각자 역할을 맡아 일을 했는데, 나는 걸레를 맡았고 실 새 없이 걸레질을 했다.

4-3-1. 합심

총 5일간 성심원이 이 세정 작업 하나 때문에 애를 먹으며 들쭉였지만 모두가 힘든 와중에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끝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일이 끝날 수 있었다. 만약 몇 명이라도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일은 길어지고, 늘어지며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며칠간 10시에 퇴근을 하며 만만찮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난 모든 일이 딱 끝나고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큰일을 해냈을 때의 기분을 처음 느껴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마주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했던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실수도 하면서 곳곳이 일했던 내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4-3-2. 소오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세정 작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했던 세정 작업은 저번에 비해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고 했다. 내가 할 때에는 몇몇 방들을 빼두고 했지만 저번 작업 때에는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가정사 건물까지 했다고 한다. 성심원 본 건물만이 아닌 가정사 건물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것이다. 내가 했던 세정 작업을 생각한다면 더욱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많은 직원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협조 속에 마음을 모아 그러한 큰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곳 사람들에게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성심원에 세 달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성심원에 몸담아 오신 분들을 보며 정말 축소된 것은 내가했던 세정 작업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사랑해 왔던 이분들의 생각과 시간, 또 그 삶이었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5. 음식에 사랑을 담다. (식품영양 팀)

드디어 마지막 팀이다. 인턴십 기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던 나에게, 배고팠던 나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식당 이모님들은 어딜 가서 밥을 먹어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에 각별히 신경 쓰듯, 또 우리 엄마가 배고픈 나를 위해 사랑을 듬뿍 담아 해 주는 저녁밥과 같이 성심원에서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잘 해 주셨던 분들이 식당 이모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성심원에서 생활할 때 가장 여유롭고 좋았던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300인분 가량의 밥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고 죄송했을 수 있다. 다행히 나의 마지막 일정에 일주일간 식당에서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잘해주셨던 만큼 보답할 수 있었다.

사실 모든 팀이 그렇듯 시설관리 팀 또한 언제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일주일을 식품 팀에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쉬워하셨다.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일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나의 공백이 컸을 수 있다.(뿌듯^^)

5-1. 까다로운 어르신들

성심원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당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성심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식성과 특성을 고려해 식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드시는 분과 미음을 드시는 분이 많아 각각 드시는 종류에 따라 숫자를 맞춰 배급을 해야 하고 건강상 죽만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반찬을 일일이 갈아서 드려야 한다. 또 그 외에 김치를 안 드신다거나, 특정한 음식을 안 드신다거나 하면 모두 파악해서 식사를 드린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팀별로 어르신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밥은 몇 인분인지, 국은 몇 인분인지, 반찬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물론 내가 식당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일은 이러한 복잡한 일이 아니었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5-2. 해피 스마일

일이라는 것이 항상 웃으며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모님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웃음이 오간다. 직원들이 반찬 투정을 해도, 어르신들이 불만을 토로하셔도 상냥하게 알겠다고 이야기하실 뿐이다. 나에게도 마지막 일주일이라서 그랬는지 끝난다고 생각하니 점점 힘도 빠지고 머리도 복잡해져서 쉬운 일을 해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이모님들이 웃으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난 지금 웃는 것도 힘든데 다들 힘내서 하루를 마치려는 모습을 보니 좀 부끄럽기도 했다.

지금도 밥을 먹을 때면 이모님들이 생각한다. 일이 끝나고 내가 밤에 배고플까봐 맛있는 김치부추전도 싸주시고 저녁 때 마땅히 먹을 반찬이 없으면 김도 따로 사서 숨겨 놓으시고 김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해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음식에 담긴 사랑이 아직도 내 뱃속에 남아있는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식당 이모님들처럼 항상 웃는 을 살 수 있을까?

III. 그래서 결론이 뭐야

1. 애매한 위치

이렇게 다섯 개 팀의 일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날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성심원에서의 나의 위치였다. 보통 이곳에 오는 직원 외의 일하는 학생은 두 부류로 나뉜다. 대학교에서 실습을 오거나, 학교에서 봉사를 오거나, 몇몇 복지시설에는 중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실습생도, 단순한 봉사자도 아닌 '인턴십'을 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원도 봉사자도 아닌 놈이 와서는 일을 막 하는데 나이는 어려 보이고, 그렇다고 막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호칭도 애매하고. 물론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긴 하다. 내가 인턴십을 하는 학생이라며 설명을 따로 드려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몇 주 동안 내가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에게 그냥 나는 어리게 보이면 봉사 온 학생, 좀 커 보이면 대학교 실습생 정도로 보여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도 직원과 봉사자의 일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직원이 성심원 고유의 일을 한다면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말벗 정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분명 봉사자에게는 직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어르신들에게 직원은 약간 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매일 잔소리하고 나이도 한참 어린 주제에 말도 안 듣고 화도 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직원의 고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사랑이 담긴 듯한? 아무튼 나는 말 그대로 인턴십을 하러 간 학생으로서 봉사자의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하는 일들도 충분히 해보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나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다른 직원 분들

처럼 능숙하게 하기 위해 잘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여러 팀들을 돌아다니고 일하며 내 위치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내 위치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만약 내가 봉사자였다면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의 위치 때문에 오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보다는 약간 빈틈이 많은 호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것이 나는 좋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회의나 모임에도 많이 참여하려고 했고 퇴근도 다른 직원 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나를 노력했다. 사실 이 밖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과 팀을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 친밀도를 충분히 쌓을 수 없었다는 등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거의 끝나갈 즈음에는 정말 성심원의 일원, 가족으로도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좋았다. 이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심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민도 많이 생기고 장애물도 있을 텐데 이번 경험을 통해 헤쳐 나갈 힘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2. 후리다운

3년 전 내가 학생회장을 했을 당시, 학생회의 이름을 정할 때 학생들끼리의 끈끈한 관계를 목표로 한다는 뜻의 파리를 잡는 후리다운이라는 물건의 이름을 썼다. 갑자기 후리다운이 생각난 이유는 성심원에서 일을 한 이후로 학교만큼이나 일터에서의 사람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팀이 나뉘어 있고 하는 일이 다른 상태에서 무언가를 함께 진행할 때,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서로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워크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람 성격에 따라 일이 틀어지거나 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 틀릴 것이다. 나같이 쿨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막 화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성심원에서 보았다.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서로의 신뢰도 없어지고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로 푸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본 그분들끼리는 서로의 답답함과 이미 깨져버린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긴 했다. 물론 내가 그곳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젠간 화해를 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사실 관계라는 것이 어딜 가나 중요한 법이지만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필요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큰일, 힘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센병과 어르신들의 과거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모두가 알았으면 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의 '과제' 라고 생각을 하기에 짧게 쓴다.

일반요양원에서 난 김형조 어르신을 전담했다.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것들 중 어르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다. 약 6~70년 전 한센병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발병되었을 즈음에 여러 가지 매체로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을 것이다. 나군이 침투되어 걸리는 한센병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증상은 어땠고~ 등등. 그때 당시 전염이 되는 심각한 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한센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김형조 어르신은 20살의 나이에 한센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한다. 이제 꿈을 펼치고 무언가를 시작할 나이에 한센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겉모습'이라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이 가있다. 장애인을 예로 들어보자.

장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지적장애인이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시선이 쏠리곤 한다. 그 시선은 보통 긍정적인 시선이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우리와 겉모습이 조금만 다른 사람을 보아도 신기한 듯 쳐다본다. 한센병은 피부와 몸으로 많이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손발을 절단하거나 가끔은 손발 자체가 보통 사람과 다른 형태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또 보통 한

센인 어르신들을 보면 손이 멀쩡히 있어도 굳은 상태로 본인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해 컵으로 물을 마실 때도 손잡이가 없는 컵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왜,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성심원에 계시는 한센병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겉모습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과 같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싫어서 바깥에 자주 나가시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냥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똑같은데도.

내가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봐도 되는지 등등을 말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4. 시작 직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성심원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는 신입직원교육을 받았다. 그 때 사실 많은 걱정이 생겼고,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맞닥트렸다. 4학년과 5학년 무빙 때 있었던 곳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만 보다가 규모도 크고 일도 많은 성심원에 가서 흑막(?)을 보게 되었을 때 약간 충격이었다. 좀 이상한 인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고. 여태 갔었던 곳과는 다르게 너무 직장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하여튼 좀 걱정이 되었다.

사회에 나가면 지금과는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고, 또 그중에 착한 사람도 많고 그럴 것을 생각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웬지 학교에서 찾아간 단체들은 좋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었을까? 난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도 지나고 여러 팀에 있으면서 나는 이곳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과 종류도 다양할 것이고, 그만큼 다툼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다. 가끔 그 다툼 사이에 내가 끼여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해야겠지?

성심원에서 있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한센병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한센인 어르신들의 삶과 일상. 또 그런 어르신들께 대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모습. 때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때론 마음을 모아 큰일들도 능숙하게 해결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나가고 또다시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인턴십 하기 전 나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 짧은 기간이 나에게 너무도 큰 선물인 것 같아 모두에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내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성심원에서 배운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잘 이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를 믿고, 나를 잊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마음을 전하다

한마음 장애전담 어린이집 / 2.24~5.30

박록리

목차

0. 준비

- ◆ 한마음 어린이집은?
- ◆ 선택하기까지

1. 한마음 어린이집에서

1-1. 나의 역할 및 활동

- ◆ 활동 한눈에 보기
- ◆ 아이들과 친해지기
- ◆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 ◆ 사진 담당

1-2. 하루일과

- ◆ 식사
- ◆ 낮잠

1-3. 기억에 남는 수업과 행사

1-4. 아이들의 이야기

2. 인턴십을 통해서

2-1. 느낀 점

3. 부록

3-1. 사진

0. 준비

◆ 한마음 어린이집은?

한마음 어린이집은 2011년 개관한 한마음 복지관 안에 있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다. 현재 원아는 5세에서 8세까지 30명이 있다. 반은 6명씩 5반이고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서 편성된다. 아이들마다 장애의 정도가 다 다르고 자폐,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학기 초반에 교사가 각 아이에게 맞춘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를 만들어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수정한 뒤에 한 학기동안 그 IEP를 토대로 아이들을 교육한다. 또 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 조기교육, 언어치료 등 여러 치료들을 받을 수 있다.

◆ 선택하기까지

예전부터 나는 인턴십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무병보다 더 긴 기간이기도 하고 졸업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도 인턴하던 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나도 나와 잘 맞는 곳에 가서 졸업한 후에도 자주자주 찾아가서 일하고 싶었다.

처음엔 새로운 곳에 가보라는 쌤들의 추천을 받아서 단체에 연락을 드려봤지만 아무래도 내가 아예 잘 모르는 분야라 3개월 동안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그러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심리 쪽 분야에 갈 좋은 기회가 생겼지만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식만 쌓는 인턴십이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렇게 완전 확정지어 놓았던 단체를 포기하고 나니까 벌써 방학의 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었고 벌써 다른 몇몇 친구들은 인턴을 시작했다. 얼른 다른 단체를 찾아야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딱 이렇다 할 약기를 연주할 수도 없고 컴퓨터를 잘 한다거나 책이라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다. 난 왜 학교 다니면서 그 흔한 악기하나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하면서 5년 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고민 끝에 아이들과 같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니가 추천해 준 다문화센터를 알아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다문화센터보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더 눈에 들어왔다.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더 눈에 났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처음 보기도 했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할 일도 많고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1. 한마음 어린이집에서

1-1. 나의 역할 및 활동

어린이집에서 내 역할은 크게 보조교사와 사진담당으로 나눌 수 있다.

나는 5~6세반인 향기반의 보조교사를 맡았다. 아이들이 등원해서 간식 먹는 것부터 수업을 하고 낮잠 자는 것, 그리고 교실을 청소하는 것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과 지냈다. 5~6세반인 향기반에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유동적으로 다른 반에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반에 가서 도와줬다. 그래서 더 여러 아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

그리고 행사 때나 수업할 때 사진을 담당해서 찍었다. 그 사진들은 키즈노트(알림장 형식의 어플. 학부모님 한 분 한 분께 오늘 있었던 일들과 함께 사진을 보낸다)에 올리기도 하고 어린이집 입구에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 전시해놓기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복지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 활동 한눈에 보기

<하루 일과>

10시	출근, 간식
11시	수업
12시	점심식사
12시 40분	양치, 기저귀 갈아주기
1시	낮잠
3시	오후 간식
4시	청소 및 하원준비
5시	퇴근

<수업 소개>

수업	내용	한 일
퍼포먼스 놀이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퍼포먼스 놀이 프로그램	사진
수중재활	레포트센터와 협력 수중재활프로그램	보조
생일잔치	월 1회 이 달의 생일인 아이들을 다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	사진
소방대피훈련	화재를 대비한 대피훈련	보조
운동재활	레포트센터와 협력 운동재활프로그램	보조
반별 수업	동요부르기, 만들기,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수업을 함	보조

<행사 소개>

행사	내용	한 일
입학식	새로운 학기의 시작	사진
신구대 식물원 견학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견학	사진 및 보조
민속촌 봄 소풍	전통적인 집들과 전통놀이를 경험해보는 소풍	사진 및 보조
어린이날 작은 잔치	시립 악기연주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다양한 악기들을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사진
역통합 프로그램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과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함께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사진 및 보조
사회적응 프로그램	만 5,6세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프로그램. 마트,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곳을 가보는 경험을 한다.	사진 및 보조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관에서 주최한 행사	사진전시

◆ 아이들과 친해지기

사실 아이들과 친해져 갔다가보다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 것 같다. 처음엔 여러 가지로 적응이 안 됐다. 아이들을 밥 먹이면서 내 밥도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도, 밥 먹다가 냄새나는 기저귀를 가는 것도, 아이들이 나에게 침을 묻히는 것도... 적응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이 귀여우면서도 막상 그런 면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진짜 예뻐 보이면서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 봤을 때 같은 단순한 '아 귀엽다'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뭘 해도 예뻐 보였다. 밥 먹다가도 냄새가 나면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면 되고 침을 흘리면서 나한테 안겨오면 안아서 닦아주면 된다. 밥은 아이 특성에 맞춰서 빨리 먹는 아이는 나 한 번 먹고 두 번 세 번 주면 되고 늦게 먹는 아이는 반대로 하면 된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어렵지가 않았다.

사실 아이들이 3개월 동안 맨날, 무조건적으로 예쁘지만은 않았다. 정말 좋고 귀엽지만 솔직히 말을 안 들을 때가 더 많고 그래서 좀 알미울 때가 있었다. 그래도 이런 게 선생님 하는 맛인지, 아이들이 열 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지난 열 번이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울면 아무리 달래도 진이 빠지도록 울음을 안 그치는 아이가 정말 날 힘들게 해서 입다가도 한 번씩 엉뚱하고 귀여운 짓을 하면 다 풀린다. 나한테 장난친다고 내 옷에 손을 넣다가 날 할퀴어서 피를 봐도, 떼쓰다가 나한테 머리 핑할 정도로 박치기를 해도 나중엔 웃음 한 방으로 짝 다 풀려버렸다.

우리반에 IEP(개별화 교육)로 이제 기저귀가 아닌 변기에 배변을 하기로 목표를 정한 아이가 있었다. 기저귀를 떼고 30분마다 유아용 변기에 앉혀서 배변하도록 도와주고 변기에 배변을 하는 것이라고 서서히 인지를 시켜주는 방식인데 아이가 아직 그런 인지가 없어서 그런지 하루에 오전에만 바지를 3~4벌은 버렸다. 운동재활 수업을 하다가 실례를 하기도 하고 텃밭에 갔다가 실례를 하기도 하고 다양했다. 심지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실례한 것을 밟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째!! 밥 먹다가 혼자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길래 혹시나 하면서 도와줬더니 드디어 성공했다!! 사실 우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그 때 기분을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내가 괜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마치 내가 성공한 것만 같은 미묘한 기분을 느껴서 옆 반까지 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했다. 정말 이런 맛에 선생님 하나 보다.



♥♥♥



체육 수업



낮잠 시간

◆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난 이 부분이 일하는 것만큼 어려웠던 것 같다. 내가 붙임성이 좋고 리액션이 큰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걱정을 많았다. 정말 예상대로 처음 가자마자 일단 쌤들이 너무 많아서 얼어버렸다. 쌤들 수가 많아서 이름도 헷갈리고 출퇴근 때마다 인사를 하

는데 했던 사람한테 또 하기도 했다. 쌤들이 농담을 하는 건데 알아듣지도 못해서 대답도 못하고.... 진짜 긴장했었던 것 같다. 또 처음엔 원장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셨는지 다들 그냥 자원봉사로 알고 계셨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엔 다 같이 작은 홀에서 밥을 먹는데 나만 꼬사리 긴 듯한 불편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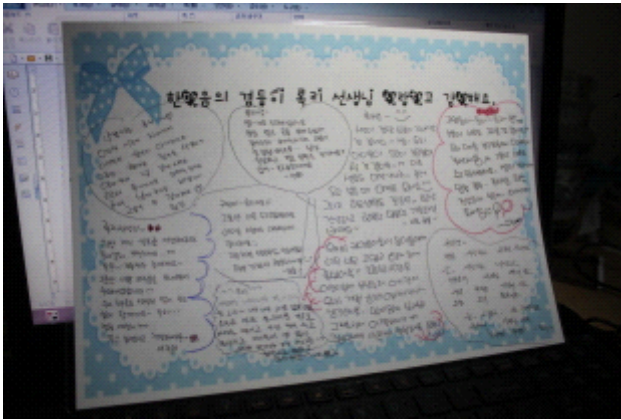
그래도 뜻밖에 나랑 같은 동네에 사는 선생님이 있었다. 성남에 있는 복지관이라서 1시간(대중교통으로) 거리인 용인에 사는 쌤이 있을 줄 몰랐는데 용인에 같은 동이기도 해서 쌤이 항상 차로 태워다 주셨다. 나랑 같은 반이라서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오늘 반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었다. 나중엔 개인적인 얘기까지 나누게 됐는데 내가 딱 쌤 아들 또래고 우리 아빠와 쌤 남편분이 부산분이시고 혈액형도 같은 등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신기해하기도 했다. 맨날 같이 퇴근하다보니까 엄마랑 딸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다녔다.

그리고 몇 주는 오후에 다른 반에서 지냈는데 그 반에 있는 선생님 두 분이 정말 잘 챙겨주셨다. 퇴근하고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주셨는데 가다가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자!”해서 진짜 갑작스럽게 고기도 먹으러 가기도 했다. 이렇게 같이 저녁도 자주 먹고 쇼핑도 같이 하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엽다고 말한 것도 나중에 챙겨주셨다. 또 내가 진로를 고민할 때 선생님의 대학 얘기 등 여러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다. 언니 같으면서 사회 선배같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사실 인턴 기간 중에는 친언니보다 더 오랜 시간 지냈고 더 많이 놀러 다니지 않았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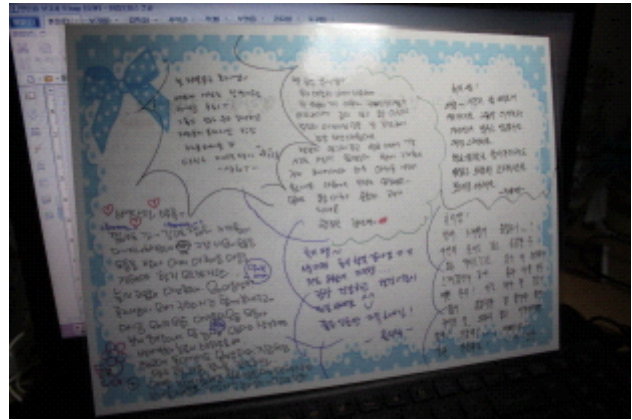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록티, 록리쌤, 겸동쌤까지 다양한 호칭들로 불러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셨다. 그리고 먼저 말을 잘 못 거는 나 대신에 먼저 말을 걸고 다가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인턴기간동안 많은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지냈던 것 같다. 이 보고서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떠났을 한다ㅋㅋㅋㅋ



인턴십이 끝나고 받은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 2

◆ 사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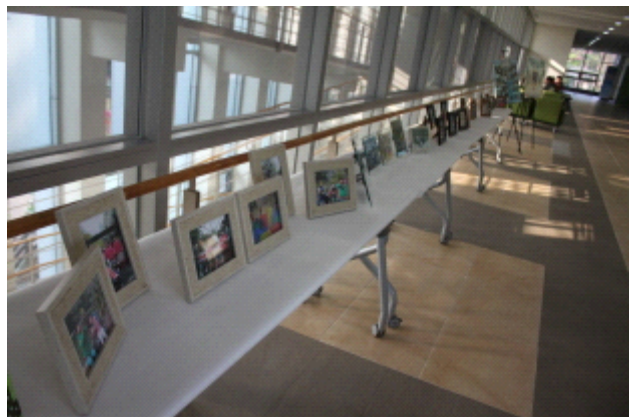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진을 담당해서 찍게 됐는데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일이었다. 아이들은 정말 순간 포착해야 했다. 한마디로 질보다 양이다. 많이 찍고 거기서 대부분은 삭제하고 건진 몇 장을 쓴다. 찍는 것도 일이고 잘 걸러서 지우는 것도 일이었다. 베이비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다른 일상 사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찍으면 되는데 수업에 써서 전시하는 사진들은 아이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찍어야 되고 얼굴이 잘 나오게 찍어야 됐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한 명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두 명 이상을 찍게 되면 정말 연속 촬영을 해야 한다. 한 명이 보면 한 명이 딴 짓하고 또 한 명이 제대로 보면 또 한 명이 딴 곳보고... 이런 식이었다. 단체촬영 할 때는 그냥 딴 데 보더라도 얼굴이라도 나오면 성공!!

그래도 점점 지내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알게 되면서 찍을 때 편해졌다. 근육이 약해서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아이는 밑에서 찍어주고 움직임이 많은 아이는 연속 촬영을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 사진 전시



장애인의 날 전시

1-2. 하루 일과

◆ 식사

아이들이 각자 먹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게 식사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인지가 아직 없어서 먹여준다. 다른 아이는 숟가락으로 먹는다는 인지는 있지만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서 밥을 떠서 입

으로 넣기가 힘들니까 선생님이 손을 잡고 입에 넣도록 도와준다. 또 다른 아이는 혼자 먹을 수 있는데 편식을 하니 혼자 먹게 하다가 안 먹는 반찬을 한 번씩 없어준다. 아이마다 먹는 방법,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반찬, 누구는 국건더기만 먹고 누구는 국물만 먹고... 다 다르다.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뽀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00이는 이걸 안 먹더라.” “00이는 이것만 짝 다 먹더라.” 이런 특성을 알아서 다음에 다른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도 편식하는 반찬은 밥 밑에 몰래 숨겨서 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반찬이랑 같이 준다. 특히 자폐가 있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게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커서는 그걸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싫어하는 간식이나 반찬도 딱 세 번은 먹게 지도해 준다.

◆ 낮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밥 먹고 딱 졸릴 시간에 애들을 재우면서 나도 같이 스르르 잠들 수 있는 시간!! 처음엔 애들을 재워야 될 선생님이 같이 잔다는 게 뭔가 부끄러워서 누워있는 것도 신경 쓰였는데 그건 딱 하루 이틀 이야기였다. 그 후론 아주 잘 잤다.

자장가를 틀고 아이들 이불 양쪽에 깔고 그 사이에 내가 쿠션을 베고 누워서 양쪽으로 토닥토닥해주면서 아이들과 같이 잠이 든다... 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한다. 겨우 한 명 재우고 다른 아이를 재우려고 하면 갑자기 수업 시간엔 안 부르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노랫소리에 자던 아이가 깨서 울고 그 우는 소리에 또 깨고... 이런 상황이 많았다. 자는 것도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한 아이는 조금만 토닥토닥해주면 잘 자는 반면에 한 아이는 안겨있어야 잘 자고 다른 아이는 움직임이 많아서 움직임을 막아줘야 잘 잔다.

그런데 재우다 보면서 깨달은 게 아무리 최상의 조건을 갖춰줘도 아이들 컨디션이 팔팔하면 안 잔다. 오전 수업 할 때 밖에 산책을 갔다 온 날에 더 잘 잔다. 그리고 주말에 쉬고 온 월요일보다 금요일이 훨씬 더 잘 잔다.

처음엔 아이들을 다 재워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 잘 때까지 무조건 같이 누워 있었다. 아이들이 계속 안 자고 놀면 괜히 내가 더 힘들었다. 안자고 놀다가 다른 아이까지 깨우면 두 배로 힘들었다. 그러다 나중엔 아예 해탈했더니 편했다. 안자면 그냥 그림 그리고 놀아라하고 풀어주고 내가 할 일을 했다. 괜히 아무도 시키지도 않은 일에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것 같아서 허무했다. 앞으로는 일을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해야겠다.

1-3. 기억에 남는 수업

① 수중재활

복지관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수업이다. 교사당 아이 한 명씩 맡아서 물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물에 뜨는 연습을 하고 미끄럼틀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도 하면서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준다.

우리 반에 한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서 처음으로 수중재활훈련을 할 때 울고 매달리면서 나가려고 떼를 썼다. 그래서 계속 아이가 좋아하는 동요도 불러주고 달래면서 수업을 해야 했는데 마지막 수업 땀 물을 봐도 울지도 않고 물에도 잘 떠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쉽게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어릴 때 물이 무섭지 않다는 걸 잘 인지시켜 주면 앞으로 커서도 물이 무섭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때까지 스포츠 센터에 있는 수영장에 가고 이런 복지관 안에 있는 수영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일반 수영장 과 조금 다르게 지체 장애인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제일 신기했던 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사로다. 경사로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타야 하시거나 목발을 이용해야하는 분들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물에 뜨는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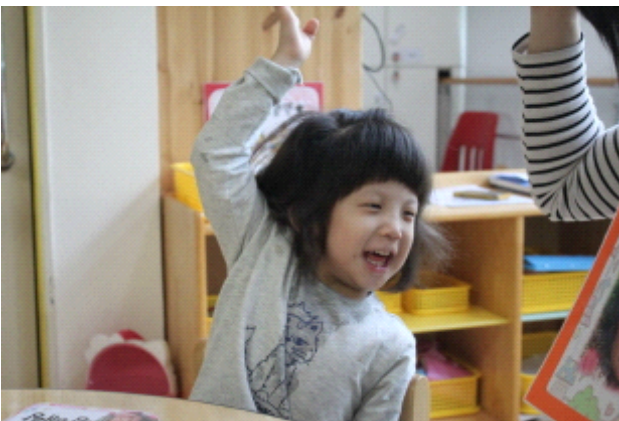


달팽이집을 지읍시다~ 어여쁘게 지읍시다~

② 반별 수업

반별 수업을 할 때는 우리학교 아침열기처럼 아침 모임을 한다. 동요를 부르고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한다.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있는 종이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 손을 들고 대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손을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는 몇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해 주면서 자신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인지시켜준다. 혼자 손을 들지 못하는 아이는 교사들이 옆에서 손을 들게 도와준다.

이 활동으로 실제로 아이들이 이름을 많이 익힌다.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했는데 “00이 어디 있어요?”하고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친구들 수건을 주면서 “이거 00이 자리에 걸어주세요~”하면 거의 정확히 걸어주었던 아이도 있다. 반복적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출석 체크



역할에 맞는 옷 입히기

수업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만들기, 그리기를 하기도 하고 약의 쓰임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멀티미디어로 배우기도 한다. 만들거나 그리기를 하면 옆에서 선생님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만든다. 사실 만들면서 교사가 거의 다 만든다는 느낌도 있지만 되도록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가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직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도 없고 율동을 같이 하는 아이도 없지만 원래 노래에 가사를 정확히 붙이지 않았던 아이가 가사를 정확히 부르고 배웠던 노래를 혼자서 부르기도 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그 노래를 아침 모임 시간에 같이 부를 수 있게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산책을 한다. 어린이집 앞을 산책하기도 하고 옥상정원에 가기도 한다. 옥상정원에 반별로 텃밭이 있는데 반 팻말도 같이 꽂고 모종도 심고 키웠다. 그렇게 자란 상추랑 치커리도 여러 번 따먹을 수 있었다.



아이들과 텃밭 가꾸기



수업 중

③ 역통합 프로그램

일반 어린이집과 하루 만나서 산책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일반 어린이집 아이 한 명, 우리 어린이집 아이 한 명, 교사 한 명 해서 세 명이 한 팀으로 다닌다.

나는 아이들 두 명을 챙기면서 사진 찍어야 해서 몸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산책처럼 느껴졌었다. ‘하루 같이 있는다고 어떻게 친해지겠어.’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현실에 찌든 내 생각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은 천진하게 금세 친해져서 다음엔 또 다른 친구랑 짝해보고 싶다고 또 만나자고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같은 어린이집 아이들과 계속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장애가 자기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도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나 행동 등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다함께 산책 중

④ 민속촌 봄 소풍

민속촌은 나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서 같이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다. 사진은 아이들 사진만 찍기도 바쁘고 점심시간이라도 아이들을 같이 먹이고 나도 먹고 계속 아이들을 봐야 했다. 그리고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 아이를 잡고 가면서 사진을 찍어야 했다. 아이가 잘 따라 와주면 정말 편하겠지만 다리가 조금 불편한 아이라서 빨리 걷지 못하고 걷다가 유모차에 타다가를 반복했다.

너무 힘든 와중에 다른 일반 유치원에서도 소풍을 나왔는지 긴 끈을 풀어서 아이들이 그 끈을 잡고 줄 맞춰서 빠르게 선생님을 따라서 걷는 것을 보고 약간 부럽기도 했다. ‘저 선생님 진짜 편하겠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쌤들이 몸은 조금 더 힘들지 몰라도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았다. 소풍을 나오니까 애들이 전부 신나 해서 힘들면서도 같이 신난 하루였다.



그네



전통악기 연주



웃놀이

1-4. 아이들의 이야기

* 아이가 좋아하던 티셔츠

항상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가는 아이가 있었다. 하루 종일, 나보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서 안타깝지만 엄마 아빠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아이가 매일 들고 다니던 핑크색 티셔츠가 있었다. 아이가 입을 크기도 아니고 내가 입어야 맞을 만한 크기인데 보풀이 일어나고 때가 탔는데도 꼭 가지고 다니던 티셔츠다. 잘 때, 수업할 때, 밥 먹을 때 모두 예외 없이 꼭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티셔츠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방에 혹시 들어 있을까 찾아보고 서랍도 찾아봤지만 없어서 찡찡대면서 울기도 하고, 낮잠 잘 때도 나한테 티셔츠를 갖다 달라고 제스처를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너무 좋아하던 티셔츠를 잃어버렸구나. 그래도 이제 버릇을 고칠 때도 됐지’하고 생각했는데 계속 아이를 보다 보니 아이가 외로워 보였다. 나보다 어린이집에 더 오래 있는 아이, 항상 낮잠 잘 때 팔베개를 해달라고 조르던 아이, 옆에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기를 보라고 고개를 자기 쪽으로 당기던 아이, 자다가도 옆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찾던 아이, 찾다가 없으면 울고 그칠 줄 모르던 아이, 울면서도 계속 안기고 싶어 하던 아이. 그래도 항상 주말이나 연휴 때 쉬다 오면 훨씬 울지도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이.

아직 엄마랑 있고 싶고, 놀고 싶는데 엄마가 바쁘셔서 외로웠던 게 아닐까. 혹시 그래서 그 핑크색 티셔츠를 엄마 대신으로 꼭 안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집에 와서도 혼자서 잘 먹을 수 있고 놀이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잘 찾아서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보다 신경을 덜 써줬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많이 예뻐 해주지 못해서 아쉽다.

* 갈색이 뭐예요?

어린이집에 말도 잘하고 건강한데 눈이 불편한 아이가 있다. 운동재활 수업을 할 때 빨리 하고 싶다고 제일 먼저 손 들고 웃음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평범한 아이다. 그리고 또래처럼 궁금한 것도 많다. 항상 내가 “00아 얼른 오른쪽에 포크 잡고 간식 먹어요~”하면 “간식 먹고 뭐해요?”, “간식 먹고 놀이할 거예요.”, “무슨 놀이할 거예요?”, “자유놀이 할 거예요. 간식 먹고 00이가 하고 싶은 영역 가서 놀이해요~”, “놀이하고 뭐해요?”, “00이 집 가야지요.”, “집 가서 뭐해요?”... 이렇게 끝도 없이 장난스럽게 물어본다.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아이인데 어느 날 “선생님 갈색이 뭐예요?”하고 물어왔다고 한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심장이 철렁했다. “나무가 갈색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나무를 본 적 없는 아이에게 갈색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이론적인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졌다.

나는 보는 게 너무 당연해서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가 색깔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한테는 너무도 당연한 게 그 아이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2. 인턴십을 통해서

2-1. 느낀 점

* 3개월 동안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턴십을 언제 정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나 했는데 눈 깜빡했더니 끝나버렸다.

이 분야가 사실 원래부터 관심 있고 하고 싶었던 분야는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장애 아이들과 지내는 나를 자꾸 상상해 보게 되었다. 더불어 평소 만날 기회가 없었던 장애 아이들과 지내면서 나한테는 여러모로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잘 맞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일반 아이들보다 더 신경 쓰이고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챙겨주다 보니 더 정이 깊숙이 든 것 같다.

인턴하면서 좋을 때도, 당연히 힘들 때도 있었는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힘든 건 기억이 잘 안 난다. 점심, 간식 다 맛있게 먹고 아이들 재우면서 낮잠도 같이 자고... 저녁 땀 선생님들이랑 놀러 다니고 내가 아이들을 돌본 건지 그냥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지냈다.

* 편견을 깨닫고 편견을 깨보다

처음 가자마자 ‘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깨졌다. ‘이 아이는 무슨 장애일까?’하고 궁금하면서도, 물어보는 게 혹시나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쉽게 물어보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편견이었다. 또 ‘장애가 있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면 편견인 것 같다. 내가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느낀 장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이었다. 배우는 방법이 다르고 배우는 시간이 느린 것 뿐이다. ‘장애가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위치의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도운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돕는 것은 그냥 자기만족이었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내가 장애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는 3개월이었다.

* 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 번 교육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특히 유아기 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커서 성격, 생각 등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아이가 지금 싫어한다고 무조건 피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위에 쓴 대로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가 조금씩 물을 친근하게 여기고, 장애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을 만나서 친해져도 보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커서도 영향을 미친다니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내가 곤충을 정말 싫어한다. 실물은 정~말 싫고 그림을 만지는 것도 싫고, 곤충 모형은 더욱 더 싫는데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비나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프린트해서 코팅하고, 교실에 붙여놓아야 하고, 아이들이 놀다 어질러 놓은 곤충 모형들을 치워야 했다. 또 산책을 나가면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는 손에 올리고 놀고 잡아서 나한테 주려고 한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힘들고 싫는데 선생님이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따라서 무서워한다는 말을 듣고 티를 절대 내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다. 유치해 보이겠지만 그림 최대한 안 만지려고 애쓰면서 가위질하고 어질러 놓은 곤충 모형은 일부러 교육시키는 척하면서 “자기가 논 건 자기가 정리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직접 치우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엔 진짜 꼭 참고 자기최면을 걸면서 치웠다.

이렇게 곤충을 싫어하면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꼭 참은 만큼, 아이들은 잘 교육받아서 나처럼 곤충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곤충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무서워하는 것 없이 씩씩했으면 좋겠다.

* 입장의 차이

3학년 무빙 때 장애인요양원에 가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잠깐 돌보아 본 적은 있지만 막상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종일, 그리고 봉사자가 아니라 보조 선생님이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그때랑 너무 달랐다. 봉사자는 아이들을 돌보기만 하면 된다고 치면 선생님은 아이를 책임져야했다. 그리고 아이의 습관이나 뭘 편식하고 뭘 좋아하는지, 무슨 놀이를 좋아하는지 등을 알고 왜 그럴까 고민하고 이해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다.

내가 그 때 요양원에서 봉사를 할 때는 지금보다 더 어리기도 하고 시간이 짧기도 해서 우리가 과연 도움이 될지, 괜히 폐만 더 끼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시설에 있고 봉사 오는 사람들을 보는 입장이 되어 보니 언제나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했다. 소풍이나 견학 같은 외부 행사를 나갈 때 절실한 건 당연하고, 어린이집에 있을 때도 봉사자들이 있으면 정말 여러모로 든든하고 고맙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선뜻 봉사를 하러 와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봉사의 의도가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 요즘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손길을 뻗어주면 좋겠다.

* 아쉬운 점

솔직히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봉사자의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정말 이곳 선생님들처럼 지내려면 한 시간 더 일찍 출근해

서 회의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한 번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은 ‘봉사자가 회의에도 들어오나?’하며 쭈뼛쭈뼛, 나는 그런 눈치에 쭈뼛쭈뼛. 그러다가 결국 3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부탁드려 봤어도 됐을 것 같다. 부딪쳐 봐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내가 직접 수업을 진행시켜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가 모르던 분야라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한 번쯤은 수업을 진행시켜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예뻐해 주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 인턴을 할 때 당시는 몸이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과 있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던 것 같다. 지나고 보니 아이들한테 한 번 더 동요를 불러줄 걸,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머리를 빗어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

3. 부록

3-1. 사진



즐거운 생일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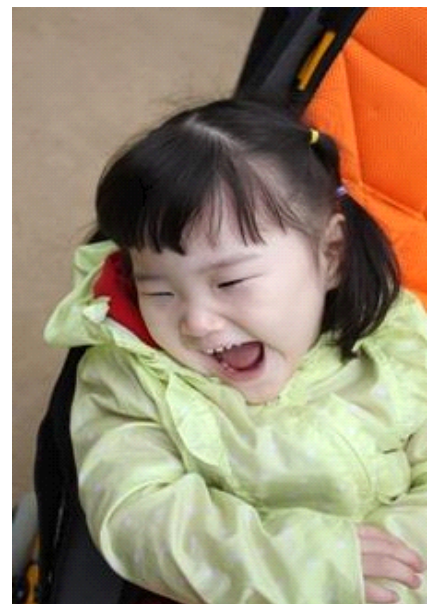
간식 시간



before



after



♪



토닥토닥~



산책 중



zZz



미용실 놀이~



제발



사진 좀



짹자!!



애들아 앞 좀 봐 줘 ㅜㅜ



도레미파



비눗방울 놀이



내려 주세요~



자유놀이



꿀벌



ㅎㅎ



ㅎㅎㅎ



주말 지낸 이야기 발표



브이~



♪



청소!



나비

먹음직스러운 고라니가 뛰노는 곳에서 짧고 깊은 98일

시골집 / 3.3~6.8

박수열

목차

1.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 1-1. 시골집을 선택하게 된 동기
 - 1-2. 내가 생각하는 인턴십이란?

2. 단체 소개
 - 2-1. 시골집은 어떤 곳일까?
 - 2-2.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3. 시골집에서 두 계절을 보내며 있었던 일들
 - 3-1. 3월. 추위 속에서 옥쟁이 현수 아저씨와 장작패기
 - 3-2. 농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 3-3. 4월. 첫 농사의 시작!
 - 3-4. 돌과 인내의 사투
 - 3-5. 지옥의 안골마을 돼지 똥 거름주기 프로젝트
 - 3-6. 햇갈리는 고랑과 이랑
 - 3-7. 농사의 힘듦과 배움을 동시에 배웠던 시기
 - 3-8. 강제 채식 경험! 고기가 먹고 싶다...
 - 3-9. 꿀벌들과 시골집과의 공생 관계
 - 3-10. 내가 농사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
 - 3-11. 노래를 흥얼흥얼~ 힘들어도 웃음 나는 농사는 처음이야!
 - 3-12. 군인들과 시골집 자존심을 건 축구 시합
 - 3-13. 98일간 두 계절을 보내며...

4. 내가 바라본 시골집 모습과 아쉬웠던 점

5. 소감
 - 5-1. 농사
 - 5-2. 단체
 - 5-3. 소감 및 계획

1.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1-1. 시골집을 선택하게 된 동기

인턴십을 발표하기 전에 단체를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 무빙스쿨 땀 나의 진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한 ‘봉사’, ‘나눔’ 이란 분야로 갔었다. 이번에도 매번 그래 왔듯이 봉사 쪽을 찾다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려고 몇 곳을 찾아다니며 계획을 잡고 있었다. 이제 아동센터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려고 방문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가 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오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그럴싸한 단체에서 무빙스쿨 2년을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인턴십만큼은 내 관심사가 아닌 새로운 곳을 찾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다 현숙 쌤과 기말 면담에서 인턴십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이번은 봉사 쪽이 아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쪽에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시골교회’를 추천해 주신 게 생각이 났다.

사실 시골교회를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해서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턴십을 시작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을 뿐더러 새로운 곳에 가고자 의지가 컸던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골교회에서 쓰인 책 한권만 달랑 읽고 가게 되었다.

1-2. 내가 생각하는 인턴십이란?

인턴십은 6년 동안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내며 자신의 꿈을 찾아내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꿈을 미리 경험해보는 과정이다. 아직 미성년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꿈을 키워 나가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은 인턴십을 통해 방향을 찾아나가는 계기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단체 소개

2-1. 시골집은 어떤 곳일까?



강원도 화천군 산속에 자리해 장애인과 안장애인이 함께 농사지며 의식주를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이다. 농사가 주된 생활이며, 농사지는 수확물과 장(간장, 고추장, 된장, 조청, 효소)은 매월 10월 장터에 판매를 해 수익금을 내년 농사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시골집은 1982년 임락경 목사님과 시골집 사람들이 손수 지으셨다. 예전에는 40명 정도가 있었지만 복지 혜택이 좋아지면서 현재는 15명 정도가 같이 지내고 있다. 원래 이름은 설립자가 목사님이시다보니 시골교회인데, 교회 말고 집이라 부르는 게 더 친숙하고 공동체 같다고 생각하셔서 시골집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신다.

2-2.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목사님은 시골집 사람들에게 시골집을 내주고, 자신은 옆 마을인 '안골마을'에 살고 계신다. 어릴 때부터 유명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한센병 환자들을 도우면서 살아오셨다고 한다. 사치스러운 데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옷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현재는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고 건강교실을 여신다. 간디학교에도 몇 번 오신 적이 있다고 한다. 바쁘지 않으실 때에는 평범한 마을 주민 같으시다. 재미는 없지만 뛰어난 유머 감각도 있으신 분이다.

3. 시골집에서 두 계절을 보내며 있었던 일들

3-1. 3월. 추위 속에서 옥쟁이 현수 아저씨와 장작패기

▷ 한 달간 장작 패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패딩을 두 개나 껴입어야 될 정도의 추위가 말이다. 강원도는 그만큼 추워서 4월쯤에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한 달은 농사준비와 허드렛일을 했는데, 오로지 장작만 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현수 아저씨와 한 달을 보냈는데 정말 욕을 배터지게 먹었다. 현수 아저씨는 대화할 때 욕을 섞어가며

큰소리로 말씀하신다. 처음 현수 아저씨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화를 내시는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화내시는 게 아니다. 말을 할 때 감정 역제가 안 되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나도 처음엔 같이 일하면서 화를 내시는 줄로만 알았다. 내가 장작 패는 요령도 없고 힘도 썩 좋은 편도 아닌데, 매일 나를 보며 한숨을 쉬시고 욕만 하시니 오해할 만했다. 근데 이곳에선 ‘다 네가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라고 하셨다. 좋아하는데 화 내면서 욕을 한다?? 처음에는 안 믿어서 욕을 하실 때 가끔 짜증도 났다. 그래도 한 달간 매일 같이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갔다. 1년 동안 쓸 장작을 다 패고 끝났을 때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수고했어!”하셨을 때 ‘마음을 겉으로 표출을 잘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이 여린 분이셨구나’라고 느꼈다.



덕분에 어깨너머로 장작 패는 것도 배우고 그 후로 정말 친해져서 얘기도 자주 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아저씨가 나 아니면 일이 잘 안된다고 매일같이 반강제로 데려가셨다. 50대 후반으로 우리 아빠뻘 되는 분이셨지만, 세 달 지내면서 현수 아저씨와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가장 크다.

3-2. 농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 거름기 없는 밭 가꾸기, 거름과 비료 주기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모두 같이 준비를 해나갔다. 거름기가 없는 밭에 돌을 줍고, 거름과 비료를 주고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서 잘 섞어놓았다.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시골집 땅은 4000평에 뒷산까지 1만평으로 어마어마하다. 제일 귀찮은 일이 돌 고르는 일이었던 것 같다. 겉에만 보이는 자그마한 조약돌만 주우면 될 줄 알았는데,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면 흙 안에 있던 큰 돌들이 언제 없었냐는 듯 계속 나왔다. 그렇게 돌을 다 고르고 농사를 지어도 내년에 다시 지을 때보면 신기하게 돌이 다시 생겨있다고 하셨다. 7~8년 농사지은 땅에나 돌이 안 나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3-3. 4월. 첫 농사의 시작!

▷ 처음 농사로 감자 심기

얇은 옷을 입으면서 점점 따듯해짐을 느낀다. 날씨가 점차 풀리고 있다. 첫 시작으로 감자를 심었다. 감자는 재를 묻혀서 심는데, 재가 천연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는 것을 방지해준다. 재는 농사에서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먼저 인간 쟁기로 두둑을 냈는데 우리 학교에도 인간 쟁기가 있지만 땅이 고르지가 않으면 배와 허리에 무리가 간다. 근데 이곳 분들은 연세가 40살에서 60살이셔서, 자칫 무리를 하시게 되면 평생 갈 수도 있다. 때문에 주로 내가 쟁기를 맡았고,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나중에는 소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쟁기는 나의 천직이 되었다.

농사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랑(깊이 파인 곳)에다 심어 이랑(솟아오른 곳)에 있는 흙을 덮어준다. 그렇게 첫 작물을 성공적으로 심었다.

3-4. 돌과 인내의 사투

▷ 외벽 리모델링 작업

농사가 시작돼 바쁜 와중이었다. 작년부터 겨울 추위 때문에 외벽 단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돌로 쌓았던 건물 외벽과 안 쓰던 욕실을 헐어야 했다. 워낙 위험한 작업이라 건강하고 힘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현수 아저씨가 자발적으로 선포 자기가 하겠다고 하셨다.

‘혼자서는 절대 못하실 텐데...’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저번 장작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현수 아저씨와 내가 짝꿍 같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수 아저씨가 “수올라 가자!!” 말씀하셨다...^^ 그때 안한다고 했어야 했다. 나는 몰랐다. 돌과 이렇게 오랫동안 애인처럼 붙어있게 될 줄은.

처음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일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한 달 동안 이 일을 해야 했다. 난 농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각자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했다. 꽤나 많은 돌을 들어냈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다. 그래도 긴 시간동안 한 일이라 성과가 굉장히 커서 끝내고 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고 승리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아침부터 돌을 보며 한숨을 쉬었던 한 달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돌만 봐도 아주 이골이 난다.

3-5. 지옥의 안골마을 돼지 똥 거름주기 프로젝트

▷ 안골마을에 품앗이로 거름주기

4월 중순,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게 작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코를 찌르는 범상치 않은 냄새가 나더니 덤프트럭 4~5대가 어마어마한 양의 돼지 똥을 실고 왔다. ‘이미 우리 밭에는 거름도 다 줬고, 거름으로 잘 만들어 팔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에 목사님이 옆 마을 안골마을에 이틀 정도 돼지 똥을 좀 뿌리고 오자고 말씀하셨다. 그때 시골집 식구 모두가 안색이 살짝 안 좋아하셨다. 안골마을은 바로 옆 마을인데, 시골집에 전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 많은 거름을 뿌리긴 마을에 인력이 모자라 시골집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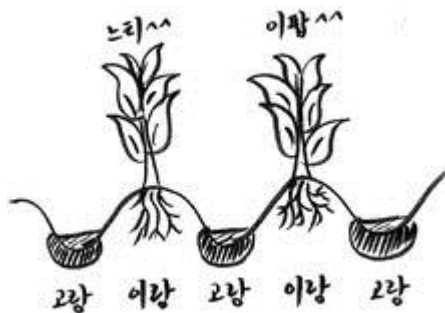
이른 아침부터 이미 온 동네에 퍼진 똥냄새를 맡으며 일어났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곳은 농기계를 쓰지 않아서 자그마한 트럭으로 퍼 날라다주면 삽으로 뿌려야 했다. 이 엄청난 거름 프로젝트는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진행되었으며, 밭이 어느 정도 컸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덤프트럭 4~5대가 왔다 갔으니 크기가 대충은 짐작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다짐하며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활기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이 더워지면서 하나둘씩 대화 없이 기계처럼 일을 했다. 저번 주까지는 흙더니 갑자기 왜 이리 더워졌는지, 실수로 사람을 못보고 똥이라도 뿌리면 일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며 싸우기도 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똥냄새를 풍기며 중국집에 갔다. 먹으면서도 냄새가 나서 마치 자장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즐거운 저녁이었다.

3-6. 헛갈리는 고랑과 이랑

▷ 고랑과 이랑 구분법

시골집에 지내면서 농사 기초 지식이나 고랑과 이랑을 구분 못해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서 혼자 공부를 했다.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고랑과 이랑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땅에 쟁기로 두둑을 내면 고랑과 이랑이 생기게 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고랑이고,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 이랑이다. 고랑과 이랑은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선조들의 큰 지혜가 담겨있다고 한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 밭에 물이 고이게 되면 작물이 썩게 된다.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랑을 잘 만들어 놓으면 배수구가 되어 밭에 물이 고이게 되는 일이 없다. 또 바람의 통로 역할도 하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어 김매기나 수확을 할 때 큰 편리함을 준다.

3-7. 5월. 농사의 힘들과 배움을 동시에 배웠던 시기

▷ 작물 심는 시기, 수확 시기, 관리법 등을 배우고, 농부는 엄청나게 부지런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됨

하우스의 온도계가 34도를 가리킨다. 추위가 그리워질 정도로 더워져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팔은 새까맣게 그을린다. 이 더워지는 시기에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는 오전 농사를 하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오후 농사를 한다. 오후 1시에서 3시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데, 이때 일을 하면 사람이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경험해보았다.

매일 밭에 물을 주고, 이틀 간격으로 김매기와 복주기를 했다. 이 일은 농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이때가 가장 힘들어서 기억에 깊게 남기도 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운 때이기도 하다. 한 달간 약 스무 가지 정도에 작물을 심었는데 작물마다 심는 시기, 수확 시기, 관리법 등을 모두 여쭙보았다.



하나하나 배우고 여쭙보면서 느낀 것은 농사는 ‘관리와 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힘들고 귀찮아서 그 날 해야 할 김매기를 미루면 다음은 잡초가 더 자라있어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서 농사는 끝없는 관리와 정성으로 가꿔줘야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배웠다.

3-8. 강제 채식 경험! 고기가 먹고 싶다….

▷ 살려주세요.

시골집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정말 특별한 일은 송별회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고기를 안 먹는다고 보면 된다. 시골집은 유기농 식품과 직접 농사지는 것만 먹는다. 아침은 죽, 점심은 유기농 초록식단, 저녁도 유기농 초록식단, 참까지 100% 유기농 건강빵이니 여기 있으면서 육류의 맛을 잊어버릴 뻔한 적이 많았다. 여기에 98일을 있으면서 고기를 3번 먹었으니 대충 어림잡아 ‘한 달 채식하고 고기 먹고’를 세 번 반복한 셈이다. 육류를 못 먹고 농사를 해서인지 처음 이 곳에 왔을 땐 62kg이었는데 58kg까지 빠져 강제 다이어트를 했다.

그래도 채식의 좋은 점은 느낄 수 있었다.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 피부가 좋아지는 것과 장이 좋아져 소화가 잘 되는 것. 난 이 두 가지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그래도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줘야 한다.



민지 기억해.

3-9. 꿀벌들과 시골집과의 공생 관계

나는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한다. 어릴 적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언제부터 갑자기 싫어져 만지기도 꺼려한다. 근데 인턴십 중 양봉을 하게 되어 수많은 벌들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양봉이란 벌들에게 꿀을 얻기 위해 벌통을 만들어 두고, 벌들이 그 안에 살면서 꿀을 조금씩 저장해두면 꿀을 채취하는 것이다. 벌통 안에는 벌이 집을 지어 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는다. 벌통만 두고 꿀을 가져가면 벌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시골집 소유인 뒷산 1만평에 심어진 수많은 아카시아 나무나 짙레꽃 등을 제공하니 시골집과 벌들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옆에서 목사님을 거들어 드리며 지켜보았는데, 양봉은 벌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작업을 끝내야 한다. 시간이 지연되면 벌들이 화가 나서 소매나 옷깃 쪽으로 파고 들어와 인정사정없이 싸버린다. 한번은 머리에 망을 썼는데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머리카락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머리를 쏘인 적도 있다.

양봉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꿀을 채취하기 위해 벌통 안에 벌집을 뺀 후 다시 구분을 잘해서 넣는 것이다. 벌집은 직사각형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집마다 사는 벌이 다르다. 여왕벌, 일벌, 수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자 맡는 역할들이 있어서 실수로 다른 판을 넣었을 시에는 새로운 벌이 들어와 서로 경계하며 일을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서로간의 다툼이 일어나 집을 나가버리게 된다.

양봉을 하며 꿀이 가득 찬 벌집도 먹어보고, 그 비싼 로열 젤리도 먹어보았다. 벌레에 대한 두려움도 양봉 덕분에 조금 사라져서 나중에는 벌을 손에 얹고 놀기도 했다.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많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값진 경험을 했다.

3-10. 내가 농사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

어느 무더운 날, 옆 마을 주민분이 오셔서 모판을 내려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며 품앗이를 부탁하셨다. 이번에도 현수 아저씨와 내가 가게 되었다. ‘모판 내기’는 모내기에 앞서 범씨에 싹을 틔우는 작업이다. 싹을 틔우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양한데, 마을 주민께서는 시골집과 다른 방법으로 하셔서 새로운 배움을 앞두고 기대가 됐다.

이른 새벽부터 품앗이를 부탁하신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물 없는 라면을 먹으며 오늘 할 일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이곳 강원도 화천에서 계속 살아오셨는데, 기계가 발달되면서 예전과 지금의 농사 방식이 너무도 많이 달라져서 예전 농사의 매력과 정이 그림다고 하셨다.

한참 말씀을 듣다보니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모판 내기를 시작했다. 모판은 범씨 파종기로 눈 깜짝할 새에 몇백 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이제 모판을 물이 차있는 논밭에 놔둬야 하는데, 진흙에 밭이 푹푹 빠지는데 4~500개를 나르니 허리가 부서질 것 같이 아팠다. 근데 어르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옮기시는 모습을 보고 ‘농사에도 경력과 노하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줄을 이용해 모판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옮겨두면 양쪽에 철사를 박아 구부려 하우스 뼈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비닐을 씌운다. 마지막으로 범씨가 잘 자랄 수 있게 모판 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근데 이미 모판은 비닐로 덮여있어 부직포를 덮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어르신들이 실수하셨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았다.

이 기가 막히는 것을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모판 내기 과정은 첫 번째로 범씨 파종기로 모판을 만들고, 두 번째로 논밭에 네 개의 말뚝을 박아 줄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그 틀 안에 모판을 놓는다. 세 번째로 줄을 풀고 직사각형 양쪽 끝에 철사를 박아서 비닐을 씌운다. 이때 줄을 모판 위에 일자로 둔다. 마지막으로 비닐이 덮인 상태에서 부직포를 까는 일만 남았다. 아까 일자로 둔 줄 한쪽에 부직포를 묶는다. 그리고 반대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부직포가 모판에 깔리게 되는 것이다.

모판 위를 지나가며 덮여지는 부직포를 보면서 단순히 멋있다는 표현만으로는 형용 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농부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이 일로 인해 농사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

3-11. 노래를 흥얼흥얼~ 힘들어도 웃음 나는 농사는 처음이야!

목사님이 모내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다. 모내기가 단순히 물만 받아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직접 해 보니 농사 중에 제일 힘이 드는 것 같다.

먼저 물이 골고루 받아지기 위해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 땅을 평탄하게 만든다. 그 다음 물을 대고 논 주위에 독을 일정하게 쌓아 올린다. 독 한 쪽이 낮을 시엔 그쪽으로 물이 다 빠져 버려 모가 말라 죽기 때문에 잘 쌓아야 한다. 근데 너무 물이 많아도 모가 죽는다.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빠지는 배수로도 만들어줘야 모내기 준비가 끝이 난다.

모내기 당일, 인력이 많이 필요해 시골집 식구 대부분이 도와주러 갔다.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 오셔서 그런지 시골집 사람보다 목사님 지인분들이 더 오셨다. 논밭으로 들어가 양옆으로 서서 일정하게 모를 심어 나갔다. 날씨가 더운 탓인지, 하다가 옆 사람 때문에 물이 튀기면 서로 짜증을 내니까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며 하자고 했다. 구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모내기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니 괜스레 기분도 좋아지고 더위도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옆에서 같이 심으시던 할아버지가 모내기의 달인이라 목사님이 부르셨다는데, 진짜 손이 빗처럼 빨라 할아버지가 지나가신 길에는 이미 모가 다 심겨있었다.

다행히 날이 더워지기 전에 끝내서 모내기하셨던 분들 모두 시골집에서 점심으로 고기와 막걸리를 대접했다. 모내기할 때 계속 몸을 숙이고 하니 허리가 아팠지만, 힘들게 일하고 다 같이 식사를 나눌 때면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거짓말 같이 아픈

이 짝 사라졌다. 역시 농사는 이런 맛으로 하는 것 같다.



3-12. 군인들과 시골집 자존심을 건 축구 시합

어느덧 시골집 생활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식구들이 가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나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인턴십 동안 못했던 축구를 시골집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시골집 식구들끼리는 인원이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헌병대 내무소에 찾아가 축구 시합 도전장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동네 축구 하듯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시골집 식구들, 안골마을 사람들, 동네 주민, 근처 주유소 사장님까지 먹을거리를 싸들고 오셔서 체육대회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시골집 축구팀은 40대 아저씨 세 분과 청년 네 명이 있는 반면 군인들은 20대에 다들 몸이 건강해서 당연한 패배를 예상했지만 실제완 달랐다. 매일같이 하는 삼질, 호미질, 도끼질 등으로 다져진 농부의 힘이였을까, 전력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 팽팽한 경기였다. 결국엔 6:5로 군인이 이겼지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훈훈한 경기였다.

3-13. 98일간 두 계절을 보내며...

마지막 일주일을 정리하며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눈여겨보았다. 돼지 똥 푸기, 모내기, 돌 옮기기 등 큰일은 없었지만 이제 시골집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지내며 얘기를 못 나눴던 식구들과 대화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생선, 해물, 고기도 실컷 먹었다. 시골집과 안골마을에서 송별회를 세 번이나 해줬기 때문이다. 시골집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마지막 날 주말 예배를 드리고 떠날 채비를 했다. 식구들 중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던 반면 내가 제일 좋아했던 현수 아저씨는 시큰둥하게 인사만 했다. 그래도 제일 친했던 사이였는데 조금 섭섭해서 “이제 가서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아쉬워요?”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길게 지냈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와!”라고 하셨다. 웃으면서 알

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난 다시 이곳에 올 것 같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의 식구들과 지내면서 쌓였던 정과 작물을 심기만 하고 못 먹고 가서 먹으러 오는 것이다.

멀어지는 시골집을 보며 문득 처음 올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끌며 왔는데, 떠날 때가 되니 그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성장한 것 같다. 농사 지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해서나 필수적인 의식주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내면이 성장한 것 같다. 98일, 1년의 4분의 1이며 두 계절을 보내던 시간 동안 시골집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간다.

▶ 그동안 심은 작물들

4월	밀	감자	고구마	마늘	곰취	가지	호박	대파
	보리	당근	옥수수	콩	고추	쪽파	토마토	
5월	참깨 / 들깨	참외	벼	양배추	수박	땅콩	샐러리	부추
6월	팥	오이	수수					

4. 내가 바라본 시골집의 모습과 아쉬웠던 점

처음 알고 간 시골집은 서로 도우며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였다. 근데 내가 온 시기부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자급자족은 하되, 각자 자립을 해보자는 취지로 개인 받을 정해 따로 농사를 짓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감히 말하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공동체와 자급자족이 깨져버린 것이다.

몇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시골집의 취지가 하루에 바뀌어 버리니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자립하자는 취지를 내세운 분은 시골집에서 가장 오래 지내면서 총 관리자 역할을 하고 큰 권력을 갖고 계신 원장님 이셨다. 원장님과 죽이 잘 맞으시는, 시설을 관리하며 농사를 주도하고 책임지는 한이 아저씨라는 분도 함께 하셨다. 이 두 분은 자기주장이 강하셔서 회의 때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내세워 정해 버릴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두 분이서 별 얘기 없이 제멋대로 취지를 바꿔 버려 나머지 분들이 화가 나신 것이다. 평소 일을 할 때도 따로 하거나, 크게 다 틀 때면 일이 중단되어 버리기도 했다.

나는 배우러 온 입장이라 누구의 편에도 서지 못했는데, 중간 위치에 서서 욕설과 상대를 비하하는 것을 듣다보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시골집 모습을 보고 실망이 컸다. 만약 시골집이 계속 공동체로 나아갔더라면 배울 점이 훨씬 많고 대인관계에서도 원활했을 것 같아 아쉽다.

5. 소감

5-1. 농사

인턴십을 하며 한국 농사의 안타까운 점들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그 중 농부들이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옛날에 기계가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농기구를 직접 발명을 했다고 한다. 발명한 농기구

중 몇몇은 더욱 발달되어 현재 농사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 현재 한국의 농사는 기계가 들어오면서 옛날 농사 방식과 많이 달라졌다.

기계 덕분에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편리해지기 시작하니 농부들은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나는 기계를 쓰지 않고 원래 농사 방식대로 짓는 것, 두 번째는 기계를 이용해 힘을 들이지 않고 편리함에 젖어드는 것이다. 농기계만을 이용해 계속 짓게 된다면 농사의 매력을 점점 잊을 테고, 성취감도 다를 것이며, 단순히 돈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것을 반대한다. 시골집에 식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기계에 편리함을 알게 되어 어떤 사소한 일든 간에 기계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모른다. 무슨 일든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농사도 기계로 인해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옛날 선조들의 농사 방식을 꼭 이어나가 나중에 후손에게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5-2. 단체

처음에는 농사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한집에서 식구끼리 자급자족하다보니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고, 같은 식구들이라 보니 멘토가 없어 모든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하나하나 물어보고 배워야만 했다.

대인관계도 좋지 않았다.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 나뉘지면서 일을 할 때 눈치보면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오히려 시골집에서보다 임락경 목사님에게 가르침과 사소한 배움을 더 받은 것 같다. 그래도 이곳에서 의식주를 직접 해결해 나가니 생활 필수 요소들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었다.

결론은 좋은 점도 많지만 솔직히 인턴십 단체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시골집은 몇몇 사람들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 식구들 절반 정도가 나간 상황이라고 한다. 대인관계도 좋지 않아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다. 농사에 흥미가 있다면 '변산공동체'와 같은 다른 단체에 가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5-3. 소감 및 계획



6년을 지내며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뛰어들어 보자라는 결심을 했고 결과는 아주 값진 배움이였다. 사회 체험으로 세 달을 지내며 여러 가지 힘든 점과 한계의 부딪혔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나의 내면과 외면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인턴십이라는 과정이 나를 한층 성장시켜주고,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해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사를 더 배워보는 것이다. 농사를 배우며 지역별로 농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흥미가 생겼다. 다른 지역은 어느 시기에 시작하며, 무엇을 주로 심고, 수확 시기는 언제이며, 토양 상태는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다. 또 세 달이라는 기간이 짧다 보니 수확을 직접 해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다. 그래서 나는 졸업 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농사를 배워보려고 한다. 입대가 대충 1~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며 농사를 하며 살아갈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들쥐의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 3.3~6.3

김상연

목차

I. 시작

- 소개
- 동기
- 가기 전

II. 활동

- 글쓰기
 - > 청소년 캠프 기획안
 - > 소식지 '늘 푸른 마당'에 소개 글 작성
- 참여
 - > 에코시티 환경투어 및 기행문 작성
 -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활동가 워크숍 및 기행문 작성
 - > 광고산 숲속 대탐험
 - > 하천 모니터링
 - > 수원청개구리시민학교 모니터링단
 - > 생태통합안내자교육
 - > 그 외
- 실행
 - > 6.4 후보자선거 경기도 후보자 정책제안하기
 - > 회원의 날 영상 제작

III. 마무리

- 마치며
- 인터뷰

1. 시작

- 소개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수원 지역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되돌리는 일에 앞장서고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설립된 지역시민환경단체이다. 사무실은 화성행궁 앞, 장안 공원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근하시는 분은 김성우 국장님을 포함해서 김영옥 선생님, 김도희 선생님까지 총 세 분이다. 그 외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린이학교나 다른 각종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서 사무실에는 거의 계시지 않는다. 그 대부분은 주부인데다 그중에서도 각종 소모임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얼굴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주로 지역의 환경 사안에 대응하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거나, 각종 환경 정책 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 센터에는 아이들과 숲에 관련된 놀이를 하는 초록세상, 태양이나 전기 등의 에너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햇빛희망 등의 소모임이 있다. 이 소모임들은 수원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센터를 설립하신 분은 현재 수원 시장이신 염태영 시장님이시다.

- 동기

예전부터 환경이나 식물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논문과 움직이는 학교 주제를 모두 환경 쪽으로 정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번에도 환경 쪽으로 정하게 되었다. 5학년 움직이는 학교 때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 분을 통해서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분은 수원환경운동센터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다른 곳은 많이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은 수원환경운동센터로 정하게 되었다.

- 가기 전

이번에는 일찍 단체를 정해서 일찍 연락을 했다. 이틀간 전화를 걸었으나 결국엔 받지 않았다. 조금 착잡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단체를 알아보았다. 알아본 단체는 아동, 청소년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러빙핸즈'라는 곳이었다. 러빙핸즈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곳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다시 인턴십 과정에 대한 설명을 메일로 보내고 기다리는데, 다음 날 어머니가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연락이 되었다고 하셔서 고민에 빠졌다. 러빙핸즈의 답장을 조금 더 기다릴까, 아니면 당장 센터에 전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으셔서 메일을 보내고 약속을 잡았다. 알고 보니 당시 출장 중이셔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센터에 방문해서 기간과 할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다음 날, 러빙핸즈에서 메일이 왔다. 이미 단체를 정하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를 후에 그쪽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과 메일을 보내고 센터로 찾아갔다. 센터에는 사람이 적었다. 국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끝내려는데 안에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만남을 끝냈다. 그리고서는 3월 3일, 인턴을 시작했다.

II. 활동

- 글쓰기

> 청소년 캠프 기획안

나는 수원환경운동센터 인턴을 글쓰기로 시작했다. 곧 있을 청소년 캠프로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물론 처음 쓰는 거라 그걸로 캠프가 진행되진 않는다. 국장님께서 처음 맡기신 일이어서 처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래저래 조언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기획안을 짜오라니, 왜 이런 걸 벌써부터 시키나 하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이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사회를 배우러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조언을 받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잘할 수 없는 법이다. 몇 차례 조언과 잔소리(?)를 받다가 결국엔 국장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완성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연습이고 간단했지만 여기에서도 어려움을 느꼈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도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정말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소식지 '늘 푸른 마당'에 소개 글 작성

수원환경운동센터에 나를 알리기 위해서 소식지 '늘푸른마당'에 올릴 소개 글을 썼다.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었고 나를 알린다는 게 생각보다 곤란스러웠다. 그래서 내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학교의 소개만 하기로 했는데, 아래는 내가 쓴 글의 일부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 달 동안 수원환경운동센터에 근무하게 된 김상연이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늘푸른마당에 올릴 글을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소식지에 올릴 글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일단 저는 수원환경운동센터에는 인턴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33, 즉 19살입니다. 아, 일단은 18살인데 제 생일인 4월 13일이 지나면 19살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조금 특이한 학교로 다녔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개는 조금 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양에 살고 있었지만, 집이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없네요. 저는 가족이 저까지 합쳐서 네 명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은 1996년생인 저와 연년생인 1997년생입니다. 그래서인지 친 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도 비슷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쾌활하고 활동량이 많은 동생과는 달리 저는 많은 곳을 다녀본 적이 없고 사람들은 잘 안 만나봐서 그런지 낯을 좀 심하게 가리는 편입니다. 성격도 소심한 편이구요. 그래서인지 인사도 상대방이 먼저 해야 말을 터놓는답니다.^^;;

여차저차 해서 글을 써서 회원 소식지에 넣긴 했는데, 몇몇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글 잘 읽었다고 해주셨다. 그리고 회원소식지 '늘푸른마당'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하자면, 1990년대부터 쪽 이어져왔다. 간디in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 분에게 부탁해서 여는 글을 넣고 그 후에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글을 넣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했던 건 센터 회원 중에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중학생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린 기자단'이라는 기자단에서도 글이 많이 올라온다. 회원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발간된다. 소개 글 말고도 내가 하나 더 쓴 게 있는데, 그 글은 '늘푸른마당' 4월호에 있다.

- 참여

> 수원 에코시티 환경투어 및 기행문 작성

3월 3일에 출근하자마자 하천 모니터링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다. '에코시티환경투어'는 내가 인턴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참여한 프로그램이다. '에코시티환경투어'는 진행되는 수원의 자원회수시설 등 관내 환경기초시설 8개소를 견학하며 시의 자원순환체계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8개소를 다섯 개 코스로 구성하여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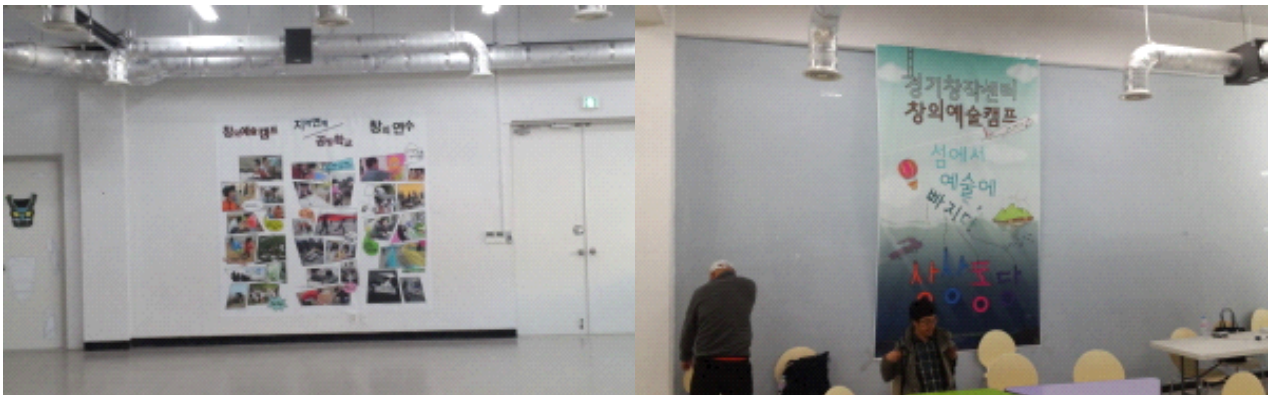
달 1, 3, 5주는 학생을 대상으로 2, 4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월 12일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처음 시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시행된 ‘에코시티환경투어’는 자연순환센터, 광고정수장 이 두 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자연순환센터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곳으로 생활 폐기물을 녹이거나 부수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곳이다. 대형 폐기물, 스티로폼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종이를 한 장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곳은 공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광고 정수장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와 팔당댐에서 오는 원수를 정화하여 공급하는 곳이다.

이 두 곳을 다녀와서 며칠 후에 국장님이 기행문을 작성하라고 하셨다. 기행문이면 소감문 비슷할 거라 생각해서 별 어렵지 않게 쓰려고 했는데, 좀 더 알아보니 소감문보다 더 디테일하게 써야 하는 것이었다. 시간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정도와 기행문을 보는 사람에게 안내서 같은 내용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쓰는데 오래 걸리고 끔찍했다. 내가 갔던 시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해야 완성할 수 있었다.(기행문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활동가 워크숍 및 기행문 작성

4월 둘째 주 화요일, 그러니까 4월 8일에 처음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나가게 되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 YMCA 등 다른 곳에서도 함께 모여서 버스 한 대로 가게 되었다. 목적지는 대부분 예술창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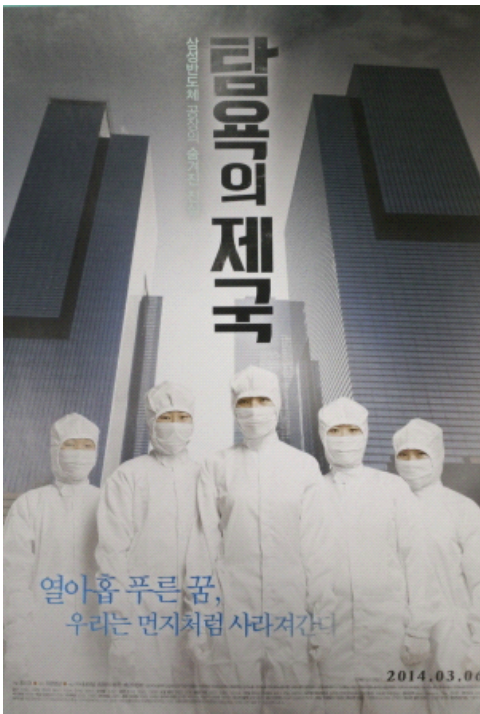
시각	내용
4/8 오전	12시 15분 출발
오후	1시 30분~2시 오리엔테이션
	2시~5시 강의 및 워크숍: '공간이 콘텐츠가 되는 프로젝트'
	5시~5시 15분 휴식시간
	5시 15분~6시 영랑 운동회
	6시~7시 저녁 식사
	7시~9시 30분 영화 공동체 상영 '탐욕의 제국' & 영화 관련 이야기나누기
	9시 30분~ 뒷풀이
4/9	8시~9시 아침 식사
	9시~ 몸풀기 운동 & 주변 산책
	10시 30분 수원으로 출발
	11시

시간표

위처럼 진행이 된다. 오리엔테이션 다음에는 ‘공간이 콘텐츠가 되는 워크숍’인데,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었다. 솔직히 이걸 시간이 좀 지났기도 하고 온통 모르는 말들뿐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운동회를 했다. 하지만 말이 운동회지 얼굴로 과자 먹기, 팔씨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운동회에서 나는 2조였는데, 나랑 한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1등을 하셔서 우리 조가 1위를 했다. 상품은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였다. 나는 팔씨름을 참여했는데 그땐 몸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꼴찌를 해버렸다. (건강한 분들만 나오신다...) 민망하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재밌으셔서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을 주제로 찍은 '탐욕의 제국'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단체

저녁 식사 후에는 ‘탐욕의 제국’이란 영화를 관람했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피해자들과 죽은 사람들의 부모님이 시위를 하는 내용이다. 끝나고 반올림에서 사람이 와서 질의응답과 설명을 해줬는데 영화를 보고 몇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일단 건물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쓸데없는 부분을 너무 오래 찍은 부분도 있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에 걸린 여성 노동자가 시위할 때 연설을 하는데 웅얼웅얼 거린다. 하지만 자막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영화이자 다큐멘터리인데 설명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레이션과 자막을 넣으면 좀 더 깔끔하게 시청자들에게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백

혈병에 걸려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슬픈 미소를 지을 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뒤엔 일명 뒤풀이(?)를 늦게까지 했다. 그곳에서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다음날은 누에섬 전망대만 보고 수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누에섬 전망대를 보러 가는데 안개가 껴서 보기는 힘들었지만 선선했다.

여기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지만 다 같이 친구처럼 지내시고 처음 보는 나에게도 살갑게 대해 주셔서 부담스러웠던 1박 2일을 잘 보낼 수 있었다. 갔다 온 후엔 소식지 ‘늘푸른마당’에 올릴 두 번째 글을 썼다. 기행문 형식으로 썼는데 기행문보다는 워크숍 소개 글에 가까웠다. 하지만 한번 기행문을 쓰고 나니까 더 수월해서 잘 쓸 수 있었다. 아래는 워크숍에 대해 쓴 나의 글 중에 한 부분이다.

이번에 저는 4월 첫째 주에 하나의 활동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활동가 워크숍’이라는 제목인데요. 처음에 저는 뭐 이름이 그렇게 길까 하고 속으로 적잖게 당황했답니다.^^;; 그래도 깊게 참여해보면 이름만큼 내용도 길고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출발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 YMCA 등 수원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저희가 향하는 목적지는 대부도였습니다. 가는 길에선 각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목적지인 대부도의 경기예술 창작센터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술가들이 여기서 조금씩 모여 살기도 한다는데요. 과연 예술창작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건물들도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글로 내 기분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글을 쓴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재미가 있어서 글이 쉽게 써졌다. 이 시민단체협의회활동가 워크숍(줄여서 시민협 워크숍)은 나에게 사람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준 것 같다. 학교에서의 나는 소심하고 말쑤씨도 없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서 얘기하는 게 서툴렀고 선·후배와는 물론 친구들과도 어색했던 것 같다. 하지만 무빙스쿨로 조금씩 나아지고 인턴을 통해서 확실히 나아지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말쑤씨가 없긴 하지만 사람을 더 만나서 괜찮아지길 생각하고 있다.

> 광고산 숲속 대탐험

‘광고산 숲속 대탐험’은 소모임 중 하나인 숲에 대한 교육을 하는 ‘초록세상’에서 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내가 유일하게 소모임에서 참여했던 하나이며 재밌었던 기억이 난다. ‘광고산 숲속대탐험’은 근처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처음에는 광고공원에서 놀이를 하고 그 다음 광고산을 오르면서 나무 열매나 잎을 따서 알려주고 내려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열매나 잎을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수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총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조용조용하신데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잘 웃으시며 친절하셨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놓여서 편하게 도와드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성함은 변혜민 선생님이다. 참여는 총 두 번을

했다. 한번은 비가 내려서 산만 오른 다음 그림을 그렸고 한번은 공원에서 진행이 되었다. 다른 한 분은 한 번만 참여하셨고 변혜민 선생님은 두 번 다 오셨다. 변혜민 선생님은 센터에도 자주 오셔서 두 번째 교육에서는 편하게 웃으며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초록세상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



두 번 참여했지만 한 번은 두 개의 어린이집에서 와서 선생님 두 분이 한 무리씩 맡으셨는데 두 번째에는 첫 번째에 두 어린이집 중에 한 집이 또 와서 진행을 했다.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떠들썩하고 집중이 안 돼서 선생님께서 센터에 오실 때마다 힘들다고 하시지만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웃음꽃이 활짝 피시는 걸 보면 꼭 힘든 것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든다. 문득 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이런 단체를 접해서 내 포래와 놀러 다녔다면, 내 성격과 인생도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씩씩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나' 자신이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재밌다고 생각되기도 하다. 이 단체에 와서 아이들을 보면서 피식거리고, 사회를 배우게 해주는 제천간디 학교 안에 있는 '나'. 그게 현재고 나인 것 같다.

> 하천 모니터링

하천 모니터링은 매달 1, 3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내가 참여했을 땐 수원의 네 개의 하천 중 황구지천을 둘러보게 되었다. 3월 3일 첫 출근 때는 수원의 팔색길 중 하나인 매실길을 둘러보았다.

길을 따라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오전 안에 끝내야 하는 게 목표라면서 바쁘게 다녔다. 사실 이걸 하천 모니터링이라고 하긴 뭐하다. 깍해봐야 그냥 길 걸으면서 차를 타고 표식만 찾는 정도? 하지만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은 하천 모니터링이라는 느낌이 잘 들었던 것 같다.



매실길 표식. 이 표식은 길에 몇 십 개씩 있는데, 첫 날엔 이 표식들이 몇 개 있는지, 또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



물고기나 하천에 다니는 생물들을 채취하며, 가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물을 넣어서 변색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하는 사진이다. 네 군데 정도를 똑같이 검사를 한다. 그날은 원래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쯤에 끝나는데 직접 채취하고 수질 검사까지 하느라 3시쯤에야 끝이 났다.



매실길 탐방 두 번에 수질 검사를 두 번 했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 일단 나에게 맞는 장화가 없었고 수질 검사도 처음 해보는 거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하천 모니터링을 담당하셨던 김영옥 선생님께서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천 모니터링은 다른 걸 또 하는지 물어보지 못했지만 내가 다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지만 더 강하게 들었던 느낌은 '내가 하천 모니터링에서 느껴보지 못한 게 많다.'랄까?

솔직히 인턴을 시작하고 나서 1달간은 너무 힘들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고 할 일이 없을 땐 눈치 보이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꾸중도 많이 듣고 잘하는 게 뭐니 라는 농담 같은 말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하게 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한숨을 많이 쉬었다.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던 첫 달에 하천 모니터링을 나가면서 걸었던 기분은 지금은 잘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하천과 알록달록한 길을 걸으면서 해방감 비슷한 걸 느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이 들어서 하천 모니터링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서 뭘 느꼈는지 잘 모르겠다. 매실길 탐방 때는 사진 찍고 걷는 게 전부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중을 못하고 주위 경치만 구경했던 것 같다. 수질 검사도 별 다른 것 없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멍뚱뚱 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됐던 건 이 하천 모니터링이 아니었을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천 모니터링으로 뭘 더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봐서 지식으로 남겨두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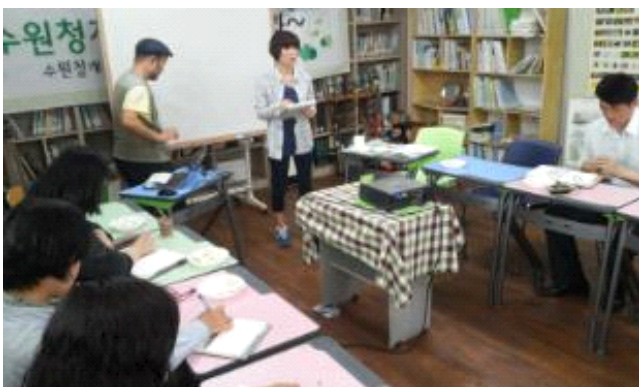
> 수원청개구리시민학교 모니터링단



수원청개구리

이 활동도 기억이 많이 남는다. 내 보고서 제목이 ‘들쥐의 수원환경운동센터’인데, “왜 들쥐지?”라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 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다.

우선 이 ‘수원청개구리시민학교 모니터링단’은 내가 모니터링단 카톡방에 초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 처음 시작되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운이 좋았는데 나는 잘 몰랐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배움의 길이 많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카톡방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모임 시간을 가졌다. 심상호라는 수원청개구리 전문가 선생님이 처음에는 회의를 하고 약간의 강의를 해주셨다.



모니터링단 회의 중

우선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된 곳에서 가서 관찰과 울음소리를 듣자고 정해져서 우선 첫 관찰지는 용인으로 정해졌다. 수원청개구리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하자면 한국 고유종으로 1980년 일본 학자 구라모토가 수원에서 발견했다. 수원 청개구리는 대체적

으로 청개구리보다 작고, 밝은 초록색을 띄며 주둥이가 더 뾰족하고 아랫배가 예쁜 노란색이다. 수원청개구리는 짝짓기 때가 되면 모나 풀을 네 발로 잡고 우는데, ‘팍팍’하고 높은 소리를 내는 청개구리와 달리 ‘윙-윙-’하고 낮은 소리로 운다. 짝짓기 외에는 기본적으로 ‘챙-챙-’하며 날카로운 소리로 운다. 원래는 수원에서만 발견되었지만, 수원에서 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모니터링 및 관찰은 매주 월, 수로 정해졌다. 하지만 활동은 주로 월, 화였다. 그것도 1주에 한 번 정도만 진행이 되었다.



일반 청개구리가 우는 모습

처음 용인에서는 울음소리가 잘 들리고 모습도 너무 잘 보여서 빨리 끝났다. 다음은 수원시 권선구인데, 처음 도착한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다른 곳을 둘러보자는 말에 신속히 다음 곳으로 이동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도시의 건물과 농촌의 논이 딱 중간에서 갈라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다. 다행히 이곳에선 수원청개구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이없게도 차를 세웠던 곳의 바로 앞이었다. 우리는 고속도로 아래에 차를 세우고 터널을 지났었다. 그곳에선 발견할 수 없었는데 바로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덤으로 짝짓기를 하고 있는 청개구리를 볼 수 있었다. 내일쯤이면 알을 낳게 된다는 말에 한 선생님이 물통에 넣어서 데려가셨다.

그리고 심상호 선생님께서 약간의 강의를 하시고 그날은 끝이 났다. 이 날이 딱 인턴을 마무리하기 1주일 전이었다. 나는 솔직히 수원청개구리를 봤을 땐 얼떨떨했다. 수원청개구리는 멸종위기종이란다... 너무 잘 보였다. 그래도 수원청개구리를 처음 본 나로서는 청개구리의 몸에 반도 안 되고 울 때는 발로 풀을 휘어잡고 우는 수원청개구리가 정말 귀여웠다. 색도 얼마나 예쁘던지! 김도희 선생님이 수원청개구리를 보실 때마다 귀엽다고 비명을 지르시는데 나도 공감이었다.

아, 그리고 왜 제목에 들춰가 거론되는가 하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는 일을 할 때 모두 자연에서 이름을 따온다고 한다. 방울토마토, 파도 등이 있는데 나는 인상이 쥐를 닮았다고 해서 들춰란 이름이 붙여졌다. 물론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래도 걸으면서 안면을 튼 분들과 얘기하니까 기분도 좋고 내가 성격이 많이 변했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 어떻게 보면 나는 환경에 대해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사교성에 대해 배우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생태통합안내자교육

‘생태통합안내자교육’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교육이다. 일정을 보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역사 등도 함께 배울 수 있다.

김영옥 선생님께서 그냥 무심한 투로 신청서를 쓰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방이면 끝날 것이라는 말투로 어려운 일들을 시키신다.

생태통합안내자교육은 매주 화요일, 10강까지 진행된다.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이고 센터 활동가나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모셔서 강의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센터에서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오히려 활동이 부가 되고 수원의 생태계나 역사 등 지식이 추가 되지 않았나 싶었다. 그리고 소모임 역시 인터넷 카페가 존재한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모임이 카페가 통합되어 있다. 그곳에서 회의 자료나 소모임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소모임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생태통합안내자교육의 포스터



모두 좋은 내용의 강의였지만 개인적으로 김동현 선생님이 가르치신 '물건과 환경 그리고 경제시스템'과 변혜민 선생님이 가르치신 '생태계의 순환구조'가 재미있고 귀에 잘 들어왔다. 김동현 선생님은 쓰레기로 악기를 만드시고 밴드를 운영하시는데 밴드 이름이 '인간. 쓰레기'다. 인간쓰레기가 아닌 인간 점 쓰레기다. 환경에 관한 노래도 많이 만드시는데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총 14명인데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주부셨다. 무빙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환경에는

남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걸 느꼈다. 어쨌든 14명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도통 집중을 못하겠고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아침이기도 했지만 내 지식도 너무 달렸을 것이다. 거기다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익숙지 못할 시기에 강의까지 듣다니, 말 다 했다. 하지만 두세 번 듣다보니까 조금씩 귀에 들어오고 메모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 놓친 강의들이 너무 아까웠다. 나한테 당장 유용해질 수도 있었을 강의들이었다. 그게 너무 아쉽다.



컴퓨터를 고쳐서 팔거나 해외에 기부하는 사회적기업 컴윈. 9강 '수원역사와 하천' 중 견학했다.

교육을 8번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사실상 수료증이 있어야만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나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10강을 자연스럽게 다 참여하게 되었다. 아, 교육이 8강일 때 인턴 기간이 끝났으니까 두 번은 계속 나와서 교육받게 되었다. 어차피 안 나오면 수료증을 못 받지만 교육 자체가 너무 유익하고 좋아서 계속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웠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꾸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 그 외

· 핵 없는 세상



3월 둘째 주 주말에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원전 사태로 만들어진 행사다. 이곳에서는 원전 사고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진을 보여주고 핵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로 생활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배치되어 있다. 인기가 가장 많은 건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그 에너지로 음식을 만들 것과 센터에서 가져온 자전거 분수였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믹서를 작동시켜 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분수를 작동시킬 수 있다.

나도 하나를 맡아서 아이들이랑 놀았는데, 내가 맡은 건 태양광판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도르래를 땅에 고정시키고 태양광판으로 에너지를 받으면 도르래가 고정되어 있는 줄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다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았다. 그렇게 즐기다가 마지막에 밴드가 나와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토요일이라 나오기 싫었지만 아이들이 와서 장난도 치고 어르신들도 오셔서 열심히 한다고 말해서 기분 좋게 집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 밀양 송전탑 방문

이건 활동보다는 정말 그냥 방문에 가까웠다. 나는 129번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1박 2일 동안 가서 한 일이라고는 새벽에 보초 서는 것밖에 없었다. 경찰들이 오지도 않았고 대치도 생기지 않았다. 끝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뭐지?' 이 하나뿐이었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때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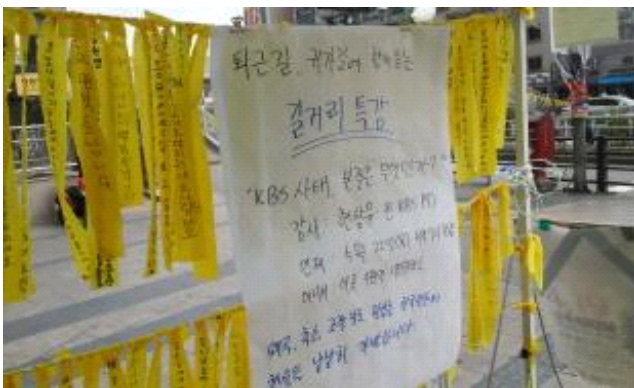
· 세월호 수원시민행진 및 세월호 시민분향소 지킴이

인턴을 시작하고 진로와 정체성(?) 등으로 힘들 때였다. 난데없이 진도로 가는 배가 침몰했다는 기사가 떴다. 아마도 나는 힘들 때여서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 대다수가 실종되고 사망했다고 했을 땐 눈물이 났다. 선장이 배를 버렸다는 기사에는 분노했고, 지인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선불리 말하면 화를 냈다.

일을 할 때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세월호 사건만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느낌도 처음 받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마인드였다.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나면 걱정하는 반면 나는 항상 그랬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약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기분은 처음 느꼈고 그때 타인을 위한 걱정과 분노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수원시민행진. 연설 뒤 수원역까지 걸어서 수원역에서 촛불집회를 한다. 나는 행진까지만 참여했다.



세월호 시민 분향소

9시부터 1시까지 김성우 국장님과 다른 남자 두 분, 총 네 명으로 분향소를 지켰는데 재밌고 농담을 잘하시고 잘 웃으셨다. 중간에 자원봉사자 주부 한분이 더 오셨는데 금세 친해지는 걸 보면 사교성이 대단했던 듯 싶었다. 분향소에는 의외로 사람이 많이 오셔서 사인을 했고, 의외로 사람이 너무 안 오셨다. 사람이 많이 오시긴 했지만 수원역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저게 전의 내 모습이었기에 부끄럽기도 했다.

- 실행

여기서 잠깐 실행과 참여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여는 무빙과 같이 들어가서 ‘배웠던 것’이고, 실행은 내가 프로젝트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만들어야 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 6.4 후보자선거 경기도 후보자 정책제안하기

5월 14일 수요일, 나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곧 있을 6.4 선거 때 환경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도지사, 시 군 등의 경기도 후보자들을 알아보고 팩스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이걸 뭐 후보자가 30명이 넘고 등록된 사무소 번호가 없을 경우 당에 전화해서 선거사무소의 번호를 알아내야 해서 며칠간 하루에 전화만 50번 이상씩 했다. 아직도 전화를 한 왼쪽 귀가 잘 안 들릴 때도 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될 리는 없었다.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해도 이상한 곳으로 가고, 답답하게 팩스 번호만 달라고 해도 뭘 보낼 거냐며 자꾸 따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짜증이 치민다.

한 1주일 정도 걸려서 팩스까지 겨우 다 보냈는데 문제는 마지막 날 생겼다. 내가 전화를 자꾸 해서 그런지 선거 사무소에서 국장님께 전화를 마구 해댔다. 왜 자꾸 그쪽에서 전화를 거냐면서, 선거 방해하려는 생각이냐며.... 하지만 국장님께서서는 내게 아무런 질타도 하지 않으셨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잘못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나는 너무나도 죄송했고 내가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나 하고 나 자신을 욕했다. 그만큼 부끄럽고 죄송했다. 만약 다시 하라고 하면 지금은 한번 해서 익숙해졌을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다.

> 회원의 날 영상

5월 31일에 회원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회원의 날 때 쓸 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을 총 정리한 영상을 나보고 만들라 하셨다. 갑자기 영상 제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중요한 날에 쓸 영상을 만들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가. 그래도 일단 음악을 고르고 사진을 받아서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만들었는데 회원의 날에 결국 틀지 못하게 되었다. 기껏 만들었는데 틀지 못해서 아쉽다.

원래는 영화를 틀고 영상을 틀고 김동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이 공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더워하고 아이들도 많이 졸아서 영상은 다 스킵하고 공연만 하기로 했다. 그래도 내가 만든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다. 사진만 이어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첫 제작 영상이니깐 말이다.

III. 마무리

- 마치며

14주의 인턴이 끝이 났다. 인턴 마지막 날에는 마냥 기뻐는데 생각해보니 아쉬운 점도 많고 뭔가를 놓친 것 같은 짝퍽한 느낌이 들었다. 인턴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냐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게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비교적 소심하고 낯을 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 잡생각이 많이 나서 ‘14주나 같이 있을 사람들인데 첫인상이 잘못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등이 생각들이 내 머리 속을 헤집어 났다.

그래도 인사는 기운차게 했는데 다짜고짜 제천간디학교는 뭐하는 학교냐고 계속 물어봐서 기가 눌려버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나는 이런 모습이었기에 바뀌자고 결심을 굳히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다. 인턴을 마치고 나니까 생활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다.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편하게 사람을 맞아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글 쓰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사람을 만나는 법을 배운 것 또한 큰 것 같았다. 기간이 의외로 길었던 탓인가, 알게 된 게 많아서 센터분들께 감사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나 6.4 후보자 선거 정책제안에 대해선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다.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신 김성우 국장님께 정말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잔소리를 퍼부으시면 서도 나를 챙겨 주셨던 김영옥 선생님, 어른답지 않게 쾌활하셔서 재미있으셨던 김도희 선생님까지 모두 내가 미숙했는데도(혼이 많이 나긴 했지만...) 모두 봐주셔서 힘들었지만 재밌게 인턴을 끝낼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은 걸 배웠겠지만, 나는 센터분들께서 여기저기 다 데려가 주셔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것들이 내가 나중에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나에게는 풍부한 배움이었다. 아, 그리고 점심 값을 모두 대주셨으니 나중에 다시 놀러가서 점심을 사 드려야겠다.

- 인터뷰

> 김성우 국장님

1.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서울에서 일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사람을 구해서 알게 되었다.

2.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으신 이유는?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그게 사무국장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3. 센터가 수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단체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냥 회원이나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뿐이다.

4. 앞으로 수원환경운동센터나 회원 분들에게 바라는 점

환경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미래세대의 환경을 우리가 잠시 '빌려'쓰는 걸로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해줬으면 한다.

> 김도희 선생님

1.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7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회원 활동을 하다가 환경에 관심이 생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2.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업무가 많다. 분야가 다양하고 일이 많은데 사무실에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한사람이 맡게 되는 일의 분량이 너무 많다. 그것만 빼면 재밌다.

3.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알게 되고, 접하고 나서 달라진 점

환경적으로 바뀌었다. 활동하는 분야가 에너지 쪽인데 에너지를 교육받고 공부하다 보니까 절약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 환경의 대한 개념이 바뀐 것 같다.

4. 앞으로 수원환경운동센터에 바라는 점

센터가 균형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홍보를 더 해서 회원을 늘리면 좋겠다. 그리고 소모임이나 다른 활동에서도 한 사람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방식보다는 회원이 다 같이 운영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턴의 중심에서 환경을 외치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 3.3~6.4

김수용

순서

I. 다니기 전

1. 환경운동연합은
2.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3. 왜 환경운동연합에?

II. 다니면서

- 활동과 역할
- ㄱ. 첫 느낌
- 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운동
- ㄷ. 밀양
- ㄹ. 업무 지원

III. 다녀오고 나서

- 인턴십을 돌아보면
- 생각
- 인터뷰

1. 다니기 전

1.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기원은 3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반공해운동협의회’로 시작되어 1987년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로 발전했다.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는 다른 환경단체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연대활동을 벌이며 통합되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된다. 1993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8개 환경단체가 연합하여 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이후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에 기반을 둔 활동으로, 전국 및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환경단체로 성장했다. 1990년대 지리산, 점봉산, 덕유산 살리기부터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대응까지 유해환경과 환경파괴의 현장에서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2002년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에 가입하여 ‘지구의 벗 한국지부’로서 국제적 연대를 통한 지구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다.

2.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나의 배움터이자 일터였던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는 서울시 중구에 자리하고 있다. 전국사무처는 전국 각지에 있는 49개 풀뿌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법률센터, 시민환경연구소등의 전문기관, 협력기관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지역 환경운동연합을 총괄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으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력이나 지원이 부족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업무를 공유하기도 하며, 정책협약이나 세계 환경단체와의 협약을 진행하기도 한다. 내가 소속되었던 ‘에너지기후 팀’을 비롯해 ‘국제정책 팀’, ‘시민참여 팀’ 등 8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본진, 1층에는 에코생협이 있다.

3. 왜 환경운동연합에?

3학년 논문을 쓸 때 핵이라는 대상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렇게 탈핵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이어 4학년과 5학년 무빙도 탈핵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탈핵과 관련된 곳에서 배우고 왔다. 그 중 4학년 무빙이었던 대안기술센터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안기술센터의 사정으로 인해 아쉽게 다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다.

그러던 중 선배의 추천으로 ‘나눔문화’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다. 탈핵에 관련된 일도 포함해 아주 많은 일을 진행하는 단체였다. 인턴십이 정말 좋은 기회이니 만큼 많이 해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로서는 매력적인 단체였다. 그래서 나눔 문화를 두어 번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겨울방학 중에 나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며칠 단체를 찾던 중 기증이의 연락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인턴을 하던 기증이가 환경운동연합을 추천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이 나의 물망에 올랐다. 물론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이곳이야 말로 나의 관심사였던 탈핵의 최전선이었다. 많은 일을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주제를 좁혀 잡으면 그만큼 깊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탈핵만 하더라도 결코 작은 주제라고 볼 수 없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인턴십 계획 무산을 위로라도 해주듯이 초고속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보내기도 전에 허락이 떨어졌다. 그렇게 2014년 3월 3일부터 6월5일 까지 3개월의 환경운동연합 인턴의 문이 열렸다.

II. 다니면서

- 활동과 역할

1. 첫 느낌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을 한번 들렀다. 전에 무빙으로 갔던 단체는 모두 환경운동연합보다 훨씬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규모로 움직이는 단체이다 보니 훨씬 클 수밖에 없었다. 물론 회사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크다보니 사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사무적인 것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조금 들었다. 아무래도 몸을 쓰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무빙할 때도 몸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긴 했다. 그래도 어쩌나. 이미 가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기로 했다.

① 본격적인 활동

3월 3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 첫 느낌이 정확히 들어맞았다고 해야 될까. 일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였다. 일이 너무 없었다.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일 좀 시켜달라고 팀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기증이와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 시키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팀장님 입장에서 난처했을 것 같아 죄송하다. 나도 2년간 무빙을 하며 일 시키는 것도 일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간 4명에서 잘 해오던 일이 인력이 한 명 늘어난다고 더 잘 되지는 않는다. 그걸 앞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만큼 그때는 이곳에 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무의미하게 3개월이 지나갈 것 같았다. 할 것도 없는 컴퓨터만 만지작거리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도와드리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우리 팀원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힘들었다. 그냥 점심 얻어먹으려고 나오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엔 굳이 사무실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 많이 따라다니며 배우기 시작했다.



이슈였던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토론회. 중국보다 국내에서의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운동

앞에서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나의 역할도 생기기 시작 했다. 가장 주요했던 업무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캠페인 이었다. 에너지기후 팀의 주 업무이자 환경운동연합의 올해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캠페인의 슬로건은 원전 하나 ‘진짜’ 줄이기다. 한국도 벌써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을 가동하 기 시작한지 30년이 넘는 국가이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렇지만 부끄럽게도 원자로 폐로의 경험이 없는 국가이기도 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환경운동을 20년 이상 해온 분들도 이제는 하나 진짜 줄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월성원전 1 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 허술한 원전이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한전과 한수원이 모를 리가 없는 문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를 또 가동하려고 한다. 이 캠페인은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 중인 월성1호기를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안전하게 폐로하기 위한 운동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운동 웹자보

중학교 과정에서 탈핵으로 논문을 쓰며 정말로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다. 나름대로 책도 열심히 읽고 연구도 했지만 왜 정부 는 원자력발전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탈핵에 관련된 책은 어떤 것을 집어도 원자력이 가장 비효율적인 예

너지라는 내용이 나온다. 결국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바로 핵무기였다(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일단 차치하자). 다른 나라는 아무튼 핵무기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원자력발전을 하는 것인데, 미국의 감시 아래 핵무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발전을 이렇게나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책에도 나오지 않고, 주위에도 물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탈핵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빼먹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프로젝트를 하며 조금씩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원자력 마피아. 국익에 도움은커녕 국민들 목숨이나 갇아먹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거짓말만 해대며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 세월호 사고가 일명 ‘관피아’ 때문이라면서 지금도 너무나 당당히 살고 있는 또 다른 관피아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경제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에 입맛이 썩쓸할 따름이다.

① 1인 시위

이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의 2014년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 중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캠페인이 있다. 1인 시위는 내가 담당해서 진행했다.



성미산학교 학생들의 1인 시위 인증샷

매일 점심시간에 그날의 1인 시위 지원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나눠줄 전단지들을 전달하고 인터뷰를 했다. 하자작업장학교, 성미산학교 같은 대안학교에서도 자주 나왔고 다수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연대를 해주었다. 또 지원자가 없는 날이면 내가 1인 시위를 직접 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곳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간판 하나 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

7월에 수명연장심사의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하루는 사복경찰이 오더니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조금이나마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사복경찰 덕분에 저들도 내가 신경 쓰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내일 당장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꼭 재앙이 터져야만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 혹은 알 수 없는 결지도 모르겠다.

1인 시위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 훨씬 더 가까이 현실로 다가왔다. 1인 시위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핵 발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보통 이런 분들은 열변을 토하시며 얘기하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할 관심조차 없다. 사람들이 우리의 피켓이나 전단지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은 것이 서운한 건 아니다. 다만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살자는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②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국장급 인사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 시민단체가 진행한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양이원영 처장님을 도우러 따라 들어가며 재밌는 풍경을 보게 되었다. 간단히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뿐이었으나 그 짧은 과정에서 원안위의 국장급 인사와 처장님의 치열한 설전을 볼 수 있었다. 원안위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래 없던 '민간 검증'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정작 검증했더니 결과를 받지 않겠다고 우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설전 끝에 처장님은 원안위 국장의 손에 민간 검증단 보고서를 꼭 쥐어줄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별 의미 없는 해프닝으로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례적으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내용을 비밀에 부친 것, 심지어는 건물에 원안위가 여기 있다는 간판조차 하나 없는 것을 봐도 뭔가를 숨기려하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이런 느낌은 단순한 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느낌이기 때문에 근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안위의 동태를 보면 어떻게든 재가동을 승인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심사 기관에서 공정함을 기하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다. 축구할 때 심판은 두 팀에게 모두 공정해야 한다. 한국 축구의 심판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한국원자력계의 심판은 아직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모두에게 공정한 심판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걸릴지는 모르겠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난 그 과정 속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할 생각이 다. 부디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간 검증단 테스트 보고서를 전달하는
양이원영 에너지기후 팀 처장님

③ 월성원전 1호기 이별여행

월성1호기 이별여행은 말 그대로 월성원전 1호기를 '잘' 떠나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경주 일대의 문화유적이나 자연을 돌아보며 월성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한 활동이다. 특히나 문화재로 유명한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추산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날은 시민들이나 환경운동연합 후원 회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답사차원에서 진행됐다. 녹색연합, 한살림 등의 단체들도 함께했다.

월성원전1호기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면 주변 도시의 유명도시화가 불가피하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반경 30km의 시민들을 전부 소개시키면 소재지인 경주는 물론 인근의 포항, 울산, 부산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의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인 이곳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인명피해를 제외한 경제적 피해만도 엄청날 것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좁은 땅에 대책 없이 건설만 해버린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의 위엄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상임의장이셨고 작년에 학교 문화의 밤으로 핵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던 김익중 교수님은 한국에서 핵사고가 나면 이민을 가라고 하셨다. 강연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당시에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108nSv/h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극미량이라 별 의미는 없다)

ㄷ. 밀양

환경운동연합은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돌아가면서 밀양 지원을 한다. 내가 있는 동안 밀양을 두 번 정도 방문할 수 있었다. 밀양은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풍경에 매료되었다. 경제 원리를 떠나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 곳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남아있는 송전탑 부지는 네 곳 이었다. 그 중 골안마을과 평밭마을에서 머물렀다. 두 번째 갔을 때는 평밭마을 송전탑 부지에 있는 농성장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들은 산꼭대기에 아예 간이주택을 만들어 변변한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벌써 수년째 생활하고 계셨다.

언론에 의한 조작으로 밀양송전탑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상을 더 받고 싶어 국가사업에 차질을 준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 한 번만이라도 밀양에 가봤다면,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투쟁을 이어오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다시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텐데...하며 밀양에 있는 내내 아쉽고 인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 더한 생각도 했지만 보고서에 욕은 쓰지 않겠다.

사실 밀양에 내려가서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밀양 가는 것이 어디 경치 좋은 곳에 쉬러가는 것 같기도 했다. 농번기도 아니어서 일을 많이 도와 드리지도 못했다.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도 할머니들께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괜히 얻어먹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쁘게 맞이해 주셨다. 직접적으로 했던 일은 할머니들이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앞, 뒷길에서 몰래 올라오는 경찰과 자동차를 감시하며 불침번을 서는 일 정도였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던 평밭마을에서 훨씬 긴장감이 있었다. 이따금씩 경찰들이 뒷길로 몰래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뒷길은 바로 할머니들 숙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주무시게 하는 일이라 조금은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불침번을 섰다.

불침번을 설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밀양에서 만난 형과 함께 두 명씩 짝을 지어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확실해지자 누구냐고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멈추더니 할머니들에게 알리기 위해 호각을 불사 황급히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발소리는 사라졌다. 쉬고 계시던 할머니들이 모두 나오셨고, 밤에는 맞아 죽어도 쌍방과실이라고 돌을 던지시며 화를 내시던 할머니들도 있었다. 도대체 밤에 기어 올라와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평발마을 뒷길에 있는 감시(텐트)초소



음독자결하신 유한숙 어른신 분향소

아쉬웠던 것은 정작 밀양에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가 갔을 때도 행정대집행 예고장이 날아와 있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맞물리는 바람에 경찰도 선부르게 움직이지 못해 비교적 평화로운, 말하자면 소강상태였다.



“우리는 보상금 더 받으려고 8년간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봤던 할머니들은 욕심 때문에 8년의 세월 동안 싸워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을 다 가져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이렇게 역지를 부리고 있다는 저들의 주장이야 말로 자살을 선택하신 이치우 어른신과 유한숙 어른신의 영정 앞에서 역지가 된다.

당연한 권리 주장마저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집값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사람과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할 사람을 동일선상으로 취급할 수 있냐고. 그러는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냐고.

ㄹ. 업무 지원

사무실에서의 일은 업무 지원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사무실에 있으면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하고 토론회나 행사에도 자주 따라오게 해 주셨다. 활동가분들이 다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에너지기후 팀 소속이긴 했지만 다른 팀의 활동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3주기 행사나 환경음악회 같은 행사에서는 스텝으로도 참여했고, 기자회견에서는 항상 자연스럽게 앞에서 현수막을 잡고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솔직히 업무 지원은 그 자체에 의미가 큰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미는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다. 자료 조사를 할

때는 많은 정보를 만지며 알게 된 것들이 많아 공부가 되었다. Big Ask 캠페인을 하며 시민들에게 서명을 부탁할 때는 내 소심한 성격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개인의 발전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환경운동연합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기도 했다. 주재님은 이야기지만 한국의 환경운동사에서 분명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팀장님이나 처장님을 비롯한 활동가 분들이 단순 작업이나 사무 일을 부탁하실 때마다 좀 더 활동적인 일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시기도 했지만 나는 뭐든 좋았다.(조금 더 좋은 일과 조금 덜 좋은 일의 차이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3개월 환경운동가로서 사명감과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① Big Ask

첫 출근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마침 Big Ask라는 서명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때였다. 국제정책 팀의 부탁을 받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서명을 받은 일도 있었다. Big Ask 캠페인이란 10만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기후변화법을 발의해 지구온난화를 좀 막아보자는 일이다. 이 캠페인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기후변화법 제정에 성공했다.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탄소배출국인 한국도 지구촌 상생을 위해 이런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규제는 사회의 암이라며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권에서 얼마나 환경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탄소배출권이 곧 돈이 될 전망이니 경제 논리를 생각해서라도 환경규제는 꼭 필요하단 걸 믿어줬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서명을 해주었던 친구들 모두 감사하다.

② 자료 조사

사무실에서의 근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자료 조사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김보삼 국장님의 인도네시아 ODA 진행을 위한 자료가 가장 컸다.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의 ODA는 말 그대로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의 연중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ODA는 태양전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고, 인구와 이륜차가 많아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인도네시아에 가장 알맞은 발전방식이 될 수 있는 태양전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환경재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진행한다. 김보삼 국장님과 함께 국제개발 협력사업(ODA) 연구보고서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역량이 미치는 데까지 자료를 뽑아냈다.

ODA사업은 지원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다. 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하고, 한글로 된 설명서를 못 읽어 가동을 못하거나 장비나 재료, 기술 따위가 없는 등 갖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한국인 파견을 보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내년부터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어떨까하는 추천을 받았다. 참 좋은 기회다. 시간이 있으니 차차 생각해보기로 해서 아직 결정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 말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3개월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짧지만도 않은 시간동안 나를 봐왔던 사람이 ‘이 친구라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③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환경, 시민, 종교, 생협 등 80여개 단체가 연대한 모임이다. 나도 환경운동연합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소속이기도 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내가 주로 했던 일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에게 탈핵에 관련된 정책질의서 같은 공문 전송이다. 특히나 이번에는 6.4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의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전화와 공문을 발송하는 작업을 했다.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작업을 했다. 단순 업무의 끝을 봤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움직이는 것보다 되레 더 지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단순 업무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일부러 조금은 사무적인 느낌의 환경운동연합에 갔기 때문에 만족한다.

III. 다녀오고 나서

- 인턴십을 돌아보면

인턴은 인턴인데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인턴보다는 자원봉사에 가깝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써주셨다(동생이나 아들 같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지만 감사함과 동시에 아쉬운 느낌도 있었다. 조금 더 활동가이고 싶었다. 내가 만약 어른이고 또 취직한 활동가였다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 인턴이기 때문이었는데 일을 시키는 것도 미안해하실 때가 있고, 정말 별 일 아닌데도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해 주시기도 했다. 짧지만 활동가가 되고 싶었던 나로선 오히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이 나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인턴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나랑 거의 같은 시기에 취직한 활동가가 있었다. 그 분이 막내이기 때문에 다들 반말을 했다. 그런데 진짜 막내인 나에게는 오히려 존댓말을 쓰는 분들도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왠지 소속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신경써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인턴십을 마무리 하는 시기에 보고서에 활용할 목적으로 내가 나온 사진이 있으면 달라고 부탁해서 사진을 받았다. 사진이 많진 않았지만 하나같이 내 표정이 약간 화가 난 듯한 모양이었다. 나는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었지만 얼굴이랑 마음이랑 따로 논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 무표정을 짓는 것이 화가 난 것 같은 얼굴 같아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을 것 같다. 나랑 가장 친했던 김보삼 국장님이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었다. 내 표정이나 행동이 남이 볼 때는 내가 매사에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솔직히 충고라는 것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라 입으로만 “네”하고 속으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인턴 마무리 단계에서 내 사진을 받아 보니 정말로 충고가 옳은 말씀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활발히 나섰다가 나대는 것처럼 보이거나, 괜히 일을 벌였다가 내 역량이 부족해 팀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섰던 경향이 있었다. 물론 내 역량 안에서 충분히 배움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욕심이였는지 모르겠으나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은 아쉬운 면도 있었다. 결국은 아쉬웠던 부분이 내 자세와 관련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을 살려 표정 관리(?)도 좀 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싶다. 내 첫 사회 경험은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많은 배움을 가르쳐 주었다.

- 생각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없으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나무가 없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들 알면서도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까. 이걸 나도 답을 알고 있다. 정답은 환경문제는 시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소한 나는 그랬다.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싸우고 계시고, 용산에선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고, 부당한 대량 해고 등.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곳과 비교했을 때 환경운동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소리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알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급한 운동인줄 알았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3개월간 인턴을 하며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모든 것은 생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삶이 있어야 비로소 또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탈핵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인턴을 시작했을 때도 이 선택이 맞았나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환경운동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겨우 3개월이지만) 환경운동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인턴십은 현실의 벽을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난 들을 생각이 없다는 표정으로 지나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내가 피켓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상실하게끔 만들었다. 그렇지만 나이 지긋하신 분들부터 아직 학생인 내 또래의 어린 친구들까지 나와 같은 뜻으로 1인 시위를 신청해준 사람들이 있고,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같이 연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진행할 수 있었

던 것 같다. 투쟁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연대라는 것이 어떤 힘인지 알 수 있었다.

환경운동은 활동가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 나보다는 남을 위해 인생을 바치기도 하는 이타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캠페인도 최우선 가치는 시민들의 안전이다. 곧 모든 탈핵운동의 목적이기도 하고. 만약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면 난 찬핵론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탈핵을 생각한다.

- 인터뷰

* 에너지기후팀 안재훈 팀장님

Q. 환경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

환경운동까지는 아니었지만 관심은 원래 있었다. 다른 사회운동을 하다가 점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기회가 닿아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자원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활동가가 되었다.

Q. 다른 운동도 많은데 특별히 환경운동이 중요한 이유

살아가는데 있어 환경의 문제가 삶, 생태의 가치 같은걸 고민하고, 지켜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또한 환경이 도외시 될 때 우리가 얻는 수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운동인 것 같다. 환경운동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있어 가치를 지키는 운동이다.

Q. 열심히 활동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힘들지 않나요?

결과가 안 좋으면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도 결과지만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아직까지 환경문제는 중요한건 알지만 사회적으로 끌려내서 실천하는 건 부족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보람 있을 때가 있고, 목표를 달성해도 좀 석연찮을 때도 있다.

Q. 뜻이 있어 활동하시고 계신 건데 업무가 과중해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건 자신의 의지지만 생계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한국은 이정도 경제수준에 비교했을 때 이런 단체들에 대하여 대우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계속 이렇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 같고, 사회적으로 처우나 지원이 개선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

Q. 환경운동을 하면서 자부심이나 보람 같은걸 느끼시나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 하지만, 딱 그 수준이다. 저 사람은 특별한 인간이라 저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 하십니다”라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시선이 바뀌고 처우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에너지기후팀 이지연 부장님

Q. 환경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

대학 때 비슷한 활동도 했고, 선배들 중에 이런 활동을 한 사람도 있고,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영리단체 보다는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고, 내 재능을 사회에, 사회에 도움이 되게 써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Q. 다른 운동도 많은데 특별히 환경운동이 중요한 이유

대학 때 가장 이슈는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환경일반 보다는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그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Q. 열심히 활동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힘들지 않나요?

허탈하겠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동의 실패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크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라든지 합의를 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냥 강행할 뿐이다. 이런 ‘힘 센 놈이 이긴다’ 식의 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과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교훈같은게 중요하다. 새만금 같은 것이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덕에 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4대강도 그렇고. 정부나 기업은 돈, 힘, 언론 등 실행수단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단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한걸음 후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거다...

Q. 뜻이 있어 활동하시고 계신 건데 업무가 과중해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나요?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기 위해 재미, 자율성, 즐거움이 중요하다. 그 중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즐겁고 재밌고 그렇다. 내 활동이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하면 기쁘기도 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한계도 느낀다. 잘 되면 보람 또한 느낀다.

Q. 환경운동을 하면서 자부심이나 보람 같은걸 느끼시나요?

그냥 느낀다기 보다는 거꾸로 내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지지 않게 재미도 있어야지.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게 내 활동의 방식이다.

* 에너지기후팀 김보삼 국장님

Q. 환경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Q. 다른 운동도 많은데 특별히 환경운동이 중요한 이유

철학적으로 봤을 때 계급운동이 아니고 생명운동이다. 가치를 따지는 운동이 아니라 모든 것의 위에 있는 운동이다. 환경운동을 쉽게 보는데, 생명이 있어야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운동이기도 하고.

계급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생명이다. 생명 안에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Q. 열심히 활동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힘들지 않나요?

환경운동사를 보면 99전 98패다. 거의 이기는 경우가 없다. 거대권력, 자본이랑 싸우는 거라... 그래서 오래 하다보면 익숙해진다.

Q. 뜻이 있어 활동하시고 계신 건데 업무가 과중해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나요?

업무가 많다. 하지만 나처럼 활동을 오래 하면 너무 익숙해지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제일 걱정은 오래된 활동가들의 관성화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진다.

활동가들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면 안 된다. 활동가가 직장인처럼 되면 안되는 거지. 내 월급은 회원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활동가다.

가끔 재미있기도 하다. 현장 갈 때. 살아있음과 역동성을 느낀다. 현장에 있으면 힘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많이 성장하게 된다.

Q. 환경운동을 하면서 자부심이나 보람 같은 걸 느끼시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도 사람인지라 항상 그렇지는 않다. 현장이나 밖에서 활동할 때, (현장의 지역주민 같은 분들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같은 경우는 활동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낀다.

환경운동가 코스프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2.24~6.9

김혜린

- 목차 -

1. 준비 과정

1-1. 왜 환경운동연합에 가고자 했는가

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가기까지

2. 단체 소개

2-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 활동 내용

3-1. 풀꿈환경도서관 관리

3-2. 각종 발족식, 기자회견, 협약식 등 참가

3-3.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 방문

3-4. 세월호와 연대회의

3-5. 6.4 지방선거

3-6. 회원주간(회원행사)

3-7. 영원한 투비컨티뉴_ 내 프로젝트

- 몇 가지 사고

4. 평가 및 소감

4-1. 환경단체로서의

4-2. 시민사회단체로서의

4-3. 멘토의 부재- 바쁜 활동가들

4-4. 실패를 경험하는 것·나의 변화

5. 결산

6. 부록

- 인터뷰

- 인턴 달력

1. 준비 과정

1-1. 왜 환경운동연합에 가고자 했는가

인턴십은 진로와 밀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방면의 인턴십 단체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해외봉사, 독립영화상영관, 환경단체 등등. 하지만 확 끌리는 곳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김익중 교수님의 한국 탈핵 강의를 듣고 인턴십을 환경 단체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내가 인턴십으로도,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해야 할 일은 이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4학년 때 진행했던 생명 프로젝트 '그린? 클린?'(핵)을 되새겨 보며, '핵'이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생명, 평화의 가치를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도 알았다.

환경을 보전하고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단체에 가고 싶어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알아보던 중 환경연합이 환경단체이면서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 결정하게 되었다.

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가기까지

처음 환경운동연합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을 가고 싶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 연락을 드려 확답까지 다 받았는데, 막상 가려고 보니 뭔가 꺼려지더라. 일단 상근자가 두 명 정도로 환경연 중에서 작은 편이고 이때까지 성남에 살면서 성남환경연합의 활동을 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지역에 있는 단체라도 내 인턴십을 잘 보낼 수 있는 수준의 단체를 원했다.

그때 마침 청주의 지인이 청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알아봐 주셨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청주는 환경연 중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 도시 규모가 적당하면서 도시와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잘 연계되어 있어 성남보다 인턴 활동하기 알맞다고 생각했다. 과감히 성남에 연락을 드려 사정을 얘기하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청주로 단체를 변경했다. 그렇게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인턴을 가게 되었다.

2. 단체 소개

2-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의 아름다운 내천인, 무심천 뚝방길에 위치해 있다. 청주와 충북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1996년 청주환경연합으로 시작해 그 후 만들어진 충북환경연합과 합쳐 2007년도에 재창립되었다.

현재 환경강사 교육, 유해화학물질 감시, 탈핵 운동과 회원들을 위한 풀곰환경강좌, 풀곰생태탐방, 어린이자연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충북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1)

3. 활동 내용

인턴 단체를 사전에 방문했을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파트를 맡을지 몰랐다.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교육

1) 07학번 김범수 선배의 보고서 참조

담당 부장님을 멘토로 정해주시긴 했지만 막상 갔을 때 환경교육을 진행해 볼 수는 없었다.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인턴 사전 준비를 하며 단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협의를 하고 가야 한다. 나는 막상 갔을 때 다들 워낙 바쁘셔서 내 할 일은 내가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처음엔 많이 방황했고 단체를 잘못 왔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16주간 아주 많은 활동과 행사를 했지만 그 중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것만 추려서 적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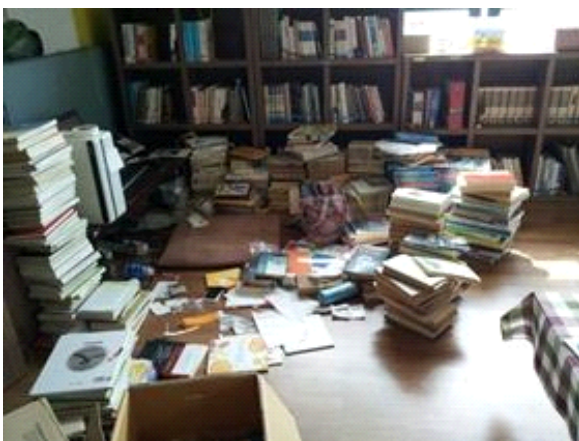
3-1. 풀곰환경도서관 관리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어 환경연에 간 것은 맞지만, 내가 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막상 환경교육 보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처음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단체에 도움이 되는 걸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마침 단체 사무실 한쪽에 위치한 도서관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도서부를 오래 해오면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풀곰환경도서관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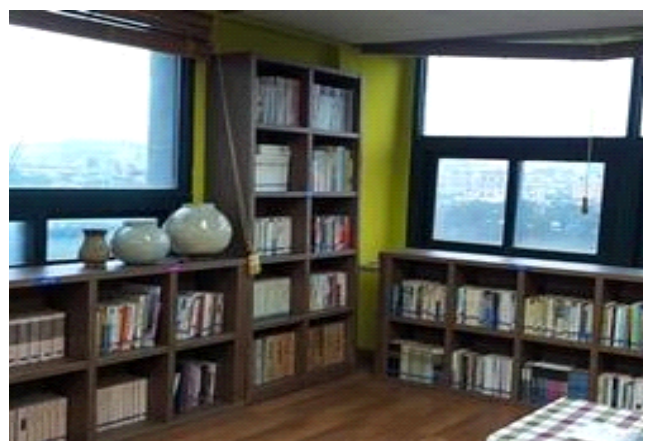
이 일은 사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너무 게으름을 부리는 바람에 만 두 달이나 걸렸다. ‘포스비브테크’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설치하고, 원래 관리하시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도서등록을 하는 등의 작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따로 맡아서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가 없을 때 하는 일상적 업무라서 공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 좋은 점도 있었다.

환경단체에서 웬 도서관 업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서 적었듯이 단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싶었다. 초반에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다. 환경에 대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인턴십을 맞게 온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업무가 각자 맡은 회원관리나 환경교육, 환경의제 대응과 같은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니 단체에 소속감도 들고 일을 훨씬 기쁘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도서관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고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활용되지 못했던 도서관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지 방법을 궁리 중이었다.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책을 찢어 버리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마지막의 성취감을 위해 참고 일했다. 가끔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열심히 도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청주에 환경센터 같은 게 설립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더 큰 환경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Before



After

3-2. 각종 발족식, 기자회견, 협약식 등 참가

인턴을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협약식, 발족식, 기자회견을 참가했다. 기억에 남는 것만 적어보겠다.

6.4 지방선거에 충주 국회의원이었던 윤진식이 충북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출마 반대 기자회견을 하러 갔던 일이다. 윤진식은 ‘충주는 항구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4대강의 핵심적인 인물이며 환경단체에선 블랙리스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진식의 도지사 출마 철회와 공천 배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기자 대여섯 명 정도가 와있었는데, 질의응답에서 몇몇 기자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질문을 해 놀랐다. 일단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연대회의의 성격을 봐 어느 정도 ‘야’성의 기자들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나와 당황했다.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 헤드라인도 <野·시민단체, 윤진식 집중포화>였다.

나는 부모님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까지 내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공식 석상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이런 생각들을 활동가분들과 나누었는데 오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것은 나중에 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내 편협했던 시야의 각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게 끝난 기자회견이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던 시간이었다.



윤진식 의원 출마 철회 기자회견 (출처: 충청일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레 제정 기자회견

3-3.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 방문

인턴 2주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방문했다. 인턴 초반이라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새로웠는데 밀양만큼은 기시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한미 FTA나 4대강 같이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크다. 밀양도 6년간 싸워왔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매번 가봐지 라고 말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진 못해서 이번이 처음 방문이었다. 1박 2일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나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밀의 글은 밀양 방문 일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분향소에서 굉장히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다. 이게 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근데 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셨다니 그 분노의 양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분향소에 계셨던 다리 다치신 아주머니는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해주셨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평소에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일로써 가게 됐는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시니 진짜 죄송스러웠다. 더 오래 있으면서 할머니들께 재롱도 좀 부리고 사과 받일도 제대로 하고 나물도

2) 출처: 충청일보

캐러 다니고 한전 사람들에게도 욱 한 번 시원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내 안의 우선순위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걸 같잖은 변명으로 또 합리화한다. 바빠서, 인턴 해야 해서, 내일 출근해야 해, 오늘 강의 들어야지, 옷도 없잖아. 사실 중요하다면 이게 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반성해야 한다.

질 것을 아는 싸움을 왜 하는 것일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힘이 빠진다. 하지만 밀양에서 계속 저항을 해주어야 경주에 생길 방폐장과 앞으로 개발 계획을 조금이라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하는 싸움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 하는 게 염치없지만, 힘 내주셨으면 좋겠다.



마을 주민분들과 경찰의 마찰



경찰을 지켜보는 마을 주민 분들

3-4. 세월호와 연대회의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고 충북 지역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조직의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격이 비슷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의견 차는 있다. 청주 지역은 작아서 이런 연대활동들은 이름만 다르지 단체의 구성은 똑같다. 내가 직접 회의를 참가한 적도 거의 없고 연대활동을 오래 깊게 봐온 것도 아니지만, 세월호 시민 합동 분향소 운영이나 집회 준비 과정을 보며 느낀 점을 적어보겠다.



충북 촛불집회 행동



세월호 시민 합동 분향소

시민사회단체는 그 수도 적을뿐더러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 뭉쳐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 때문에 의견이 갈린다. 예를 들어보면, ‘충북교육희망연대’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안건이 문구를 정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문장에서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다른 여성이나 노동자, 장애인 단체 등을 배려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문구만 넣으려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입장도 다 넣으려다 보니 문장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더라.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서로의 감정은 이미 상했고 시간도 한참이 지나있었다. 서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 같이 두발 전진하는 게 진보의 의미 아니었나 싶다. 이것이 ‘연대’의 한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면도 있는 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연대회의는 시민 합동 분향소를 도청분향소 바로 옆 공원에 설치했다. 세월호 사건은 어찌 보면 관의 무능함이 주범인데, 관의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시민 합동 분향소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분향소가 시민들에게,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가 되었다면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다. 이 분향소는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릴레이로 운영을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물건이 관리가 안 된다거나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여러 단체가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한 가지만 보고 배웠던 나를 반성케 했다.

3-5. 6.4 지방선거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를 겪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있는지, 환경의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궁금했다. 그래서 인턴 기간도 지방선거가 끝난 6월 9일까지로 정했다. 내가 본 것은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공모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회원 회비로만 단체를 운영한다. 회원들이 기부를 할 때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단체들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라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못하지만, 교육감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김병우 후보(현 교육감)와 환경정책 협약식을 하고, 도지사 후보들에게 충북초록연대의 환경정책 제안서 답변을 보내면서 정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미성년자라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턴십을 통해서 나름의 정치관을 성립하고 활동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에 관한 생각도 많이 했다. NGO 활성화 방안 토론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 가까운 녹색당의 비례대표 출마 등을 보며 생각을 했다. 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참여를 견제하고 제재하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의 최대치는 인물 양성-배출인 것 같다.

국회의원은 연금도 빵빵하고 운만 잘 타고 나면 한 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정치에 뜻이 생긴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나중에 청년비례대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선거를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본 건데 어느새 정치에 관심이 생겼다.

3-6. 회원 주간(회원 행사)

6월 2일 단오를 맞아 회원행사를 했다. 담당은 이성우 회원관리국장님이 하셨지만 나도 기획 단계부터 참가를 해 뜻깊었던 행사였다. 처음 기획 회의에서는 무심천에서 하루 동안 단오맞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참가하지 않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니 회원 주간 행사로 180도 바뀌어 있었다.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나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이 조금 꺼려지는 눈치여서 그러려니 했다.

회원 주간 행사는 수, 목, 금, 토 총 4일간 진행되었다. 하루 종일 단오맞이 부채를 나눠주고 저녁 시간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모임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와인, 둘째 날은 커피, 셋째 날은 촛불과 맥주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날엔 무심천물고기학교를 진행했다. 나는 실무적인 것부터 공간 꾸미기, 장보기 등 보조 역할을 했는데, 환경연에서 처음 해보는 행사기획 실무였고 시간이 촉박하고 허술하긴 했다. 하지만 단체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보는 일이 나에게서는 좋은 경험이었다. 다른 활동가분들은 너무 바빠서 회원 행사 준비를 타이트하게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채운 것 같다.

4일 연속으로 진행되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감이 컸지만 끝나고 나서는 뿌듯함이 더 컸다. 나는 공연을 하거나 앞에서 나서서 하는 일은 잘 못하지만 뒤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자신있었다. 항상 준비된 행사의 참가자였는데 이 행사를 통해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다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



첫째 날 와인 이야기



둘째 날 커피 이야기

3-7. 영원한 투비컨티뉴_ 내 프로젝트

인턴십이 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고민이 많았다. 내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는 적응의 시기라 말을 못 했다. 마침 선호 쌤이 단체 방문을 하셔서 내 고충을 대신 돌려 말해 주셨고 그걸 들은 이 국장님이 내게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주셨다. 나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고 프로젝트 자체도 훌륭했다.

4월 초에 청주충북환경연합 폐북에 내가 만든 이면지 공책을 포스팅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며 개인적으로도 슬럼프가 심하게 왔고, 단체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어려워졌다.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포스팅을 영원히 투비컨티뉴로 남기고 끝이 났다. 여러 주변 상황도 있었지만 내가 일상적 업무에 치여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 같다. 인턴이 끝난 지금도 많이 아쉽다.



증정식



이면지를 활용한 공책

- 몇 가지 사고

아무래도 처음 가보는 단체이고 나에게 모든 걸 설명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몇 가지 실수했던 일이 있었다. 실수는 거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은 없으니까 웃을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멀티탭_ 이 국장님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해 내 자리가 도서관으로 바뀐 첫날, 목요일 퇴근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자연스럽게 내 자리에 있던 멀티탭을 끄고 퇴근했다. 하필 다음 날인 금요일이 생태탐방답사라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는데 월

요일에 출근을 해보니 금요일에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 영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 멀티탭이 전화 모뎀과 연결되어 있었고, 원래 하루에 수십 통은 전화가 오는데 그날따라 한 통도 안 와서 봤더니 모뎀이 꺼져 있던 거였다. 인턴 중반쯤에는 의연하게 넘어갔겠지만 하필 인턴 초반의 일이라 나는 그 얘기를 들은 하루 종일 정신을 놓고 보냈다.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아주 심장이 바스르지는 것 같다.

우편분류_ 내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잘못이나 비판을 인정하는 일인데, 이번 인턴십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조금 극복한 것 같다.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을 발송 작업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놨다가 그날 발송을 못했다. 혼자 발송 작업을 해야 돼서 가뜰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분류 잘못해놨다고 쓴소리를 하셔서 화가 났다. 내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과 더불어 억울함,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별거 아닌 것 갖고 너무 화가 났다. 그때 다이어트 중임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몇 개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 후엔 실수 없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열이 났었다.

4. 평가 및 소감

이번 인턴십은 여러 모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제일 걱정되던 숙박은 단체에 연락드리기도 전에 결정되었고 때마침 있던 지방선거와 연대활동 모두 보고 경험했으니 말이다. 활동가분들과의 관계도 큰 어려움 없이 좋았다. 중간에 슬럼프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인턴십 단체를 결정할 때 진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경험과 사회체험에 비중을 두고 갔는데 가 보니 처음에는 의문도 많았다. 내가 생각했던 거친 투쟁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현상은 어디에도 없고 사무실에서 업무에 치여 가는 활동가들만 보였다. 이게 과연 지역 환경단체의 자세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의 사정과 노력들을 보니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단체가 어떤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면 회원 관리가 소홀해지고, 단체는 회원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업들도 하고 회원 관리도 해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단체가 지속되더라.

나는 막연하게 졸업하면 내가 좀 못 벌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생명,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환경연은 너무 괜찮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도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시민사회운동가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직업을 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턴십이 끝날 때쯤 아무와도 상의 없이 내년 초에 T/O가 되면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왔다. 사실 지금은 너무 고민 없이 일하겠다고 말한 것 같아 후회스럽지만 일단 부딪쳐볼 것이다.

4-1. 환경단체로서의

환경단체에 와서 사실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다. '환경운동'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반핵 시위라던가 동식물을 지키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답답했다. 한편으로는 활동가가 부족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그리고 환경운동이 직접적인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심어주고, 내 삶의 터전을 지켜줄 수 있는 지역의 의장을 뽑고,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는 간접적인 활동 모두가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알고 나니 그간 가졌던 의문과 불만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활동들이 즐겁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유레카와 같은 깨달음이었다.

4-2.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보고 그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알고 싶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그런 면에선 아주 적절한 단체였다. 청주 지역의 연대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의 환경단체로서의 역할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는 워낙 작아서 연대기구의 이름만 다르지 소속 단체와 인물에 거의 변함이 없다. 적어도 내가 본 단체들은 그랬다. 그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심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갖고 대립하는 모습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극복하고 결국 작은 연대의 씨앗을 만들어 내고 풀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분열되던 연대회의가 하나로 뭉쳐졌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정부에 반발하는 활동들을 했다. 이런 활동들을 보고 조금이나마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고 나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4-3. 멘토의 부재 - 바쁜 활동가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많은 업무량에 비해 활동가가 부족하다. 실무자가 5명으로 적은 숫자이고, 그 안에서 공모 사업, 회원 관리, 회계, 현안 대응, 일상적 업무 등 모든 것을 하려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을 신경써주는 게 쉽지 않다. 내가 단체에 사전 방문을 했을 때 환경교육 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더니 교육 담당 부장님을 멘토로 정해주셨다. 하지만 인턴 생활을 하면서 멘토로서의 관계였다고 보다는 다른 활동가들과 다를 바 없는 관계였다.

단체가 작고 활동가가 부족하다보니 인턴에게 신경써 줄 여력이 없었다.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멘토와 조금 더 가까웠더라면 내가 미처 못 다했던 프로젝트도 완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내 의지 문제도 있지만 나를 너무 어리게 보는 활동가 분들에게 함부로 '이게 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거 할 거라고, 하고 싶다고 그 한 마디를 왜 못했을까 하고 후회가 된다.

4-4. 실패를 경험하는 것·나의 변화

나는 '잘 못 하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한다. 자존심이 세고 인정을 하는 순간 진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일거다.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우기거나 모른 체 하면 됐는데 인턴 단체에선 쉽지 않더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치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혼자만의 느낌이라서 확답을 내릴 순 없지만 조금 달라진 건 확실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턴십을 하면서는 최대한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싶었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촛불집회에서의 자유 발언이나 1인 시위는 몹시 힘들었지만 얻는 것은 배웠다.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생각해보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나누는 일은 정말 쉬워졌다. 내가 낯가림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단체에서는 너처럼 친화력 좋은 애는 처음 본다고 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람과 사람 간의 마찰은 없었고 불편한 점도 거의 없었다. 이게 아마 내가 졸업하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일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16주간 너무 즐거웠고 내 생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감사한 사람들을 만났다. 정말 감사하다.

5. 결산

	숙박비	차비+(간)식비+생활비	
2월 24일~3월 24일	200,000	200,000	
3월 24일~4월 24일	200,000	200,000	
4월 24일~5월 24일	200,000	200,000	
5월 24일~6월 9일	100,000	100,000	
합계	700,000	700,000	1,400,000

-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든 비용은 부모님께서 부담하셨다.

6. 부록

6-1. 인터뷰

* 김경중 사무처장님 인터뷰

이름: 김경중

나이/연차: 44세/11년

직책: 사무처장

업무: '사무처'를 총괄하는 역할. 최근엔 회원 행사, 연대회의, 자원순환포럼, 초록마을만들기 사업 등.

>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유

-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진로를 선택할 때, 신문 중에서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서 생물학과로 진학했다. 환경연은 1995년 3월 달에 지역환경단체발기인으로 참여했었다. 그 후 회원 직무사업으로 40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의가 들어와 활동가로 채용되었다. (실제로는 '대학교 인턴'이었음)

> 환경연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점

- 환경연같은 시민사회단체는 회원의 참여로 움직이는데, 그 외 외부 수입이 없어서 힘들다.
- 공모사업을 하지만 그 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다.
- 회원 늘릴 때 취지에 동의해서 가입하기 보다는 주변인의 회유(?)에 의한 게 많다.
- 경영 수지 맞추는 부분. 시민사회단체의 '돈'은 언제나 고민이다.
-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
- 개인적으로는 현안문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 환경연에서 일을 하면서 좋은 점

- 교육하면서 반응이 호의적일 때.

-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는데 사무실 앞의 무심천에 아이들을 빠트리는데 제일 즐겁다.
-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혀내는 것.
-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 잘 먹혀 들어갔을 때.

> 충북, 청주권에서 환경연이 시민사회단체로서 어떤 영향?

-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에 대한 모든 것. (시위, 기초조사, 거버넌스 구축 등등)
-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아주 진일보한 일인데, 500+운동(회원500명 늘리기 운동)을 하며 공모사업을 받지 않고 회원회비만으로 운영되게 했다.
- 개인적으로 돈 문제는 그린피스의 맥 타가트처럼 탁월한 경영 감각과 환경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저에게 하고 싶은 말?

- 고생 많았음.
-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경험이 주는 오류가 많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에 너무 의존하지 말거라. 혁신을 하려면 경험을 버려라.

* 오경석 정책국장님 인터뷰

이름: 오경석

나이/연차: 40세/6년

직책: 정책국장

업무: 환경현안 대응 (6.4 지방선거, 초록마을만들기 사업), 연대활동 (시국회의, 연대회의)

>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유

- 환경연에서 일하기 전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일했었는데, 그 때 생명농업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운동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때마침 환경연 쪽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와 이직을 하였다.

> 정책파트를 담당하시는데?

- 환경연이 갖고 있는 활동 중 현안대응이 있는데 환경연에 막 들어왔을 때 연대회의 사무국장을 맡았고 그렇게 정책 쪽 파트를 꼭 담당해왔다. 첫 업무가 정책 국장이었다.

>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게 된 계기

- 일단 대학을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학교에서부터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일반 직장에 다니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다. 그때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시민사회운동은 지금 변화의 시기에 마주해있다.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되었던 때가 20여 년 전 6월 항쟁 때이었다. 20여 년이 넘게 지나자 운동단체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창기 시민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거나, 잘못된 정치문화 개선을 하려는 운동이 핵심 사업이었고, 그 당시 대학교의 운동이

시민사회로 연장되는 이런 현상이 많았다.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정치문화를 개선해나가려는 운동은 거의 없고 시민 운동이 분화하기 시작하며 전문성을 요구한다. 현재는 비판적 감시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운동에 집중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거버넌스 활동이 중점적이다. 과거엔 관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었다면 요즘엔 관과 협력을 통한 활동이 시민사회단체의 주류사업이 되었다.

- 문제점은 시민사회단체의 '야성'과 원래의 비판과 감시가 소홀해지는 것이다.
- 시민운동이 변화하는 시기다.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시, 견제 활동이 베이스로 깔리면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미래는 박원순 같은 정치인을 많이 배출할 것이다.
- 비판과 감시, 견제->소통과 협력(거버넌스)->직접참여

> 환경연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 때나 좋을 때

-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것이 좋다.
- 내가 할 일을 하는 듯하다.
- 힘든 점은 아이가 둘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전문성이 없어 대안이 부족하다.

> 저에게 하고 싶은 말?

- 살 빼.
- 인생이 긴데 너무 한 쪽 생각만 듣는 게 조금 아쉬움. 보수 쪽 생각도 들을 필요가 있음. 한 쪽 의견만 듣다간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보수 진영이 훨씬 많고 같이 사는 세상이니 치우치지 말거라. 자칫, 보수를 공격하거나 하는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나이를 먹어야 해. 적대시 하지 말거라. 소통, 협력해야해.

* 인터뷰는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수선했을 때 진행된 거라 많이 부족하다.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고 너무 바쁘셔서 짧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 아쉽지만 평소에 했던 대화에서도 환경연과 활동가 분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어서 나름 만족했다. 몇 가지 신기했던 부분도 있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것들을 활동가 분들께 인터뷰를 통해 들으니 내 생각도 정리되고 인턴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터뷰 질문 중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 질문에선 각자 다르게 답해주셔서 놀라웠다. 활동가 분들 각자가 나에게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분은 내 의견이 좇대 없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내 생각이 너무 편협해 질 수도 있다고 하셨다. 또 어떤 분은 경험이 다가 아니란 것도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나를 겪었는데 소감이 다 다르다. 어떤 분의 말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각자 느끼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 생각도 정리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6-2. 인턴 달력

월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월	23-1	1	청주	인턴 시작 녹청 정기총회 다짐대회		방사능 안전 급식 발족식		촛불 문화제	
3월	2-8	2		밀양~4	국가에너지 정책의 숨겨진 진실 -이유진		두꺼비순찰대 발족식		
	9-15	3		윤진식 도지사 출마 반대 기자회견	밀양 행동의 날 1인 시위			풀곰생태탐방 답사	월간산행 -월악산
	16-22	4			풀곰환경재단 창립총회		빅애스크 서명 운동		3월 풀곰생태탐방
	23-29	5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기자회견				식목일 행사	
4월	30-5	6			창립기념일		선호 쌤 방문	생활교육 공동체 '공룡' 개소식	
	6- 12	7						초록마을 사업 설명회	4월 풀곰생태탐방
	13-19	8				풀곰환경강좌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		
	20-26	9			초록마을 사업 협약식				
5월	27-3	10				대청호보전 운동본부 선진지 견학	노동절	무심천물고기 교육	
	4- 10	11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시민합동분향소 설치	충북연대회의 초청 강연회 -오연호	촛불 문화제	
	11-17	12			김병우 후보 정책협약식			시민합동분향소 운영 촛불 문화제	
	18-24	13			김병우 후보 지지선언 충북 NGO 활성 방안 토론회	풀곰환경강좌		촛불 문화제 시가 행진	
6월	25-31	14				회원 주간 -와인	회원 주간 -커피	회원 주간 -맥주	회원 주간 -무심천물고기
	1-7	15		선호쌤 방문		6.4 지방선거		현충일	
	8-14	16		인턴십 끝	총 75일 근무				

학교에서 떠나 있던 반년, 19세의 1/2

장거살롱에서의 2개월 반+녹소연에서의 2주=파란만장

장거살롱 / 3.3~5.23

녹색소비자연대 / 6.9~6.27

김종화

목차

I. <장거살롱>

1. 어떤 곳인가
2. 동기

II. 두 달 반 동안의 활동

1. 인턴 시작 전
2. 하루일과, 활동
3. 1개월 차
4. 2개월 차
5. 3개월, 그 후

III. 2주간의 짧은 인턴십

1. 녹색소비자연대
2. 하루일과, 활동

IV. 인턴십을 마치며

1. <장거살롱>

1. 어떤 곳인가



장거살롱은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에 있는 자전거공방카페 사회적기업이다. 그 시작은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시던 대표님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무거운 수레를 끄는 모습을 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처럼 몸에 맞는 자전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어 폐자전거를 리사이클하여 자전거가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하기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자전거를 리사이클하기 위한 금액의 일부 마련과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 장거살롱이라는 커피숍을 만들게 되었다. 리사이클을 위한 금액은 카페에서 버는 수익금과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다른 장거살롱의 모습은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로 1층은 작은 커피숍과 자전거 수리를 하는 공간이지만 지하 1층은 다양한 모임을 위한 공간, 2층은 DIY(폐목재 등을 이용한 자체 작업)작업실과 미술, 도예 작업실로 활용 중이다. 그리고 3층은 다양한 대관행사(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많은 청년이 찾아 세미나도 열고 모임도 하면서 서로의 꿈을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 중이다.

2. 동기

제천간디학교에 다니면서, 특히 고등부에 재학 중일 때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았다. 4학년 때는 유기농음식과 요리 쪽으로 관심이 가서 슬로푸드를 지향하는 식당과 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홍대 '슬로비'에 갔다. 그리고 5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의 삶을 체험해보자는 의미로 유기농 생산자협동조합인 '솔뫼농장'에 갔다.

4학년 이동체험학습을 카페 '슬로비'로 가서 활동하면서 슬로비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찾았고 그런 도중에 장거살롱을 알게 되었다. 지역예술가들에게 실험장소와 작업실을 제공한

다는 점, 카페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폐자전거를 수리하고 리사이클 하여 기증하는 사회적 목적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그 전부터 자전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편이라서 자전거의 리사이클이라는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껴 선택하게 되었다.

장거살롱에서 크게 배우고 싶었던 부분은 두 가지였다.

① 지역에서 복합문화공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

: 장거살롱이 위치한 대구 북성로는 오래되고 아직도 근대의 모습을 간직한, 젊은이보다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그런 북성로에서 장거살롱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장거살롱은 북성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었다.

② 자전거 리사이클과 수리하는 법 그 외에 자전거에 대해 알고 싶다.

: 앞서서도 말을 했지만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인지 나는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자전거에 대한 기술도 배워보고 싶었고 또 자전거를 리사이클 하는 곳이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자전거 미케닉을 진로로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II. 두 달 반 동안의 활동

1. 인턴 시작 전

- '도심 속 차량 속도 줄이기 퇴근길 프로젝트'

산타와 함께하는 도심 속 속도 줄이기 퇴근길 프로젝트
12월 16일~12월 20일 6시부터 7시

속도줄이기 프로젝트란?
 퇴근길 도심 내 교통체증악화된 구간을 자전거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도심 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일컫는 프로젝트

출발장소 : 장거살롱

행사기간
 12월 16일~12월 20일 6시부터 7시

참가신청 및 접수
 - 참가대상 : 자전거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 신청방법
 인터넷 www.facebook.com/indie053
 전화 053.218.1053 (인디053)
 - 신청기간
 2013.12.09.~12.20 (당일 신청가능)

진행구간
 장거살롱-대구역거리-교동네거리-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봉선네거리-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리 빈북주행

참가자 혜택
 - 매일 선착순 5분에게 선의복을 드립니다. (전일참가자우선)
 - 모든 참가자들에게 선의모자를 드립니다.

[집중홍보]
12월 21일 2시 중앙파출소 앞

주최 말고루큰대구21추진협의회 주관 말고루큰대구21추진협의회 대외부과



대표님과 상의해서 정한 인턴시작일은 3월 3일이었지만 방학 동안에도 혹시 함께할 행사나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산타복장을 하고 대구 시내(가장 교통체증이 심한)를 몇 바퀴 자전거를 타고 도는 캠페인을 한다고 참가를 권유해주셨다. 직접 산타 옷을 입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눈에 띄는 복장이다 보니 대구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효과적인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장거살롱식구들과 처음 만나서 얼굴을 익혔다.

2. 하루 일과, 활동

- 7시 기상
- 8시~10시 수영
- 11시 출근
- 20시+a 퇴근 (야근 시 21시~23시)
- 23시 취침
- 하루 9시간 근무
- 출·퇴근 총 15분 소요

월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2-8	1		첫 출근		자전거 교육 시작		회의 참석, 도색 준비	
	9-15	2		인테리어 공사		'아, 옥상' 사진전 시작	명랑운동회 기획 회의	마을기업 설립교육	
	16-22	3			혼자 장거살롱 지킨 날				
	23-29	4			마을기업 설립 교육 심화 과정	목공작업	지하 창고 다녀온 날		
4	30-5	5		카페 활동 시작				목공	
	6-12	6	대구 국제 마라톤	목공	파티 준비	목공소 청소 파티 준비			
	13-19	7							
	20-26	8					창고 청소	공연장 세팅	'폴락이다' 공연
5	27-3	9							
	4-10	10				휴고, 크리스 탈출	자전거 출근, 신 메뉴개발		
	11-17	11							
	18-24	12						시즌 오프	

3. 1개월 차: 적응기

- 카페 오픈, 작업실 청소

요즘 부쩍 내가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 날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 공간의 하루를 내가 여는 거니까 왠지 뿌듯하다. - 3월 25일 일지 中

장거살롱의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다. 장거살롱에서 내가 제일 근처에 살아서인지 매일 첫 번째로 장거살롱에 도착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를 바깥으로 빼내고 입구에는 오픈 팻말을 건다. 때때로 화분에 물을 주고 가게 앞 도로에 물청소를 하기도 했다. 매일매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픈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이다 보니 장거살롱에 애착을 가지는 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항상 '내 공간'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칭찬도 많이 받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날 대표님이 사람들이랑 마셨던 술병을 매일 치우지 않고 다니셔서 그 뒤처리를 자주 하다 보니 대표님께 많이 실망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다음 날 오시는 손님이 가게에 와서 나는 술 냄새, 닭 냄새를 못 맡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중에 내가 어떤 공간을 운영한다면 무책임하고 예의 없는 짓은 저지르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

- 트레일러 제작 보조

장거살롱에서 활동한 것 중 이걸 왜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시작한 작업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트레일러를 직접 만드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한 작업이었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트레일러에 넣어서 움직이는 카페를 만든다고 한다. 자전거 사업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의뢰를 받아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의뢰들 중 하나가 트레일러 제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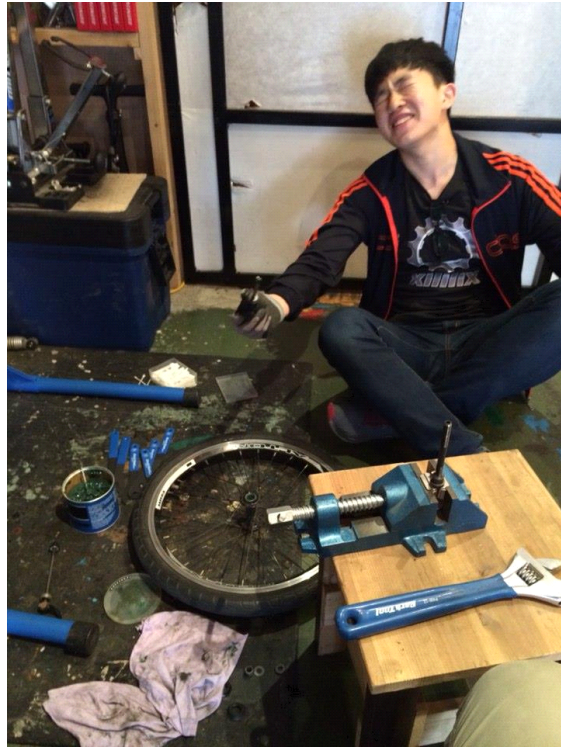
처음으로 가까이서 용접 기술을 보기도 했고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때 설계가 1mm 틀리면 실제 제작과정에서는 훨씬 더 많이 틀어지게 되고 그만큼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상당히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점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자전거 분해 및 청소 배우기

오늘은 자전거의 휠에 있는 허브라는 부품을 정비하는 법을 배웠다. 베어링 하나하나 닦고 기름칠을 하는 것이 섬세한 작업이라 까다로웠다. 그래도 정비를 조금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인턴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인데 드디어 직접 펍크 수리를 하고 자전거를 조금씩 손볼 기회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 - 3월 28일 일지 中

제일 기대했던 활동이 자전거와 관련된 작업이었는데 대표님께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같이 일하는 다른 형한테 주로 자전거에 대해서 배웠다. 제일 처음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부품들을 청소도 하면서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다. 그 이후에는 주로 하는 자전거 타이어 펍크, 체인 수리 등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맡아서 하기도 했다.

자전거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뿌듯하고 보람차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는 답답한 적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났다. 투정도 부리고 싶고 괜히 자전거한테 성질이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장거살롱이라는 공간은 제천간디학교가 아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였고, 인턴이지만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성인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그 곳에서 나는 어리광부릴 사람도 없고, 상황도 아니었다. 그 상황을 인지하던 때부터 내 감정을 추스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오늘 페달이 잘 안 나간다고 오신 손님이 계셔서 부품을 찾으러 지하 창고에 다녀왔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와 보다 오늘 처음 방문했다. 폐자전거의 성지랄까... 물론 못 쓰는 부분도 많겠지만 상당히 많은 자전거들을 보았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은 자전거들을 보니 좀 더 자주 들락거리고 싶다.
- 3월 27일 일지 中

자전거를 수리하다 보면 무조건 새 부품 말고 싼 가격에 창고에 있던 부품으로 수리해드릴 때가 많았다. 그 때 북성로 공구 골목 안쪽에 있는 지하 창고에 다녀올 때가 있었는데 처음 창고에 갔었던 날 썼던 일지다. 일지에서는 별 감흥 없어 보이지만 정말 폐자전거의 성지라고 부를 만큼 다양하고 많은 자전거들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거해 놓은 자전거로 왜 본래 해야 할 사업을 안 하시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보물들이 창고에 썩어가는 것 같았다.

- 작업실 인테리어 공사 작업

3월 10일 월요일, 대구 방천시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의 작업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테이블과 책장, 선반 등 가구들을 직접 목재를 사와서 제작했다. 오전부터 저녁 11시까지 늦게까지 작업한 첫 날이었다. 꽤 추운 날이었지만 이리저리 뛰어 땀기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버틸 수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작업실 내부는 더 알차게 변해갔다. 사실은 이런 인테리어 공사도 본래 장거살롱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구나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드는 일이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 '아, 옥상' 사진전 준비 보조

'아, 옥상'은 부산에서 김만석 평론가와 김하영 독립큐레이터가 총 기획하는 '옥상의 정치'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옥상의 정치'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5개 도시에서 각각의 소주제를 가지되 옥상을 소재로 설치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이다. '옥상의 정치'는 옥상이 가진 사회적 의미, 예컨대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시위가 옥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작가들이 모여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에서는 북성로의 삼덕상회와 장거살롱을 전시 장소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장거살롱의 3층 옥상에 전시의 소재인 옥상전시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시를 위해서 옥상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와 가구들을 정리하고 버렸다. 작가들과 장거살롱 사이에서 이야기 조율도 잘 안 되었고 전시를 위한 준비도 솔직히 부족해 보이고, 많이 아쉬운 전시였던 것 같다. 항상 이런 문화공간에서 전시를 할 때에는 서로의 소통과 배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본다.



- '명랑운동회' 기획 회의 참여

장거살롱 식구들과 같이 회의하다가 뜬금없이 봄이니까 운동회를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운동회에 관한 얘기나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었는데 이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추진력으로 단번에 포스터가 나오고, 참여할 여러 단체들과 연락하고 스폰서까지 받아가면서 하나의 문화가 또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매우 빠르게 보았다.

아쉽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추모하기 위해 운동회는 가을로 연기되었지만 그 기획 단계 자체에서도 많이 배웠다.

언젠가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 중 '문화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느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자체가 문화다.'라는 말이 있었다. 문화라는 두루뭉술한 것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감이 잡히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다. 나도 나중에는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심화 과정 참여

마을기업 교육 심화 과정을 들었다. 마케팅, 윤리적 경영,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좋은 강의를 들어서 좋았다. 윤리적인 경영에 대한 강의에서 들었던 인상 깊은 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추구해야 한다. 고객을 추구하고 많이 모은다면 이익이 생기기 마련이다.' 요즘 세상에 드물지만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을기업 설립 지원자들의 사업 아이템 및 단체 소개를 듣는데 많이 실망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경제교육 수업 들으면서 발표한 것들이 더 실현가능성 있다고 볼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마을기업 같지도 않지만 마을기업 설립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과 마을기업을 설립하려 하지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극소수지만 이미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장거살롱은 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을 자주 해보았다. 처음에는 세 번째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첫 번째라고 생각되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 공간 안내

장거살롱에서 맡은 일 중 주로 한 일 하나가 공간 안내를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워낙 다양한 공간이 모여 있다 보니 처음 오시는 손님들에게 안내를 많이 했다. 처음에는 나도 잘 모르는 공간이 많아서 다른 형, 누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알아갔다. 그래서 이 공간이 왜 생겼는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게 되고 안내 할 때마다 약간의 자부심이 생기면서 장거살롱에 대한 애착이 많이 늘었다.

4. 2개월 차

- 카페

내 인턴 활동의 계획 중 한 달은 자전거와 여러 제작 작업, 한 달은 카페에서 일 돕기. 한 달은 좀 더 하고 싶은 활동하기였다. 인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는 기점이기 때문에 카페 소속으로 넘어갔다. 처음으로 맡은 일은 장 보러 가기. 장보고 마트라는 식자재 마트에서 카페에 필요한 물품들을 샀다. 대구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을 지나 더운 여름이 다가온다. 나무의 잎사귀들이 피어나듯 장거살롱의 활동들도 좀 더 피어나길 기대해본다.

- 4월 1일 일지 中

일지에서 나온 것처럼 인턴 활동 계획이 3월은 외부 제작 작업, 4월은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이었다.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일에 대한 보람이 컸다. 커피도 많이 배우고 손님 접대(?)를 하면서 서비스 직종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다.



장거살롱 식구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장보고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찍은 사진이다. 계란을 상당히 조심히 다루어야 해서 등에다가 묶어서 귀환하는 장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얻는 서비스이기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자신이 얻는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게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인해서 사람마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 사회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장거살롱의 위치가 북성로 근대골목에 있다 보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많이 만났다. 카페가 생소하신 어르신부터 아는 것들을 가르치려 하시는 어르신, 술을 드시고 가게에서 주정을 부리시는 분들까지 참 다양한 어르신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여러 지혜들을 배웠다.

오늘은 은주 누나(카페담당)가 쉬는 날이라 홀로 카페를 지켰다. 커피도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자잘한 정리하는 일조차 하나하나 보람차다. 근데 혼자 앉아서 지키다 보니 너무 외롭다. 은주 누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손님들이 남긴 커피의 맛을 한 모금씩 맛보고 있다. 흑시 맛이 없다. 뭐 문제는 없었다. 근데 왜 남기는 걸까. 걱정된다. 또다시 은주누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 5월 12일 일지 中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짧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생각보다 빨리 배워서 손님들한테 직접 판매할 때도 자주 있었다.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같이 카페를 운영하는 누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그 좁은 싱크대 앞에서 지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리고 손님들이 남기고 간 커피들이 있을 때면 괜히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맛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보려고 애썼다. 다행히 맛을 볼 때마다 문제가 없어서 약간의 안도를 했지만 특히 이 장거살롱에서 약자, 인턴인 나는 매번 신경을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

- 목공 작업

오늘은 카페 쉬는 날이다. 청소만 하고 바로 목공소에서 책장 도색을 마저 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칠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덧씌워져가는 색이 견고해질수록 뿌듯함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도색 작업을 끝내니 또 다른 맛이 드러나는 것 같다.
- 4월 7일 일지 中



폐팔레트를 수거, 분해하고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기도 한다.

장거살롱은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월요일에 카페를 쉰다. 그 때 주로 목공 작업과 트레일러 제작을 했다. 장거살롱의 2층 야외에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주문 제작을 받아서 가구를 제작하고 또 위 사진은 맞춤형 제작 주문을 받은 가구인

데 책장으로도 사용하고 뒤판은 검은색 칠판 페인트를 칠해서 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목공을 하면서 느낀 것은 트레일러 만들 때 깨달은 것과 거의 다른 게 없었다. 다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붙들고 하면 더 쉬울 뿐만이 아니라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협동하며 일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 대관 행사 '폴락이다'



독립출판물 서점 '폴락'에서 기획한 작은 콘서트 '폴락이다'는 폴락, 장거살롱, 소셜 마켓 등 대구의 사소하고 작은 독립대안문화공간을 드나들며 대구 내외의 개성 있는 인디음악인과 공간의 매력을 섞어놓는 실험적 네트워크 콜라보 공연으로 전문 공연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날 것 같은 음악들과 뮤지션들의 땀방울, 숨소리까지 공유하는 색다른 공연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폴락이다'의 세 번째 공연 장소는 장거살롱이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카페 공간보다는 협소해서인지 사람들이 딱딱 찼다. 그리고 상당히 더운 날씨여서 들어오신 관객분들 대다수가 음료를 주문하셨는데 공연을 감상할 틈도 없이 두 시간 동안 음료만 계속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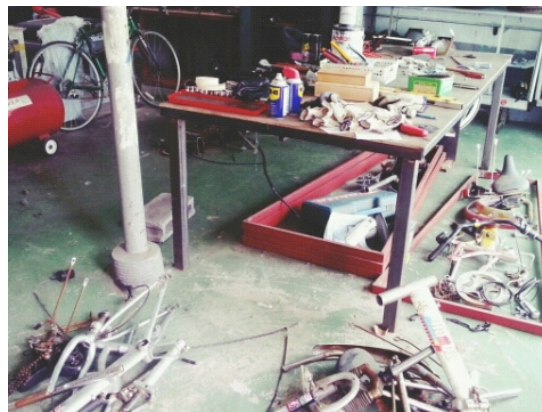


인디음악인과 장거살롱 같은 복합문화공간의 만남은 상당히 좋은 시너지효과를 냈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기획들이 많이 늘어나서 장거살롱도 많이 알려지고 음악인들의 무대도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 자전거 워크숍

일명 전기사 프로젝트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6개월 동안 여섯 명의 참가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으로 각자 한 대씩 만들고 마지막 달에 한 대를 다 같이 만들어서 어려운 곳에 기증하는 워크숍이다. 첫 시간에는 참가자분들의 자기소개와 어떤 용도의 자전거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전거를 한 대씩 분해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프레임에 마스킹 테이프까지 부착시키는 작업을 했다.

참가자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자전거가 각자 다 달라서 상당히 재미있는 워크숍이었다. 누군가와 타고 다니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각자의 특별한 자전거를 '직접' 만드는 것이 의미가 깊었다. 마지막까지 함께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5. 3개월, 그 후

- 자전거 출근

내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의 모티브를 좀 얻었다. 이번에 이사한 경산에서부터 자전거 출근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랑 같이 일하는 장근 형님이랑 자출을 할 예정이다. 조금씩 홍보를 하면서 여러 명에서 같이 자전거로 출근하면... 자전거도 더 안전하게 타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자전거 출근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꽤 부담되는 교통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환경에도 조금이나마 도움 될 것이라 믿는다. - 5월 7일 일지 中

선호 쌤이 다녀가신 후 내가 이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것은 경산에서부터 대구 시내까지 자전거 출근을 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약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그 사이에 길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대적인 홍보 이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형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 보았다. 만족스러웠지만 도로위에서 절대 약자인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 데에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포기했다. 확실히 자동차가 바로 옆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웠다. 아쉽고 아쉬운 포기였다.

- 시즌 오프...

5월 23일 금요일. 부쩍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대표님이 나를 부르셨다.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같이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동안 우리들이 했던 공사나 여러 가지 작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했을 거라면서 더 있으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이때까지 했던 활동들에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애착을 가졌는데 대표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

나는 인턴십을 진행하는 동안 장거살롱 대표님께 두 가지 정도의 실망을 했다.

① 두 달 반 동안 본인이 매일 가게에서 먹은 술을 카페를 오픈할 때까지 치우지 않고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서 자주 놀러 다니는 모습.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고 안 치우고 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흔적들을 나는 하루 일과와 같다는 듯이 치우고 청소했다.

② 주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작업들을 가끔씩 하는 모습. 물론 사업 진행비가 부족해서 자전거를 만든 적이 없었지만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자본을 만들어야할 텐데 그런 일들도 직접 하는 모습을 쉽게는 볼 수 없었다. 내가 기대하고 왔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많이 아쉬웠다.

물론 사람의 겉모습과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남들에게 비치는 겉모습을 만드는 것 또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겉모습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실망한 점들이 나를 상당히 괴롭혔기에 시간을 더 늘려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대표님과 대화의 끝난 후 장거살롱 나머지 분들과 서로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하는 자리를 즉석에서 마련했다. 솔직히 대표님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였다. 본인이 섭섭했던 점, 서로의 갈등 지점 등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분들의 반박이 늘어나자 갑자기 “그냥 다 그만두고 나가, 장거살롱 없애버리자.”라고 말했다. 어안이 병병했다. 한 단체의 머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짐을 챙겨서 나머지 형, 누나들과 가게를 나왔다.

이후에는 너무 어이없고 속상한 마음에 서울로 가 버렸다. 서울에서 선호 쌤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장거살롱 사람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장거살롱은 대표님과 두 분은 남고 나머지 네 분은 그만두셔서 장거살롱이 시즌 오프를 한다고 했다. 나 또한 더 이상 대표님과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그만둔다고 사과 드렸다.

이 흔하지 않은 계기를 통해 단체가 이런 방법으로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대표의 역할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꼭 참고 다시 대표님과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참지 못하고 도망쳐 버린 내 모습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다. 사회에 나가면 힘들더라고 참고 버티거나 저항을 해야 할 때가 많을 텐데 아직은 그럴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인턴이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봉변이지’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 나는 정말 희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했어. 간디 인턴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을 활동할 단체를 찾는다고 고생했지만 귀중한 배움을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한다.

Ⅲ. 2주간의 짧은 인턴십

1.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의 활동은 기존의 NGO의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기능과 시장 행태를 비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시장을 개척하고 그 힘으로 정책과 국가가 작동되게 하는 즉 비판에서 대안으로 나아가자는 소비자운동(녹색소비자연대)을 이끈다.

소비자교육으로는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전통시장 탐방교육, 윤리적소비교육 등을 통해 녹색소비를 제안하며 환경교육으로는 앞산숲속학교(생태감수성 회복을 통한 환경사랑을 목적으로 동네 산을 돌아보며 어린이 생태교육)를 진행한다.

그 외에 시민참여예산, 도시농부학교, 귀농학교, 생태텃밭교실, 현미채식 프로그램, 대구올레, 인라인스케이트 강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소연이네 에코다락’이라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주관하는 교육·문화 사업을 위한 공간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도시농부아카데미, 대구올레아카데미의 교육공간으로, 기타교실, 에코무비, 밴드연습실 등 문화공간으로, 길빛

연구소, 예산모임 등 소모임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활동

월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월	8-14	1		회의 참석 이사준비	화요시 대구올레 트레일 매니저 아카데미 준비	수터디	도시농부학교	사무보조	모내기
	15-21	2	모내기	휴무	회의 참석 사무보조	수터디	대구올레 모니터링	사무보조 이사준비	

- 회의 참석

매주 월요일은 녹소연 식구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다. 각자 일정 공유를 하고 이 주에 잡혀있는 행사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첫 주 회의에서는 새로 인턴을 온 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또 같이 일하시게 된 다른 선생님의 소개를 들었다.

장거살롱에서는 내가 세 달 있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 같은 소통을 하는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녹소연에서는 달랐다. 2주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속감을 쉽게 가지게 되었다.

- 화요시



화요일에 대구 동성로에서 하는 정기적인 시위 활동으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 시민행동'과 함께 탈핵을 주제로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알린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배우면서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 탈핵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도 받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에 비해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도 적어서 많이 아쉬웠다. 지역적 특성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안 가지다보니 괜히 관심을 받으려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구호도 외쳤다.

- 수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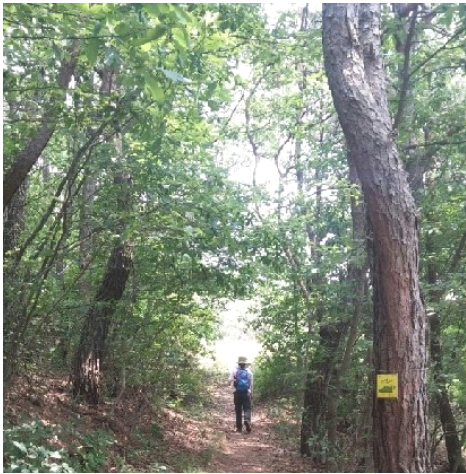
수터디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다락에서 소비자, 도시와 농촌, 트레일, 예산감시 등 녹소연 활동의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누는 공부 모임이다.

두 번의 수터디 모임을 했는데 나는 이반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라는 책을 읽었다. 같이 책을 읽고 그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5학년 때 들은 '서양고전읽기' 수업보다 시스템적인 방면으로 부족했다.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자가 없다 보니 같은 사람만 의견 주장을 하거나 다른 길로 이야기가 쉽게 뺏던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학교 없는 사회》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더 의미가 큰 책이었다. 다른 활동가분들과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활동가분들이 과거에 공교육을 받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좋은 시간이었다.

- 모내기



내가 2주간 인턴을 하는 동안 마침 한창 모내기를 하는 주간이었다. 주말에 후원 회원님과 활동가 분들, 그리고 텃밭강사 분과 함께 모내기를 했다. 역시 매년 모내기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모내기는 일한다기보다는 그냥 1년 중 가장 중요한 축제의 느낌이다.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맛난 것 나누어 먹으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이날 작년에 무빙스쿨을 통해 녹소연과 인연이 있었던 수용이도 불러서 함께 모내기를 했다. 이들에 걸쳐 모내기를 했더니 확실히 몸에 무리가 많이 와서 월요일은 녹소연 전체 휴무일이었다.



녹소연의 주 사업 중 하나인 대구올레 코스의 모니터링에 참가했다. 5코스인 성재서당 가는 길을 걸으면서 잘못된 이정표들을 고치고 체크하고 코스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록했다. 모니터링을 마치고 나서는 일일 청춘기자단으로 모니터링 후기를 작성했다. 일단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6km가 조금 넘는 거리였지만 상당히 많이 지쳤다. 5코스는 탁 트여있는 길이라 나무들도 근처에 많이 없다 보니 오히려 여름보다는 봄, 가을에 알맞은 코스가 아닌가 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다. 이정표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니 목적지였던 성재서당에 도착했는데, 400년 전부터 서당을 보존시켰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 험난한 산길을 올라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신기했다. 길을 걸으면서 함께 간 실무자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IV. 인턴십 完

1. 장거살롱

장거살롱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① 근대골목 중 하나인 북성로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문화공간이다. 그것으로 인해 세대의 조화, 근대와 현대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② 장거살롱에서 진행 중인 또는 진행할 자전거, 미술 워크숍 등으로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③ 마을주민 또는 지나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 또는 자전거방이 되어준다. ④ 폐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또는 예술품, 폐 팔레트로 가구 등을 생산하면서 업사이클링의 실천을 의미한다. - 5월 6일 일지 中

언젠가 일지에 장거살롱에 관한 생각을 적고 싶어서 적은 글이다. 제일 처음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싶은 목표가 두 가지 있었다. '복합문화공간이 끼치는 영향'과 '자전거', 솔직히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이 전혀 책임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서 크게 만족은 못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활동으로 스스로 깨닫게 되었는데 일지에 적은 ①번의 의미와 비슷하다.

근대의 유물인 북성로와 현대를 대표하는 카페를 비롯한 복합문화공간의 조화는 생각보다 근사했다. 장거살롱은 북성로의 명물과 비슷하게 매스컴을 타면서 더불어 북성로를 재조명시켰다. 그로 인해 근대골목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단순한 공공골목이 아닌 하나의 역사적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장거살롱에서는 뒷세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교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거살롱과 북성로, 서로가 끼치던 영향이 어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거살롱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도 많았지만 인턴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막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일들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 많이 괴로웠던 기억들도 곰곰이 되짚어 보며 시간을 보내니 그 안에서 깨달은 것도 많고 좋

고 나쁘고를 떠나서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좀 더 적극적인 비폭력적인 저항을 해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장거살롱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미디어와 언론의 노출을 많이 받은 단체였다. 내가 활동을 할 당시에도 VJ특공대, 영남일보, MBC 등 상당히 많은 취재와 촬영이 있었다. 대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성격을 띤 단체라서 그런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편이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촬영도 당하고 취재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장거살롱의 실체와 언론을 통해 보는 장거살롱의 차이가 컸다.

나도 장거살롱을 찾아올 때는 다양한 언론자료와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고 찾아왔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거품이 심하다보니 실망을 많이 했다. 장거살롱을 취재하러 왔으면 진짜 장거살롱의 모습 자체를 취재했으면 싶은데 취재하는 쪽이나 취재 당하는 쪽이나 포장을 심하게 했다. 장거살롱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니 영상 편집 기술의 힘은 상당히 전지전능했으며 이 사회에서 미디어는 결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2. 녹색소비자연대

녹소연에서의 2주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했던 활동들은 상당히 알찼다. 일단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기도 했고 장거살롱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고 공과 사의 구분이 잘 되어 있어서 일에 집중을 더 할 수 있었다. 녹소연 자치 프로그램(화요시, 수터디 등)에 참여한 것들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 장거살롱에서 나온 후 활동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찾았는데 오히려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성취감도 높았다.

3. 학교에서 떠나 있던 반년

겨울방학부터 인턴십이 끝날 때까지 날 수를 세어보니 열чу 반년이 되었다. 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인데 그 중 반을 벌써 날려먹은 것 같기도 하여 기분이 묘하다.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해야 할까, 이제는 반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야 할까. 점점 다가오는 졸업과 사회가 이제는 마냥 남 일 같지 않다.

인턴십은 확실히 나에게 큰 성장의 계기가 되어주었다. 도중에 상처도 받고 실망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인터뷰

<목수 최현석 형>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버려지는 폐목재 파레트로 도시농업의 텃밭상자 제작, 지역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Art Furniture제작, DIY 워크샵을 진행하는 파레트팀의 creative director이다.

Q: 장거살롱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A: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창업팀으로 활동하다가 선배 창업팀인 DBC 전수윤 대표와 함께 복성로에 청년들을 위한 입주 공간을 마련한다는 기획에 매료되어 동참하게 되었다.

Q: 장거살롱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2층에 입주한 창업팀으로서 개인적인 작업이나 장거살롱에 필요한 공간 디자인 및 일부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Q:장거살롱만의 장점/결점

A: 장점- 목공, 페인팅, 자전거, 도자기 등 여러 분야의 작업을 콜라보레이션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 단점- 협동조합과 유사한 의사결정의 평등성 및 절차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다.

Q: 일을 하면서 뿌듯한 순간/힘든 순간

A: 개인적인 작업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더욱 재밌게 작업할 수 있었다. 자본이나 기타 여건이 부족하여 피치 못하게 다른 일을 하게 되어 하고 싶은 일이 더디게 진행될 때 가끔 힘이 든다고 느낀다.

Q :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세요?

A : 중상.

Q :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있으신가요?

A :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되, 남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람.

Q :도중에 장거살롱이 시즌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정반합. 모든 것은 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갈등 후의 봉합은 시스템의 발전을 이루게 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류의 기업에서도 기업적인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의 시즌오픈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A : 예전부터 기획했던 '파레트'란 기업의 브랜딩에 집중하려 한다.

메아리를 메알메알

에코파티메아리 / 2.20~5.30

이민지

I. 처음

1. 단체를 정하기까지
2. 첫 만남

II. 중간

1. 에코파티메아리는?
 2. 내가 한 일
 - 1) 지하에서
 - 2) 밖에서
 - ① 현대백화점
 - ② 월말 재고조사
 - ③ 작은 야외 활동
 - ④ 아쉬운 점
 - 3)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 ① 간사님 인터뷰
 - ② 사회적기업 탐방
 - ③ 서울랜드 일일가게
 - ④ 광화문 나눔장터

III. 마지막

1. 마무리 ○ ○ ○

I. 처음

1. 단체를 정하기까지

사실 인턴십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다. 나에게서는 마냥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다 4학년 때 인턴십 발표를 보고 나서 간디 학교에서 인턴십이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발표를 보고, 드디어 내 단체를 골라야 했을 때부터 내가 인턴십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봤다.

작년부터 생각해놓은 곳이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했다.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기에 혹시나 해서 연락을 다시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된다는 대답이었다. 갑자기 급해진 마음에 어떤 분야로 갈까, 해외로 가 볼까, 생각이 바빠졌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선배 인턴십 자료들을 보다가 ‘아름다운가게’를 보았다.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는 이름도 들었고,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그 선배는 ‘재활용 캠페인 부서’에 있었다. 내가 원했던 야외 활동도 많고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바로 그 선배에게 연락을 했고, 고맙게도 연결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 부서에는 현재 인턴으로 자리가 남는 곳이 없었고 그 선배와 같이 일하셨던 간사님께서 ‘에코파티메아리’를 소개해 주셨다. 나는 정말 만드는 데에 재주가 없어서 생각을 안 했던 곳이었는데 전화로만 연락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서 일단 메아리 팀장님과 통화를 했다. 첫 전화 연결에서 나는 무엇을 만들고, 꾸미는 것에 대한 손재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했지만 팀장님께서서는 괜찮다며 오라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팀장님도 꽤 당황하셨을 것이다. 소개 들어 전화했는데 자기 어필은 커녕 못 한다고 먼저 말했으니. 일단 이미 겨울방학을 시작하고 나서의 연락이었어서 급한 나는 사전답사 날짜를 잡았다.

급하게 정해졌지만 그래도 아름다운가게에서 일하고 싶었던 처음의 취지와는 맞았다. 사실 사람들이 아름다운가게로 간다고 했을 때, 워낙 잘 받아주는 곳으로 유명해서 쉽게 가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절대 쉽게 가려는 것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고, 매장이 아닌 회사 본사에서 일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더욱 특별한 ‘에코파티메아리’에서 하게 된 것이 더 큰 의미였다.

2. 첫 만남

겨울방학 초반에 학년 모임에서 결정된 사실을 처음으로 말하고 그 다음 날에 사전 답사를 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 성동구. 군자역을 지나 장한평역에서 두 개의 주유소, 두 개의 타이어집, 현대 자동차 회사 옆에 조그맣게 있는 매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5층 사무실. 그런데 사실 눈에 더 띄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공사장이었다. 이런 분위기의 길에 회사가 있는지 의아해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팀장님이 문을 열어 주셨고 일단 안으로 들어갔다.

굉장히 사무적인 외관에 놀라고 안에 2층 커뮤니티 룸의 따뜻한 분위기에 한 번 더 놀랐다. 팀장님께서 메아리 소개와 앞으로 내가 할 일과 내가 앞으로 일할 지하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위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리고 여자가 많을 거라는 내 생각과 달리 남자 선생님이 더 많았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되고 떨렸고 기대됐다. 그리고 한 달 후부터 14주 동안의 인턴십이 시작되었다.

II. 중간

1. 에코파티메아리는?

에코파티메아리는 2007년에 생긴 아름다운가게의 에코디자인 사업부로 업사이클링을 주 사업으로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

재는 가죽이다. 안 쓰는 소파 가죽과 자투리 가죽을 기증 받아 지갑이나 카드케이스, 가방으로 만든다. 외에도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 아동복을 기증받아 만든 릴라씨 인형, 양복으로 만든 가방,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청바지 안감을 이용한 데님 시리즈 가방과 파우치 등이 있다. 디자이너 간사님과 지하 선생님들께서 상의하고 수작업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만든 제품을 아름다운가게 매장으로 납품한다. 납품 과정에서는 MD담당 간사님과 팀장님이 재고 관리를 하시면서 진행한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순환 고리에 합류한다.

또, 디자인 제품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지구를 지키는 캠페인을 통한 재제조 운동을 확대하고 에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제품을 개발할 때 버려지는 소재의 재활용, 제작 과정과 부자재 사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비영리 그룹으로서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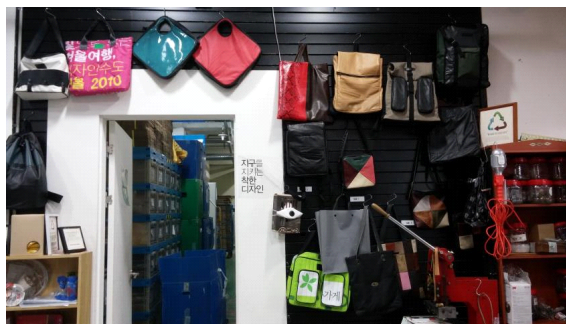
* 에코파티메아리(ecopartymeary)의 뜻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eco’와 즐겁게 환경을 지켜나가고 환경지킴이들이 모여 지구를 위한 유익한 집단이 되자는 ‘party’, 환경을 위한 주장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더 큰 울림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메아리의 영문 표기인 ‘meary’를 합친 말이다.

ECO PARTY MEARRY

2. 내가 한 일

1) 지하에서

지하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초록색 바닥을 지나면 미싱기와 모든 물류를 보관하는 공방과 창고가 있고 그 옆에 재단실이 있다. 나는 주로 물류 관리를 하시는 간사님과 함께 제품 검수와 물품 관리, 납품을 했다. 내가 직접 만든 제품은 없지만 납품 전에 한 번씩은 내 손을 거쳤고 생산과정을 옆에서 봤다.



문에 걸려있는 샘플들

먼저 선별과 재단을 한다. 가죽은 소파 공장(자투리 가죽)이나 매장에서 안 팔리는 것(가죽 자켓)을 기증받아 너무 헤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을 선별한다. 하지만 겨울철에 많이 나가는 가죽 제품을 위해 내가 온 봄에는 봄, 여름 시즌을 맞아 ‘데님 가방 시리즈’를 기획해서 가죽보다 청바지를 더 많이 활용했다. 청바지 기증은 주로 매장에서 팔리지 않거나 유행이 지난 청바지들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가방 본을 따라 사이즈가 맞는 것, 너무 얇지 않은 것, 스펀이 많지 않은 것을 선별한 뒤 세탁을 보낸다. 재단을 할 때에 조금만 이상하게 잘라도 모양이 안 나와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다. 초반에 청바지 재단을 한 번 해볼 기회가 생겨 해봤지만 그 이후로는 해보지 못했다.

기증이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게 받기는 하지만 소파 공장이나 매장에서 대량으로 들어올 때에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거나 보관이 어려울 정도로 많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다시 공장에 말을 해서 안 받겠다고 말을 하자’와 ‘그래도 주신 것을 활용을

해보자'는 간사님들의 의견 충돌을 보았다. 아무래도 기증을 받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야 하고 또 정말로 감사하지만 상황에 따라 끊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받기만 해서 결국 가죽이 상해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다시 쓰레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 구조가 완전한 갑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청바지도 처음에는 데님 가방만 기획하다가 예상한 것보다 작은 사이즈의 바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복도 한 줄을 가득 채웠다. 이 많은 청바지들을 이미 다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청바지 파우치로 만들었다. 활용은 했지만 원단의 부족함과 동시에 넘쳐나는 다른 쓰레기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을 활용했을 때 진정한 재제조가 실현됨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 간사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드신다는 것을 느꼈다.



가죽을 돌돌 말아 보관한다.



재봉하고 재단하는 공방

재단을 다 하면 재봉을 하거나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지하에는 두 분의 선생님과 지하 관리를 하시는 간사님, 그리고 회사 뒤에 있는 서울시 비전센터에서 자활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신다. 비전센터는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분들을 보호해주는 센터이다. 비전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시긴 하지만 충분히 즐거워하시고 다른 메아리 식구들도 같이 일하며 편견을 없앨 수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신다. 또 이것이 메아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모델이라고 한다.

나도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래도 같이 일을 계속 하면서 처음보다 더 속에 있는 자신의 얘기도 많이 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분들을 보호해주는 단체에 대해 듣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라 직접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완성이 된 제품에 마무리 검수를 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 활동가(아름다운가게에서는 활동천사라 부름)로 이루어진다. 주로 매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메아리와 사무실에서도 신청을 받아 일주일에 4시간씩 자원 활동을 한다.(사무실에서는 주로 문서정리, 데이터입력을 함)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사회봉사학과를 이수하기 위해 메아리로 봉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선별이나 재단, 검수처럼 간단한 일들은 활동천사가 주로 하고 나도 설명해주며 같이 했다. 검수를 할 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켜져 있는 라디오를 줄곧 듣기도 하고, 같이 일하던 활동천사의 대학 생활을 듣기도 하고, 간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나에게 많은 조언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러다 혼자 있거나 얘기가 끊겨 지루해질 타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내가 이것을 하러 이곳까지 온 건가, 다른 애들도 나와 같은 자리인가, 너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간사님께서 이 검수라는 일이 단순 노동으로 직접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제품의 마무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의미를 부여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행사나 매장에 갈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재제조라는 타이틀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았고 그 마무리를 내가 한다는 생각에 검수하는 것을 허투루 하지 않게 되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검수



목걸이 카드 케이스



창고 겸 패키징하던 곳



패킹 완료!!

검수를 마치고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패키징한다. 역시 이것도 반복 작업이었다. 제품을 꺼내 택을 붙이고 포장하고 박스에 담고. 초반에는 하다가 틀리는 경우에 간사님께도 혼도 나고,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다른 간사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의 잘못으로 돌리실 때는 억울하기도 했다. 그래도 하다가 점점 노하우도 생기고 눈치도 생기고 중간쯤에서부터는 아예 나에게 다 맡기시면서 내 일이 확실해지는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 그리고 이 주문이 전국으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왠지 내가 정말 매장에 보낸 기분이 들고 행사나 많은 제품이 나갈 때 나의 손을 스쳐 나간 느낌이라 또 뿌듯했다.

지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일을 했다. 패키징, 검수만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복도 정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에 맞게 맞춰야 하는 게 힘들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설명을 하며 자부심을 심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일을 먼저 하려 했고, 그러다 다른 간사님과 냉랭한 분위기도 생겼다. 인턴이니까 간사님들의 스타일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당연하듯 싶다가도 너무 다른 스타일에 일지에 화풀이를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다시 요령껏 맞추기도 했다. 사실 일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인턴에서 큰 배움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고 나도 지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겨울에도 춥고, 날이 풀려도 추운 지하에 적응하는 내가 왠지 싫다가도 끝나면서도 지하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언제 이런 곳에서 일해 보겠나 하는 생각에 아쉬웠다. 인턴이 시작되고 바로 공방의 구조를 바꿨다. 물론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바꾸신 것이다. 왠지 무빙이 아닌 인턴이라 더 많은 도움과 색다른 변화를 드리고 오고 싶었다. 또 내가 와서 정기 인턴을 따로 뽑지 않았다는 말에 더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을 하기 바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끝나 버렸고 다 끝나고 나서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도 간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최연소 인턴이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셨다.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생이 아닌 인턴으로서 조금의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뿌듯함도 생겼다.

* 팀장님께서서는 항상 '사람은 건강한 후에 성숙해야 한다. 내가 불건강한 상태에서 성숙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미성숙한 행동을 해도 안 된다. 나 자신이 건강한 게 우선이고 내가 행복해야 남이 행복하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다. 내가 행복해야 남이 행복하다. 항상 반대로만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려 했는데 그것은 욕심인 것 같다.

* 누구나 안 입는 옷을 버리기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 옷을 리폼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 입거나 쓰던 것이라도 싼 가격에 구입하고 동시에 나눔에 실천할 수 있다. 아니면 안 쓰는 것을 재제조해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널리 알리고 배우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름다운가게이다. 물론 가게 사람의 물건, 모든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물건은 아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몇백 만원의 명품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모순적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자신의 욕심은 누리되 넘치지 않게 생활하는 것 같다.

2) 밖에서

① 현대백화점 행사 (4/4, 4/11~12)

안양그물코센터에서 진행되는 현대백화점 야외 이벤트장 행사에 세 번 참여했다. 근처 가게 매니저님들과 메아리 간사님, 자원 활동가들도 오셨다. 공익 상품과 메아리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인데 나는 메아리 제품 중 가죽 팔찌 워크샵을 담당했다. 원래는 가죽 팔찌를 고르시면 내가 꼬는 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샵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 손님들이 나보고 대신 해 달라고 하셔서 워크샵이 아닌 그냥 판매가 되었다. 그리고 홍보를 하려고 전단지들을 들고 공원 쪽으로 나가 봤지만 사람도 없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구경 오신 다른 간사님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구매하시고 6시에 정리했다. 남은 물품은 안양그물코센터에 보관해 두었다.

그 다음 주 행사 때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진행을 했고 규모도 작아져서 판매하기 훨씬 수월했다. 이 날도 역시 가죽 팔찌 워크샵이 주였고 실내이고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커플과 학생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가격이 좀 나가는 가죽가방과 데님가방도 나가서 간사님과 나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

판매를 하면서 간사님의 불평을 들으면서 반응해 주는 것도 힘들고 손님들 상대하면서 계속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하고 물건 설명과 뭐가 더 잘 어울린다는 등 먼저 말을 꺼내면서 용기가 붙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장소나 구조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서비스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정말 계속 웃고 있다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학교나 메아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더 말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힘들기도 하지만 잘 팔릴 때는 왠지 속이 시원한 것을 느끼고는 정말 앞으로도 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찾아서도 할 것 같다.



가죽 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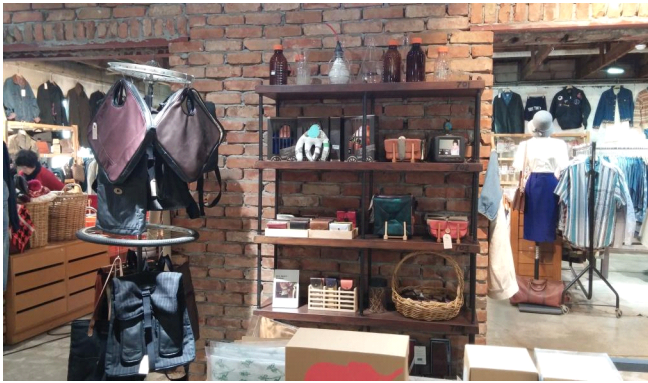
② 월말 재고조사

매달 마지막 주에 재고조사를 한다. 마지막 주 2~3일 정도를 매장에 재고조사를 나가고 마지막 날에는 지하 창고에서 재고조사를 한다. 매장 재고조사를 매달 간사님을 따라 나갔다. 전월 판매량 리스트를 뽑아 현재 매장에 있는 재고와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장의 교환이나 반품할 것을 들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이나 일반 제품의

주문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로 위탁판매 중인 명동, 홍대 A-랜드로 많이 나가고 아름다운 가게로는 서울랜드, 이매, 안국 매장을 갔다. 첫 달에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눈치도 많이 받고 간사님도 누구와 같이 나온 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고 이제 나에게 재고조사와 진열을 맡길 정도로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택배로 물건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있어서인지 비용을 아끼려는 건지 몸이 많이 쓰는 느낌이 들었고 더운 날에는 굳이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실 나조차도 가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곳이어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다. 왠지 매출이 별로 안 좋고 매장도 작을 줄 알았는데 전국 가게 매장에 메아리 코너가 있고 매출도 좋았다. 그리고 대표하는 제품도 확실히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있어 가게 매니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듯 했다. 그래도 매장 전체의 비해 메아리 코너가 작고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전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거라고 들어서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



명동 2nd A-LAND

③ 작은 야외 활동

크게는 아니지만 모든 일을 6시가 아닌 4시 정도에 끝내고 메아리 식구들과 함께 두 곳을 다녀왔다. 한 곳은 청량리역 롯데백화점에서 메아리의 물품이 전시 중인 '업사이클링 전시'를 둘러보았고, 다른 한 곳은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한 영화 '댄네이션'을 봤다.

- 롯데백화점 전시에서는 지구의 달을 맞아 메아리를 포함한 10여개의 다른 업사이클링 기업들과 함께 전시했다. 다른 업사이클링 기업의 물건들과 메아리의 물건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그리고 가죽이 아닌 자투리 천이나 옥외간판, 레코드판을 이용해 만든 다른 제품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전시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업체에 대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영화 '댄네이션'은 아름다운가게와 이번 달에 협약하고 메아리외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 '파타고니아'가 후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철거 운동을 하면서 농성시위가 아닌 페인트 통을 메고 댄을 오르내리면서 점선을 그어내는 모습에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평화로운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에 찾아보니 이 영화가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장편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비전센터 선생님들은 일이 끝난 후 곧바로 퇴근을 하셔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계속 일을 하시다가 야외활동도 즐기니 좋았다. 내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원래 매달 있는 활동을 하는 느낌이라 왠지 더 좋았다. 그러면서도 일을 더 해야지 일 끝나기 전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선생님도 계셨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생님도 계셨다. 그리고 약간의 말다툼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나 간사님들의 난처한 상황까지 보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활동으로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고 일에 활력을 주는 건 좋은 활동이라 생각한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업사이클 아트&디자인

④ 아쉬운 점

원래 상반기에, 특히 5월에는 행사가 많아서 팀장님도 나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다. 큰 행사도 있었고 조그만 백화점 행사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취소되었다. 물론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막상 내가 하지 못 하게 되니까 약간의 원망, 미움이 들었던 것 같다. 또 행사가 거의 진행될 줄 알았던 '뷰티풀민트라이프'가 시청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취소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덕분에 지하에 더 오랫동안 있었고 지하 일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행사가 취소되면서 내가 자치 행사나 뭔가를 기획해서 해 볼 생각도 해봤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내가 할 용기가 안 생겨서 생각을 더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메아리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

3)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원래 아름다운가게에서 4개월(3,4,5,6월), 2개월(7,8월), 4개월(9,10,11,12월)의 정식 인턴을 채용한다. 나는 정식 인턴으로 들어가지 않고 2월 중순부터 시작했지만 팀장님께서 인사팀(HR팀)에 말해서 인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학생 언니들과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메아리가 아닌 다른 부서의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언니들은 정식 인턴이고 나는 정식으로 들어온 인턴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로그인이 안되어 정보를 못 보거나 매달 하는 월례회의에 눈치를 보며 들어갔지만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이번 인턴의 정말 뜻밖의 큰 수확이었다.

① 간사님 인터뷰 (3/27)

인턴 프로그램의 첫 활동이었다. 인터뷰는 참여연대부터 아름다운가게 창립 후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박순철 간사님을 대상으로 했다. 그 전에 인턴 언니들과 질문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하다 보니 사실상 간사님의 강연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팀장님께서 읽어보라고 주신 책에서도 가게가 창립될 때의 이야기를 읽긴 했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하니 이해가 더 잘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인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시다 '지금엔 인턴이고 같은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당신들이 아름다운가게에 큰 일조를 하고 있고 벽돌을 쌓아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다. 사실 일을 시작하지 한 달 쯤 지났을 때 계속되는 검수와 다른 인턴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활동천사인 건지 인턴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지루해졌다. 그때 마침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건데 간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가슴에 꽂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② 사회적기업 탐방 (4/29)

탐방은 마치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청년허브’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은평구에 있는 청년허브에 모여 지금까지 활동한 생활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실내가 전체적으로 문이 유리 문으로 되어있거나 아예 없어 사방이 확 트여 보인다. 분명 한편에는 사무실이 같이 있지만 딱딱해 보이지 않고 청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곳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설명을 들었다. 교류가 없는 수백 개의 개인 텃밭과 아트를 결합 시키거나, 비활성화된 지역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한다. 그리고 실내에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기증하는 책방, 자체운영을 하는 카페 등이 있어 청년들에게 공간과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같이 나아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4시부터 이곳에서 ‘열정대학’의 유덕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다. 이 열정대학은 2012년에 아름다운가게 ‘뷰티폴펠로우’에 선정되었다. 뷰티폴펠로우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회혁신기업가를 선정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유 대표님은 그 전부터 유학원으로 이미 유명하셨고, 그 시절에 남자 약 다섯 명과 같이 ‘나를 만나는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 때 대표님 인생 중 이렇게 남의 인생 얘기를 길게 들은 적은 처음일 만큼 많은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한다. 이렇게 듣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다양하고 다른데 일반화해서 다 같은 길로, 공부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가라는 길로 간 우리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꾸려나가게 하고 싶다고 한다.

열정대학은 소셜벤처기업으로 만 18세부터 만 29세까지 입학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존학교이다. 또, 직접 학과를 개설해 서로 도와가고 연구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졸업한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인도 다닐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열정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은 강사를 섭외하거나 인터뷰를 직접 하는 일이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을 섭외하거나 진행하는 것. 인터뷰를 쉽게 하기 위해 관심이 없던 분야의 사람을 하지 않도록 한다.

유 대표님과 인터뷰가 끝나고 열정대학 입학설명회가 있었다. 내가 대안학교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대해 생각할 때 쯤에 설명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의 길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자격이 주어지면 꼭 더 알아보고 싶다.



청년허브- 미담이 사무실



열정대학 유덕수 대표님과

③ 서울랜드 일일가게&워크숍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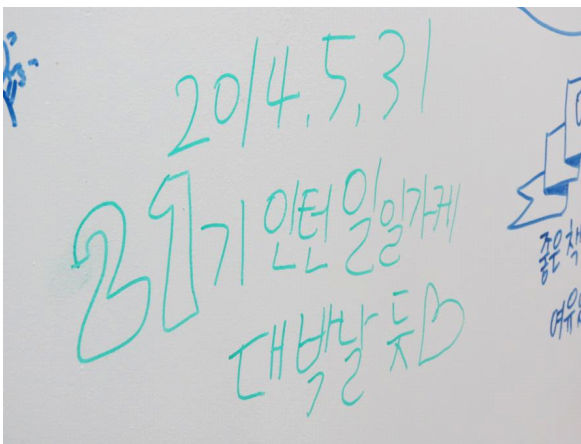
인턴이 끝난지 하루 지난 날 토요일에 세 번째 인턴 프로그램이 있었다. 인턴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일일가게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를 기획해 팔고 마지막 수익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같이 인턴하던 오빠가 서

울랜드 매장에 있는 나눔교육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매니저님과 연락이 잘 되어 서울랜드에서 하게 되었다. 물건은 저번 달에 나눔장터에 팔려고 했던 물건을 이곳으로 가져와 팔기로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워크샵하는 공간이 같이 있어 워크샵도 진행하기로 했다. 집에서 안 쓰는 종이에 잡지를 잘라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고 집에 있는 털실로 끈을 매달아 간단하게 만드는 책갈피였다. 아무래도 서울랜드이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날씨가 더워서 걱정했지만 꽤 잘 되었다. 매장에서 직접 판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분위기나 물건 진열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에코파티메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매장에서 만 원 이상을 사신 분들께 뽑기를 해서 당첨이 된 사람에게는 메아리 제품 하나를 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팜이 상대적으로 적어 잘 나갈 줄 알았던 케이스가 매장에서 만 원 이상 사는 사람이 적어 잘 안 나가서 다시 지하로 돌려보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메아리의 제품을 한 번 더 알리고 손님들도 다시 관심을 가져 주셨다.

매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보면서 몰랐던 진열의 노하우도 알고 새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인턴 자체를 매장으로 안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매장이라는 곳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냈으면 정말 지루해서 후회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인턴 프로그램을 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이벤트의 선물을 제공해 주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대신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공해 준 팀장님과 지하 간사님께도 감사하다.



④ 광화문 나눔장터 (6/15)

인턴이 끝나고 쉬고 있을 동안에 인턴 언니들과는 계속 연락을 했다. 그러다 15일에 광화문에서 나눔장터가 크게 열릴 때 인턴 언니들이다 같이 갈 거라는 말을 듣고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 팀장님께서 전화가 왔고 메아리 부스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역시나 끝이 나도 끝난 게 아니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나눔장터가 열리는데 일반인들도 신청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수익의 자신이 지정한 만큼

을 기부한다. 아름다운가게에서도 매주 나가서 판매나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부서나 원래 매주 나가지 않았던 메아리 팀까지 나가면서 꽤 크게 열렸다고 한다. 오전부터 분주히 준비를 하고 책상에 진열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무지개학교 친구들과 같이 일했다. 팀장님과 간사님과 오랜만에 만나 얘기를 하며 진열과 정리를 마치고 옆 부스에서 ‘아름다운 커피’를 마시며 판매를 시작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구경을 나오듯 많이들 지나가셨고 우리는 그 때를 노려 판매를 했다. 그리고 이 날도 역시 가족 팔찌 워크샵을 진행했고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게도 판매를 했다. 판매를 할 때의 기분은 인턴하면서 야외 행사 나갈 때와 비슷했지만 이제는 3개월이 지나 설명과 붙임성이 더 좋아지고 항상 물어보면서 하던 일을 눈치껏 하게 되었다.

크게 열린 만큼 다른 부서에도. 중고 휴대폰을 기증 받기 위해 핸드폰 탈을 뒤집어쓰고 있거나 북극곰을 살리는 캠페인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바람을 넣어 살리기도 하고, 인턴 언니들이 각자 팀에서 기획하는 아름다운가게에 대해 알아가는 게임도 진행했다. 그리고 더 뒤쪽에는 아름다운가게 뿐만 아니라 재활용 장터, 외국인 장터, 자활장터 등의 특별한 장터도 열리고 필리핀 물건을 팔거나 마사지를 해 주는 부스도 있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쪽에 다른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모여 판매하는 부스도 있어 구경도 했다. 어쩌면 열리는 것 자체도 몰랐을 행사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분 좋은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광화문 앞에 쪽 늘어선 부스들



III. 마지막

1. 마무리 ○●○

-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단체가 정해져 버렸다. 늦게 정한 데다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정한 내 잘못이다. 하지만 급하

게 정해진 단체임에도 후회하지 않는 즐거운 인턴이었다. 같이 아침 출근길에 만나서 들어가고(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게 분들) 같이 점심도 먹고 일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모두들 너무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14주를 재밌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지금까지 무빙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은 지금까지 무빙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내가 딱히 열정을 가지지 않아도 시간이 저절로 가면서 끝나 버렸다. 그래서 이번 인턴을 정할 때는 ‘기간도 길고 마지막이니까 꼭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는 ‘언젠가는 끝나겠지, 무빙과 다른 점이 없겠지’하며 큰 기대 없이 가볍게 시작했다. 그렇게 적응하느라 한 달 정도를 쓴 것 같다. 그래서 재밌고 새롭다가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느리게 느껴졌다. 마냥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길고 긴 출·퇴근 시간에 지쳤다.

그러다 점점 적응해 가고 슬슬 내 성격이 나오고, 간사님들과 언니들과 장난도 치다보니 둘째 달부터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재밌었다. 벌써 퇴근시간이 왔고 벌써 봄이 왔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턴 언니들과의 다음 프로그램을 기대하게 되고 팀장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사회 이슈 얘기, 마치 학교에서처럼 책과 인문학적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면서 전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분들과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 놀랍다. 다음에 길 가다 만나면 정말 신기하겠다는 나름의 설렘도 생겼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가벼운 얘기로 나중에 꼭 오겠다고, 그냥 방문이 아닌 인턴으로 오겠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멋있어 보이고 좋았고 뿌듯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 마지막 10대 중 일부를 보낸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자랑스러웠다.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

- 처음엔 걱정이 너무 컸다. 나는 내가 손재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쪽 분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묶어두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정인 인턴십을 이런 분야로 가도 괜찮을까, 한 학기라는 시간을 후회하고 별로 한 것 없이 날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물론 다니면서도 내 손재주가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고 죄송하고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간사님들께서는 나를 이해해 주고 무작정 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재단이 아닌 패키징이나 간단한 작업에서는 욕심도 생겼다. 나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칭찬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잘 알았고 경험을 많이 쌓은 것에 만족하며 마무리했다. 나름대로의 목표였던 ‘폐만 끼치지 말고 오자’는 것에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아름다운가게 본사의 외관은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었다. 옆에서는 건물 공사를 하고 있고 주변에 식당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안의 사무실은 없을 것 없이 다 갖춰진 회사였다. 하지만 지하는 상황이 달라보였다. 겨울에 추워서 히터를 틀어도 먼지가 많아 마스크와 안약을 넣어야 했고 초여름에도 밖에는 따스했지만 지하는 계속 추워 활동천사들과 위층에서 내려오신 간사님들마저도 추워하셨다.

또, 장소가 부족해 점심시간에 창고 계단에서 쉬고 계셨던 간사님, 점심시간에 지하에 휴식 공간이 없어 재단실에서 쉬셨던 선생님. 나도 그 공간에 있다 보니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독립에 대해 간사님들께 질문을 했었다. 하지만 아직 장소를 위해서만 독립을 하기에는 입지가 부족하고 이곳에 있으면서도 얻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했다. 하지만 나아 좋은 경험이고 잠깐 있는 거지만 계속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잘 되어서 모두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밖의 활동이 그리워졌다.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해 볼까 생각을 했었다. 선호 쌤께서도 중간에 방문하셨을 때 한 번 해 보라고 말씀도 하셨고 인턴 언니들도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 아쉽기도 하지만 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는 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다.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와서 샘플링과 상의를 하면서 모두가 바빴던 시기였기도 했고, 내가 인턴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옆에서 계속 일을 도와줬으면 하는 모습이 보일까봐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간사님께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두 간사님의 신경전 속에서 난감한 상황도 있었다. 물론 시도도 안 하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하긴 했지만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큰 마찰 없이 지내고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등 메아리 자체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다.

- 인턴을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서 사회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지 궁금했다. 사실 나는 말이나 생각은 하면서 진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꽤 크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아름다운가게에 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러다 내가 에코파티메아리 팀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자리였지만 다른 간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간사님들께서는 창립자이신 박원순 시장님에게 관심이 있으셨거나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나, 오시기 전에 시민단체 운동을 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만난 간사님들도 최대한 환경에 대해, 수직적인 작업 환경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현재의 나와는 꽤 많이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 직업이 아니었다. 충분히 자신의 특기를 살리면서 사회적기업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에코디자인이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만나는 사람과의 많은 얘기 주제가 내 진로,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로 넘어갔고 그 속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 생활, 대학 문화에 대해 더욱 호기심이 생기고 가고 싶은 학과나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의 폭도 넓어졌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와 학교에 대해 많이들 물어봐 주셨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얘기하다가 더 편해지고 나서는 원래 내 성격대로 말을 풀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가 끝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타이밍에서 질문을 하지 못하고 대화의 포커스가 나에게 계속 왔다.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남에게 계속 질문을 받던 입장이어서 대화의 주도권을 남에게 주고 질문을 해주는 대화가 힘들었다. 좀 더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하지 못한 말

계속되는 패키징과 동시에 원단 버튼을 계속 만들고 똑딱이도 박고 새로운 청바지의 선별을 위해 힘도 쓰고, 신문지 연필 3000 세트를 보내기도 하고 전주국제영화제에 카드 케이스를 보내기도 하고, 부산콘텐츠마켓에 가죽 필통을 보내기도 하고 삼성물산에 미니릴라 DIY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하루는 무지개학교에서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오후에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2주 동안은 발도르프학교에서 온 나와 동갑인 인턴 친구와 같이 일하기도 했으며 인턴 프로그램으로 많은 언니들, 간사님들과 친해지고 현재도 팀장님과는 꾸준히 사회문제,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바쁜 와중에도, 특히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도 고등학생인 나에게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심지어 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나중에 꼭 방문을 약속하며.

열아홉 살의 봄, 어른처럼 살아가보기

The Fair Story / 2.24~5.30

유현영

목차

1.

- ☞ 단체 선택 과정
- ☞ The Fair Story
- ☞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

2.

- ☞ 인턴 시작
- ☞ 어떤 일들을 했나
- ☞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 ☞ 기억에 남는 일들

3.

- ☞ 인턴 후 나에게 남은 것

4.

- ☞ 자료들
- ☞ 인터뷰
- ☞ 사진들
- ☞ 일지

1.

☞ 단체 선택 과정

내가 처음 예상하고 원했던 인턴십 단체는 예술 계통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춤. 지난 두 번의 무빙스쿨 이후 인턴십만큼은 새로운 시도보단(학교에선 항상 내가 춤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배워보길 보길 바랐다.)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춤이라는 분야가 계획적인 업무가 있고 꾸준한 성과가 보여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인턴십 단체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그래도 두세 군데의 단체를 어렵게 찾아내어 인턴십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았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없어 시켜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거절당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시간에도 쫓기고 단체 선정에 대한 의욕도 잃은 상태에서 다른 분야를 모색해 볼 수밖에 없었다.

1순위가 춤이었다면 2순위는 커피였다. 공정무역 커피. 그런데 나중엔 공정무역 커피와 관련된 어딘가에 가서 나는 무얼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커피를 배우는 걸까 공정무역을 배우는 걸까. 그러면서 괜히 흐지부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 도전 정신 비슷한 무언가 생겼던 것 같다. 커피나 춤처럼 항상 내가 관심 있고 배울 수 있는 것 말고 나중엔 경험해보지 못할 무언가에 뛰어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공정무역 당첨!(지금 생각하면 결국 쌤들의 말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다.)

말이 공정무역이지 나는 공정무역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인터넷에 ‘공정무역’을 검색해 여기저기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왕이면 너무 큰 단체에서 걸돌기보단 조금 작은 곳에서 사람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생소한 분야의 공정무역 회사를 찾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The Fair Story’였다.

생겨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여서 이번 인턴십 단체로 적절한 것 같아 연락도 드리고 직접 방문해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다. 사무실은 아주 작았고 안국동에 위치해 있었다. 대표님과 홍보담당 직원과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의 첫인상은 시원시원하고 솔직해 보였다. 작은 공간이지만 모두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내가 드린 인턴십 제안에 대해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그렇게 인턴 단체 선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 The Fair Story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는 지역에서 공정무역 거래를 통해 생활소품(가방, 쿠션, 앞치마 등)을 수입해 오는 공정무역 업체이다.

캄보디아에서 수입 해 오는 ‘SMATERIA’는 네덜란드에서 온 디자이너가 어부들이 쓰던 그물이 너무 많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과 동시에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물과 함께 여러 가지 패턴과 색상의 원단을 덧대어 가방을 만들기 시작해 생겨난 ‘업사이클링’ 브랜드다. 그물의 특성상 굉장히 튼튼하고 또 시원한 소재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유니크한 아이টে็ม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PENDUKA’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위치 해 있는 여성단체 이름이다. ‘Wake up’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빈민, 장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여성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기술을 나누기 시작하며 생겨났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여 공동체 안에 학교도 설립하고 공장도 만들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주)더페어스토리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며 서울특별시 성수동에 위치해 있다. 위의 두 브랜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를 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총 세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웹디자이너와 온라인채널 관리하시는 직원과 MD, 오프라인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 그리고 외부 디자이너 한 명이 제품구성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이다.

☞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정작 시작해서 원하는 걸 하지 못했을 때 괜히 불만을 갖게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뭘 하든 어떻겠냐는 무책임한 마음도 조금 섞여 있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도 되어있고 좋은 의미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만나서 뭐든 배우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었다.

공정무역하면 빈민국의 어린이나 여성들이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장면뿐인 게 조금 아쉬웠다. 여러 공정무역 기업에서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들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했다. 커피, 초콜릿, 망고 그리고 내가 인턴십을 진행했던 회사에서 판매하던 자수나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어떻게 그럴듯하게 상품화 되는지도 알고 싶었다.

2.

☞ 인턴 시작

1월쯤에 안국동에 있던 사무실이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전 사무실에는 그냥 사무용 책상들과 재고 박스들만 마구 쌓여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사하면서 매장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한다. 덕분에 이전에 비해서 창고도 제대로 정리된 상태였고 사무실도 훨씬 넓어진 듯했다. 매장은 마치 전시 공간처럼 깔끔하고 매우 예뻐다. 여기서 일하면 왠지 되게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좋을 것 같았다.

오자마자 이사님(본인은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싫어 이사님이라고 부르기로 정했다는데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직원들끼리 ~쌤이라고 부른다고 하셔서 속으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도 항상 자주 쓰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현영 쌤'이 되었다. 그리고 이사님과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때 이사님께서 말이 많으신 분이란 걸 깨달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브랜드나 회사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 시설도 좋은 편이고 인원도 많지 않아서 적응하는 데에는 힘들거나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빨리 적응해 버려서 이상할 정도였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첫날은 워낙 긴장을 했던지라 피곤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눈을 부릅뜨고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졸음이 쏟아지더라. 회의하는데 조는 걸 들키지 않으려 엄청 노력했다. 적응을 얼른 해버린 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일찍 적응했다고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 버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 어떤 일들을 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과 이사님께서 나에게 시키고픈 일들을 이야기 해 보기로 했다. 나는 글쓰기와 여러 단순 작업 등등은 잘 할 수 있지만 PC를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작업, 예를 들자면 포토샵이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들은 하지 못했고 그렇다 말씀드리니 그래도 이사님께서서는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보고 가길 바라셨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배워보고 1~2주차쯤부터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서 진득하게 해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한 가지 더 하면 일주일에 꼭 책 한 권을 읽고 금요일 오후쯤에 미팅을 가졌으면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인턴십으로 왔으니 자주 소통하고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블로그를 만들어 내 인턴 생활에 대한 이야

기들을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 성격이 이것저것 찍어서 기록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을 잘 못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 블로그에 작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두 번 정도 올리고 나서의 일에 치여 결국 묻히고 말았다. 무책임했다고 생각하고 반성 중이다.

매장 관리하는 방법이나 창고, 사무실 구조에 대한 소개를 다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창고에 있는 박스들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 이미지들을 붙이는 작업이었다. 각 박스들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체크한 다음 안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게 제품 이미지와 이름, 가격, 색상 등을 보기 쉽게 정리해 이미지로 만들어 박스 앞에 붙이는 거였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루면 끝날 일을 2,3일씩 걸려서 힘들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폼텍'과 제품에 붙일 택을 프린트하기 위해 쓰는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배웠다. 그 과정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시간이었다. 우리 회사는 원래 각 업체에 유통할 때마다 각각 다른 고유 번호를 썼는데 이제는 우리 매장이 생겼으니 '880'으로 시작하는 우리 회사의 고유 번호를 이용하기로 해서 펜두카와 스마테리아 전 제품의 바코드 라벨을 새로 작성해서 뽑아야 했던 것이다. 라벨을 만들기 위해선 그에 어울리는 폰트도 따로 지정해야 하고 바코드와 제품 정보의 위치라던가 모양을 통일시켜야 해서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도 몇 번 하고 나니 금방 적응이 되어 빠른 시간에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덕분에 3개월 동안 온갖 택과 라벨 작업은 내 몫이 되었다.

매장이 생겼다 해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매출을 대폭 올려보기 위해 오픈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유통하고 있었던 것도 유지해야 했는데 그 유통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유통업체들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는데 온라인은 주문이 되면 제품들이 전부 우리 창고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재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서 어려움이 적다. 하지만 오프라인 채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드려 매출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신제품이나 부족한 상품들을 발 빠르게 매장을 방문해 입고, DP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담당하는 수진 쌤은 나(짐꾼)를 데리고 종종 외근을 나가야 했다. 물론 나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성수동에는 사람이 많은데 갈 곳이 정말 없었다. 맨날 백반집이나 돈까스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해서 나름의 일탈이 되어주기도 했던 것 같다.

오프라인 매장에 수시로 체크하면서 입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잘 팔리려면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제품들을 패키징하는 방법도 배웠다. 펜두카와 스마테리아가 각각 포장하는 방법이 달랐다. 우선 펜두카는 택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단 다음 거의 모든 제품들에 우리끼리는 '피지'라고 부르는 포장 종이를 두른다. 물론 그전에 그 피지의 규격에 맞게 예쁘게 개어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크기에 맞는 포장 비닐에 곱게 넣어 각각 생산지나 정보가 적힌 보증서를 넣고 곁에 펜두카 스티커까지 붙이면 완성!

스마테리아는 비교적 포장이 쉬운 편이다. 여러 개의 택을 한꺼번에 다는데 이미지와, 보증서 그리고 가격과 바코드로 이루어진 택이다. 이미지 택과 보증 택은 한 번에 몇 백 장씩 주문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편이고 가격 택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매번 프로그램으로 포장하려는 제품에 맞는 정보를 붙여 넣어 전용 프린터로 뽑아내면 되었다. 그 택을 제품에 달아 비닐에 넣으면 끝!

펜두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고 스마테리아는 손은 많이 안 가지만 매번 프로그램을 쳐야 해서 결국 둘 다 번거롭고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자칭 단순작업의 귀재였기 때문에... 매번 패키징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곤 했다. 어쩌면 이 작업이 3개월 인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물류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그 일이 내 일이 되었다. 나는 수시로 무거운 박스들을 내리고 다시 올리며 수량을 체크하고 제품들을 꺼내주고 손님들이 다녀간 뒤에 널려져 있는 제품들을 정리해야 했다. 덕분에 내 팔 힘은 아주 아주 아주 강해졌다.

그리고 종종 갤러리에 우리 제품들을 전시를 하기도 했다. 펜두카 제품들은 모두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수공예품일뿐더러 자수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예술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덕분에 개인이 운영하는 예쁜 갤러리도 많이 가볼 수 있었다.

인턴 초반과 중반에 공정무역 세미나를 두 번 정도 참석했다. 한 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공정무역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공정무역포럼’이었다. 사실 함께 가는 혜원 쌤이 되게 재미없다고 하도 겁을 주셔서 각오하고 갔는데 공정무역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들이었다. 두 번째 참석 자리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 대한 회의였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워낙 큰 행사여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행사는 취소가 되고 말았다. 내년엔 하면 한 번 방문해 보려고 한다.

성수동 안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이모저모가 참 많다. 우선 캐슈넛과 망고 등을 수입해 오는 공정무역 회사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가 같은 동네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나무·유리·도자기 공예를 하는 공방, 디자인을 하는 회사, 조그만 소식지를 출간하는 출판사, 거의 10년 전 서울숲의 시작부터 함께 해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녹색공유센터 ‘그린트러스트’, 건강한 빵을 만들어 파는 가게, 에코디자인을 하는 회사도 있다. 건물 전체가 분홍색에 굉장히 예쁘고 큰 소셜 네트워크 카페도 있고 멋진 남정네들끼리 운영하는 수제버거, 카페, 떡집도 있다. 아, 굉장히 작지만 그래서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재즈피아노 학원과 가죽 공방도 있고 여러 디자이너가 모여 있는 작은 공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번 5월에 처음으로 우리 회사와 맞은편의 ‘아공네(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해 마을 네트워크와 소통하면서도 우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내용에는 서울숲과 성수동 동네 투어, 공정무역세미나, 펜드카 사진전 그리고 샘플 세일 등이 있었다.

홍보를 위해 리플렛을 만들었는데 나에겐 그게 굉장히 신기했다. 동네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맡겨 도안에 대한 구상 회의도 하고 가격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들이 항상 학교에서 어쭙잡게 홍보물을 만들던 나에게는 인상 깊었나 보다.

아직 처음이고 여러 일들이 겹쳐진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해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운 지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사 기간인 일주일동안은 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나름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음번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기고 온 큰 흔적이 하나 있다면 ‘WILD ANIMALS BOOK’의 부록이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실제로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천위에 귀엽게 수놓아 엮은, 말하자면 그림책인데 그냥 동물만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짧게 풀어내어 부록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셔서 글쓰기엔 자신 있는(?) 내가 처음으로 나서서 해 보겠다고 했다. 동물들을 찾아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짜 맞추다 보니 다른 동물들도 많이 알게 되고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해졌다. 언젠가 꼭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리.

그 외에도 공정무역 세미나에 참가한다던지 이사님과 다른 직원들을 따라서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녔고 많은 일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종종 내가 회사에 와서 한 일들이 쌤들께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땐 정말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까지 들었다.

☞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인턴십을 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까 한다.

이사님께서서는 말이 참 많고 생각도 참 많고 기업가 정신도 뚜렷한 사람이다. 언제나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뭔가를 어필하려 하고 무언가 교훈을 주려 하셨다. 썰렁한 농담을 정말 자주 하셔서 처음에는 자주 당황하곤 했는데 나중엔 적응이 돼서 맞받아치거나 그냥 웃고 넘기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웹디와 온라인 채널을 담당하고 계신 유진 쌤은 정말 동안이시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처음엔 해보야 2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나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겠다. 유진 쌤은 재치도 있고 감각도 있고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하신다. 다만 사무실에서 너무 자신의 주장을 안 하는 것 같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었다.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낼 수 있

는 부분인데도 싸우기 싫은 이유 때문인지 그냥 아쉬워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다.

수진 쌤은 외국에서 살다 오셔서 그런지 패션 감각이 좋았다. 쾌활한 성격 덕분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았다. 감정 컨트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흥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사님)에게 조리 있게 전달할 것인가. 그 외에도 건강한 고민을 하고 있는 쌤이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된 것 같다.

제품구성을 맡고 계신 디자이너 정유 쌤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인상이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하얀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하고 계셨고 키가 많이 크셨고 항상 웃는 얼굴이셨다. 매장을 꾸미거나 종종 사무실에 들를 때 일을 도와드리면서 잠깐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하시고 그런 이미지와 맞게 디자인도 소박하고 친근하게 하시는 분이였다.

사무실 밖에서도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났는데 깊은 관계를 가지거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정말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났다. 두어 번 정도 공정무역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모이는 장소에 나도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얼굴이나 마주친 정도지 인사를 나누거나 이럴 기회도 별로 없었다. 그냥 우리나라에 공정무역을 알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까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좀 놀라웠다.

그리고 종종 동네 곳곳에 들리면서 만난 사람들도 기억에 남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에코디자인 브랜드 '젠니클로젯'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였다.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굉장히 건강한 소통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도 컸다.

그린트러스트에 한두 번 놀러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굉장히 좋았다. 일단 사무실 자체가 그냥 일반 가정집처럼 편한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편하게 일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듯해서 보기 좋았다. 환경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관심 가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도 다시 한 번 들려볼까 하고 있다.

나에게 2주 정도 일을 가르쳐주시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신 혜원 쌤은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던 것 같다. 목소리도 조곤조곤하시고 걸음걸이도 사뿐사뿐하셨다. 회사 내에서 그 동안 힘든 일이 많으셨는지 사무실 내에선 웃지도 말도 잘 하지 않으셨지만 나와 외근을 위해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웃기도 잘 웃으셔서 속으로 조금 놀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아쉬웠는데 나중에 유진 쌤 편으로 나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해주셨다. 나는 괜찮은데.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다.

인턴십 기간 동안 사람관계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더 낫거나 더 나쁜 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동안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소통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겠더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적당히 어울리며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적당한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사람관계는 어렵다.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기억에 남는 일들

'기억에 남는'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기억으로 남기고픈 것과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기억 속에 남는 것.

우리 사무실은 서울숲 공원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종종 점심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공원으로 산책을 다녀오곤 했는데 마침 인턴 기간도 딱 날씨 한참 좋을 봄이어서 공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만연한 봄기운 덕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걸으면서 졸다시피 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그 따사로운 햇빛과 한적한 공원이 주는 여유로움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유진 쌤은 연차, 수진 쌤과 이사님은 외근을 나간 덕분에 하루 종일 사무실과 매장을 혼자서 독차지 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 그 날은 비가 예쁘게 오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사무실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서 매장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비 오는 길 구경도 하고 책도 읽고 매장도 봤던 기억이 난다. 그 전까지 며칠 동안 야근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빴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한가로운 시간이어서 그랬나보다. 그때 우리 매장의 제품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는데 각각 작은 이야기들이 담긴 그 자수들이 너무 예뻐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가질 수 있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인턴을 시작했을 때 이미 회사 내부에서 작은 트러블이 종종 있었다. 홍보 담당을 하고 계셨던 혜원 쌤과 이사님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몇 차례 말다툼을 벌이고 혜원 쌤께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셨다. 그 당시 나는 너무 인턴 초반이었고 그 쌤이 나간 후 마치 내가 정직원이 된 것처럼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다. 내 생각엔 그 과정에서 이사님께서도 '리더'로서 고민할 것들이 많았고 그럴 시간이 분명 필요했을 텐데 너무 일에 쫓기느라 충분히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항상 북 떠있었던 것 같다.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말들이 있었다. 그 말들은 스스로를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 회사와 공정 무역을 위한 일이 아닌 오로지 그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주 불쾌함을 숨긴 채 근무를 해야 했다. 왜 숨겨야 했냐면, 그 사람은 소통에 익숙하지 않았다. 언제나 당신이 많은 것들을 알고, 이해했고, 능통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초차도. 굳이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자주 나에게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당당하게 인턴 학생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 줄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미웠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함께 외근을 나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혜원 쌤이 나에게 해 준 말이 기억이 난다. 어느 조직에 가나 '꼴통'이 반드시 존재한다. 나와 가까울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무리에 꼴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내'가 꼴통인 거다. 그런 말을 하실 때 속에 얼마나 화가 많이 쌓였는지 지금도 얼마나 참고 있는 건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눈빛이 너무 살벌해서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새로 오신 수진 쌤은 성격이 밝고 쾌활하신 편이었다. 그래서 나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한 번은 쌤과 외부 오프라인 매장 관리를 위해 제품들을 잔뜩 챙겨들고 함께 외근을 나갔는데, 수진 쌤께서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셨다. 나중엔 함께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요즘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셨다. 덕분에 나도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인턴 기간 내내 서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조금은 의지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쓰다보면 인턴 3개월을 그대로 전부 줄줄이 늘어놓을 것 같다. 솔직히 아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 순간들이 잊히지 않는 건 사실이다.

3.

☞ 인턴 후 나에게 남은 것 (느낌)

인턴을 하면서 나는 조금 많이 무뎠다. 덕분에 주위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든지 의젓해졌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 이유를 아는 나는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았다. 뭐랄까 아주 조금이겠지만 사회를 체험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사회가 아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들의 사회 말이다. 남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 화가 나거나 슬퍼도 웃을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웃고 싶어도 웃지 않을 줄 알아야 하며 직장과 자신의 생활을 분리해야 한다. 나는 내 일과 생활을 분리하고 싶지 않다. 춤을 추고 커피를 내리는 곳이 내 직장이고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사람관계에 있어서도 '분류'를 해야 한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도록, 상사에 마음에 들도록, '꼴통' 되지 않도록 똑똑해야 한다. 물론 이걸 그냥 깨달은 거지 배웠다고는 할 수 없다. 나는 기간 내내 다른 직원들이 일까지 물려받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무하는 어느 순간부터 매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전부 다 싫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 뭐가 더러운 건지 겪어 봐야 아는 거고 몸이든 마음이든 고생을 해야 더 절실하게 깨닫는 거다. 나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부모님께서 내가 인턴 내내 집에서 짜증 한 번,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다고 속으로 놀라셨단다. 원래 너무 놀라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웃기거나 하는 격한 감정을 느낄 땐 악 소리도 안 난다. 난 그런 기간들을 보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어른스러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자기 감정을 무조건 잘 숨기는 게 어른스러운 걸까? 그게 아니라면 뭐든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걸까? 둘 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맞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니 도무지 모르겠다. 아마 그건 앞으로도 모를 것 같다. 아,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꼭 '어른스러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가 아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 인턴십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것들만 보면서 그렇게 꿈같이 보냈다면 나는 게을러서 아직도 그냥 꿈이나 꾸고 있었을 것이다. 그 뻘새나는 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졌다.

인턴 끝났다고 너무 건방졌고 있는 게 아니었음 좋겠다. 아니 사실 이렇게 겪고 나니 앞으로 수없이 겪을 모든 것들이 무서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걸 견뎌오니 이다음엔 좀 더 큰 시련이 와도 이번처럼 잘 견디고 배우고 깨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된다. 내가 자꾸자꾸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4.

☞ 자료들

☞ 인터뷰

<2014인턴십 멘토 인터뷰 / 멘토 : The Fair Story 임주환>

Q. 3개월간 인턴십을 진행 할 학생에게 초반 기대했던 점과 우려지점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기대했던 점은 '일꾼 한명 생겼네'였구요, 우려했던 점은 나이 어린 학생이라서 회사 일에는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학생 챙기느라 시간만 뺏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래도 인턴이면 교육 프로그램인데 뭘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나? 라는 걱정이 있었구요.

Q. 첫인상은 어땠는지, 후에 지내보니 나(유현영)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인상은 약간은 수줍은 듯 차분한 모습과 맑은 눈을 가진 어여쁜 학생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3개월을 지내면서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보는 용기도 있고, 앞으로 할 일들도 잘 계획하고 있는 건강한 고 3 또래의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 볼 수 있는 배려심도 있는 것 같고.

일 자체로 평가하자면(냉정하게 ^^), 할 일에 대한 파악도 잘하고, 일을 빠르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주위 분들과 협력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인턴 수준에서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다만 인턴 수준이 아닌 실제 직원의 수준에서 보면 미흡한 것이 있고 좀 더 경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후에 또 인턴십을 지원하는 학생이 찾아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이번에 현영이가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니 당연히 받아줄 수 있죠. 현영이만큼 일을 잘 못하더라도 오케이입니다. ^^.

Q.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일을 시키는 사람 관점에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인턴이기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 제가 결과도 체크해야 하고 본인은 즐겁게 하고 있는지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계속 지켜 본 것 같습니다. 현영이가 고3 또래 같지 않고 대학생이나 일반 직원처럼 일을 잘해서 가끔씩 정말 직원들한테 시키는 일을 막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영이가 약간 버벅이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렇지 고3 인턴이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을 조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현영이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

Q. 인턴학생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없으면 패스!)

'현영~~ 수고했다. 잘 살고 또 만나자 화이팅 !!'

(+서면 인터뷰)

Q. 가장 처음 공정무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

음... 본격적으로 질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

7년쯤 전에 공정무역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프로보노(재능기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공정무역 패션회사인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아닌 거래라는 방법을 통해 생산자들의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가치가 좋아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본 공정무역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SMATERIA의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수입해서 소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하나의 사건보다는 몇 년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Q. 공정무역 회사를 시작하며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

공정무역 제품으로 일반 시장에서 승부가 가능할까? 었구요, 지금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답이 짧아지고 있음.)

Q. 공정무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생산자, 같은 업계 종사자, 소비자 등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에피소드 등등)

공정무역을 하면서 일이 힘들어도 하게 되는 원동력은 결국 생산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즐겁고, 우리가 방문하면 생산자 분들이 반겨주고.... ^^

Q. 공정무역을 시작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시도한 일을 통해서 생산자의 생산 환경이 바뀌고 품질이 바뀔 때.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생산자의 실적이 좋아질 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Q. 공정무역도 윤리적 소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지

대리점 괴롭히는 남양유업 우유는 먹지 않기로. 직원들 괴롭히는 피죤 제품 안 쓰기. 뭐 이런 거 ^^

Q. 공정무역과 환경운동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정무역의 기본이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환경이라는 이슈는 당연히 생산과 소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공정무역의 10원칙에도 환경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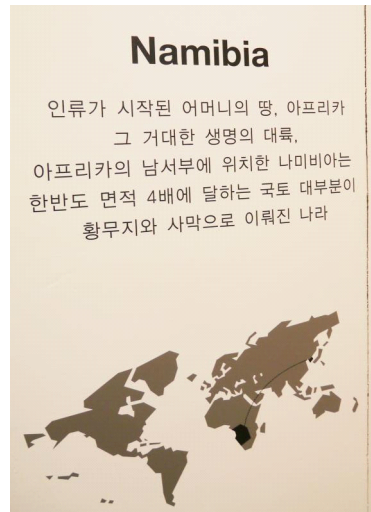
Q. 새로운 생산자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기존 생산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틀을 일정 부분 갖추게 되면 또 다른 생산자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공정무역 시장의 먼 미래를 그려본다면...? (앞으로의 목표랄까? 바램도 좋아요!)

공정무역 제품들이 주류화 되어서 슈퍼마켓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앞의 단계이고, 향후에는 모든 제품의 생산, 유통에 있어서 생산자의 복지, 삶이 배려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상적인 단계가 그 다음...

📷 사진들



인턴십 일지

이름	유현영	날짜 활동시간	14.02.24
장소	The Fair Story	도움주신 분들	임주환,정혜원,최유진
활동내용	<p>- 3개월간 할 수 있는 일들의 대략적인 계획 (인턴십 활동 내용을 담은 블로그 만들기, 매장관리, 실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 기획해보기 등등)</p> <p>- 매장과 사무실, 상품에 대한 안내 받기</p> <p>- 이사님께 책을 추천 받음</p>		
특이사항			
소감	<p>첫날이라 무척 긴장하고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해서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고 생각보다 매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아기자기 예뻐서 놀랐다. 그리고 좋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진 잘 모르겠지만 사회에 내딛기 전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전부다 해보려고 한다. 회사에 민폐가 되지 않기를!ㅠㅠ</p>		
다음 (내일) 활동계획	아마도 물품창고 라벨이미지 만들 듯?		
다음 (내일) 준비할 것	USB와 파일집이 필요할 것 같다.		
기타			

고교처세왕

참 신나는 옷 / 2.24 ~ 5.30

신지은

목차

1. 준비

- (1) 난 뭘 해야 하지?
- (2) 참 신나는 옷을 가기까지
- (3) 참 신나는 옷은?
- (4) 첫 방문, 동대문의 새로운 모습

2. 시작

- (1) 한눈에 보는 인턴십
- (2) 시다 3개월
 - 활동 내용
 - 적응기
 - 버티기
 - 즐기기 그리고 깨달음
 - 여성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 (3) 아줌마 아저씨 극복기
 - 리액션~!!
 -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 (4) 인턴에서 만난 또 다른 인연

3. 마무리

- (1) 인턴십을 끝내며
- (2) 나의 변화

부록

-일지

-인터뷰

1. 준비

(1) 난 뭘 해야 하지?

5년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6학년이 되어 인턴십을 준비하게 되었다. 인턴십은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것 다 빼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다.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놓고 그 다음으로 많이 했던 게 그림과 봉제가 아닐까 싶다. 무빙 때도 이쪽 계열로 가볼까 싶었지만 그때는 막상 가서 내가 좋아하고 그나마 자신 있는 분야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맞닥뜨리고 인정하기가 두려워 계속 미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일이 되어도 즐거운지 나를 시험하고 확인하고 싶어 봉제나 그림 쪽으로 생각하다 마침 현숙 쌤의 추천으로 사회적기업 참신나는 옷을 알게 되어 연락하게 되었다.

(2) 참 신나는 옷을 가기까지

솔직히 인턴십이라 하면 해외 또는 빵집 같이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 나만 멋있는 평화시장에 가는 것 같아 거리낌이 있었다. 또 가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그리고 아무리 평소에 관심 있던 것이라 해봤자 논문, 옷 만들기 수업, 간디디자인이 다인데 내가 도움이 될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인지, 내가 참 신나는 옷에 가는 것이 잘한 건지 답을 내리지는 못 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가볼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갔다.

막상 결정할 때는 커피를 타던 청소를 하던 실밥을 뜯던 뭐라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연락드렸는데 막상 정해지니까 뭐라도 할 것 같았던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두 달간 재봉, 일러스트를 배웠다.

(3) 참 신나는 옷은?



참 신나는 옷은 옷을 ‘빨리’, ‘많이’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옷이라도 정성을 다해 만들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옷의 생산량은 줄이되 하나의 옷에 장인이 마음을 다해 만들고 소비자는 옷을 만든 이의 정성을 생각하며 귀하게 입는다는 이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① 목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 감소, 사회적 잉여의 합리적 분배

② 설립 과정

참여성복지터는 여성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작계각층의 참여 속에 2003년 6월에 탄생했다.

- 참 신나는 학교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아동센터
- 참 신나는 장학회 여성노동학자 이옥지 박사의 유지로 설립된 장학기금
-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봉제교육을 통한 봉제인 들의 기술고급화를 위해 설립
- 참 신나는 옷은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일하면서 평균 150만원을 받고 일하는 봉제 회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

③ 브랜드 Soodagongbang(수다공방)

수다(SOODA)공방은 ‘참 신나는 옷’의 브랜드이며, 단순한 천 조각에 불과했던 원단을 멋진 옷으로 변화시키는 섬세하고 빼어난 봉제 장인들의 많은 손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움츠러들었던 봉제 노동자들의 ‘수다’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신나는 옷을 창조해 낸다는 회사의 철학을 담고 있다.

(4) 첫 방문, 동대문의 새로운 모습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직접 방문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5학년 2학기 중 방문했다. 당시 겨울인 지금은 일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내가 올 때쯤의 상황은 아직 모른다는 애매한 상황에 방문을 한 거라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열 번도 넘게 연습하고 연습했던 것 같다.

그 날 참 신나는 옷을 가는 길에 동대문의 새로운 뒷면을 볼 수 있었다. 동대문 하면 옷, 원단, 액세서리 같은 거나 팔고 그냥 동대문 건물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옷이 만들어지는 곳은 동대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장 골목 같은 곳에 반지하 공장이었고, 그 아래에 또 다른 공장이 있었다. 이곳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알았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상에 있는 공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내가 일부를 보고 판단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충격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오토바이도 많고, 마치 필리핀 같았다.

다시 첫 방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참 신나는 옷은 동대문 공장 중에서 지상 3층에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편이었다. 3층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줘서 상당히 민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 “저 문정열 대표님 만나 뵈려 왔는데요.”라고 말하는데 도중에 “올라가요” 한 마디에 도망치듯 올라갔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올라가서 대표님을 만나보니 3층이 공장, 4층 대표님과 국장님이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 하셨다. 대표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씩씩하다고 느꼈는데 내 느낌이 정확했다. 뭐든 혼자서 잘 해내시는 그런 분 같았다. 말씀하실 때도 물어도 보기 전에 시원하게 다 말해주셔서 생각보다 첫 방문에 별 탈 없이 오라는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확답을 받기까지도 지금 졸업생인 다연 언니의 어머니가 이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 잘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막막하던 3개월간의 인턴십이 드디어 정해졌다.

2. 시작

(1) 한눈에 보는 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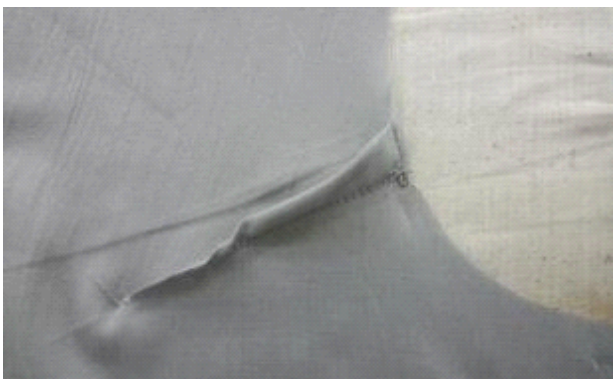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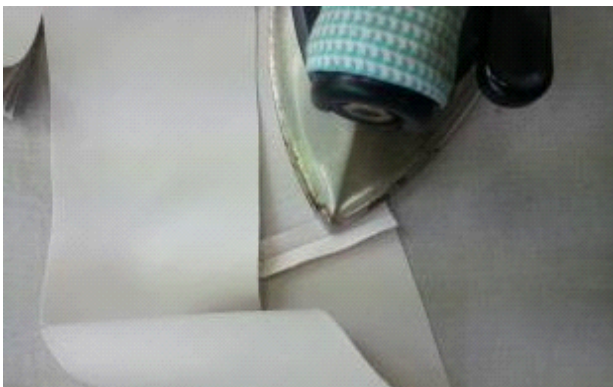
14주 / 월요일~금요일 / 아침 9시~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시간	활동 내용
오전 9시~ 오후 12시 30분	8시 40분까지 출근 제자 일(다리미, 실밥, 뒤집기 등)
오후 12시 30분 ~1시 30분	점심 밥 차리기 / 정리 인터뷰 재봉틀 배우기 (시간 될 때만)
1시 30분~ 5시에서 7시 사이	제자 일(다리미, 실밥, 뒤집기 등) 포장 원래 7시까지인데 5시로 조율해서 그때 일 보가면서 눈치껏 퇴근

(2) 시다 3개월

-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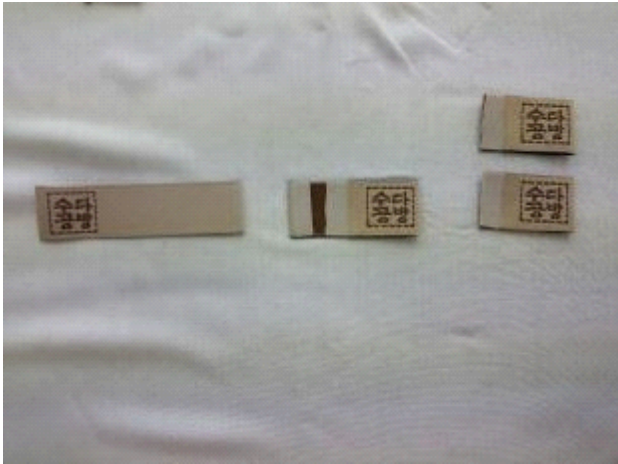
① 다리미



다트 다리미 (다리미 전)



(다리미 후)



상표 다리기 (수다공방 / 자연드림 납품 상표)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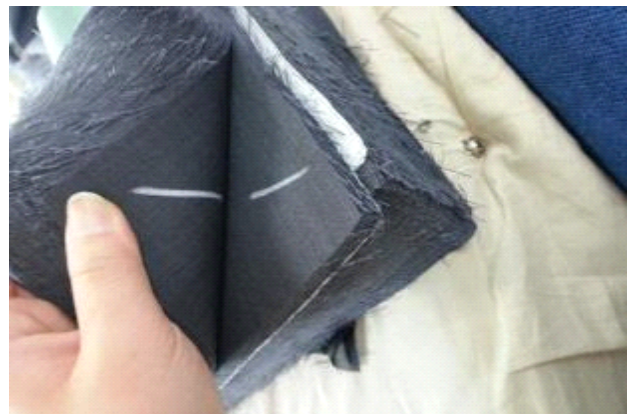
② 시접 그리기



허리 밴드 부분 시접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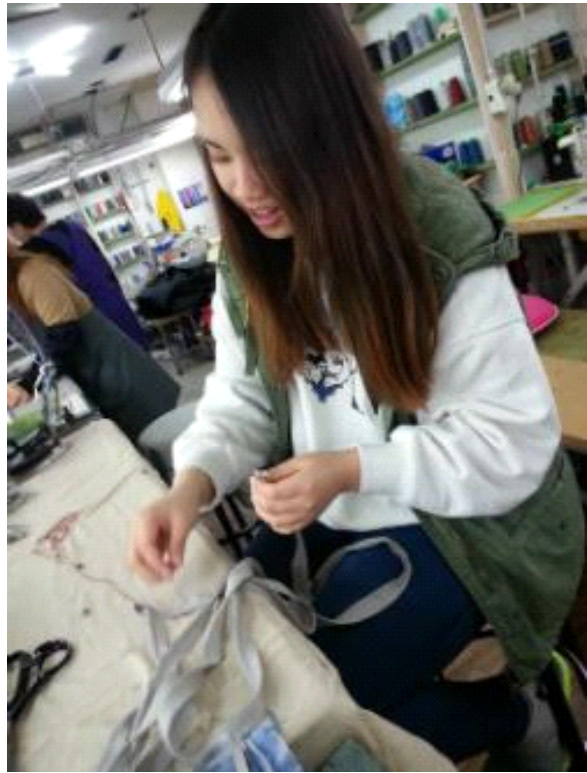
목 카라 부분 시접 그리기



③ 뒤집기



허리 벨트 끈 뒤집기



어깨끈 뒤집는 모습

④ 정리 (추리기)



(내가 만든 옷)



자연드림

자연드림 옷은 내가 참 신나는 옷에 있는 동안 첫 거래부터 지켜 본 거래처 중 가장 활발하게 납품을 했던 곳이다. 처음에는 유니폼 400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국 모든 매장의 유니폼을 만들기도 했다. 자연드림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단춧구멍, 자수, 카라 등 옷의 세부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가게 앞치마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는 앞치마를 참 신나는 옷 공장에서 만들었다. 아름다운 가게 상품은 계약금이 큰 만큼 문제가 많았다. 나는 단순한 앞치마라서 별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끈이 길어서 다시 뜯고 만들기도 하고, 포장을 다시 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어서 꾸준히 납품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이스타 항공 유니폼

이스타 항공은 내가 오기 전부터 꼭 납품해오던 곳이기도 하고, 참 옷 패션쇼에서 공개된 적도 있었다. 마침 이스타 항공 유니폼 주문이 들어와서 만드는 과정을 보고 배웠다. 이게 맞춤옷이다 보니 사이즈 다 달라서 작업 할 때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다. 납품을 하고서도 소매, 사이즈 등 고치는 경우가 열 손가락이 넘을 만큼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실제 스텐더디스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중요한 작업인 만큼 내가 한 일은 실밥 뜯기뿐이었지만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핏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인사동 브랜드 옷

이 옷은 위 사진 회색에 중간에 노란색 꽃이 들어간 옷인데 이 옷은 주문이 계속 들어왔던 옷이다. 생각보다 옷이 너무 잘 되어서 하루에 실밥을 1000개 넘도록 따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옷이 잘 되는 건 좋았지만 실밥을 뜯는 과정에 손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속 찢어지는 옷이라 실밥을 뜯으면서 잦은 실수도 많았다. 포장을 하면서도 수량이 너무 많아 참 옷 창고가 팍 차기도 했었다.

- 적응기

공장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가 어색했다. 40대 중반에서 많게는 50대 초반 정도까지 계신 분들 사이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짝 쫓았던 것 같다. 첫 만남에서는 그렇게 환영 받지는 못한 분위기였다. 다들 일에 집중하고 계시기도 했고, 날 보는 시선이 ‘재는 뭔데 저기서 저러고 있나’라는 눈빛이었다. 뒤늦게 대표님이 와서 나를 설명해준 후에야 서로 인사하고 그런 정도였다. 내가 그분들에게는 딸 뻘이라 순탄한 인턴 생활일거라 생각했지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려는데 다들 뭔가 봉제에 관한 용어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 한국말인데 뭘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 뭘 하든지 말지... 나름 2개월간 배워 기본 용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부르는 용어가 완전 달라 그때부터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손은 일하고 귀로는 용어 듣고 외우느라 정신없었던 것 같다.(다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라 대부분의 용어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신다)

내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봉틀로 막 드르륵 빨리 박을 수도 없고 내가 간 그 시기에 마침 시다(제자) 한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나는 제자 일을 하게 되었다. 제자 일은 나에게 적응하기 3~4주 동안은 고문만큼이나 힘들었다.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계는 10분밖에 안지나 있고, 편하게 앉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나뻘고 전부 앉아서 무슨 일을 하냐며 서서 하는 분위기에 앉으라는 말에 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 이렇게는 못 하겠다 싶어 진심으로 인턴을 바꿀까도 생각해봤지만 그 순간 재단사 아저씨가 “3개월? 버티려나~”하셨던 말씀이 내 머리를 지나가면서 웬지 내가 여기서 끝내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 바꾸기는 그런 것 같고 퇴근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줄여 퇴근 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취미 생활로 미술을 하면서 적응해갔던 것 같다.

- 받아들이기

문득 내가 여기에 틀을 만들어 가두고 거기에 어긋나면 잘못됐다거나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는 단체를 내 틀에 가두지 않고, 바라는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과도 먼저 선입견을 가지거나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진짜 부끄러웠지만) 내가 먼저다가가고 이모들이 좋아하는 농담거리를 찾아 먼저 장난도 걸고 맛있는 거 사가서 나눠 먹기도 했다. 그렇게 한 발짝씩 다가가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얘기야’였던 호칭이 어느새 지은이가 되어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챙겨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점차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도 소속감을 느끼면서 참 신나는 옷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 즐기기 그리고 깨달음

이곳에서 소속감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면서 조금씩 참 신나는 옷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소속감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느낀 게 옛날에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5시쯤부터면 퇴근 눈치만 보던 나였는데, 점점 이곳에 적응하고 내 존재가 커지면서, 참 신나는 옷 일원 중 하나라고 느낄수록 ‘내가 가면 이거 할 사람이 없을 텐데 내가 좀 하다 갈까? 학원이야 좀 늦으면 어때’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6시가 다 되어 가서야 퇴근하고 그랬다. 그때서야 그 전에는 내가 너무 먼저 겁을 먹고 걱정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는 이모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려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이어가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또 한 단계 배워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 여성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흔히들 여성노동자 또는 공순이들은 남성보다 적은 월급,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많이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도 처음 갈 때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지만 어쨌든 평화시장에 있는 공장이니까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에 놀랐던 것 같다. 대표님이나 국장님 또는 노동자분들과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종종 나누었을 때도 그런 곳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참 신나는 옷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본인 직업이고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 차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우리를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는 좋은 직업이고 평화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천한 직업이라는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라고 하셨다. 이 일도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공순이라는 호칭, 못 배운 사람이라는 편견으로 인한 무시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곳에 온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공장을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미안한 마음이 컸다. 이곳에 오는 나조차도 무의식중에 이 일과 공장을 부끄러워하고 천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번 인턴십을 기회로 인턴십 보고서나, 발표를 통해 이 직업이 얼마나 힘든 노동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고 이 직업이 없으면 우리는 옷을 입을 수도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없어질 수 있다. 절대 이 일이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싶다.

(3) 아줌마 아저씨 극복기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일이 힘든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삶, 생각, 환경,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무리 속에 끼어드는 것이 나에게 3개월간의 큰 숙제가 아닐까 싶었다.

- 리액션~!!

인턴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리액션이 아닐까 싶다. 이 일 자체가 머리를 쓰고 그런 일은 아니다 보니 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나는 같이 할 이야기도 없고 공감대가 없으니 처음에는 말을 너무 안 해서 입에서 단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 혼자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끼면 안 될 자리에 낀 것처럼 내 존재가 어색해졌다. 문득 가끔씩은 내 자신이 일만 하는 단순 노동 기계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일기에 없는 공통점도 만들어가며 리액션의 달인이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놓았던 것 같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내 성격상 크게 반응하고 그런 걸 잘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그게 낯선 공간이라면 더더욱!! 그래도 어쩌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주머니들 대화를 분석해본 결과 2/3 정도가 자식 자랑, 물건 자랑이고, 1/3 정도는 남편 욕인데 남편 욕을 할 때는 절대 같이 욕을 하면 안 된다. 이모 혼자 욕을 하고 나는 남편분 칭찬을 해야 한다. 나는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아주머니 그 말을 하는 목적은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욕을 하면 오히려 다소 예의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 (감정을 실어서) “네~” 정도로 내가 듣고 있다는 추임새를 넣으며 듣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아주머니가 워낙 예뻐서 남편 분한테 완전 사랑받을 것 같아요.”라는 남편의 칭찬 같이 아주머니 칭찬을 해드리면 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자식 자랑은 들으면서 내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 주로 자식 분들 나이가 있다 보니 어디 대학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장학금을 탔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 때문에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녜요? 대단하네요!” 정도로 추임새를 넣으면 적당하다.

간혹 직장 상사를 욕할 때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 의견 없이 “그래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정도로만 해야지 거기는 너무 좁아서 자칫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다.

막상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일상이 되어갔고, 그러다 보니 아주머니들이 먼저 나를 불러서 이야기 하는 일도 생기고 좀 짜질해도 이렇게 서서히 적응해 갔다.

-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여기 있는 3개월 동안 정을 나누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다.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았던 것 같다. 거기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보냈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면 딱히 미워했어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진심으로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어중간한 관계를 보낸 시간이 아깝기만 하다.

그냥 그 순간 충분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내 감정을 앞세워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 하고 욕하고, 괜히 톡톡거리고, 말 걸까봐 도망가고 그랬던 시간이 후회되면서 되돌릴 수 없다 생각하니 소중한 걸 놓친 것 같아 마음이 영 찝찝하다.

뒤돌이에서도 나를 위한 준비한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내 자신이 여기서 일이든 인간관계든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두 번의 무빙을 거치고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고 다짐했으면서 이번에도 부족함이 한가득인 것 같아 영 찝찝하다. 그래도 이번 3개월을 시간을 지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나에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4) 인턴에서 만난 또 다른 인연

3개월간 일하면서 참 신나는 옷 식구 외에도 만나 또 다른 인연이 있었다. 대표님이 갑자기 앞 뒤 말없이 “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라고 하셔서 나는 적잖게 당황했다. 물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표님 아들 지호분은 현재 22살로 디자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에서 패션(의상)디자인과로 유학 중 잠깐 들어와 온 좋게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했던 자리이다. 만나보겠냐는 말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잠시의 고민도 없이 만난다고 했다.(단지 이 이유뿐이다.)

만나서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고등학교 때 지금 나처럼 공장에서 3개월 정도 인턴을 했거나, 옷에 관심이 많거나 등 조금의 공통점이 있어 편한 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내가 만날 당시에는 공장에 적응 중인지라 힘든 점이 많아 이런저런 고민도 이야기 해보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팁도 얻고, 내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도움 되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 나에게도 소중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잘생겨서 이야기가 더 잘된 것 같기도 하다. 매일 여자만 보고 그래서 그랬는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 인연 역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면 좋을 것 같다.

3. 마무리

(1) 인턴심을 끝내며

매일 자랑해서 내가 피해 다닌 수정이 이모, 내가 힘들 때면 이모가 망가져서라도 나를 웃겨 주던 영주 이모, 매일 다 나한테 뒤집어씌운 이모, 항상 예쁘다고 칭찬 해주신 순자 이모, 아침 챙겨주신 미영이 이모, 항상 나에게 에너지를 주신 팀장님, 내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단사 아저씨, 묵묵히 힘든 일 다 하는 과장님 그리고 나를 가장 신경 써 주신 대표님. (이외에도 많지만 생략)

이분들과 함께 주말을 제외한 3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솔직한 심정도 이야기하고, 같이 땀도 흘리고, 비도 맞고, 맛있는 것을 사서 같이 숨어서 몰래 먹기도 하고... 그렇게 안 끝날 것 같은 3개월이 태풍처럼 지나가 이제는 끝이 나버렸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3개월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밍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내 생각들로 인해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시간이 아닌가 싶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과 경험이 있었기에 내 스스로가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 알고 성장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다.

비록 화려한 기술을 배우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 지내면서 거기에 적응해가면서 내 자신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 맞추어가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 나중에 만약 내가 이 일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이분들 같은 입장이 되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게 공장 사정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원활하지 못한 소통과 노동자들의 자립심과 공동체적인 분위기 형성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2) 나의 변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나는 기술적인 것을 배우거나 내 진로를 정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생각이 많고 겁이 많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나를 좀 더 알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들 내가 겁 없이 대담하고 고민 없이 내 맘대로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는 버릇이 있어 겁이 많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도 나쁜 결과를 먼저 생각해버려서 시도조차 못 한 적이 많다.

예를 들면(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다 준비하고서 막상 나중을 생각해 시험장에서 도망가 버리고, 필리핀도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니 엄마랑 안 간다고 울고 싸우고(결국 가서 제일 잘 놀았지만) 뭐 이외에도 많지만 부끄러우니 그 정도만 하고 다시 이야기에 돌아가면 이 처럼 겁이 많은 나에게 난생 처음 접해 보는 공장일은 높은 절벽 같았다. 그런 절벽 같은 일을 3주도 아니고 3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니 어쩔 수 없이 라도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나서서 해 보기도 했다.

또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형인데 여기서는 그러다가는 잘못된 옷이 납품이 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실수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고 부딪혔을 때 그것이 별 거 아니고 솔직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가 생겨도 같이 이야기해서 해결하다 보니 내 자신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느껴지면서 관계적인 면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나중에 대표님, 팀장님이랑 인터뷰 하면서 알았는데 두 분은 내가 처음에는 너무 겁이 많고 회피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잘 적응하고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

부록

- 일지

2014년 3월 27일 금요일 / 활동 장소- 참 신나는 옷 / 활동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활동 내용- 오전: 블라우스 소매 다리기, 상표 자르기, 심지 붙이기 오후: 자연드림 옷 실밥 뜯기

국장님과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겨 참 신나는 옷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참 신나는 옷은 인터넷 정보가 부족해 궁금증이 많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 푼 것 같다. 참 신나는 옷은 패션봉제 학원, 참 신나는 옷, 수다공방 3가지를 전순옥 전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다가 전순옥 전 대표님이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3가지가 다 나눠지면서 대표님도 다 바뀌게 되었다. 참 신나는 옷은 원래 전순옥 전 대표님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세분에서 운영 해봐라 라고 말하셨는데 막상 경영을 꾸려 나갈 사람이 없어 세 분이 문 정열 현 대표님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같이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참 신나는 옷 대표 자리는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대표님으로 공동대표이고 그 중 대표님이 대표의 대표 자리라고 한다.

소감- 국장님이랑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 사회적 기업이면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참 신나는 옷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 나 또한 일하면서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 참 신나는 옷에 일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은 일의 순서를 모르고 팀장님의 지휘 아래에 돌아간다. 물론 공장이 마감일도 있고 지금 공장 상황이 좋지 못해 빨리 만들어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7시 땡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 일처럼 한다면 더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다들 주인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

2014년 4월 2일 수요일 / 활동 장소- 참 신나는 옷 / 활동 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활동 내용- 오전: 시루시 표시, 공장정리 오후: 공장정리, 실밥 정리

소감- 일을 하다보면 나와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나?)에 가두어 미워하면 그 사람의 행동의 모든 것이 거슬리거나 별 일이 아닌 것에 짜증이 나고 괜히 듣고도 못들은 척하면 사람이 쪼잔해지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왜 그랬지' '좀 잘할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 항상 혼자 힘든 일을 만드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고민인 것 같다.

매번 문을 들어서기 전에 '오늘은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 '오늘은 항상 웃고 지내보자' 하면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도 지쳐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 그 순간에는 화를 못 참아 다 던지고 싶다가도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하면 그냥 별일 아닌 별일 같은 웃고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상황 또는 문제라면 문제인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지 또 이게 당연한 건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미움만큼 내 자신이 힘들다는 걸 느끼는 것 같다.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내일은 항상 웃고 살자" 라고 오늘 또 다시 이 일지를 쓰면서 다짐 한다. 지켜질 때까지 도전!!

- 인터뷰

<참 신나는 옷 근로자 정순자님(재봉사)>

1. 의류 쪽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인맥으로 시작했지.

2. 본격적으로 공장 일을 시작한건 언제부터인가요?

15살부터 해왔지. 처음에는 시다일 1년 정도 하다가 재봉틀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

3. 참 신나는 옷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조금 넘었어. 사회적 기업에서 학원생을 가르치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ㅋㅋ)월급은 비공개라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조금 받고 있어.

4. 전에 다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 전 공장이 일반 공장 인가요?

15살부터 했으니... 여기 저기 많이 다녔지.

5. 일반 공장과 사회적기업의 공장에 차이점이 있나요?

거의 비슷하지. 다만 공휴일 좀 많다는 거 정도인 것 같아.

6. 지금 공장과 일에 만족하나요?

반반인데... 여기는(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월급문제가 좀 그렇고 좋은 건 다른 곳보다 여유로운 점이 좋은 것 같아.

7. 이일을 하면서 뿌듯하거나 좋았던 일이 있나요? 반대로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없어. 그래도 기술자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우가 뿌듯한 거 같아. 힘든 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같은 자리에 12시간을 앉아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지.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다닌다고 이게 누가 눈치를 주는 게 아니고 생산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지금 서로 손발을 딱딱 맞춰서 해야 생산성이 나오니까 생산성을 내려면 이동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어. 또 다 알면서 무시하기도 그렇고. 이게 내 사생활도 있고 하루에 끝나는 일도 아니라 어디까지 눈치껏 하는 게 참 애매해. 여기서도 똑같이 앉아도 난이도가 다 다르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이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8.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얼굴 보면서 일하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중요하지.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은 있다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

9.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요소나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나요?

방해되는 건 별로 없고 도움 되는 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기술을 또 나만 건강하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으니까.

10. 내가 여성이어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나요?

가끔 그런 건 있지 지금 여기는 다 여자인데 남자들처럼 일할 때 남자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더 받거나 그런 적이 있어. 여기서도 남자가 있을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 같은 위치인데...

11. 사회적 기업에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의 주인의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월급이 좀 밀렸는데도 오래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큰 것 같아.

12. 이 공장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나는 전순옥 선생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보도도 많이 보고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 오기도 했고.

13.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가정에 보탬이 되고 젊을 때는 이걸로 애들 다 먹여 살렸으니까.

14. 참 신나는 웃은 나에게 어떤 곳인가요?

이름처럼 신나는 곳은 아닌 것 같아. (호탕 웃음)

15. 지금 행복하세요?

그렇지. 행복하다고 봐야지 건강하니까.

<참 신나는 옷 근로자 박미영님(재봉사)>

1. 의류 쪽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이걸 한 건 아니고 10년 동안 주부생활을 하다가 친구 남편이 공장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어.

2. 본격적으로 공장 일을 시작한건 언제부터인가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

3. 참 신나는 옷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3년 정도 일을 한 것 같다.

4. 전에 다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 전 공장이 일반 공장 인가요?

그냥 일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지.

5. 일반 공장과 사회적기업의 공장에 차이점이 있나요?

내가 느끼기에는 전에 일반 공장과 호칭이나 방식 등 여러 가지가 달라서... 여기가 더 좋다 막 그런 건 못 느끼겠어.

6. 지금 공장과 일에 만족하나요? -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유 무엇인가요?

가끔은 하루 종일 앉아서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라 '아유 괜히 배웠다' 하는데 또 집에 있는 주부들 보면 하루 종일 갈 데없이 그러는 것 보다는 좋지 라고 생각해. 어딘가 갈 곳이 있는 건 좋은 거니까. 또 가끔은 재미도 있고. 처음부터 배워서 지금 기술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7. 이 일을 하면서 부듯하거나 좋았던 일이 있나요? 반대로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아니고 전 회사에 있을 때는 백화점 유리 안에 내가 만든 옷이 걸려있으면 진짜 부듯해. 특별히 전시 되어 있는 상품을 볼 때 '우리가 만든 건데' 생각하면서 보니까 좋더라고.

8.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얼굴 보면서 일하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일을 할 때랑 안 할 때랑은 완전 같은 사람인데 오랜 시간을 봐서 그런지 정이 있으니까 나가면 밍고 싫고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9. 이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요소나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나요?

방해되는 건 없는 건 아니고... 허리가 좀 많이 아파. 지속적으로 한가지로 하다보면 자세가 삐뚤어지는 것 같아. 특히 나는 허리가 안 좋은 편이라 많이 아파. 그래서 관두고 싶다가도 내 일이고 놀면 뭐 하나 싫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

10. 사회적 기업에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의 주인의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 나는 일을 막 하고 싶은데 월급이 최저 월급인데다가 월급이 제때 안 나오니까 하려다가도 화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아. 재미가 없지... 밀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더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

11.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미도 있고 밀리다가도 딱 주면 나 오늘 월급 탔어! 월급으로 애들 맛있는 거 사갈 때 재미와 부듯함을 느껴.

12. 참 신나는 옷은 나에게 어떤 곳인가요?

마음이 편하고 앞으로도 월급만 잘 나온다면 참 좋은 곳인 것 같아. 길게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13.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좀 정리가 된다면 더 즐겁게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신나는 옷 근로자 이영주님(제자)>

1. 의류 쪽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조카애들 옷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어. 원피스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어. 그냥 보고 배운 게 다지 뭐. (웃음)

2. 본격적으로 공장 일을 시작한건 언제부터인가요?

공장에 오게 된 이유는 벌어먹기 위해서. 판 일을 하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시작해서 재봉을 굳이 배우는 욕심은 없어서 제자 일을 하는 거야. 42살에 2년 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판 일을 하다가 다시 왔지 뭐.

3. 참 신나는 옷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월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6월 달이면 4년쯤 돼.

4. 전에 다른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 전 공장이 일반 공장 인가요?

있었지.

5. 일반 공장과 사회적기업의 공장에 차이점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은 5일 근무니까 그거 보고 온 것 같아. 대부분은 주말에 좀 적게라도 일을 하니까.

6. 지금 공장과 일에 만족하나요? -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장 일에 완전 만족하기는 못한 것 같아. 제자일은 미싱사 속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딸릴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 일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닌데 딸리는 건 진짜 힘들어.

7. 이 일을 하면서 뿌듯하거나 좋았던 일이 있나요? 반대로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그건 있지. 내가 만든 게 TV에 앵커나 연예인이 입고 나오면 기분 좋지. 이스타 항공 옷도 만들었는데 비행기 탈 때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뿌듯했지.

8.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얼굴 보면서 일하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일을 하면서 같이 주고받는 사람이 나랑 잘 맞으면 좋은데 그게 인연이 안 맞으면 일하러 나오기도 싫어. 말 한마디에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9. 참 신나는 옷은 다른 일반 공장과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 공장만의 장점이 있나요?

장점...? 장점은 5일 근무에 제 시간에 끝나는 정도?

10. 재봉틀에 남는 일을 하는 게 제자일이다 보니 자존심이나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11. 참 신나는 옷은 나에게 어떤 곳인가요?

나의 일터지 뭐. (웃음) 너무 간단하나?

12. 지금 행복하세요?

아유, 한 70%로 정도?

<참 신나는 옷 팀장님>

1. 현재 팀장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직책은 팀장이구요. 생산 팀에 총괄을 맡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완성도와 시간에 제대로 된 옷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디자이너와 조울 같은 일도 하시나요?

때로는요. 필요로 할 때 하지.

2. 참 신나는 옷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사회적 기업이구요. 고급 유니폼, 중저가 브랜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야.

3. 의류 쪽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사촌 언니가 공장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우연히 도우러 갔다가 재밌고 하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어.

4. 따로 재봉을 배우거나 한 적이 있나요?

아니. 우리 때는 학원 같은 게 없을 때라 공장에서 직접 배웠지요. 한 사람한테 일대일 교육 도제식 교육으로 배웠지.

5. 몇 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19살 후반부터 시작했지.

6. 참 신나는 옷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참 신나는 옷이 만들어지기 전에 참 신나는 학교(공부방)가 내가 일하는 곳 위에 있어서 (내가 늦게까지 일하다보니) 큰딸을 거기로 보낸 걸로 시작해서... 그리고 수다공방이라고 재봉 배우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서 참 신나는 옷이란 인연이 시작 되었어 재봉이란 게 다른 사람이 하면 배울게 또 생기더라고 그렇게 수다공방을 졸업하고 강사 일을 하다가 이 참 신나는 옷이 생긴 거야 처음부터 만들면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인간관계 문제로 나갔다가 3년 전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

7. 참 신나는 옷을 사회적 기업 형태의 공장인데 다른 일반 공장과 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전은 전대표가 설립할 때 노동자 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노동자의 사생활을 좀 더 만들어 주기 위해 이곳을 만든 것이야. 대기업처럼... 그래서 빨간 날,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는 게 큰 목적이야.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전에 비하면 많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

8. 팀장님이라는 자리가 무거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가장 버겁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내 생각에 어긋날 때 일이 이때 딱딱 끝나야하는데 늦어지면 계속 미뤄지니까... 그건 나 혼자 해결 할 수 없는 일이나까 힘들더라고.

9. 이 일을 하면서 부듯하거나 좋았던 일이 있나요?

나는 이 일을 진짜 좋아해 이 일을 35년을 하면서 매순간이 즐거웠어. 그래서 옷이 끝나서 제대로 완성 된 옷을 만들어 졌을

때가 가장 부듯해.

10.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얼굴 보면서 일하니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인간관계는 여기서 일 할 때는 딱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곳 사람들과 얼마큼에 인연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은 단지 좋은 것 같아. 내가 성격이 싫은 사람은 딱 싫은 성격이라 잘 맞는 사람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대신에 한번 친해지면 끝까지 의리!

11. 슬럼프가 온 적은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12.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기술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이 배움의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볼 때 나는 가장 행복하기에 나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것 같아.

13. 참 신나는 옷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단체, 사람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파트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기술을 더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너무 나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 힘들 때가 많지. 기술을 키우면 서로서로 좋은 일이니까.

14. 이 일을 언제 까지 하시고 싶나요?

내 몸이 될 때까지.

15. 참 신나는 곳은 팀장님에게 어떤 곳인가요?

처음 사회적 기업의 형태인 곳이 만큼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 힘든 점이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곳이면 좋겠어.

16.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장안에서는 내 만족도를 채우기는 힘들고 나가서 가르치거나 할 때 많이 행복한 것 같아.

17. 팀장님에게 봉제란 무엇인가요?

엔도르핀. 내 손을 거쳐 옷이 만들어지고 그걸 보면 나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

- 지은이에게 한마디?

처음 사회에 와서 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어디서든 뭘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자면 어디를 가든 무슨 일 하든 3개월은 무조건 버텨보고 그때도 아니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해봐.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지은이는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더 과감하게 해봐. (웃음)

<문정열 대표님>

1. 참 신나는 옷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숙녀복을 위주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숙녀복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단체복, 티셔츠도 하고 있지.

-처음에 숙녀복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는데 숙녀복 전문, 아동복 전문, 남성복 전문 등으로 나뉘지는데 그걸 선택한 것 같아.

2. 여기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개인적으로) 국장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유 국장님이 일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공장이 아니라 교육 공간이었는데 그때는 방과 후 교육, 미싱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연구소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2~3년 일을 하다가 관둬서 나갔다가 전 대표가 나가면서 여기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다가 좀 더 해보자 해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고 있지.

3. 참 신나는 옷에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관여를 하지만 딱 이 일만 해야 한다는 정확한 분담이 있는 일이 아니어서 완성이 필요하면 완성일도 하고.... 요즘은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운전기사로 취직을 한건 아닌가... (웃음)

4. 대표님이 원단을 자주 고르신다고 들었는데 원단을 고르실 때 특별히 따지는 것이 있나요?

그 질문은 어느 정도의 어폐가 있는데 저는 원단 선택 일을 하지는 않고 우리의 주 업무는 임가공을 주로 하는 공장인데 어디서 들어오면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게 주 영업내용 인데 그게 한 80% 정도 이고 이번에 하고 있는 자연드림 같이 디자인을 한번 해줘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20%정도인 것 같아. 자연드림 옷을 디자인 할 때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 원단을 고를 때는 치마원단이나 바지 원단으로 티셔츠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티셔츠 전문 원단을 보면서 단가, 디자인, 만들기 좋은 원단을 따지면서 고르는 것 같아. 이게 보다 보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아.

5.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무엇인가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과 이윤을 창출하면서 그 이윤을 같이 배분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단계에서는 일단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삼성이건 현대건 돈이 되는 대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기업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우선이지만 제조업에 중심을 둔다면 대기업에서 100을 벌면 90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0만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10씩 다 같이 나누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70~80년도에 제조업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없어지는 과정이기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야 생산량이 나오는 거시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짬박한 디자인 하나로 히트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일해서 같이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가로 좀 더 말하자면 요즘 선거 시기라 공약들에서 일자리 몇 만 개씩 더 만들겠다! 라는 말이 많은데 그것 보다는 우선으로 있는 일자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 같은 공장에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일감을 주고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왔을 때는 워낙 빚진 사람들이 많아서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나 일자리가 없으면 노숙자가 되는 것도 순간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 불필요한 자선사업 말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6. 참 신나는 옷을 경영하면서 나만의 약속이나 신념 같은 게 있나요?

능력껏 하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려줄 테니 써라 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뭘 하든 능력껏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7.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대기업과의 경쟁 같은 것)

사회적 기업도 엄연히 기업인데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니까 게임이 안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 취직이 안 되는 디자이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공장에는 인건비 문제로 디자이너가 있는 공장은 한 개도 없어. (참 신나는 옷 공장에서도)디자이너가 있으면 착착 손쉬운 일이지만 현재 없으니 헉헉 거리는 부분이 많지. 여러 가지 게임이 안 되니까 힘들지.

8.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반대로 좋았을 때나 희망적일 때는 언제인가요?

관두고 싶을 때는 진짜 많은 것 같아. 특히 일이 없을 때가 진짜 힘든 것 같아. 지은이가 있을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헉헉 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겨울에는 일이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한 달에 4~5일 만 놀아도 급여가 안 나가고 급여가 안 나간다는 것은 4대 보험, 월세들 다 밀리니까.... 뭐 힘들지.

또 사람에 대한 신뢰부분이 흔들릴 때. 주로 일하는 조건을 이야기 할 때나 일을 관두고 나갔을 때 표출이 되는 편인데 (그분들도 나름 서운해서 그런 것이지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하게 표출할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힘들었던 것 같아.

되게 좋았을 때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좋았을 때는 옷이 만족스럽게 잘 나와서 다음번 계약도 잘 이루어질 때 뿌듯하지. 예를 들면 이번 자연드림 같은 경우도 원래는 500벌만 하려다 1000벌이 되고 1300벌이되고 지금은 2000벌이 넘을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써 뿌듯하지.

9. (저는 처음에 이점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구성원 대부분이 아주머니 분들이신데 그런 점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그런 점은 별로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아. 굳이 이야기 하자면 여기 아주머니 분들은 30년 넘게 여기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고 나는 여기를 아직 잘 모르니까 뭐 그런 부분이 힘들다면 힘들고 또 내 성격 자체가 남들과 노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10. 대표님의 자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는 힘든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내 성격 자체가 이거면 이거인 타협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부당한 경우에는 끝까지 싸우거나 여러 가지로 표출하고 다 해버린 성격이라서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11. 대표님의 자리가 가장 무거울 때는 언제인가요?

음... 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무거워 지는 것 같아. 전문적인 영역 없이 뭉뚱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

12. 공장 이름이 참 신나는 옷인데 이름만큼이나 신나는 곳인가요?

(웃으면서) 이름을 잘 못 지은 것 같아. 이름이 너무 빛났던 것 같아.

13. 지금 대표님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서 글썄... 전에 혼자 일을 하면서는 너무 혼자 편한 게 아닌가... 미안 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도 (상대적인거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시름 덜은 것 같아.

- 지은에게 한마디?

지은이는 앞으로가 참 궁금한 친구인 것 같아. 앞으로의 모습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할까도 궁금하고 이렇게 3개월로 끝나는 인연은 아니면 좋겠어. 공장에서는 지은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 이모들도 아까 일 하면서 “이런 건 지은이가 있었어야 해주는데”라고 말하더라고. (웃음) 사람 손이 참 무서운 것 같아.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한 자리에 있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한마디 하자면 앞으로는 지은이가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아. 남의 시선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은이가 안 되면 어떡하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 나이에는 안 되도 상관없는 것 같아.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딴 거해도 되고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어떤 때는 안되는 게 더 좋은 것 일 수도 있고 너무 겁먹지 말고 좋아하는 것 찾고 당당하게 잘 해나가면 좋겠어. 밝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는 더 밝게 살면 좋겠어.

느이 집엔 이런 만화 없지?

새만화책 출판사 / 2.10~5.23

오지영

0. 시작하기 전에

1) 단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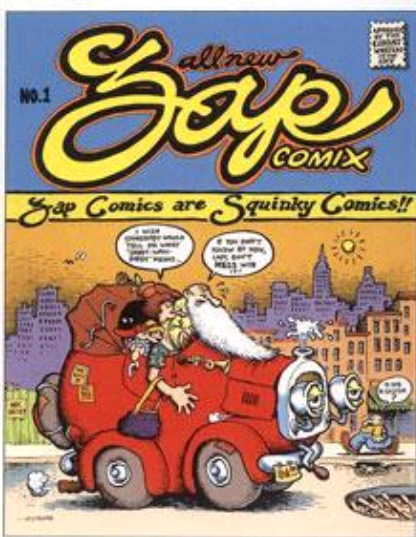
새만화책 출판사는 2002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대안만화 출판사이며 김대중, 조경숙, 우영민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경숙 실장님과 함께 공동발행인을 맡고 있는 김대중 대표님은 영어 번역과 원고 편집, 조경숙 실장님은 원고 교정 작업, 우영민 과장님은 일어 번역 및 원고 편집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1232-2 효재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출간한 만화 중에선 만화 매체의 미학과 역사를 탐구하며, 의미 있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대안 만화지 《새만화책》과 국내, 외국 작가들의 작품(토베 얀손의 무민 시리즈, 심홍아의 창밖의 고양이, 마영신의 길상 등)등이 있다. 대안만화의 출판 및 홍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대안만화 네트워크의 확장, 새로운 작가를 육성하는 일에도 주력하는 중이며 현재 마영신 작가, 이정수 작가 외 다수의 작가가 새만화책에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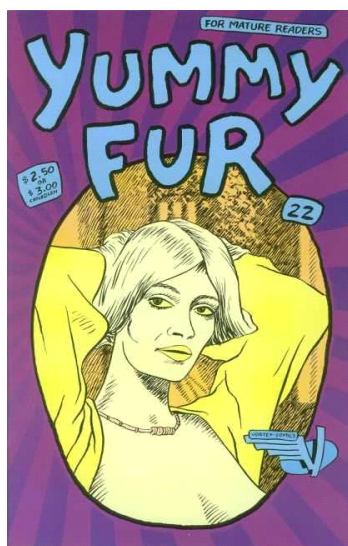
2) 대안만화

시초는 언더그라운드 코믹스였다.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북미권에서 1960년대에 히피문화를 반영하여 시작된 만화의 한 흐름이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치며, 인간성이 상실된 전쟁과 물질문명 사회제도를 부정하는 히피문화를 반영한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급진적이면서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반문화를 표현했다. 이는 일반화되고 틀에 박힌 도덕성의 주류 만화를 뒤집어 반문화의 중심으로 만화를 세워낸 큰 공이 있지만, 미적인 완성도라든지 세련된 오락성 등의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언더그라운드 코믹스의 흐름은 사실상 70년대로 사실상 끝났으며(비록 로버트 크럼은 80년대에는 위어도Weirdo라는 잡지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성향을 이어나갔지만), 80년대부터 대안만화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



로버트 크럼의 언더그라운드 만화지
《Zap》 1호



체스터 브라운의 독립 만화
《Yummy Fur》

언더그라운드 코믹스의 시대가 저물기는 했지만, 대안 만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관심사의 만화가 화두에 올랐다. 점차 인기가 쇠락하면서도 시스템의 경직성은 변할 줄 몰랐던 주류 만화 산업에 대한 반발, 그리고 만화의 예술성을 좀 더 진지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싶었던 순수한 작가적 열망 등의 요소들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런 시대에 대안만화가 저항하고자 한 주류는 자본의 경직성으로부터의 독립이었고, 이것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독점적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독립' 출판사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성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흔히 대안만화라고 부를 때는 이들을 지칭하곤 한다.

<참고문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28호 - 언더그라운드 만화와 히피문화 <Zap Comix No.1>을 중심으로, 북미권 대안 만화의 흐름과 현재 [월간우리만화 0812]>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이자면 대안만화와 주류만화의 경계선은 무척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대안만화의 정체성조차 앞으로의 세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이 매체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지금인, 아직까지는 대안만화에 대한 판단은 출판사와 독자의 시선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내가 아는 정보가 부족한 탓이 크기도 하다.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현재 자본주의적, 이기적 정서와 가치관에 반하는 대안적인 가치관과 삶을 제안하거나, 작가 본인의 인생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 작가 주의적 만화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진다.

3) 계기

그야 예전부터 이 출판사를 계속 가고 싶었으니까. 인턴십은 무조건 만화와 관련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아주 옛날부터 생각했다. 거의 강박증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만화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것 말고는 그닥 관심이 없을 정도로 여기에 다 쏟아 부었는데! 하지만 한국에서 내 학교의 조건에 맞게 갈 수 있는 만화에 관련된 현장은 극히 적었다. 전에는 작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인턴십 조건에 맞는 일이 아니더라. 그때의 나는 중등부였고 인턴십은 6학년이라는 먼 미래에 있을 큰 부담은 없었지만, 약간의 절망감과 막막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왜 그때부터 김치국을 마시고 있었을까?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새만화책 출판사에서의 짧은 만화 교육을 통해 그 출판사와 인연이 생겼다. 대중 선생님께서 여기로 인턴십을 와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화와 관련된 진로를 꿈꾸고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싶었지만 당장 4~5학년 때 갈 수 있는 무빙스쿨은 너무 짧아 그렇게 끝내버리기엔 아쉬워 오랫동안 아껴왔다. 4학년은 연극 극단으로, 5학년은 유기동물입양센터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2~3년 후 다시 새만화책 출판사에 연락을 드려 인턴십 의사를 밝혔고 쉬이 승낙을 받아내서 14주간의 인턴을 하게 되었다. 모두 순탄하게 해결되었다.

4)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

굳이 쓸 필요성이 있나 싶은 항목이지만 회사에서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만큼 중요했던 경험이기도 하고 후에 타지에서 자취할 후배들을 생각해 보고서 내에서 다루기로 했다. 집세 같은 학생이 부담하기 힘든 가격을 제외하고 교통비, 생활비 등의 비용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피자 체인점 전단지 돌리기, 딸기하우스에서 딸기 수확,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대타. 몸살이 나도록 일을 해서 모은 돈 중 59만원은 노트북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 총 모인 금액은 약 120만원. 자기 힘으로 1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벌었다는 경험은 무척 부듯하고 어디에 떨어져도 굶어죽지는 않겠다 싶어 앞으로의 생활에 자신감이 붙는 일이었다.

방학 중에 서울에서 자취할 곳을 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이민지, 최소은, 김현정, 나 이렇게 네 명에서 살고자 했지만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3~4개월의 기간, 각자의 조건(집세, 인턴십 현장과의 거리 등)에 부합하는 방을 찾기가 어려워 결국 민지는 빠지고 말았다.

세 명에서 방을 찾기로 했고 1월 중에 몇 가지 조율한 사항이 생겨 출판사에 직접 방문하는 겸 방도 물색하기로 하여 현정과 함께 동행 했다. 집세가 비교적 싼 신림에서 여럿 부동산을 돌면서 열심히 질문하고 직접 방을 봐서 판단을 내리기도 하며 찾아본 결과 주방 공간과 세탁기, 현관이 실내와 분리된 형태의 방을 하나 찾았다. 가격도 예상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정도라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사진을 찍어 소은과 부모님께 전송했다. 계약은 후에 현정이네 아버님께서

해주셨다. 무척 복잡하고 여러 수고로움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1. 활동하면서

처음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일은 항상 설렌다. 첫 출근이었다. 노트북과 태블릿, 공책과 필통 등을 가방에 한가득 넣고 출발하는 순간 너무 목직한 무게감 때문에 어깨와 허리가 아팠다. 특히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출퇴근을 하나, 이러다가 골병 들지 싶어 막막한 기분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평생을 따라온 길치 끼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한참을 헤맸고, 부동산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길을 찾았지만 30분이나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첫 출근에! 지금은 감정이 흐릿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던 기분이었을 것이다.



출판사 내 풍경



출판사 식구들의 작업 공간

주로 맡았던 일은 원고 편집과 출판사 내에서 자잘한 심부름 등이었다. 포토샵과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원고 내의 대사와 의성어, 잡티 등을 지우고 인디자인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일을 짧으면 하루, 길면 약 5일 동안 반복하면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된다. 대사를 지우는 작업은 정말 단순하고 쉬워서 100장이 넘는 분량도 거의 하루에 다 해치울 수 있었지만, 인디자인에 이미지를 얹히는 작업은 약간의 수고로움이 들었다. 전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몇 번만저본 경험이 있는 포토샵과 달리 인디자인은 처음으로 접해보는 프로그램이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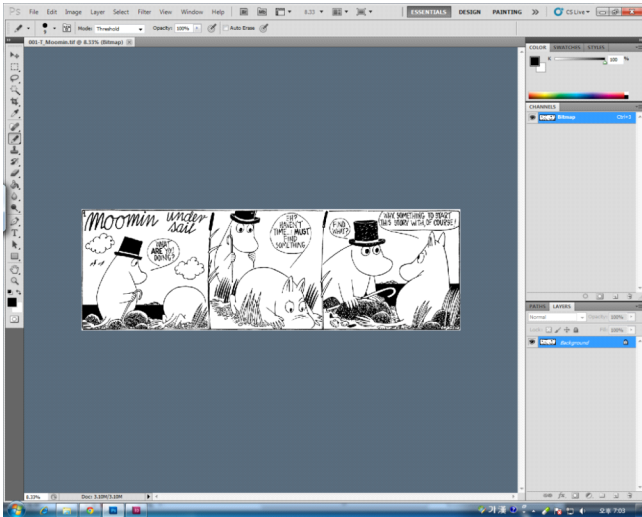
반복적인 작업이라 곧 지겨워질 거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성이 있어 편하고 여유로운 일이였기에 질리는 일 없이 잘 일했다. 그러다가 너무 긴장을 풀어서 페이지를 한 장씩 밀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른 적도 빈번했지만.

1) 《무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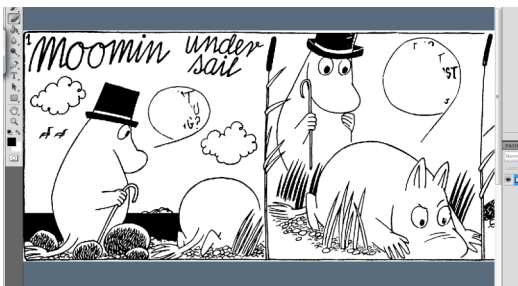
스웨덴계 핀란드인 여성작가 토베 얀손이 만들어 낸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 만화 등의 시리즈를 말한다. 무민들의 정확한 종족명은 하마무민트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유럽 설화에 등장하는 트롤에 원형을 두고 있다. 하마를 닮았으나 전혀 관계없다. 생김새 덕택에 이 캐릭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십상.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

오리엔테이션 같은 기간도 없이 바로 출판사 내에서 가장 단순한 작업인 원고 편집을 맡았었다. 처음은 무민(5권)의 원고를 받아서 대사를 포토샵으로 지우고, 원고 편집 프로그램 인디자인을 사용해 이미지를 얹히는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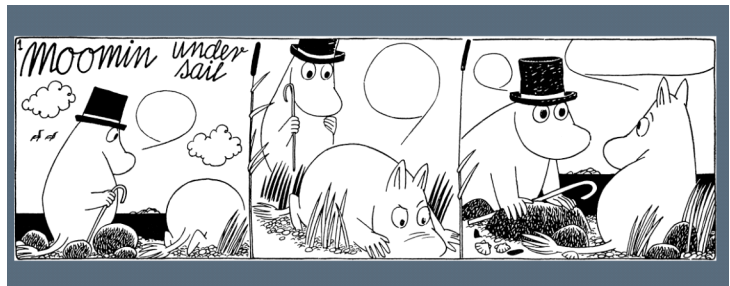
그 다음에는 인디자인으로 예비 식자를 앉혔다. 책의 이미지 편집은 완료되었지만 번역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후에 번역문을 보다 쉽게 삽입하기 위해(Ctrl+C와 Ctrl+V를 반복해서) 빈 말풍선에 미리 텍스트를 앉혀 두는 작업이다. 텍스트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없다(아! 혹은 수영복, 이렇게 짧고 간단한 말). 단조롭고 쉬운 작업이지만 나중에 편하게 작업하려면 말풍선의 크기에 맞게 텍스트를 조정하고 나레이션의 글씨체와 대사의 글씨체를 따로 구분해서 지정해야 한다.



《무민》 원고 내 페이지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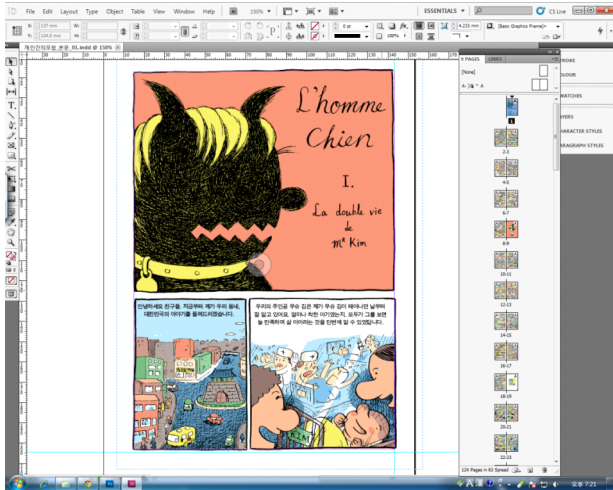
2) 《개인간의 모험》

무민의 1차적인 편집 작업을 마친 뒤 새로운 작업물 《개인간의 모험》을 받았다. 박윤선 작가가 프랑스에서 그려낸 만화로 소재가 독특하고 그림체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 일하는 재미가 있었다. 평생을 날백수로 살아온 김씨가 보험 회사의 여직원과 결혼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경찰견으로 정하면서 펼쳐지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스토리이지만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이면을 쿡 찌르는 장면이 여러 번 보인다.

초반의 작업 과정은 위의 무민과 동일했는데, 인디자인에 원고 이미지를 앉히는 일에서 전과는 다른 일임을 알았다. 개인간은 무민과 달리 컬러 원고였기에! 컬러 파일과 선화 파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원고를 어떻게 하면 인디자인에 앉힐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것은 대중 선생님께 배웠다.

우선 선화 파일을 한두 장 앉힌 뒤, 그 위에 알맞은 컬러 파일을 앉혀서 수없이 복사해 인디자인 파일에 차곡차곡 삽입한다.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 번 앉힌 뒤에 복사된 이미지를 페이지 수에 알맞은 원고로 변환(Ctrl+E)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불어로 쓰인 의성어를 삭제해야 다음에 한글로 이루어진 의성어가 만화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의 삭제를 완료한 다음날에 번역문이 도착해 전에 앉혔던 예비 식자를 응용해서 Ctrl+C, V로 번역 식자를 앉혔으나 일이 마냥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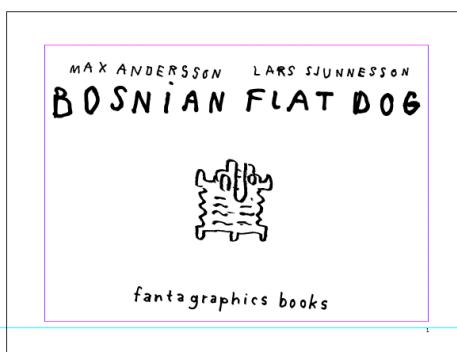
개인간의 식자를 5부 중 4부를 다 읽힌 참에 컬러와 선화의 싱크가 안 맞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껌껌한 기분이었다. 그냥 껌껌한게 아니라, 잠시 마우스와 타블렛에서 손을 뗄 정도로 막막한 기분이었다. 고생고생 하면서 작업한 원고를 다시 처음부터 편집해야 한다는 건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시작하기로 했다. 별로 다시 겪고 싶은 경험은 아니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사무실 식구 분들의 프로 정신을 느꼈다.



《개인간》 첫 페이지(인디자인)

3) 《개껌데기》

네덜란드의 막스 안데르손 작가가 그린 보르니아의 《개껌데기》라는 만화를 작업했다. 솔직한 개인적 감상을 표현하자면 대단히 역겨운 화풍이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다. 어쨌건 개껌데기를 작업했고, 이를 만에 식자 지우기와 인디자인 편집, 의성어 삭제(양이 적다)까지 모두 마쳤다. 말풍선이 네모반듯해서 식자를 지우는 일이 무척 쉬웠지만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내용을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하기에는 이 작품에 대한 내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개껌데기》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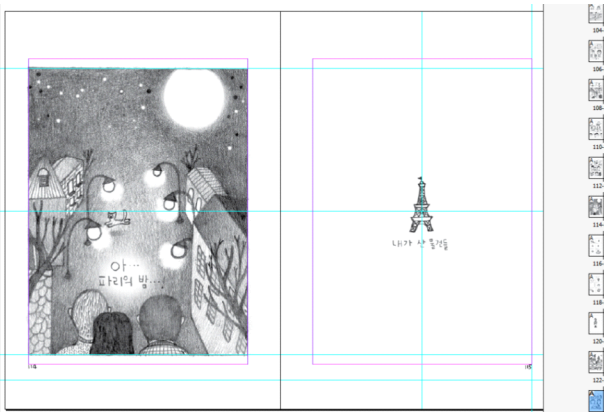


《개껌데기》 내 페이지. 가로로 긴 형태

4) 《파리라고 가봤더니》

소복이 작가의 파리 여행기 만화인 《파리라고 가봤더니》였는데, 여행기라기보다는 체류기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적은 분량이었고 예비 식자같이 손이 많이 가는 작업도 필요 없어서 당일 내에 마칠 수 있었다. 원고 페이지 번호를 손 글씨로 변경하는 작업도 했다.

한국인이 그린 만화라고 해서 손이 덜 가겠구나 싶어 방심했다가, 오타자를 수정하는 일에서 멈췄다. 다른 만화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수정해주면 괜찮지만 파리는 손으로 쓴 대사이지 않는가! 실장님께서 표시해주신 교정본을 참고하면서 포토샵으로 글씨를 자르고 옮기고 줄이고 늘리고 돌리는 일에는 상당한 섬세함이 필요했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맞춤법이 왕창 틀린 대사를 고칠 때는 답답한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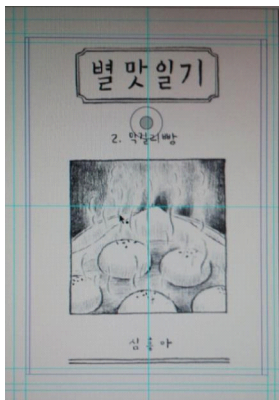
《파리라고 가봤더니》 작업 중

5) 《별맛일기》

3월 첫날에는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 중인 심홍아 작가의 《별맛일기》를 편집하기 시작했다. 연필로 그려진, 큰 자극 없이 순수하고 소박한 느낌의 그림체와 스토리가 무척 좋았다. 대중 선생님께 넘겨받은 원고 파일이 전부 상당히 용량이 큰 TIF파일로 되어 있어 가벼운 용량의 JPEG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다. 일일이 조작해서 변환하는 것은 시간을 지나치게 소모하기 때문에 간단한 명령(그저 Enter만!)으로 파일 형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포토샵의 도구 중 액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양의 파일 형식을 변환할 때 아주 간편하고 좋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배우가는 기분이 무척 좋다.

《내 어머니 이야기》의 원고(PDF) 중에 “~것 같다”가 들어간 식자를 찾아서 기록해두는 일을 맡았었다. 작중의 대사는 대부분 사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어로 “~것 같다”로 입력되어 있는 것은 오타자라고 해서 이틀 동안 찾았으나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였다. 꼼꼼하게 찾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만화도 읽을 수 있는 일감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독특한 일을 맡은 적도 있었다. 한겨레가 20주년을 맞아 대중 선생님께 특집 삽화를 의뢰했었는데 며칠 동안 펜과 종이만 붙잡고 심혈을 기울여 그리신 삽화는 숨은 그림 찾기였다. 숨은 그림 찾기가 선택만 있으면 섭섭하잖습니까? 채색은 내가 담당했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포토샵으로 페인트 툴을 사용해서 적당한 색깔을 사람들과 소품에게 입혀주면 된다. 어렸을 적의 옷 입히기 놀이와 비슷한 재미가 무척 쏠쏠했다.



《별맛일기》 2화 표지



《별맛일기》 작업 중

6) <<모래로 만든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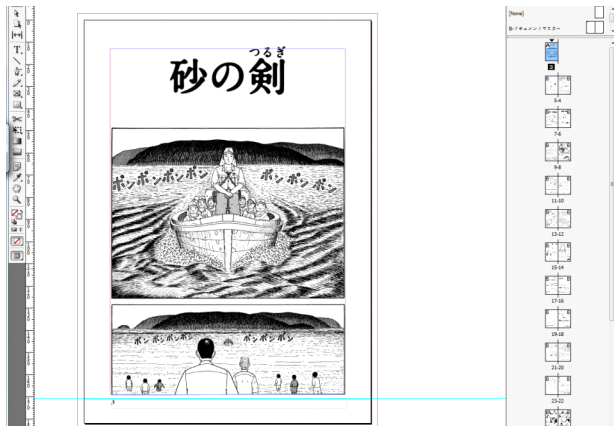
히가 스스모 작가가 그린 오키나와 전쟁 만화로, 작가 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담과 취재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의 급박함과 선악을 가르기 보다는 소란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민간인, 자위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때 우군이 취했던 태도 등을 말하고 있다.

인턴십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작품이다. 거의 애증이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만화를 편집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의성어 삭제와 번역 의성어 삽입, 의성어를 삭제한 공백을 복원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정말 고생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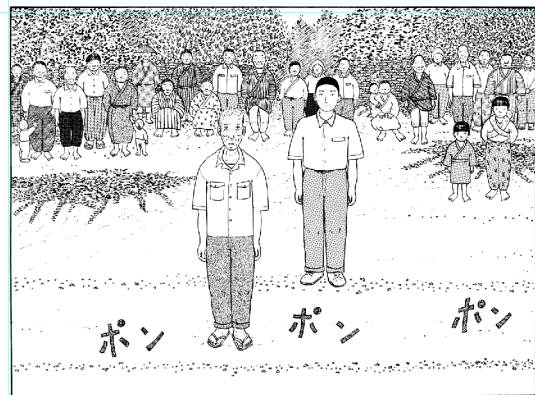
식자를 지우고 인디자인에 앉히는 과정까지는 비슷했다. 책을 읽는 방향이 한국과는 정반대인 일본의 만화라 페이지를 역순으로 앉혀야 한다는 것과 이미지 한 장에 두 쪽이 들어간다는 것이 달랐지만 다른 것은 대부분 비슷했다.

오랜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 원인인 의성어를 삭제하는 과정까지는 괜찮았다. 무난하게 지우개로 지우기만 하면 끝인 작업인데, 지우고 난 뒤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 문제였다. 내 한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도 수없이 많은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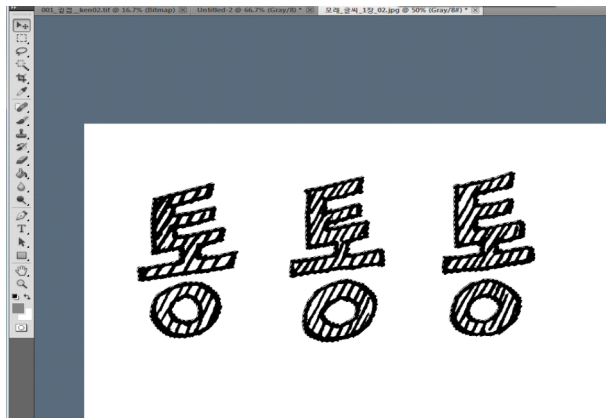
의성어를 다 지운 다음에는 대중 선생님께서 직접 그린신 번역 의성어를 전달받아 원고 내에 삽입한다. 포토샵으로 이미지 위에 일본의 의성어 크기와 위치에 흡사하도록 잘 조정해서 덮어씌우면 되는 일이다. 행하던 만화 위에 한글로 된 의성어가 생겨나니 그제야 제법 만화다운 티가 났다. 모든 외국 만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정발된다고 생각하니, 만화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정말 대단한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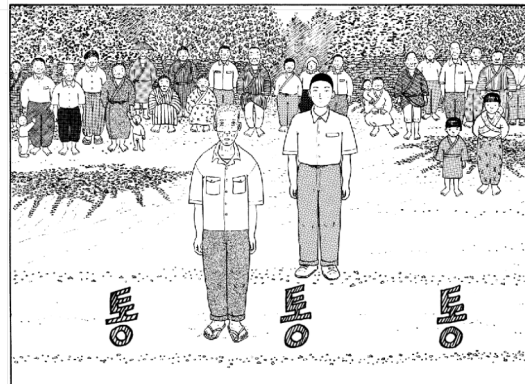
<<모래로 만든 검>> 작업 중 1페이지



<<모래로 만든 검>> 원고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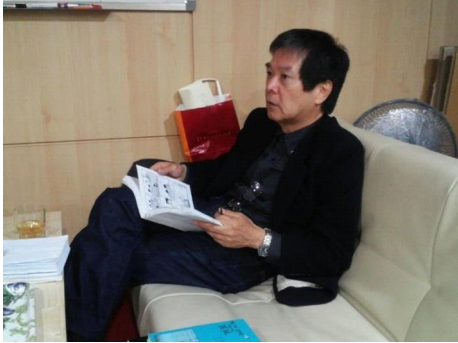
번역 의성어



일본어를 삭제한 뒤 번역 의성어를 넣는다

거의 7주(3월 12일~4월 23일) 동안 이 작업을 반복해서 어찌저찌 5부까지 끝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많이 피운 탓도 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대중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건드리지 않고 가만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시키지는 못 했다는 점이 씁쓸하고 아쉽다.

4월 7일. 모래로 만든 검을 작업하는 중에 히가 스스모 작가님께서 계약 관련일로 출판사에 방문하셨다.



출판사 식구들과 함께 얘기 나누시는 중



함께 저녁 식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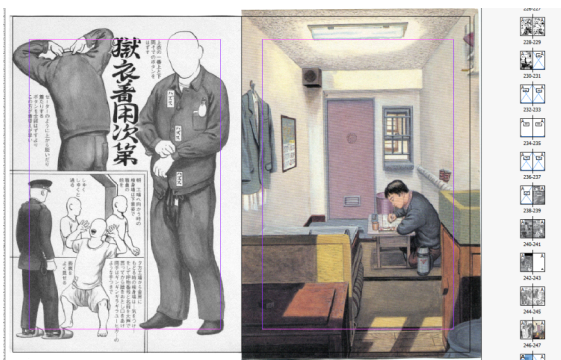
전쟁 만화같이 묵직한 소재를 다루는 작가인 만큼 묵묵하고 기가 센 분이실줄 알았는데, 막상 직접 보니 유쾌하고 센스 있고 편안한 분위기의 미남(!)이셔서 의외였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연륜 있는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감상으로는 맑은 숲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깊고 청명한 느낌이었다. 한국의 만화가들에게 하는 덕담과 조언,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오키나와의 현황을 들려준 히가 스스모 씨는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신나게 관광을 즐기셨다고 한다.

히가 스스모 씨와의 대화 중에서 현재 오키나와에 존재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얘기와, 저녁 식사 내내 무표정으로 있던 나에게 “혹시 내 얘기가 재미없습니까? 나는 어린 친구들이 항상 웃었으면 합니다”라고 상냥하게 말씀해주셨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머쓱해지는 일이다. 좀 더 웃고 적극적으로 얘기할걸 그랬다.

7) 《형무소 안에서》

모래로 만든 검을 작업하면서 중간에 전달받은 작업물 중, 하나와 카즈이치가 그린 만화를 편집했다. 원작자가 총포, 도검류 불법소지 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실제 옥살이를 하면서 겪은 일을 그려낸 작품이다. 형무소 안에 복역 중인 사람들의 생활과 규칙, 시설, 다양한 인물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내가 맡은 일은 이미 편집이 완료된 원고의 말풍선 안에 대사를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일이다. 새만화책에서 발간한 만화지 《새만화책》 내에 실린 형무소 안에서의 대사를 참고하면서 고스란히 옮겨 쓰는 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작가가 형무소에서 배급받는 음식을 굉장히 잘 그려냈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작업하면 침이 고여서 힘들었다….



《형무소 안에서》 원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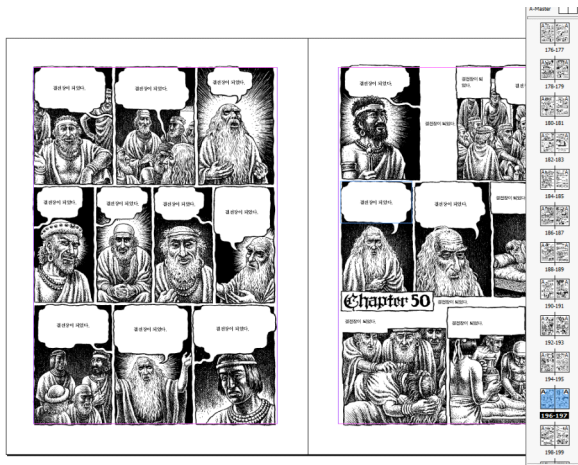
8) <<크림 창세기>>

로버트 크림이 그린 구약성서 중 창세기를 그려낸 만화이다.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곁들이고 싶는데, 인디 만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의 그림을 본 순간 아, 이 사람! 하고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만화가이다. 크림은 1960년대 말 히피 반문화 속에서 형성되던 언더그라운드 만화운동을 <<Zap>>이란 개인만화잡지를 통해 촉발시킨 천재 만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특징 중 몇 가지는 히피, 무정부주의, 여성운동, 체제에 대한 혐오로 특히 아마조네스를 연상시키는 육체적으로 근육질 이면서 동시에 여성성을 강조하는 가슴과 엉덩이가 극대화된 여성을 자주 그려냈다. 동시에 그는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여성을 비하하고,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주제를 다루어서 언제나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원본책의 페이지를 전부 커버에서 분리한 뒤 한 장씩 스캐닝해서 파일화하는 작업부터 했다. 스캐너에 만화 페이지를 끼워 넣을 때 각도가 틀어지면 스캐닝한 뒤의 이미지도 틀어진 각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캐너의 모서리 부분에 딱딱 맞춰서 스캔해야 예쁘게 나온다. 200장 이상의 페이지를 스캐닝에 고박 이들의 시간이 걸렸다.

말풍선과 나레이션 칸의 모양이 네모반듯해서 포토샵의 툴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점은 괜찮았지만 대사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인디자인 편집과 예비 식자 안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암전히 저장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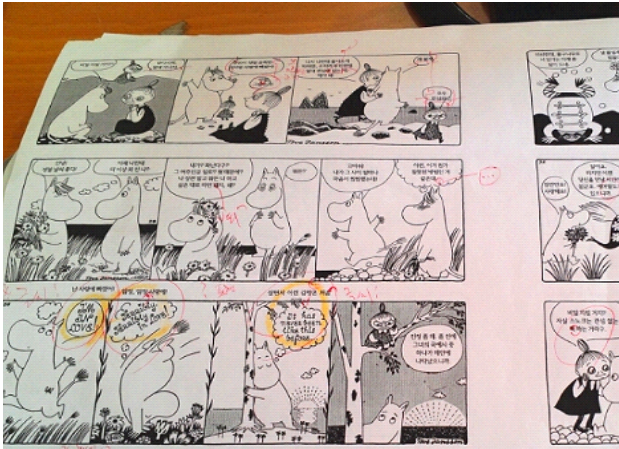


예비 식자를 안힌 원고 중

9) <<무민 3>>

인턴십을 무민으로 시작해서 무민으로 끝냈다는 점에서 묘한 기분이 든다. 등글등글하게 귀여운 그림체가 펍 반갑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이려니 싶기도 하고, 조금 복잡한 기분으로 작업을 했다.

편집보다는 잡티 제거와 교정 작업을 했다. 포토샵으로 원고에 있는 잡티 등을 깔끔하게 지워서 다듬고, 실장님께서 틀린 문법과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큰 말풍선의 크기를 조정하는 등의 갖가지 수정사항을 인쇄본에 붉은 펜으로 표시를 하여 넘겨주시면 그 교정본을 참고하면서 지시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면 되는 일이다. 지워야 하는 잡티도 이 교정본에 모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교정을 거치고 나면 만화 원고는 완성된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무민 3권의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실장님께서 수정 표시를 한 교정본

2. 끝났으니까 소감은?

몽클한 감동도 찡한 그리움도 없다. 인턴이 끝난 날, 사무실에서의 송별회를 마치고 효재빌딩 계단을 걸어내려 갈 때도 울지 않았다. 조용히 먹먹한 기분만 가슴 속에서 맴돌았지. 하지만 자신 있게 재밌는 일이었다고 외칠 수는 있다! 몇 시간 동안 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은 어깨와 목과 허리가 백적지근하게 아플 정도로 고된 일이지만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고 소소한 잡담을 나누는 게 정말 좋았다. 일의 보람도 좋지만, 단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음이 기뻐다. 학교와는 다른 느낌의 소속감이다. 아, 내가 새만화책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내가 했던 일이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벽차게 다가오던지. 어쩌면 내 미래는 출판사의 컴퓨터 앞에 있는 의자 위가 아닐까.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다. 묵직하게 어두운 불안감에 사로잡혀 숨 쉬고 있던 때도 있었다. 불안감이 어디에서 왔냐면, 막연하 기만 한 앞날에서 왔다.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나, 뭘 공부해야 하나,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나 등. 원래부터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직접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쪽쪽 닳는 통장 잔고를 보자 그 걱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걱정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 본인이 무시하면 되는 걸까, 알아서 저절로 사라지는 걸까,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해결되는 걸까. 어쩌면 내 미래는 의자 위가 아니라 건물 옥상 위가 될지도 모르겠다.

또, 소속감은 소속감이되 좀 어중간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일한 점도 있다. 말하자면,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출판사 내에서 더 심도 깊은 행정 등의 문제에 대한 얘기에는 함께할 수가 없다든지. 물론 나는 개입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위의 문제는 정직원이 되고 나서야 거론할 수 있는 얘기인 듯하지만, 미성숙하게 유치하고 약간 서러운 기분은 없앨 수가 없었다. 나도 이런 기분은 느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만화가라는 진로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마음으로 새만화책에 인턴십을 갔던 건데, 오히려 더 흔들리고 말았다. 이게 과연 체념인지 수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만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취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싶기도 한, 좀 더 다른 방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길로 가도 만화를 그리고 싶은 의욕만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나는 평생 내 진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혼란과 마주하니 당황스럽다. 지금은 한참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럴 계기를 준 새만화책에게 땡큐!

부록

-인터뷰

인터뷰 대상: 김대중, 이정수, 우영민

질문 양식:

- ①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시나요
- ②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 ③ 이 일에 대한 만족도
- ④ 기억에 남는 일
- ⑤ 대안만화의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⑥ 앞으로의 목표나 방향성

1. 김대중 (새만화책 출판사 공동발행인 및 대표)



① 새만화책은 2002년에 시작했다. 실장님(조경숙)과는 2000년에 만났는데, 실장님은 그때 다른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다. 자기는 그 출판사에 작품을 내기로 하였고,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서 실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둘이서 같이 만화책을 내는 출판사를 설립하기로 함. 원래 출판사를 내려는 생각은 없었으나 실장님과의 대화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는 원래 만화 자체를 좋아하고 그리는 사람이었음.

② 장점: 책을 낸다는 것은 만화를 그리는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고 글을 썼는데 먹어주고 봐줄 사람이 없다. 작가가 그린 만화를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어 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글을 읽는 것과 같다. 결과물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일을 좋다고 생각한다. / 단점: 돈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다른 나머지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된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다. 돈이 있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없으면 그게 힘들다.

③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는 없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에. 자신에게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고 있는 거지. 좋아하는 일이고. 잘 되도 잘 안 되도 결과와는 상관없이 만족하고 있다.

④ 편집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책을 다 버리게 됐다. 연락을 받고 일산에 있는 인쇄소까지 달려갔다. 몇 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고, 가끔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난다. 인쇄소를 다녀오면서 저녁 늦게 터덜터덜 걸어갈 때 실장님과 나누었던 여러 얘기 등이 기억난다. 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느끼는 기대와 조바심 등이 기억에 남는다. 책이 이상하게 나오진 않았을까, 실수는 없었을까 하는 등의 고민도.

⑤ 내가 하고 있는 이 대안만화는 길게 잡으면 60년, 짧으면 20년 정도 유지된 문화다. 한국에서 대안만화 출판사는 새만화책이 시초. 기본의 대중적인 일본 만화를 벗어나고자하는 취지였다. 상업적인 대형 출판사들의 화력이 거세다 보니 대안만화에 주력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다.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하는 문제다.

⑥ 좋은 만화책을 내는 게 목표. 하지만 좋음의 기준은 명쾌하지 않다. 일단 그 판단은 사무실 식구들이 내리지만, 우선은 진실되고 다양성이 있는 만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작가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는 작가를 키우는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작물(작가)가 좋은 열매(좋은 작품)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는 게 목표이다.

2. 이정수 (새만화책 소속 만화가)



① 원래는 학습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같은 작업실을 새만화책 작가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무척 좁고 협소한 곳이었다. 선배들이 너는 학습만화보다는 대안만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시도하게 되었다. 원래는 공계 학교를 다녔지만 본인은 계속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만화가로 데뷔했다. 여튼 선배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돈 버는 일보다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생각해서 새만화책 출판사에 오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운명의 데스티니?

② 장점과 단점은 꼭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수입이 안 좋지만 장점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저절로 나태해져서 만화를 안 그리게 된다. 또 장점으론 만화를 그리면서 자기 철학이나 생각이 깊어진다. 자기 생각과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라는 일은 무척 즐겁기에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단점으론 자신의 역량의 벽 때문에 자괴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그런 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또 작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자기 환멸에 쉽게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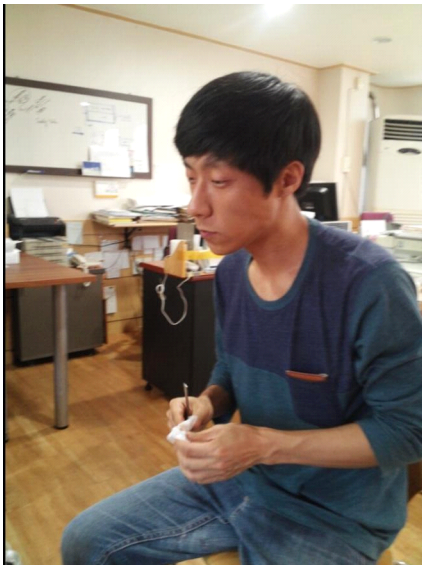
③ 글썸... 내가 지금 약간 만화가로서의 능력을 내 스스로가 만족하기가 어렵다. 약 60% 정도? 그런데 내 만족도가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그날 텐션의 기복에 따라 60과 90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작품을 완성하고 나선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오른다.

④ 친구들이(만화가가 되고 나서 사귀) 다 이상한 애들이다.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은 무척 새롭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아무래도 처음에 새만화책에 와서 대안만화를 시작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작품을 완성하고 책을 냈을 때도.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이 다 제정신은 아닌데도 좋은 작품을 낸다는 게 신기하다.

⑤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지만, 새만화책을 제외하고 대안만화가 행보를 보이거나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새만화책은 문학성을 강조하는 감이 많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만화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대안만화의 중심지는 새만화책 밖에 없지 않나 싶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들이 힘을 써준다면 희망은 있다. 대중적인 만화의 재미와 오락성도 좋지만 문학성을 쫓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러뷰 하트 뽕뽕

⑥ 앞으로 만화를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발전하지 않으면 좋은 만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계속 새만화책이랑 좋은 만화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만화의 다양성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줌... 여자를...

3. 우영민 (새만화책 출판사 직원)



① 아내인 심홍아 작가가 새만화책 소속 작가이다. 일본어학 전공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이 힘들고 술을 정말 너무 많이 마셔서 회사일을 그만두고, 일본어 번역가가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새만화책에서 동업 제의가 와서 2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스카웃된 거죠.

② 장점은 좋은 작품들을 내 손으로 편집해서 세상에 내는 일이 보람차다. / 단점은 작가 분들이 다들 이상하신 분들이라... 재밌기도 하다. 이건 개인적인 단점인데, 텍스트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일이라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글에 굉장히 예민해진다. 폰트, 맞춤법, 디자인 등에 거의 노이로제가 있음. 직업병이라 보면 된다.

③ 저는 한 85점 정도. 옛날에 다른 일을 할 때는 50%도 안 됐다.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책이 나오고 나서 실수를 발견하는 것. 편집 중에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확인한 원고인데도 정작 발간이 되고 나면 실수한 부분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⑤ 국내에 대안만화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작품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 작품이 많지 않은 건 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디 학생들이 대안만화를 사랑하는 좋은 독자가 돼주었으면 한다.

⑥ 좋은 만화를 많이 내서 국내의 대안만화의 지상을 더욱 높이는 게 목표이다.

+ 조경숙 실장님도 인터뷰하려 했으나 거부하셨다.

성질 급한 스무 살 느리게 걷다

슬로워크 / 3.3~6.20

홍지인

순서

1. 인턴십을 하기 전 / 단체 소개 / 인턴십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
2. 내가 한 일 / 결산
3. 인턴십을 하면서 느끼고 얻은 것
붙임. 일지 / 인터뷰 / 고마워요

1-1. 인턴십을 하기 전

장래희망이 ‘장래’의 희망이 아닌, ‘내가 살아가면서 할 일’, 곧 실제 상황으로 구현해야 할 일이 되자 고민은 시작되었다 —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지만.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내내 ‘그림 그리는 사람(화가, 일러스트레이터)’이 유일한 장래희망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에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내 그림은 낙서 수준에서 발전 없이 멈춰 있으니 스스로 한계를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이 늘었다. 거기에는 진로에 대한 ‘이유’도 고려하게 되면서 대안학교 교사나 변호사를 꿈꾸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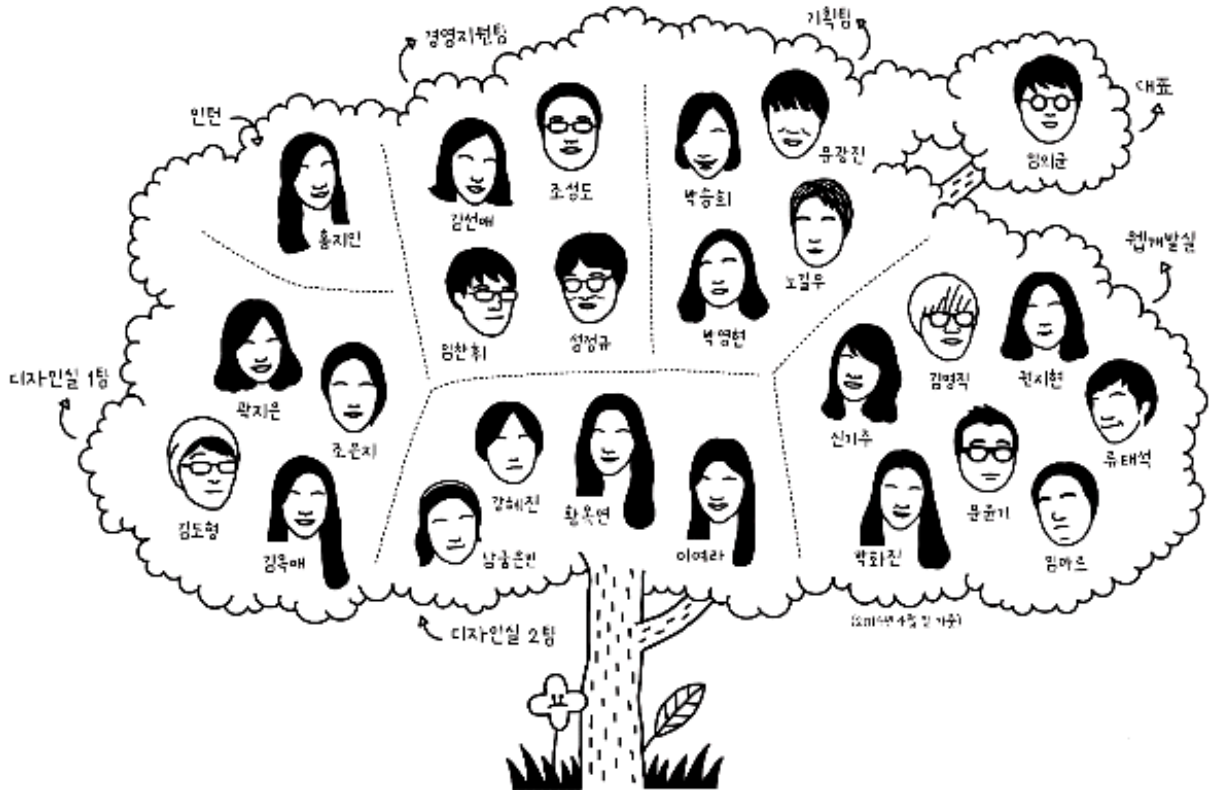
그리고 인턴십 단체를 찾아볼 시기가 왔다. 디자인, 미술 쪽은 한두 개 찾다 제쳐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선배들이 진작 다 갔겠지. 없거나 안 되니까 안 가지 않았을까? 나라고 뭐 다르겠어?’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다. ① 학교 철학, 내 취향과 맞는 곳 ② 내가 할 ‘일’이 있는 곳 — 두 가지 기준을 세웠고, 독립출판 서점, 도시 시장에 열심히 지원하고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퇴짜를 놓던 단체가 미안한 마음에 추천해준 곳 중 하나가 ‘슬로워크’였다. 거절(당하는) 전화를 끝내고 급하게 홈페이지를 둘러본 후 연락을 했고, 메일로 에세이를 보냈다. 에세이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쓰면서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계획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방학 때 사전 미팅을 하고, 3월부터 출근하게 되었다!

속내를 탈탈 털어서 얘기하면, 진로 앞에서 머리 터지게 고민 중인 상태에서 디자인 회사 인턴십을 하게 된 건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다. 이걸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좀 덜고 다른 길을 더 열심히 찾아보기로. 노동의 강도나 별이를 떠나서 내가 진짜 행복한 일, 혹은 그에 대한 이유나 확신을 찾고 싶었으니까. 다른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기도 했지만, 가장 오래 꿈꿔오던 일을 좋은 기회에 제대로 시도해 보고 싶었다.

1-2. 단체 소개

슬로워크는 공감·배려·소통으로 함께 힘이 되는 디자인, 행동변화를 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인 회사다.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캠페인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브랜드 개성과 신뢰성을 위해 이미지를 통일화하는 작업), 인포그래픽(Information+Graphic, 정보시각화) 제작 등을 한다. 디자인실, 디자인 기획실, 웹디자인실, 경영 지원실로 나뉘어 있으며 총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로워크 애뉴얼 리포트 2013 중 - 슬로워커 부분

슬로워크는 디자인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며, 자체 캠페인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큐베이팅·사회 공헌 프로그램 ‘슬로 스프링’을 운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슬로워크 블로그에 포스팅하며 일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국내 비영리단체 및 기업 사회공헌 분야의 브랜드 및 캠페인 디자인을 해왔다.

1-3. 인턴십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 (계획서에서 가져옴)

‘디자인’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상, 진행, 완성되는 것인지 현장에서 직접 보며 배우고 싶다. 또 실무적인 실력(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도 향상시키고 싶다.

2-1. 내가 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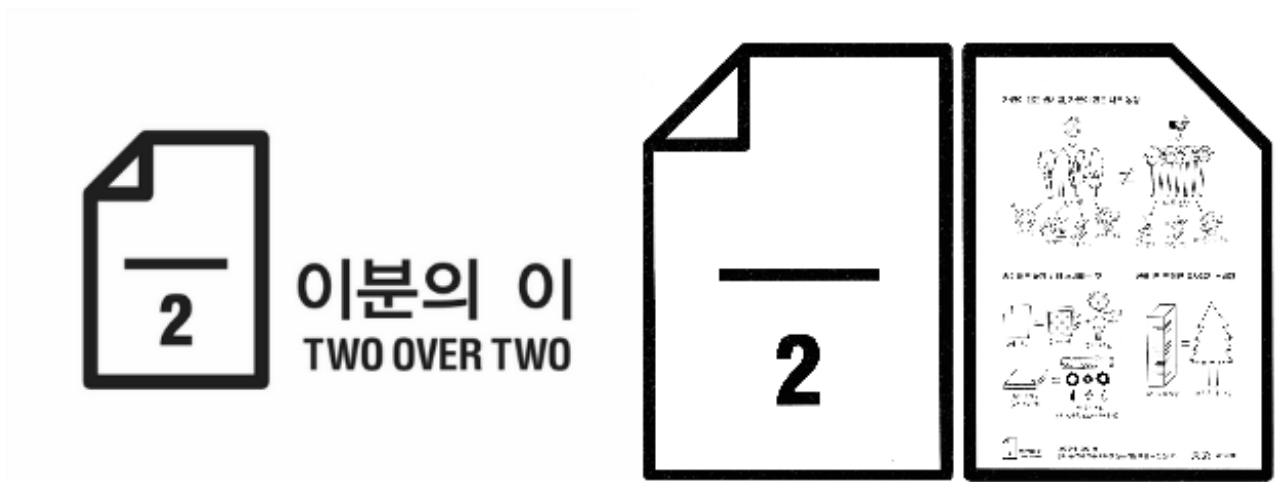
처음 계획은 디자인실, 기획실, 웹실을 한 달씩 경험해보는 것이었지만, 개인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디자인실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오래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조금 더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계획했던 개인 프로젝트와 업무 보조의 비율은 5:5였는데, 내 실무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내 생각보다 개인 프로젝트가 점점 커져서 결국 8:2 정도로 조정되었다.

개인 프로젝트: 이분의 이(2/2) 캠페인

에세이를 쓸 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 미팅 때 자원 절약 캠페인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다. 그래서 이면지 사용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한 달은 갈피를 영 못 잡았다. 이름은 정했는데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디렉터님이 계속 봐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지만 영 진도는 나가지가 않았다. 그러다 디자인 기획실에서 계신 길우 디자이너님이 도와주시게 되었다. 아이디어 정리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 일단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나니 숨어있던 생각들도 발현되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는 부듯함에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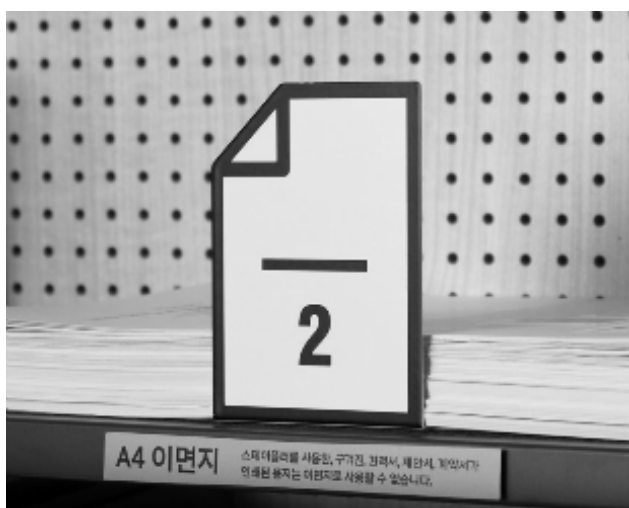
2/2 캠페인은 이면지 사용 캠페인이다. 학교에서 자원을 아끼는 게 몸에 밴 나에게 학교 밖은 낯선 풍경 투성이었다. 어디든 전등이 켜져 있고, 물을 틀어둔 채 손을 씻고, 없어서 못 쓰던 이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슬로워크에서 이면지를 모아놓고 쓰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 그렇게 이면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분의 이(2/2)’라는 이름은 ‘종이에 있는 두 개의 면을 다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 지었다.

2/2 캠페인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응용물은 엽서, 북엔드, 웹사이트 세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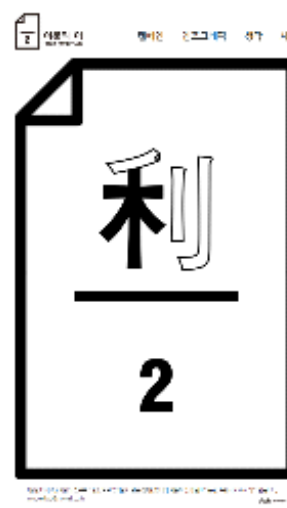


로고

엽서



북엔드



웹사이트

① 로고

로고는 심볼+워드마크 형태이다. 심볼은 모서리가 조금 접힌 종이에 '1/2'라고 적혀있는 모양이다. 심볼만 보고도 종이 가진 두 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분자 부분은 각자 다른 이면지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이면지에 대한 생각의 다양함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비워두었다.

② 엽서

엽서 앞면엔 2/2 심볼이 면으로 들어가 있고, 뒷면엔 내가 그린 인포그래픽(종이에 대한)이 들어가 있다. 심볼 모양을 최대한 원본 그대로 살려서 왼쪽 모서리는 사선으로 자르고, 꼭짓점은 살짝 둥글게 처리했다. '엽서'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크지만, 미니 포스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5 크기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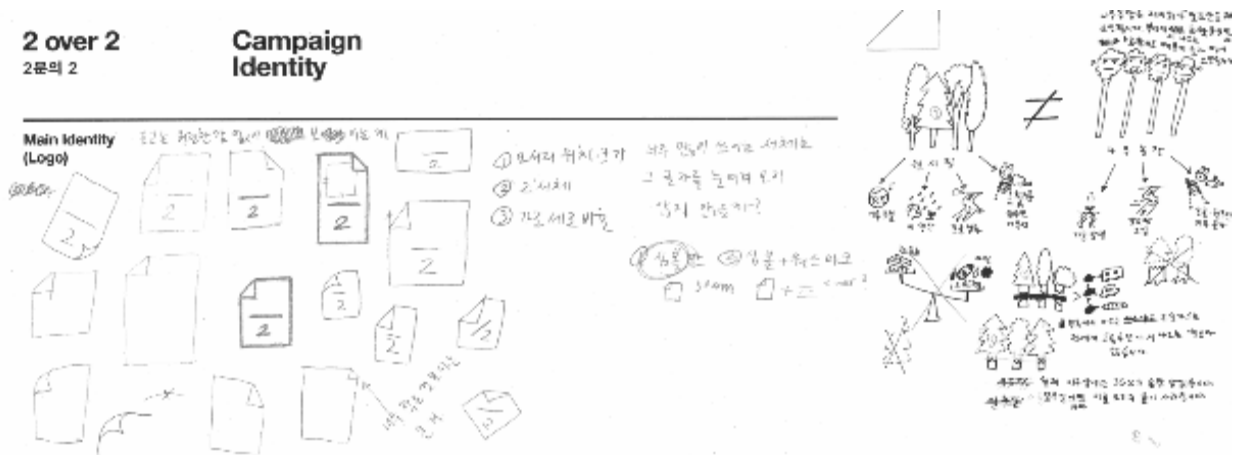
③ 북엔드

북엔드도 심볼을 응용해서 만들었다. 아이보리색 철제 북엔드에 심볼이 실크인쇄 되어 있다. 북엔드는 캠페인 참여 리워드이자 일상에서 이면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책을 고정하는 북엔드, 이면지를 표시하는 사이니지(signage), 명함꽂이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웹사이트 (www.twoovertwo.kr)

웹사이트는 캠페인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웹사이트는 메뉴 바와 심볼 모양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있다. 심볼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면지에 대한 생각을 모으는 프레임이 되어준다. 메인 화면에서는 프레임의 빈 공간에 각자 생각하는 '2', '이', '두 개' 등 2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돌아가며 보이게 해서 '2/2'가 완성되도록 했다. 메뉴는 캠페인, 인포그래픽, 생각, 사진, 4가지이다. 캠페인은 캠페인 소개, 인포그래픽은 엽서에 미처 다 넣지 못한 종이 관련 인포그래픽을 볼 수 있다. 생각, 사진 메뉴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 메뉴에서 '2'에 대한 이미지들을 모으고, 사진 메뉴에서 엽서나 북엔드를 사용하는 사진을 모은다.

캠페인 디자인을 하기 전 디자인 모티브를 찾기 위해 핀터레스트(사진,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나 여러 디자인 서적을 보며 리서치를 했다. 리서치 자료들은 선의 두께나 글꼴 등을 정하거나 컨셉을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리서치를 하고 나서는 심볼, 로고, 인포그래픽, 북엔드, 엽서, 웹사이트 순으로 작업했다.



캠페인 아이덴티티와 인포그래픽 스케치

심볼이나 인포그래픽은 단순해보이지만 테스트를 거듭에 거듭을 거쳐 나온 작업물이다. 글꼴부터 선의 두께, 여백의 크기 등 등 조금씩만 달라져도 인쇄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야 했다. 디자이너에겐 그런 자잘한 수정이 일상 같은 일이라 이런 이야기가 새삼스럽겠지만 — 학교에서 일을 할 때 큼직큼직하게 보고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뭐 보이겠어?'하며 '통치는' 분위기에 익숙했던 나에게는 어렵고 머리 아픈 일이기도 했지만 좋은 연습 기회이기도 했다.

인포그래픽에 쓰인 통계들은 2009년에 발간된 책에서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최근 수치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새로 찾아야 했다. 수치들은 종이 몇 장, 나무 몇 그루, 무게 등 여러 단위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걸 하나로 통일 시키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 애써 제일 힘들게 찾고 번역한 자료를 못 쓰기도 했다. 어찌 되었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그것이 불필요했으니 당연한 일이지 않지만, 학교에선 '과정에 대한 결과물'을 중요시했다면 회사에선 일단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걸(물론! 회사도 과정-결과 둘 다 중요하지만 비교적으로)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복엔드 실크인쇄 견학

복엔드의 경우 슬로워크에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어서 직접 총무로를 돌며 제작 업체를 알아보러 다녔다. 가격과 퀄리티를 동시에 신경 써야 했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만 우선 판단해야 했다. 가격차가 업체마다 너무 달라서 당혹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복엔드를 만든 뒤 실크 인쇄를 맡리게 되어 직접 보러 갔다. 하얀 복엔드에 내가 만든 심볼이 인쇄되는 걸 보고 있으니 신기하고 무척 뿌듯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다가,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업체를 알아보고 제작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꽤 새로운 경험이었고, 보다 응용물 제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다.

내부 업무 보조

앞서 말했듯 내 실무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내부 업무는 많이 돕지 못했다. 이미지 선 따기나 파일 변환, 원고와 파일 대조 및 체크,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 키트 제작 보조 등 비교적 간단하고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을 했다.

슬로데이(슬로워크에서 하루 하나씩 발간하는 인포그래픽)가 한 달 분이 모이면 오픈 소스(무상으로 공개하는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나는 3~5월 슬로데이 오픈 소스 작업을 했다. 슬로데이의 경우 하나의 그래픽을 이루는 여러 개의 그래픽 요소들을 따로 나누어 정렬하고 공개·배포한다. 나는 슬로데이 제작 파일에서 이미지들을 복사해서 정리하고, 선을 깔끔하게 따는 일을 했다. 간단하고 쉬운 작업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슬로데이를 작업하실 때 최대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려하며 작업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도 되었다.

어느 날은 보고서 인쇄 감리를 따라 갔다. 디자이너 언니들이 옆자리에서 열심히 작업하던 게 인쇄판에 찍혀있고 종이로 직접 나오는 것,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보고서들처럼 번듯하게 제본된다는 것이 새삼 신기했다. 감리는 인쇄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결과물을 보가며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 시간동안 언니들께 색감이나 인쇄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들었다. 사실 감리 견학 전에는 인쇄는 테크닉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색감이나 수평 등 꼼꼼히 살펴야 될 것이 많고, 기계 다루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여서 인쇄업자 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을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완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과물 자체를 의도했던 모습에 최대한 가까운 모습으로 뽑아내기 위해, 자기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꼼꼼히 신경 쓰시는 모습이 멋있었다.

블로그 포스팅 (www.slowalk.com)

슬로워커(슬로워크 구성원)들은 돌아가며 슬로워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 사회나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슈들을 소개하며 자기 생각을 덧붙이기도 한다.

인턴 기간 동안 나는 세 개의 글을 썼다(+학교로 돌아와서 이분의 이 캠페인에 대한 글을 하나 더 썼다). '제천간디학교', '통의동집', '펜펜 프로젝트'에 대한 포스팅이었다. 말일이 되면 블로그 이달의 글을 뽑는데, 내 학교 포스팅이 이달의 글로 선정 되서 상(문화상품권! 5만원!)을 받기도 했다. '통의동집'은 회사 근처에 있는 셰어하우스였는데,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포스팅에 실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출입이 가능한 공간은 구경했는데, 평소 관심을 많이 갖던 분야여서 재밌었다.

펜펜 프로젝트는 펜을 모아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캠페인인데, 직접물품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무척 예리해서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도 스스로 그 내용을 소화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디자인 사례나 사회·환경 이슈들을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글을 쓸 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데 더 신경 썼다면,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는 독자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려하며 글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제주도 워크숍 (4.17~19)



제주도로 2박 3일, 휴식 및 모꼬지 차원에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그 전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다. 워크숍 숙소는 가시리풍력발전소 안에 있는 '유채꽃플라자'였다. 첫 날 숙소에 도착해서 국민대 경영학과 노한균 교수님께 지속가능성(다른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나...?)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범우주적인 이야기로 흘러

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큰 그림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다음 날엔 다 같이 조랑말 박물관에 갔다가 조별로 이동했다. 나는 경영지원실 찬휘 팀장님, 웹실 윤기 팀장님, 디자인 기획실 송희 언니, 디자인실 은빈 언니, 은지 언니와 같은 조였다. 우리는 비자림, 카페송, 쇠소각, 올레시장에 갔다. 알차고 재밌는 일정이었다 :) 마지막 날엔 오름에 들렀지만 추워서 올라가진 못했고, 해변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워크숍 내내 꽤 춥고 날씨도 흐리거나 비가 왔다. 따뜻할 줄 알고 얇은 옷만 갖고 갔는데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다. 조별로 소규모로 다니면서, 저녁마다 모여 이야기하면서 회사에서 매일 볼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새삼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닝데이 (6.13)

버닝데이는 슬로워크에서 연 2회 진행하는 내부 프로젝트다. 팀을 꾸려 하루 동안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것이다. 주 업무인 클라이언트 잡, 타율적 노동에서 벗어나 자율적 노동 —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시간이다.

나는 디자인 기획실의 송희 언니, 디자인실의 도형 실장님과 한 팀이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주제’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게 과제였다. 사전에 각자 주제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내가 제시했던 ‘유기식물’ 주제를 할까 하다가 통계와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포기했다(이건 나중에 캠페인이든 프로젝트든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주제기도 하다).



공간 구성도, 피드백 전 결과물, 피드백 수정 후 최종 결과물

우리 팀은 ‘재난용 배낭’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하게 되었다. 먼저 기존에 돌아다니는 재난용 물품 리스트 자료들을 찾아보면 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하거나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등을 통해 다른 디자인 작업물을 보면서 디자인 스타일을 정하고, 면으로 각 요소들 레이어아웃을 정해두었다. 그리고 버닝데이 당일 각자 그릴 물품들을 정해 열심히 그리고, 송희언니가 계속 취합하며 디자인 스타일을 맞췄다. 난 워낙 손도 느리고 퀄리티도 떨어져서 두 분께 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계속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다행히 발표하기 전 우리가 의도한 데까지는 완성할 수 있었다. 발표 때 다른 분들의 결과물도 무척 흥미로웠다. 나는 인포그래픽의 한계나 범위에 대해 무척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방법과 형식들이 나와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상은 못 받았지만 다른 분들과 작업한 경험 자체가 무척 좋았다. 그 이후(인턴이 끝나고) 피드백에 대한 보안을 하고 블로그에 공유되었다.

2-2. 결산

교통비 (대략) $1,150 \times 2 \times 69 = 158,700$ (원) (여러분 도시락 싸세요 두 번 싸세요.)

3. 인턴십을 하면서 느끼고 얻은 것

피드백 주세요

나는 내가 하는 지적에는 무척 관대하고 받는 지적에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었다. 그 지적이 좋은 나쁘든, 나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는 '지적'이라면 빨간 얼굴을 하고 집에 가는 길 내내 지적한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 욕지거리를 하기 일쑤였다.

지금도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예민하겠지만, 인턴십을 하면서 그 과민함이 줄어들고 지적을 있는 그대로 듣기 시작했다.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내 프로젝트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처럼 편하진 않으니 딱딱딱 받아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곧이곧대로 다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적을 수용했을 때 결과가 더 나아지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조금씩 수용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다.

내가 즐거운 일

인턴십 기간 중 한 달 간 '이모랩'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에서 '베이직 드로잉'이라는 클래스를 듣게 되었다. 기억에 의존해 나를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한 번 더 그렸다. 콩알 눈, 일자 모양 코를 가진 캐릭터가 아닌 나, 사람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동안처럼 조금 그리다 망쳐버릴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연필을 놓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결국 두 그림 다 완성했고, 강사님께 선 느낌이 좋다는 칭찬도 거듭 들었다. 뿌듯한 마음도 들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구나'하는 생각도 하면서 집에 가는데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다.

선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때 마음이 선 것 같다. 그동안 수도 없이 생각했던, '내가 이걸 하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까?',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이 길을 밟는데 막상 내 길이 아니면?' 하는 고민이 아무려면 어떤가 싶어지고, 나는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그림 그리는 일'과 '디자인'은 다르다. 그래도 그 때의 그 기분과 확신감이 나에게 큰 동기가 되어준 것 같다. 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 업무가 나와 맞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했고. 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열려있는 '자유' 주제나 형식의 막연함에 대한 공포가 심한 편이다. 디자인 전 클라이언트로부터 주어지는 조건들이 도움이 되어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그걸 맞춰야 해서 괴로울 때가 많겠지만).

물라, 또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공부와 연습을 하면서 앞서 나온 고민들을 앞으로 수도 없이 하겠지만. 그 동안 내가 가장 필요했던 건 내 적성을 찾는 거나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실력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었던 것 같다.

'사회'적인 일터에서 일하기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통해 접했던 일터들, 왜 배웠는지 공감은 가지만, 대부분 내 희망진로와 너무 다른 분야거나 너무 다른 형태였다. 사실 비교적으로 내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형태가 많기도 하다. 하지만 배운 거밖에 아는 게 없는 나는 소규모 단체들만 찾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우연한 기회로 결국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하기 전 곁핍기로 본 슬로워크는 — 단순히 봤을 때 — ‘환경에 대해 고려하는 디자인 회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다시피 환경과 사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닌가. 일해 보니 슬로워크는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회사였다. 물론 거의 하루 종일 디자인실에 있으면서 디자이너님들의 푸념이나 전화 통화를 엿듣고 있으면 아직 그 노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다.

또 슬로워크는 ‘회사’지만 내 시선에서 ‘가족 같은 회사’를 표방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더 가족 같은 회사였다. 모두는 아니지만 언니, 오빠 호칭을 쓰거나, 이름을 부르는 편한 분위기다. 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면(물론 나가서 드시는 분이 더 많긴 하다)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한다. ‘슬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각자 모은 책을 사무실 공간에 함께 두고 읽는다. 생일이면 함께 케이크를 먹고 십시일반 모아 선물도 한다.

나는 낮도 많이 가리고 사람관계에 있어서 소심하고 민감한 편이라 어딜 가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슬로워크에서 지내는 네 달은 참 행복했다. 서로 배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신경 쓰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신경질적이고 빠른 업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부처만 모아둔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그런 분위기는 사람이 만들기도 하지만 제도도 크게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슬로워크는 새로운 구성원을 뽑을 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논의한 뒤 뽑는다(물론 대표님 면접도 있다). 또 사내 복지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보다 한 발짝 더 배려되어 있다. 첫날 휴가 규정이나 여러 사내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다른 회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보다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슬로워크 자체 캠페인도 환경이나 사회 이슈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이다. 2008년부터 하고 있는 ‘1 vote for green’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생각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캠페인이다. 올해 시작한 슬로데이도 디자인 회사로서만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사회적 이슈의 접근성과 이해도 상승, 오픈 소스를 통해 대중들도 쉽게 디자인 가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인다. 4대강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로 사라지는 생물들을 다룬 ‘안녕’ 시리즈도 환경 이슈에 대해 지각 시켜준다. 버닝데이 주제들도 같은 맥락의 주제가 주어진다.

제도나 일의 방향성, 분위기 등 크고 작은 요소들이 잘 맞물려서 둥글둥글한 슬로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라, 4개월 동안이라 좋은 부분만 보고 온 건지도 모르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던 것부터 개인적으로 나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나에겐 과분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얻게 해 준 곳이었다.

인터뷰 中 기억에 남는 말들 (슬로워크 임의균 대표님)

- 디자인은 어떤 학문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것 같아.

- 일을 잘하려고만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을 하나 마무리를 잘 지어보는 것도 중요해. 힘들지만 일을 하나 마무리 지어보면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겨.
-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두 잡을 했어.
- 돈이 아니어도 끊임없이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 사람이 솔직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숨기려고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다 공유해야 되거든.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
- 스토리텔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 같아.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됐지. 스토리텔링, 브랜딩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 스토리텔링이 사건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변했 다잖아. 우리에게 블로그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
-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가면서, 서로 보폭을 맞추면서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했지.
-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잘 해주기 쉬운데, 아니면 쉽지가 않아. 그래도 그걸 해야겠더라고.
-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업을 못하고, 상처를 두려워하면 연애를 못하고, 죄책감을 두려워하면 낯선 것에 대한 맛을 못 봐.
- 디자이너가 자율적 노동을 해야 건강한 거 같아. 타율적 노동만 하다보면 자아가 없어져. 디자인은 수단이고 도구잖아. 목적이 아니고.
- 예술가는 갑이고 디자이너는 을이야.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있잖아. 노동의 대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디자이너가 피곤한 거야. 타율적 노동을 많이 해.
- 디자이너는 글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글도 잘 안다면 더 훌륭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좋은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안 하고도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 최소한의 꾸밈으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아는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거지. 그런 디자이너가 남도 배려할 줄 알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아는 거야.
- 디자인은 협업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디자인은 같이 만드는 거잖아.
- 너의 등지와 세상을 보는 렌즈를 가져.

(궁금하시죠? 붙임의 인터뷰를 참고해주세요 :>)

'함께' 하는 디자인

대표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협업 잘하는 디자이너가 제일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잘한다는 말씀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배려하고, 이해해야 니즈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인터뷰 녹취를 풀어 쓰면서 학교에서 공동체의 가치,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 성격에 학교를 오지 않았다면 드세고(물론 와도 그렇긴 하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다. 학교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면서 디자인에서 중요한 '협업'을 나도 모르게 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주 솔직히, 나는 디자인이 다른 일들에 비해 움직임이 소극적이고 수식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슬로워크에 다니면서 아예 그 생각들을 들어내고 새로 차곡차곡 쌓은 기분이다. 아직 개념도 용어도 다 어려워져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모든 일에 적용 가능하고, 그 일들을 훨씬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 계단이 디자인이 아닐까 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붙임-1. 일지

2014. 3. 3 (첫 출근 날) / 길치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많은 그 동네의 그 길이었다. 신기했다. 학원 때문에 너무 일찍 도착했는데 새로 오신 (슬로워크에서 일하셨던) 디자이너님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조금 했다. 10시에 대표님이 오시고 한분 두 분 오시면서 인사를 드렸다! 아직 잘 모르지만 다들 좋은 분 같다고 생각했다 :) 오전에는 신입구성원 교육을 했다. 사내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휴가, 추가 근무 수당, 제너럴닥터 이용, 운영비, 식비 등등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회사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스템 운영 체제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밖에서 필요하다고 들 하니가 겹치레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정말 살아가며 필요하니까 만든 제도처럼 느껴졌다. 정당하고 여유로워보였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혼자 나름대로 큰 감명을 받았다.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디자이너 분이 생일이셔서 촛불을 불고 케이크를 먹었다! 그 때 다 모여 있어서 핑도 디렉터님이 간단하게 나를 소개시켜주셨다. 아직 다들 어색하지만 앞으로 세 달이나 있을 텐데 나아지겠지? 얼굴이랑 이름도 얼른 외워야하는데 너무 많다... 슬로워크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한명씩 돌아가며 하루에 한 번 글을 쓰는데 공익적이거나 세상에 이로운, 대안적인 무엇이든 소개하는 그런 포스팅을 한다. 이 블로그가 슬로워크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한 몫 하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슬로워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알려주면서 스스로도 그것을 확립해나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다. 블로그 교육 관련 페이퍼를 나눠주시고 설명해주시는데 사소하지만 지켜지면 보기 좋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디자이너구나'하고 생각했다. 나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게 되는데 나에게서는 한 번 이상은 꼭 쓰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셔서 조금 두렵기도...ㅋㅋㅋㅋ 그 외에는 내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블로그를 읽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 연습을 했다. 내 자리는 디자인실 구석이다! 생각보다 내 공간을 많이 주셔서 놀랐다. 다른 디자이너 분들과 똑같은 책상 똑같은 의자 똑같은 컴퓨터를 쓴다. 아무튼 아직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툴을 다루는 건 어렵지만 책에 나온 걸 하나씩 따라하면서 연습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넘어가려다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려워 다시 돌아가게 된다... 열심히 연습! 다들 너무 바빠 보이셔서 짐작처럼 방해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ㅠㅠ

2014. 4. 23 / 블로그 글 썼고, 심볼 테스트를 했다. 한글로 했다. 디렉터님이라길우 오빠랑 회의하는데 나는 별 생각 없거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얹어지고 뒤집혀서 머리가 핑글핑글...ㅋㅋㅋㅋㅋ 절망에 빠졌다. 그래도 그게 현실이니. 적응해야지. 나는 열심히 항상 캠페인을 염두에 둔다고 두는데, 날카로운 지적이나 질문이 던져지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 항상 당황하고 절망한다. 기획자의 시선 반, 참여자 혹은 보통 사람의 시선 반으로 일을 바라볼 것!

2014. 5. 8 / 오늘은 3시부터 5시까지 이분의 이 캠페인 리뷰를 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부담을 버린다고 버렸더니 한결 가볍게 할 수 있었다.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다들 부드럽게 말씀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중간 중간 버벅거리고 황설수설해도 웃으면서 격려해주셨다. 새삼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느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엽서랑 포스터 지적이 많아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거 같다. 막막하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고민 지점이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 길우 오빠 핑도 디렉터님께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압 힘내자!

붙임-2. 인터뷰 (슬로워크 임의균 대표님)

슬로워크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01년에 '스튜디오 공공'이라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부터 시작했어. 슬로워크의 전신이었지. '슬로워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05년이야.

원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떤 계기로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꿈이나 뜻이 있어서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되셨어요?'라는 질문인데, 실망스럽겠

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 대학에 갔지만 그 도제식 교육이 싫었고, 과도 계속 옮겨 다녔어. 회화과, 미디어 아트과를 거쳐 영상과를 최종으로 졸업했지. 사회나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그것들이 주 작업 소재이긴 했어. 성남외국인노동자 의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퇴촌에 중군위안부나눔의집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인권 관련 작품을 만들기도 했지.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안국역을 지나가는데 밖에 참여연대 간판이 보이더라고. 뭐하는 곳일까 하고 찾아보니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 문화사업국에서 6개월 정도 자원봉사를 하다가, 월급 받으면서 6개월 정도 더 일했던 거 같아. 나는 건물 2층의 복합공간인 ‘철학마당느티나무’에서 전시 기획을 맡았고, 그 외에 사무보조도 했어. 그러다 다니던 학교가 재미없어서 유학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그 때 사무처장이셨던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미술을 전공해서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어. 홈페이지 초창기라 자료도 별로 없었지만 밤새면서 열심히 만들었어. 결과물이 좋아서 칭찬도 많이 들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시작한 것 같아.

+ 참여연대에 다닐 때, 일도 많고, 월급도 적고, 밤새면서 하다 보니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일까 싶고, 너무 힘들어서 잠수를 댔어. 얼마 안 있어 참여연대에 나보다 열두 살 많으셨던 분이 찾아오셔서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 의군 씨가 일을 잘하려고만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을 하나 마무리를 잘 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힘들지만 일을 하나 마무리 지어보면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 그 얘기가 귀에 확 들어와서 돌아가 열심히 했지. 지금도 힘들 때 가끔 그 생각을 해. 내가 이걸 마무리를 잘 지어보면 다음에 더 잘하겠지. 자신감도 생기고 내공도 늘고. 그럼 그 다음엔 좀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고.

3명이 있던 스튜디오에서 지금은 20여명이 있는 회사가 됐는데, 슬로워크 규모가 커질 줄 예상하셨어요?

못했지. 그 땐 회사를 키워야겠다는 꿈도 없었어. 왜냐면 먹고 살 걱정, 직원들 월급 줄 걱정이 더 컸으니까. 그 당시엔 퇴사하는 이유가 몇 달치 월급 체불인 경우가 태반이었어. 그래서 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투 잡을 했어. 스튜디오 일 하면서 드라마 미술 PD 하고 그랬지. PD 일로 받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서 시민단체들한테 무료로 디자인 기부해주고 그랬지.

공짜로 해 준 이유?

비영리 쪽은 빨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야하거든. 20대 후반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게, 난 베스트가 될 자신이 없었어. 과연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하다 ‘best’가 아니라 ‘only’를 해봐야겠다. 비영리 쪽 일을 하면서 비영리 홍보나 브랜딩 사례가 거의 전무하더라고. 이 영역에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감이 있었지.

어느 날 맡게 된 일이, 비영리 영역의 캠페인 엠블럼, 리플렛, 포스터,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이었어. 근데 받은 예산이 딱 인쇄비용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쇄부 사장님께 손해보고 일해야 된다고 사정하니 안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캠페인 담당자, 나, 사장님 이렇게 소주 한 잔 하면서 삼자대면을 했지. 그랬더니 믿어주시고 담당자를 같이 설득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더 받아서 할 수 있었지. 그 이후로도 사장님이 날 좋게 봐주셔서 회사 자리 잡을 때까지 인쇄비용을 안 받겠다고 해주셔서, 도움을 엄청 받았어. 그 빛도 거의 다 갚아가. 그래서 나도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충무로에서 친환경 콩기를 잉크 인쇄를 제일 일찍 도입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도와드렸지.

저 일처럼 예산 관련해서 곤란했던 일이 또 있었어. 비영리 단체에서 엽서를 1000장 만들어달라고 준 예산이 700장 인쇄비만 나올 돈인 거야. 일단 700장 인쇄를 하는데 감리를 가서 보면 재단 안 하고 버리는 자투리 종이가 많이 나오거든. 그게 참 아깝길래 가져와서 직접 재단해서 1000장을 맞춰서 갖다드렸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좋은 분을 소개해주셨어. 환경 컨설팅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1년 정도 함께 일하면서 환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그 분을 통해 또 좋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었지. 돈이 아니어도 끊임없이 사람간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규모가 작았을 때와 커졌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작았을 때가 재밌었어. 내가 ‘only’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는데, 난 남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내 장점을 발휘 못해서 내가 직접 그 프레임을 만든 거거든.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그에 맞게 내 프레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레임을 어느 정도 수

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구성원이 많아지니까 책임감도 점점 더 커져서 스트레스는 좀 더 가중된 거 같아. 규모가 작았을 땐 비영리 단체에 디자인 기부도 많이 해줬어. 지금도 그렇게 무료로 해주다 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거야. 대신 지금은 스프링 같은 시스템을 통해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지.

사내 복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복지 같은 경우도 전엔 내가 혼자 '복지는 좋은 거니까, 많이 신경써줘야겠다'하고 대표의 호의로 만든 거거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자 다른 걸 원하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지금은 다 같이 회의를 해서 근무 시간이나 휴가 규정을 정하지. 우리는 법적근로기준법보다 더 진보된 형태를 해보자 해서 법에선 무급인 항목이 우리 회사에선 유급인 것도 있고, 90일인 것도 120일로, 안식월 제도도 우리끼리 정하고.

이런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렵진 않으세요?

어렵지 당연히. 사실 우리 슬로워커들이 야근도 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 복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안 해.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욕심을 좀 더 부리지 않았으니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부끄럽지만. 내 생각에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최고의 복지는 '불안해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슬로워커가 아직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는 아니거든. 비영리 단체의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함께 일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싸게, 빨리'거든. 일에 있어서 영리 기업의 비율을 늘리고 있기도 해. 조직이 성장할수록 운영하려면 소득이 있어야하니까.

+ 많은 디자인 회사들이 좋은 고객(돈이 되는)을 하나 잡고 일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큰 고객 없이 작은 고객들이 되게 많거든. 경기도 안 타고 영업도 안 해도 돼.

회사 팀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회사가 작았을 땐 내가 멀티플레이를 했지. 재무도, 회계도, 세금도, 기획도 다 내가 했어. 지금은 조직이 커졌으니까 조직 관리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하지. 경지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경지실이 없었다면 썸썸이도 컸을 거야. 경지실은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긴 거라고 봐. 기획실은 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외주를 받는 대신,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획실을 가지고 있으면 이윤도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더 큰일을 할 수 있겠다 했지.

슬로워크를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 아니면 요즘 드는 생각?

육아휴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직원들을 좀 성장시켜야겠다,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줘야겠다. 강연이든 원고 청탁이 보통 다 나에게 오는데 이제 내가 안하고 팀장, 실장님들에게 부탁하거든. 그게 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슬로워크를 만들긴 했어도 모두의 슬로워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돈, 명예,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도 깔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고민도 하나 하고 있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신가요?

제작년이 가장 힘들었어. 내가 어린 나이에 대표를 했잖아. 그걸 10년을 하니까 독선적으로 변하더라고. 제작년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한 명을 내보냈어. 회사가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라, 회사가 너무 가치 중심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 내 시선, 대표의 시선이었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했지. 돌이켜 보면 사람을 잘라보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사람을 잘랐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속상한 부분에 대해 쓴 메일을 받았고, 그 여파로 다른 사람들도 나갔어. 사람을 자를 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그 땐 생각을 못했지.

그 때 우리 조직원의 반이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충격이 커서 회사를 2주 동안 안 나갔어. 그 때 혼자 여행을 갔어. 그 때 객관적으로 날 바라봤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빨리 인정하니까 그 때 보이더라고. 뭐든 혼자 결정하니 당연히 다른 조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그 땐 내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뭐가에 쫓겼고, 갑자기 성장하니까 나도 준비가

안됐던 거 같아.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가면서, 서로 보폭을 맞추면서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했지.

여행을 다녀오고, 회사를 이쪽으로 이사하고, 갈등도 봉합되고 다시 다 데려오면서 대통합의 시대를 열었지. 그 사건 이후로 많이 깨닫고 내가 갖고 있던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다른 사람들에게겐 별 거 아니라고 보이겠지만. 내가 10년 내내 했던 걸 놓는 게 섭섭하고 정말 힘들었어. 지금 보면 인정하고 놓길 잘한 거지. 다 넘겨주고 믿으니까 다들 열심히 잘 하더라고. 그 때 나갔던 직원들 생각하면 맘이 아프지. 그 때부터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명절에 선물을 보내.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잘 해주기 쉬운데, 아니면 쉽지가 않아. 그래도 그걸 해야겠더라고.

+ 앞으로 살면서 돈이 없어서 힘들면 열심히 살아서 돈 벌면 되고, 일이 많아서 힘들면 열심히 해서 해치우면 돼.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정말 힘들어. 또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업을 못하고, 상처를 두려워하면 연애를 못하고, 죄책감을 두려워하면 낯선 것에 대한 맛을 못 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안녕 4대강 프로젝트가 그래. 그 작업이 결과물도 잘 나왔지만 슬로워크의 디자인 결을 만든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 후배들이 영향도 많이 받았고, 과정도 재밌었어. 4대강 때문에 사라지는 멸종위기종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색은 다 빼고 작업하기로 했어. 아이폰 바탕화면용 이미지를 만들어서 트위터로 공유를 했더니 오늘의 트윗에까지 오르더라고. 반응이 좋아서 포스터로 만들어보자, 했지. 포스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작업했던 것들의 학명이 정확하지 않은 거야. 사람들은 작업할 때 완성물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설프지만 우리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올려보자 해서 블로그에 올렸지. 그랬더니 SNS에 학자들이 조언 댓글을 달아줘서 무척 고마웠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더 완벽하게 포스터를 만들 수 있었어.

포스터를 2천장을 찍어서 무료로 배포했는데, 그걸 본 외국인이 영어로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도 만들고. 그 내용을 가디언즈나 트리허거 등 외신에 보냈는데, 트리허거에 실린 거야.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 또 그걸로 연말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 그 달력은 인쇄소에서 버려지는 여러 색의 잉크를 다 모아서 찍어서 1도(검정색)야. 달력 판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작업한 디자이너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남은 200여만 원 정도를 모두 녹색연합에 기부했어. 당시에 녹색연합이 4대강 반대운동을 했거든.

녹색연합에서 고마우니까 제안을 하셨어. 슬로워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녹색디자인산책'이라는 꼭지를 써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작년까지 2년을 썼고, 원고료 대신 현미 쌀을 받았어. 그 현미 쌀로 같이 밥을 해서 먹으니까 소통이 더 잘 되고. 이게 거의 3년 가까이 벌어진 일이야. 스토리텔링인 거거든. 스토리텔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 같아.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됐지. 스토리텔링, 브랜딩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 스토리텔링이 사건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변했다잖아. 우리가 블로그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4대강 프로젝트도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

+ 독도 문제라던가, 서해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밌는 프로젝트거든.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정치적인 요소를 다 빼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인포그래픽이 나올 거야. 맨 끝에 슬로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콘텐츠를 뽑을 때도 제3자의 입장, 3인칭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사내 캠페인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하게 있지.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예술가는 갑이고 디자이너는 을이야. 예술가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디자이너는(물론 작가주의적으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어) 클라이언트가 있잖아. 노동의 대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디자이너가 피곤한 거야. 타율적 노동을 많이 해. 근데 사람은 자율적 노동을 해야 하거든. 예를 들어 버닝데이를 보면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잖아. 그게 만약 클라이언트 작업이었다면 일주일이나 돼야 저렇게 나올 거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확 올라가는 거야. 다른 캠페인들도 마찬가지지.

+ 디자이너가 자율적 노동을 해야 건강한 거 같아. 타율적 노동만 하다보면 자아가 없어져.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소비와 아주 밀접한 직업이야. 소비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하니까. 디자인은 수단이고 도구잖아. 목적이 아니고. 근데 다행히 우리 클

라이언트들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 우리가 비영리, CSR 쪽 일을 하는 게 안 좋은 일을 포장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점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내가 잘 안 봐. 구성원들이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서 뽑지. 물론 최종면접은 내가 보긴 하지만. 우리 슬로워크에서는 전 직원들이 같이 채용하는 편이야. 디자이너는 협업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나도 30대 초반까지 내 디자인이 최곤 줄 알고, 누가 말해줘도 귀담아 안 들었어. 디자인은 같이 만드는 거잖아. 협업을 해야 할 땐 어쩌면 디자인 비전공자가 더 잘 할 때도 있지.

나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 디자이너는 글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글도 잘 안다면 더 훌륭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 행간, 자간을 많이 봐. 여백을 이용해 얼마나 글을 잘 잡는지. 그런 걸 잘하는 디자이너가 다른 디자인도 잘 하는 거 같아. 좋은 디자이너는 자기소개서 한 장으로 자기 디자인 역량을 다 보여줘.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 디자이너?

좋은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안 하고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멋지게 얘기하자면 최소한의 꾸밈으로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아는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거지. 그런 디자이너가 남도 배려할 줄 알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아는 거야.

《우리 정신, 우리 디자인》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 디자인도 ‘인의예지’라고 인은 인성, 의는 가치(좋은 뜻), 예는 형식, 지는 지식이야. 지식이 많은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고, 형식이 좋은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사람의 인성. 《착한 책》 표지엔 ‘착하다’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야. 착한 디자이너가 잘하는 거 같아.

+ 나는 지인이 너가 두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는 너의 등지, 하나는 세상을 보는 렌즈. 나는 전에 슬로워크가 등지가 아니라, 뗏목이라고 생각했어. 뗏목은 강을 건너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 뗏목을 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스스로 뗏목이 돼 볼 생각은 못하고, 이게 착한 생각일거라 착각에 빠진 거야. 우리 직원들을 못 떠나게 하겠다는 자만심에서 나온 생각이었지. 실제로 그러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슬로워크가 등지 같아. 여기서 성장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등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등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 인터뷰 해주신 임의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

부록-3. 고마워요

항상 편하게 배려해 주시고 즐겁게 얘기 나눠 주신 모든 슬로워커 분들, 인터뷰 해주신 대표님, 이사님, 혜진 팀장님, 옥연 언니, 이분의 이 열심히 밀어주신 펑도 이사님과 길우 오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지원해 준 엄마, 할머니, 가끔 나타나 치킨 사 주신 선호쌤 감사! 슬로워크는 사랑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턴십 4개월의 기록.

일상예술창작센터 / 2.21~6.20

나현준

목차

1. 준비

- 인턴십에 들어가기 전
- 일상예술 창작센터는?
- 사전 준비

2. 활동

- 시골에서 도시로
- 내가 한 일들

3. 마무리

- 인턴십을 마치며

1. 준비

- 인턴십에 들어가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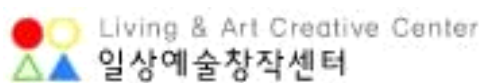
작년 겨울, 학교의 최고 학년인 6학년이 될 거라는 현실과 함께 인턴십 준비가 나에게 닥쳐왔다. 사실 인턴십에 대해서 그전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학교 내에서 노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기에 다른 많은 것에는 무관심했다.

급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2년의 무빙 동안 강정, 진주의료원 같은 투쟁 현장만을 다녀온 나로서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적 배움의 욕구가 있었고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항상 시골에서만 생활하던 나였기에,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서울 생활에 대한 환상 또한 있었다.

단체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여러 단체를 찾아보며 물어보며 마음에 드는 단체에 연락을 많이 했었지만 다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일상예술 창작센터를 알게 되었고 정보들을 찾아보며 나는 딱 느낌이 왔다. '여기다!' 하여 연락을 하고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센터에 찾아가 보았다.

서울에서 사람 많기로 유명한 홍대에서 추운 겨울, 센터를 찾으려 흑백으로 뽑은 지도 한 장 가지고 센터를 찾아 다녔다. 중간에 길을 잃어 버려 구둑방에 가서 전화도 빌리며 겨우겨우 센터에 도착했지만 약속 시간은 훨씬 지나 있고 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미팅을 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상상이 된다. 그렇게 국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여기 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들으며 청소년 인턴을 많이 받아 보아서 잘 알겠다는 말을 들으며 나의 인턴은 결정되었다.

-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일상예술창작센터는 문화 생산과 소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2년 6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으로 시작하여 프리마켓 기획단이 독립하고 2003년 5월 일상예술창작센터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총 네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생활 창작시장'에서는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명랑시장, 문화시장 기획 및 컨설팅을 한다. '생활창작공간 새끼'는 생활 창작 강좌, 연구, 아티스트 모임과 교류, 워크숍 등등 창작으로 만나 소통하고 창작으로 새로워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생활창작 교육'에서는 시민을 위한 창작 강좌,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역 커뮤니티 강좌, 장애인 드로잉 강좌 등으로 생활을 살아 있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육과 만남을 만들어 간다. '문화 기획'에서는 디자인 기획과 대행,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형물 제작, 시민체험 프로그램, 거리 공연 기획 등 사람과 문화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만들어 간다.

나의 활동은 센터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장 '프리마켓, 명랑시장, 마을시장'을 준비, 운영 및 기획부터 새끼에서의 활동, 기본적인 사무, 잡일, 공연자 관리, 일정 조율 등 전체적으로 소소하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13주년 행사 기획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단체에서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인턴을 했다.

- 사전 준비

이때까지 선배들의 인턴 발표를 보며 항상 배우고자 했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턴 기간 동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직

접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쓸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2월 말쯤부터 인턴십을 시작하기로 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처음엔 스키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수열이의 도움으로 '외국인 관광객 사진사' 일을 할 수 있었다. 일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딱 잠만 잘 수 있을 만한 쪼그만 한 고시원에서 얼마 편하게 자지도 못하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미치도록 사진사 일을 했다. 가이드님과 기사님의 보조를 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잡다한 일은 다 처리하며...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 내 19년 인생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미 나의 인턴십, 사회 맛 보기는 시작되었던 것 같다.

2. 활동

- 시골에서 도시로

19년 인생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자라고 컸다. 집 앞에 도로보다는 논과 밭이 익숙하고, 기숙사 가는 길에 있는 반딧불이와 하늘높이 보이는 많은 별들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서울 생활에 대한 기대는 인턴십이 다가올수록 높아졌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약간은 급하게 서울로 상경하였다.

2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신림역 근처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기중이와 함께 약 4개월간의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좋고 새로웠던 것 같다. 작은 원룸이 오로지 나만의 공간이며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런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쳐 출근길 사람들에게 치여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은 매일 아침이 공포였고, 설상가상으로 센터 직원분들과, 팀장님, 국장님 등 대부분의 직원 분들이 나랑 코드가 잘 맞지 않아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피곤이 누적되고 주말엔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고, 한 달이 넘어갈 때까지 서울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관계, 생활에 대해 굉장히 힘들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점점 지나갈 때 즈음해선 집 앞에 있는 도로와 지하철 입구가 있는 게 익숙해 졌고 숙소 가는 길에 별이라도 한번 보려 하늘을 보면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

- 내가 한 일들

나의 센터에서의 포지션은 철저히 '청소년 인턴'이었다. 작년 12월 처음 센터 방문 후, 2월 21일에 정식 출근을 했다. 나는 총 세 개의 시장(프리마켓, 명랑시장, 마을시장) 준비 및 운영부터 워크숍 진행, 13주년 행사, 각종 공연자 관리 및 일정 조율, 잡다한 사무 등 많은 일을 했지만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센터의 분위기, 사람들, 서울 생활의 고단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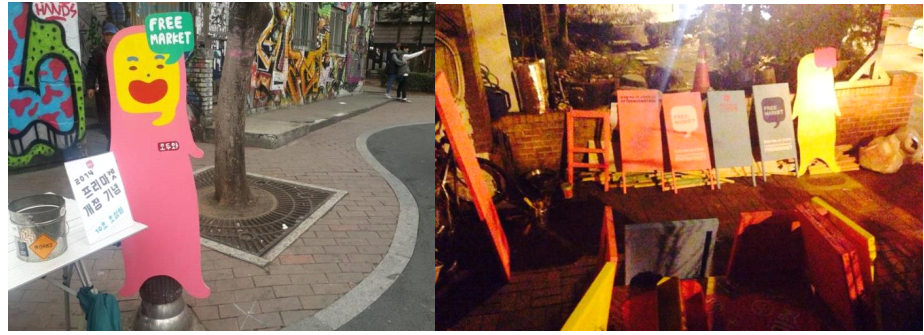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창작하는 이들, 1인 창작가, 예술가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홍대앞 놀이터에서 13년째 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안시장인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을 매주 준비하는 것은 내가 센터에 있으면서 한 일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었다. 특히 이 프리마켓 안에 있는 홍대 인디뮤지션들을 위한 무대인 '애프터눈 스테이지' 준비, 진행 및 스케줄 관리는 오로지 '나만의 일'이었다.

프리마켓에 필요한 입간판 제작부터 시작하여, 매주 장비 체크, 리플렛 확인, 자리표 만들기, 뮤지션 섭외, 일정 조율, 사진 정리 등 준비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했다. 필요한 목공 작업, 짐 싣고 옮기기 등 센터에 남자가 대표님이랑 나,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쓰는 일. 힘든 일들은 다 대표님과 나의 차지였다.



프리마켓 메인 이미지



프리마켓의 마스코트 모두와

직접 제작한 프리마켓 물품

특히 대표님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이 힘든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었다. 같이 일을 하면 항상 나에게 “영혼 없는 작업을 하는구나.”라며 말로만 잔소리를 하시니 정말... 또 대표님이 알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야 했다. “저기야 그거 가지고 와”하면 그게 뭔지 알고 빨리 가져 와야 하는 일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프리마켓은 참가자와 시민, 활동가와 공연자들이 다 같이 모여 만들어 나가는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공연자 모임, 참가자 모임이 있고, 매달 두 번씩 참가 설명회가 있다. 그 자리에선 올해의 현안들이랑, 앞으로의 방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올해 현안은 ‘주폭’이었다. 실제로 나 같은 경우 처음으로 나간 프리마켓에서 주폭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갔었는데, 정말 심각함이 몸으로 느껴졌고, 또 많이 당황스러웠다.



2014년 상반기 활동가



애프터눈 스테이지



나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애프터눈 스테이지’는 홍대앞 놀이터에서 프리마켓이 진행되는 동안 놀이터 안 무대에서 진행된다. 홍대 무대가 필요한 인디 뮤지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무대다. 별다른 참가 조건은 없고 장르도 불문이다. 실제로 공연하시는 분들의 장르는 힙합부터 춤까지 다양하다. 단 자작곡, 실력 등이 있어야 다음에 또 불러주는 방식이다. 나는 여기서 거의 모든 걸 만들어 갔다. 공연 신청 정리부터 공연 일정 관리, 물품 관리, 현장에서의 진행 등을 하며 많은 공연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굉장히 재밌었다. 내가 좋아하는 라이브 공연을 가까이서 보고 엔지니어링하며, 같이 ‘애프터눈 스테이지’를 재미있게 만들었다.



‘애프터눈 스테이지’ 포스터

프리마켓 진행 중에 많은 워크숍도 진행했는데 그 중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배지 만들기’ 워크숍을 약 3주 가량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6월의 첫째 주 토요일은 프리마켓이 만들어진 기념일이다. 올해는 6월 7일이 13년 기념일이었고, 이에 필요한 기획 행사를 준비했다. 시장운영 팀 회의를 통해 ‘손 잇는 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드레스 코드도 정하고, 떡도 하고, 포토 존도 만들고, 창작자, 시민, 공연자 모두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진행했고 난 공연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노래하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 잇는 날’ 포스터

‘이야기로 노래하자’ 포스터

직접 제작한 포토존

프리마켓은 우리 일상예술 창작센터와 창작자, 공연자, 활동가들이 다 같이 만들어 가는 행사다.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도움이 있었기에 13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흥대라는 특수한 공간을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또 외국인들에게 많은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포구청에선 필요할 땐 자기를 편한 대로 홍보를 하면서 노점상들도 끌어다 쓰는 혼한 전기 쪼금도 못쓰게 하는 행태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존경해 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13년째 곳곳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끌어 온 팀장님과 국장님을...

연남동 마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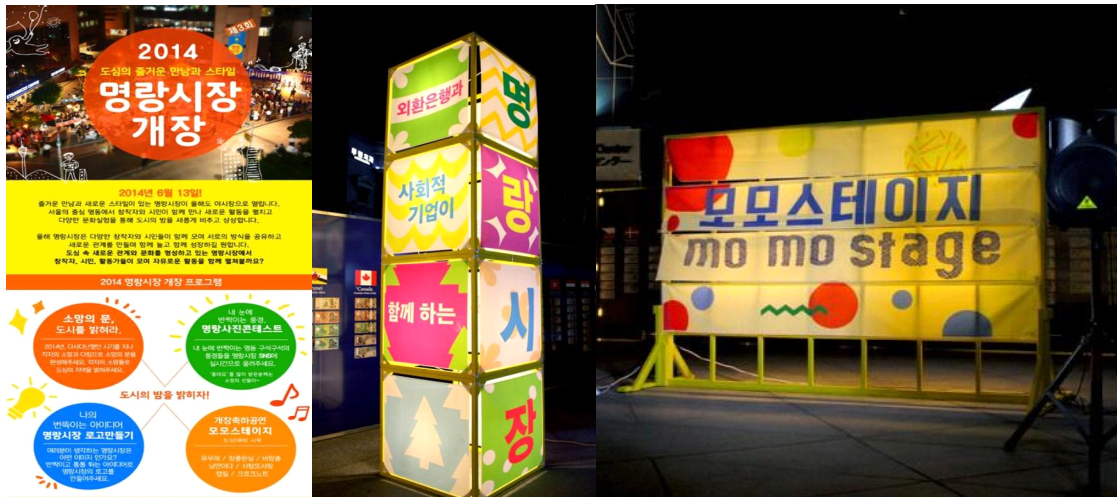
연남동 마을시장은 1년에 딱 4번 열리는 마을시장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에 필요한 활동을 만들고 즐기는 마을 축제이다. 이곳은 프리마켓과 다르게 창작자, 예술가가 아니라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쓰던 물건, 만든 물건, 재배한 작물 등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또 재미있고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진행할 수 있는 워크숍 진행 등이 있는 아주 재미있고 활기찬 행사이다. 참가비는 참가자들의 수익의 10%를 자율적으로 내려 수익금은 연남동 마을을 가꾸는 데 쓴다고 한다.



나는 4월 13일과 6월 15일 있었던 총 두 번의 마을시장을 준비하고 진행, 정리했다. 프리마켓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목공 작업과 공연 관련된 작업들을 했다. 또 마을시장의 경우 베틀시장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 더더욱 자잘한 준비들이 많이 필요했다.

명랑시장

명랑시장은 6월부터 시작되는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리는 시장으로 작년부터 야시장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중심 명동에서 창작자와 시민이 함께 만나 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문화실험을 통해 도심 속 새로운 관계와 문화를 형성한다.



올해 명랑시장의 경우 6월 13일이 개장이었으며, 그에 따른 개장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하고 진행했다.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인 ‘소망의 문, 도시를 밝혀라!’, 반짝이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맘껏 뽐내는 ‘명랑시장 로고 만들기’, SNS를 이용한 실시간 이벤트 ‘명랑사진콘테스트’, 개장 축하 공연 ‘모모스테이지’ 이렇게 총 네 개였다.

이 중 내가 맡아서 준비하고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소망의 문’과 ‘모모스테이지’였다. 소망의 문과 모모스테이지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제작하고, 모모스테이지에 올라갈 뮤지션들을 섭외하는 등 정신이 없었다. 특히 6월 13일 명랑시장 개장, 6월 14일 프리마켓, 6월 15일 마을시장까지 쉬지 않고 3개의 시장을 열어야 되었던 시기라 특히 많이 힘들었다. 매일같이 10시가 넘어 퇴근했으며 행사 시작 며칠 전부터는 거의 마지막 지하철의 타고 집에 들어간 것이 기억에 남는다. 행사 당일엔 오전부터 정신없이 준비를 했다. 어둠을 밝혀줄 조명 작업부터, 무대 설치, 운영 본부 관리 등 준비를 했다. 이날 현장에서 난 모모스테이지에 붙어 명랑시장을 만들어갔다.



소망의 문

모모스테이지

그 외의 잡무

* 각종 사무-마켓들이나 워크숍 준비를 하지 않을 땐 센터 내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타거나 각종 일에 필요한 물품 관리, 엑셀을 이용한 자료 정리 등이 센터에 있으면서 가장 흔하게 한 작업들 같다. 나로서도 책을 읽기 보단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괜히 쓸데없이 목공방, 창작방을 청소한다던가, 물품을 뒤적거리며 정리 아닌 정리를 했던 것 같다.

* 웹진- 매주 두 편씩 프리마켓 홈페이지에 한 주간 있었던 특별한 일, 다양한 이슈, 일상에 일들에 대해 웹진을 작성하여 게시했다. 글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이 웹진을 쓰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도 두 편을 써야 했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다.



웹진 작업

3. 마무리

- 인턴십을 마치며

2월 21일부터 6월 20일. 겨울의 끝자락에 시작하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생활하며 지낸 기간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을 것 같다. 많은 만남이 있었고 힘든 일, 즐거운 일, 별별 일이 다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이런 생각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다.

서울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고민들을 깊게 할 수 없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은 정말 수동적으로 일을 하며 시키면 시키는 일만 딱 하고,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행사들이 아닌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센터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고 난 후 센터와 현장에서 일하는 팀장님, 국장님의 모습이 눈에 보였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필요할 때만 홍보를 위해 마음대로 프리마켓을 이용하고, 제대로 된 지원 하나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어이 없었고,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곳곳이 자리를 지키며 홍대 앞 건전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센터의 모습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꼈다. 또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사회적인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소중한 것을 선물 받은 것 같다.

센터는 최고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평소 내가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배움이라기 보단, 새로운 것에 경험하고 도전하는 부분이 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 인턴 생활 중반이 넘어갈 동안 서울 생활에 힘들어하며 센터에서의 활동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야 많이 친해진 센터 직원분들과의 관계일 것이다.

처음엔 마냥 모든 게 힘들었다. 센터 일도 싫었고 짜증났고 그냥 다 스트레스였다. 매주 하는 프리마켓도 귀찮았고 아침마다 센터에 나가 청소하는 것도 너무 싫었다. 대표님 얼굴 보기도 짜증이 날 정도로 대표님은 나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기셨다. 마지막까지 대표님이랑은 친해지지 못할 정도로... 초반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지각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렇게 '왜 내가 이런 단체를 왔지? 그냥 밀양에나 갈 꼴'이란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 즈음 선호 쌤과의 만남에서 '인턴십을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란 물음과 함께 진지하게 단체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나의 오기였는지 자존심이었는지 '한번 말을 꺼냈으니 계속 하겠다.'란 말과 함께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에서 나의 이미지는 최악이었고 지각쟁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출근 시간 맞춰서 똑바로 출근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려고 했다.

이후 센터에서 나의 관계와 입장이 많이 나아지고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즈음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나의 필요성 때문에 인턴 기간이 늘어나며 센터의 활동이 온전히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작별의 순간을 모두가 아쉬워하며, 다음을 기약하며 인턴십을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누군가 '최선을 다해 인턴을 했느냐?'라고 물어 본다면 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재밌었니? 다음에 인턴을 거기로 또 갈 거니?'라고 물어 본다면 '그렇다'고 하겠다.

나의 인턴 18세

DVC 기업부설 연구소 / 1.6~4.14

김진규

목차

1. 단체 소개

- (1) 인턴십 정보
- (2) 단체 소개
- (3) 단체를 선택하기까지

2. 활동 내용

(1) 1월

- ①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 준비
- ②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
- ③ 그 외 활동

(2) 2월

- ① 서울역 온기 프로젝트
- ②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워크숍
- ③ 그 외 활동

3) 3월~4월

- ① 실험 촬영
- ② 그 외 활동

3. 인턴을 마치고 나서

(1) 평가

- ① 1월
- ② 2월
- ③ 3~4월

(2) 소감

- ① 배운 점
- ② 아쉬운 점, 반성할 점

(3) 나에게 인턴십이란

(4) 부록

- ① 인터뷰
- ② 자료
- ③ 앞으로의 바람

1. 단체 소개

(1) 인턴십 정보

선정한 단체: DVC 기업부설 연구소

활동기간: 1월 6일~4월 14일

숙식: 점식은 회사에서 영수증제출로 6000원까지 지원해줌

교통편: 지하철 신방화~합정 40분

근무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2) 단체 소개

합정역에 위치한 DVC(Design Vision Co.) 안에서 공공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소이다. 공간, 시간, 생활을 디자인하며, 취약 계층인 어린이나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계획했다. 0~8세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감성, 자연, 예술과 공간, 이야기와 상상, 문화, 과학 영역을 아우르는 서울시 첫 어린이 박물관 기획을 했다. 그 외에도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감춰져 왔던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었다(중3 무빙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이곳에 가봤다). 현재는 어린이 교육 분야에서 워크숍 기획 및 진행을 하고 있다.

(3) 단체를 선택하기까지

처음에는 인턴십 기간 동안 다른 경험을 해 보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보려고 '노리단'에서 인턴십을 해보려고 했지만 단체 측에서 받아주지 못했다. 음악이 아닌 다른 주제를 찾다가 '인턴십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 하던 중, 4학년 때 해외이동학습으로 필리핀에 다녀왔던 기억이 났다. 그 여행의 목적은 배움과 소통이었지만, 현지에서 봤던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기도 했고, 해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외가 한국보다는 숨통이 트이고,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해외봉사 단체인 '아시안 브릿지'와 '생명누리'에 지원을 했고 '생명누리'에서 인턴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서 자원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정보도 찾아보고 먼저 생명누리, 인도에서 인턴십을 했던 선배들에게 조언도 들으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보았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NGO인 생명누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원을 받은 금액들로 좋은 일만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나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현지에 가서 사진이나 많이 찍어오면 된다는 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단체를 그만두려 한 것은 아니었다. 공항편이나 현지 봉사단 상황이 악조건인데다, 나에게 대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했다(당시에 현지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셨는데 내가 가게 되면 휴가를 가게 되어서 혼자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정말 빈곤 퇴치를 위해서, 해외봉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 단체에서의 인턴십을 위해서 준비해왔지만 도저히 이런 단체에선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른 단체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후 알아본 단체는 고기리에 위치한 '폴짝 극장'이었다. 마을공동체에 힘을 쓰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연극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먼 길을 찾아갔지만 정작 단체도 아니고 헛걸음이었다.

이후에 알게 된 단체가 DVC이다.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낯선 사무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그동안 찾아갔던 곳들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12월 말에 사무실로 찾아뵈었는데 1월부터 할 일이 많아서 이곳에서 인턴십을 하려면 첫 출근

날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DVC라는 회사 자체는 유한기업으로 사실상 공공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긴 어려웠지만, 복지시설 기획과 청소년 직업체험 등의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발 빠르게 일해야 하는 사회의 큰 톱니바퀴에 맞물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직접 겪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배우고 싶은 건 공간디자인도 기술도 아닌 이전에 선택했던 단체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사는지였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사무 일과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스스로 가장 어려워하는 일에 노출시켜보고 싶었다.

가기 전에 읽은 책:

커뮤니티 디자인: 야마자키 료 / Child Culture Design: DVC

2.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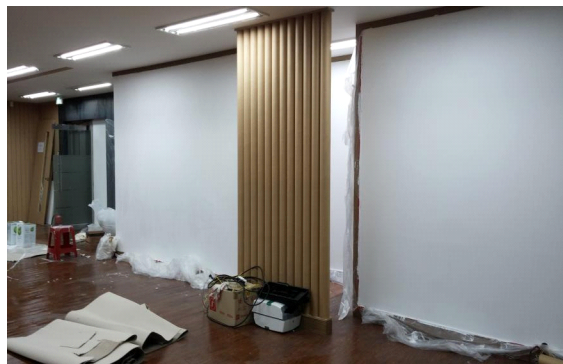
(1) 1월

①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 준비하기

1월에는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 준비와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썼다.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이하 어공디)라는 것은 'DVC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작과 놀이를 통한 디자인 교육 과정에서 창의성과 예술에 대한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공디 준비, 진행 과정에서 실습생으로 오신 대학교 4학년 누님들과 함께 활동했다. 나는 어공디를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공간 구조 변경을 맡게 되었다. 원래 DVC의 본사였던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고 내부 정리와 청소, 페인트칠을 했다.

- 페인트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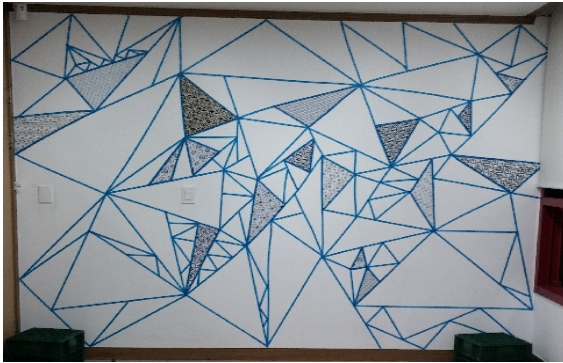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페인트칠을 해본 적이 없으셔서 일하는 동안 내가 맡아 할 일이 많아질 줄 알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열심히 같이 일을 해주셔서 금방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3학년 때 논문을 쓰면서 배웠던 페인트칠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 덕분에 일할 맛이 났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모두 여성분들이라서 힘쓰는 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해야 했다. 그래서 도중에 페인트가 모두 떨어져서 새로 사오는 길에 너무 추워서 힘들었다. (당시 1월...)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페인트칠 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모두 일을 끝내야 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입고 있던 옷에 페인트가 튀기도 했고, 마지막에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 공간 연출



페인트칠 이후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간 연출을 했다. 도면 붙이기와 우유 상자 쌓기, 벽면에 사람 그림 그리기 등. 프로그램 준비를 하는 날이면 할 일들이 많아서 원래 퇴근 시간인 6시보다 조금 늦게 끝날 때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옮길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서 내가 일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칠판을 옮기는 일이었다. 큰 칠판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서 1층부터 5층까지 용달 아저씨와 계단으로 칠판을 날라야 했다.

-프로그램 리허설



프로그램 준비의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다. 특히 아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했다. 리허설 진행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느껴보고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다.

②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 진행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 진행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내가 학생이 아닌 선생님 입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진행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와서 배우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 프로그램 진행 일정표

주제: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교실

컨셉: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빈 공간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솜씨만으로 용도를 기획하고 용도에 맞는 오브제를 디자인, 제작하여 빈 공간에 첫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워크숍

날짜	시간	단계	활동 개요	세부목표
1일차	10:00~10:10	마음열기	낮선 공간, 낮선 친구들과 인사하기	놀이, 친밀감
	10:10~10:50	의도하기	공간 탐색하기, 도면 이해하기, 도면 실측하기	동기부여, 정보
		정의하기		
		탐구하기		
11:00~12:00	계획하기	아지트 컨셉 설정(간식), 스케일 이해하기, 스터디 모형 만들기	의사소통, 발상,협력	
12:00~13:00	실행하기	재료/도구 탐색, 계획에 따라 공간 만들기	문제해결, 협력, 실패, 실천	
2일차	10:00~12:00	실행하기	계획에 따라 공간 만들기, 소품 만들기	문제해결, 협력, 실패, 실천
	12:00~13:00	소통하기	전시, 프레젠테이션	평가, 공유,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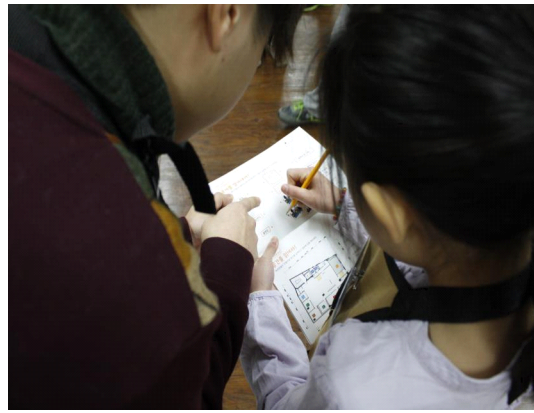
아이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삼각형 모형의 종이상자와 플레이스 메이커를 선택해서 만들게 되는데, 플레이스 메이커라는 재료는 각목에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놀이감이다. 플레이스 메이커는 연구소 선생님들이 시카고 어린이 박물관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다고 한다.

리허설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플레이스 메이커를 사용해서 제시시간에 완성을 할 수 있을지 걱정 되었다. 그래서 함께 인턴하는 누님들과 이 재료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실험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이 도구에 대한 이해가 잘 될까, 쇠로 된 볼트와 너트를 아이들이 다루게 된다는 부분에서 안전적 위험이 있진 않을까 걱정이었다.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고글, 장갑, 작업복 등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다 보니 걱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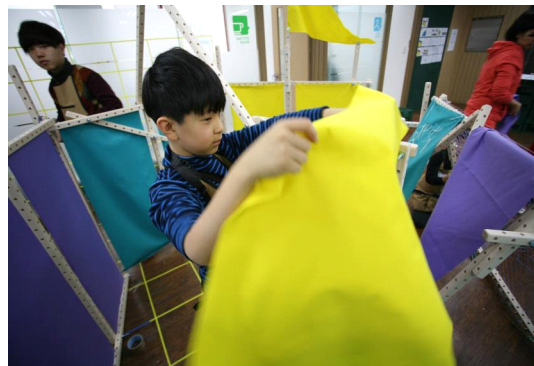
진행하는 당일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 온풍기를 틀어 놓기로 해서 인턴하는 누님이 온풍기를 틀어놓았는데, 시작하기 30분 전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인턴 탕을 하며 화를 내셔서 쓴 소리를 들었다.

- 오리엔테이션과 공간 이해하기

서로 낯선 아이들과 만나서 인사하기 놀이를 했다. 워크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도를 보며 공간 알아보기를 했다. 모르는 게 있을 때 나에게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주는 아이들이 참 기특했다.



벽에 사람그리기와 아지트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려는 아이들



만들고 싶은 공간이야기와 만들고 싶은 구조물을 축소해서 만들고 있는 아이들

- 플레이스 메이커 진행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는 두 번씩 2회 진행을 했다. 1회 때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긴장을 많이 했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서툴렀다. 그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려 하고,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려 하고,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

생각보다 좋았던 점은 아이들과 함께 배워 가고 구상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즐거워서 좋았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를 하려고 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는데 역지로 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더니 마지막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완성을 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쉬웠던 건 나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 때 당시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 아쉽지는 않다.

인턴 하는 동안 회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인턴직원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높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 보고,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이 나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낯설었다.

1회 프로그램 진행 중 가장 힘들었던 건 가장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었다. 아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구조물들과 소품을 만들고 발표회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을 해체하고 청소와 세팅을 다시 해놓아야 했다.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멘붕’이었다.

2회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를 할 때는 그전에 겪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에 큰 지장이나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1회 꽤만큼 힘이 나질 않아서 기운 없이 진행을 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어공디)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내 자신이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볼 줄 몰랐고, 집안에서도 혼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이나 돌보는 방법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느꼈다. 당시에는 스스로가 조금 비참하게도 느껴졌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아이들이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거나 이리저리로 바쁠 때는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에는 감정표출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그래서 일부러라도 웃는 얼굴로 있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힘쓸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물건 옮기기, 앵글 해체, 못 박는 것 등 여러 일을 맡아서 하느라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

③ 그 외의 활동

1월에는 주로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치중되어 있어서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미니 사이즈 모형 만들기에 사용되는 나뭇조각 만들거나 여러 가지 물품 구매 등) 준비를 주로 했다.

그 외에 첫 출근 날 회사 내 규칙 설명을 들었고 리서치와 명부 엑셀로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

(2) 2월

① 서울역 온기 프로젝트

서울역 공예 페스티벌 ‘온기’에 무료 워크숍으로 출전 준비하는 일을 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로 워크숍에서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 내고, 예시품을 만들면서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워크숍 내용은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하고 만들기 쉬운 것을 선택해서 팽이와 ‘마케도’(산가지) 만들기를 하게 됐다. 만들기에 사용되는 재료를 구매해야 해서 하루는 오후 내내 동대문 시장에 비즈 등의 부자재를 사러 갔다. 사이즈나 종류 등이 너무 많아 구입해야 되는 물품의 정확한 치수를 알 수 가 없어서 고생했다. 물품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일 처리 과정에 대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구입이나 환불을 하러 가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작업 환경도 썩 좋지는 않았다. 사무실 안에서 수량 체크를 하다가 양 선생님(팀장님)께서 사람들 돌아다는데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며 화를 내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했다. ‘마케도’ 만들기에 쓰이는 재료가 양쪽 모두 부족한 상태여야 하는데, 한쪽 면이 부족하지 않아서 일일이 연필깎이로 깎는 작업을 해 놓아야 했다.

프로젝트 개막 2일전부터 구 서울역에 가서 부스 설치와 재료 정리를 했다. 서울역에서 일을 할 때도 여기, 저기로 쫓겨 다니며 출고 배고팠고, 재료 정리와 포장 같은 일만 반복했다.

내 생일인 2월 11일에 서울역 워크숍 세팅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생일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정작 나는 워크숍 진행에 참가하지 못했다. 본사에서 나를 부르셔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부르신 것인지, 워크숍 진행에 필요가 없는 것인지, 괜히 자책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한다고 열심히 한 일인데 인정받지 못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었지만...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쓸모 없는 일을 시킬까, 짜증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매번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급 사회 안에서 직위라는 부분의 개념 이해가 부족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다.

②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워크숍

서울역에서 본사로 돌아와서 ‘리플렛’(박물관에서 주는 리플렛) 정리와 그 외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했다. 일하는 도중 나의 멘토인 양 선생님(팀장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워크숍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이라며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워크숍’을 기획해보라고 하셨다. 나에게 엄청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신 것이다.

그동안에 받았던 자잘한 리서치 과제와 달리, 워크숍 기획은 저번 달에 했던 ‘어공디’와 같은 일을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야 해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인턴(실습생)인 내가 나의 뜻대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했고, 이번이야말로 내가 재밌어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됐다.

어떤 방법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야 재밌을까 생각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가 그동안 리서치했던 자료 중 폐품으로 만드는 악기 워크숍이 떠올랐다. 그래서 폐품을 주제로 한 워크숍 기획서를 만들어서 팀장님께 보내 드렸는데 가차 없이 까였다. 기획서가 너무 복잡하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계획을 줄이기로 했다.

원래는 폐품을 많이 모아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페트병 실로폰이나 파이프, 마림바 등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연령층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고려해 봤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난타처럼 기획을 해서 다시 기획서를 보내 드렸다.

이번에는 ‘웬만한 타악기 만드는 체험이나 악기 만들기 체험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다른 아이들의 작업 수준은 어떻게 감안할 것 인가?, 정말 흥미 있어 할까?’라는 질문을 주셨다. 어떤 질문에도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웠다. 사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버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나의 일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에 좀 더 보안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내 드렸다. 그랬더니 답장으로 ‘예산표’까지 모두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셨다. 숫자와 관련된, 특히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맡아 본 적이 없어서 골치가 아팠다.

기획하는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폐품도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구매해야 할 물품들도 있었고, 가장 큰 고민거리는 청소였다. 워크숍으로 사용한 장소는 1월에 어린 이공간디자인학교를 진행했던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과 시설 청소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숍 당일 전까지 모두 정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의 뜻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막상 청소도 하고 물품도 사려고 나갔는데 책 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와야 한다고 부르셔서 다시 본사로 달려가는 등...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DVC 연구소가 DVC 아카이브(도서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서 관련 일까지 모두 맡아서 해야 하는 곳이다. 그 전까지는 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도서를 어떤 식으로 나열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책에 붙어 있는 번호표 숫자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다. 나에게 워크숍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려고 책이나 정리하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심란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요 일만 하고 워크숍 준비하러 가도 될까요...?”라고 부탁드렸지만 원래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매정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많은 책들과 숫자들과 싸워서 이긴 후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청소를 하며 홀로 남아야 했다. 워크숍 당일 전날에는 하루 종일 준비와 청소만 했다.

원래 폐품을 이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폐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무산으로 돌아가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 버리기로 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홀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감사하게도 선생님 한분과 인턴 같이 하는 한 분이 도와주러 와 주셨다. 덕분에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지진 않았다. 그날에 워크숍 준비가 미뤄진 것들이 많아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워크숍에 필요한 피피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피곤했다.

시간	활동	준비물	운영
오전 11시 ~11시 30분	인사하기, 영상 보고 약기 이름 맞추기, 종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약기 이름 써보고 발표하기	노트북, 스피커, A4사이즈 종이, 연필	인사 후 아이들에게 워크숍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멈춰서 아이들에게 약기 이름을 물어 본다. (이름을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준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생소한 약기들이 나오는 영상이다.) 영상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물어본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약기 이름을 알고 있는지 종이에 써 볼까요?” 다 쓴 후 순서대로 칠판에 써보고 겹치는 이름이 있으면 다른 표시를 해 준다. 문제를 맞힌 아이에게는 예그 웨이크 연주를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11시 30분 ~오후 12시	박자에 대한 이해, 박수쳐 보기, 책상 두드리려 보기, 박자표 그려 보기	책상, 칠판, 분필	아이들이 얼마나 박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박수를 치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하고 점점 어려운 박수를 유도한다. (2-3박수, 3-3-7박수 등) 그리고 책상 두드리기를 하면서 박자의 강, 약의 구분을 알고 강, 약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려보기를 한다.
12시~1시	점심시간	점심	점심시간동안 아이들이 사용할 폐품 자재들을 세팅해 놓는다.
1시~2시	약기 만드는 방법 배우기, 북통·북피·북채·자기가 만들고 싶은 약기 그려보기, 재료 정해서 약기 만들기	연필, A4사이즈 종이, 페인트통, 고무풍선 투명 테이프, 비닐랩, OH필름, 노란고무줄, 스프링, 나무막대, 스티로폼볼, 색테이프, 색종이, 색지, 가위, 풀, 천, 케이블 타이, 실, 송곳 검은테이프, 청테이프, 롤지, 글루건, 목장갑	아이들이 약기를 만들기 전에 약기를 만드는 간단한 매뉴얼을 배운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약기를 그려 보도록 하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연주하는 지까지 적어 보도록 한다. ex) “북을 쉽게 만들려면 풍선을 잘라서 위에 씌운 뒤 고무줄로 고정시키면 작은 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테이프를 이어 붙여서 북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과는 작은 통으로 만드는 탐탐드럼 만들기를 하고 고학년 아이들과는 스프링, 철사나 곡식을 넣어서 만드는 스네어 드럼이나 큰 베이스 드럼 만들기를 한다. 약기 만들기를 다하기까지 1시간(너무 진행이 늦은 친구는 소리가 잘 나도록 도와주고, 너무 빨리 끝난 친구는 더 만들기나 꾸미기나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그리고 자신이 만든 약기에 이름 붙이기를 한다. 나무 막대와 스티로폼 볼 북채를 만들고 색 테이프로 꾸미기를 한다.
2시~3시	박수로 리듬 배우기, 약기로 연주하기, 연주회	약기	처음에 배웠던 리듬들을 다시 따라 치도록 한다. 이후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약기로 반다만가 리듬을 배운다. 이후 연주회를 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소감 나누기를 한다.

막상 진행 해보니 위와 같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워크숍 진행을 혼자서 해야 했고,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 보라고 해도 한 명씩 개인적으로 모두 집중해서 봐줄 수 없었다. 그래서 워크숍 내용을 만들고 싶은 악기 만들기, 자유 제작으로 변경했다.

진행을 해 보면서 느꼈던 건 예상보다 워크숍의 비중이 적었다고 느꼈다. 1월에 했던 워크숍을 생각하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준비를 해 왔는데 준비한 만큼 진행할 수도 없었고, 인원 수도 적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아이들이 워크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즐거워해서 좋았다.

사실 나 혼자서 아이들과 워크숍을 진행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했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까 걱정을 꽤 많이 했는데, 악기 만들기 진행 과정부터 연주하는 마무리까지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했고,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다. 제작 과정에서 북통 만들기를 할 때 알루미늄 캔이 한쪽 면이 막혀 있어서 그 면을 떼어 내는 과정이 위험하고 걱정되었다. 그래서 떼어 내지 않고 악기를 만들게 됐지만 오히려 소리가 더 잘 나고 수업 진행에 지장은 없었다.

평가는 굉장히 좋았다. 워크숍 마무리 단계로 자기가 만든 악기 직접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하게 된 연주는 4학년 때 필리핀에서 배웠던 ‘반다망가’ 리듬이었다. 아이들이 박자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없을까봐 되도록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놀랐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반다망가’ 리듬을 좋아하고,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큰 문제 없이 잘 해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이들이 만든 악기로 발표하는 자리에 DVC 사장님께서 오셔서 내가 워크숍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사실 내가 사장님을 뵈 적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봤을 땐 사장님이신지 몰랐다. 워크숍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사장님 따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 같다. 만약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너무 긴장돼서 수업 진행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워크숍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나에게 많은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과 이렇게 음악 워크숍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기회였고, 기획을 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경험도 되었다. 나에게 버겁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워크숍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모두 해냈다는 사실이 기뻐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내 모습을 자꾸 바꾸려 했고, 나도 이렇게 선생님이라 불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힘들었던 이유는 그동안 공연이나 축제 등 기획을 하면서 진행에 대한 완벽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기획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워크숍 하루 전날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소만 해야 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나 혼자만 있다는 것이 눈치 보일 일이 없어서 좋았지만, 내가 이 일에 주도가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는 부분이 많아서였는지, 청소할 것들이 많아서 힘들었는지 힘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즐기며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선생님 더 알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줄이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흐뭇해할 수 있었다.

이후 선생님들이 이 워크숍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주셨고 인턴십이 끝난 이후에도 교사로서 활동해주어도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다.

③ 그 외 활동

도시정리, 리플렛 정리 등 잡일인데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했다. 그리고 신동아 기자가 진행했던 DVC ‘성정아’ 사장님 인터뷰 녹취본을 문서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3) 3~4월 달

① 실험 촬영

3월 첫 주 이후부터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다. 주로 심부름 가기 등 잡다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실험 촬영에 손이 필요해 손 모델이 되었다.

실험 내용은 2015년에 완공되는 부산 과학관의 어린이 과학관에 들어갈 실험 사진과 영상이 필요해서 직접 내가 실험을 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초봄에 추운 지하실에서 벌벌 떨면서 실험하는 것을 촬영했다. 촬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부터 촬영과 촬영 후 영상 편집까지 모두 내가 맡게 되었다. 영상 편집은 만들어서 보내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② 그 외 활동

지하실 물품 정리, 도서관리, 사진정리를 했는데 유난히 맡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쉬웠다.

3. 인턴을 마치고

(1) 평가

① 1월

어설픈 옷차림으로 아침 일찍부터 지하철을 타고, 들어선 직사각형 딱딱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고, 거울에 비친 나는 나의 마음가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첫 출근은 기대 반 걱정 반, 어쩌면 걱정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이 단계를 정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곳을 가려고 결정을 내린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나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렸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의심에 신경 쓰여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시간이 많아서 무엇을 하던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자는 좋은 마인드를 갖고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다. 1월에는 내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일이 많아서 좋았다.

한편으로는 힘을 써야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여성 사원들끼리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선생님께 다른 남성 사원들은 이런 일에 왜 안 도와주시냐고 여쭙봤다. 여태까지 나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 돕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곳은 서로가 너무 바쁘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고 우물 밖을 나오려 하니 바깥 공기는 너무 건조해서 다시 우물로 돌아가고 싶은 개구리였다. 본사에 있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들었는데, 1월에는 본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육체노동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턴하시는 분들끼리 주로 같이 일을 진행해서 일하는 도중 불편한 점은 없어서 좋았다.

1월에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가장 일하기 편했던 것 같다. 출근하는 길에 만원열차는 가장 큰 난관이었다. 당시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길에 입김이 눈썹에 서리로 변할 정도로 춥고 피곤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1월은 넘겨보고 힘들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버티기에도 아직 이른 시간이라며, 자주 웃고 즐기려 했다. 그리고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절대로 지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 죽기 살기로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30분 전에 먼저 회사에 도착하도록 일찍 출근하자는 약속을 했다.

인턴생 4명과 선생님들 5명 모두 여성분인데 나 혼자서만 남자라는 부분이, 사실 힘들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차별적인 느낌은 들 수밖에 없었다. 남자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말도 못하고 힘든 일도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나이가 적어서 어린애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만큼 나의 능력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 같다.

② 2월

설 연휴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무리하게 몸을 쓰다가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꼭 연휴 끝에는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근을 했지만, 결국 다음날에는 병원에서 링거 신세를 지게 됐다.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던 것 같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고 싶기 보단 잠을 더 자고 싶었고, 무기력함에 너무나도 젖어서 생활했던 것 같다.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을 느꼈다.

2월에는 1월처럼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한 잡일들이 많아서 게릴라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무언가 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려면 이거 하고 그러다가 저거 하라고면 또다시 바로 다른 일에 매달려야 해서 정신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워크숍 기획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다. 기획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이 워크숍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계획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생각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꿈은 작곡과 공연을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도 음악을 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게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워크숍 준비를 하면서 책 정리하는 일을 병행했는데 정리나 배열하는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취약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맡은 일을 진하고 싶는데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다.

③ 3~4월

그동안에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일이 없어서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 워크숍이나 프로그램 등 연구소 자체 기획보다는 주로 회사에서 필요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실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실험 촬영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다.

인턴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느꼈다. 나는 단체 선정을 이곳으로 할 때 느꼈던 공공성에 대한 불분명함에 대해서 불안해 했다. 어쩌면 그건 이 단체에서 내가 활동한 일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인턴십으

로 알맞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아 내지 못하면 모든 일들은 무산될 것 같은 걱정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곳에 왜 내가 왔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다.

인턴 단체를 사기업으로 정한 것부터 이미 학교에서 인턴십 단체에 대한 가치와 체계에 대해서 반항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명누리라는 NGO를 선정했었고, 인턴십을 하기 위해 직접 가서 보았던 것은 내가 생각했던 NGO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일을 너무 게으르게 진행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것인데 나를 그저 시간 때우기, 학점 채우기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때의 자극 때문인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가장 낮은 취급이라도 받으면서 얼마나 발 빠르게 뛰어야 하는 세상인지 알고 싶었다. 그런 부분에서 DVC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어떠한 일도 달게 받자는 생각이었던 나의 각오가 너무 많이 사그라져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소감

① 배운 점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웠다. 엑셀이나 문서 작업을 하면서 맞춤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인턴을 하는 동안 맞춤법 교정이 조금 된 것 같다.

12주 동안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이 반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다. 그만큼 지하철 타고 다니는 생활이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아침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사는 게 힘들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시고 계시는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자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배워왔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보려고 했었고, 졸업하면 나오게 될 학교 울타리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 또한 이 사회에 하나의 일원이다. 내가 ‘체천간디학교’에 다니면서 대안적인 삶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대안적으로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하고 바쁘게 뛰어야 하는 것은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 혹은 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 반대로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 바에는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 봤다.

그리고 항상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30분 전에 도착하자는 나와 의 약속이 어찌면 조금 강박관념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적으로 무언가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덕분에 난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NGO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정부로부터 간접받지 않고 공공적인 일을 위해서,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등 문화적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② 아쉬운 점, 반성할 점

가장 첫 번째로 인턴십의 단체 선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지 못해서 거의 들이닥치듯이 준비하게 되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쉬고, 미흡한 준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의 부족함과, 인턴십을 하면서 막노동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회사 일정 때문에 체험하지 못해서 아쉽다.

세 번째로는 애초에 자본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공공성을 느끼지 못했다. 선생님들께 이곳에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지 여쭙어 보았었다. 대답하시기를 공공적인 일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정작 나는 그곳에서 공공적인 일을 돕기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활동만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든다.

네 번째로는 내가 일러스트나 CAD 등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맡아서 할 수 없었다. 그저 잡다한 일이나 노가다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디자인 분야의 일을 해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가끔 오전 근무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졸 때 인턴생으로서 자세가 바르지 못함에 반성한다. 너무 많이 피곤했지만 인턴 생활 초기였고, 다른 분들도 나보다 더 열심히 많은 일을 오랜 시간동안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졸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전체적으로 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매번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때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노트북을 켤 때마다, 무언가 나에게 일이 주어질 때마다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곳에 있기에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처럼 마음을 움아 메어야 몸이 움직였기에, 나를 채찍질 하던 것이 나를 자책하는 일이 되어버린걸 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하루가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었다.

인턴십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워낙 빠르게 돌아간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거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을 여쭙보기가 힘들었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꽤나 애를 먹었다.

인턴십 단체 선정으로 내가 활동해보고 싶었던 것은 내가 문화적으로서 나눌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그리고 NGO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일찍 일정이 끝나게 되어서 NGO단체에서 인턴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러 가고 싶었지만 나도 귀찮았는지 많이 보러가지는 못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강연을 보러가거나 공연을 하러 가는 등의 참여를 했다.

(3) 나에게 인턴십이란

인턴십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야 이 길고 긴 시간, 어쩌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는 그동안의 나의 경험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나의 손으로 적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만큼 나에게에는 길었다고 생각되는 3달이었고, 그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그때 좀 더 많은 일을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아직도 내가 3달이라는 시간동안 어떤 것을 그곳에서 찾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나에게 인턴십이란 무엇일까? 인턴십 단체를 찾아가면서부터 인턴을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까지 모두 나에게 의미 없던 시간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턴십을 하는 기간 동안 바깥사람들과 대면을 하며 회색빛 사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고, 몸도 마음도 절망의 바다의 바닥까지 떨어져도 보며 정말 흘리기도 싫던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다. 솔직히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들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그 깊은 바다 속에 한번 빠져보았기 때문에 캄캄했던 그 때가 있었기에 바닥을 디디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DVC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 춥다, 배고프다, 졸리다, 힘들다를 입에 줄줄이 달고 다니다보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어지고 부모님께도 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으려고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 노력을 했다.

그래도 내가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 일이 흥미롭고 재밌다기 보다는,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 간 이유는 학교에 들어오면서 나는 예술, 분야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고 음악을 하는 사

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은 나에게 정말 취약한 분야였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원하는 일을 꿈꾼다면 내가 할 수 없던 일들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커다란 자본의 굴레에 시골에서 온 느릿한 청년이 발 벗고 뛰어 보려는 작은 시도였다고 느낀다.

인턴십을 하는 기간 동안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인도로 봉사를 가려고 계획했을 때도 음악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행을 우선으로 하고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인도 출국이 취소가 되고 서울에서 인턴십 생활을 하면서 음악 배우기를 병행했다. 그 때 당시에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은 한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 한쪽이 기울어져 버리고 일의 마무리에 지친 채 헐떡이고만 있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더 힘들었던 걸까? 꼭 찬 지하철, 추운 발걸음, 나에게 되묻는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한 집에 오는 길.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나서는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힘들어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지 나의 가장 큰 단점들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힘들었던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지 않았을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뛰는지, 매일을 살기 위해 일하고 매주 금요일을 불태우며 일요일 밤을 두려워하는 챗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자영업이라는 일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힘든 일인지 몰랐다.

인턴을 다니면서 힘든 순간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어디선가 들었던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나에게 되새긴다. 그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상처를 사랑해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 회색빛 사회에서 허우적대던 3개월이었지만 여태까지 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일이었다.

(4) 부록

① 인터뷰

양정윤 (멘토 선생님)

Q. 현재 맡고 계신 직책(직무).

A. 수석연구원

Q. 현재 이 업종에서 몇 시간동안 종사하고 계셨나요?

A. 10년 이상.

Q. 어떻게 해서(무엇 때문에) DVC(연구소) 에 입사 하시게 되었나요?(입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A.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고 적성도 맞아서.

Q. 이곳 (DVC)에서 가장 힘든 것(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A. 클라이언트(발주처) 응대, 세상에는 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음.

Q. 반면 이곳(DVC)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A.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성과 융통성.

Q. 여기(DVC)연구소에 목적이 무엇인가요?(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A. 어린이 전시환경디자인 분야의 전문 연구를 위해.

Q. 현재 일하고 계신 환경 등에 앞으로 개선되기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A. 어느 분야나 비슷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함. 점점 소통의 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

Q.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A. 사회가 또는 회사가 나를 위해 뭔가 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기 전에 내가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자!

박정렬

Q. 현재 맡고 계신 직책(직무).

A. 선임연구원

Q. 현재 이 업종에서 몇 시간동안 종사하고 계셨나요?

A. 정말 시간인가요? 몇 년이라 생각하고 대답할게요. 12년

Q. 어떻게 해서(무엇 때문에) DVC(연구소)에 입사 하시게 되었나요?(입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A. DVC 입사는 5년차이며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회사이므로 입사하게 됨.

Q. 이곳(DVC)에서 가장 힘든 것(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A. 맡은 업무 외의 일을 해야 할 때

Q. 반면 이곳(DVC)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A. 탄력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Q. 여기(DVC) 연구소에 목적이 무엇 인가요?(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A. 여기 연구소의 명확한 명칭은 '디브이씨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게 되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함. 이러한 이유로 설립되었으며 디자인의 첫 단계인 조사, 연구, 분석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Q. 현재 일하고 계신 환경등에 앞으로 개선되기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A. 업무 환경을 말하는 건가요? 업무 환경은 큰 불만 없음.

Q.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말씀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A. 일이나 조직의 짧은 경험으로 그 일을 다 안다는 듯이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일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므로 자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겸손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② 자료

인턴 마지막 날, 인턴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작성했던 설문지다.

1. 실습과정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는? (5)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약간 만족 ④만족 ⑤매우 만족

2. 실습과정 중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사회가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바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학생의 신분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사회를 경험 할 수 있어서 좀 더 넓은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과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는 일도 서류작업을 하는 일도 책 정리나 워 크숍 기획 등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적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곳을 계기로 경험 할 수 있어서 배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실습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배우고 살고 먹은 환경이 이곳과는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런 생활적인 부분(시간적인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디자인 회사에서 실습을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는지 사소한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배워 본적도 들어 본적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도 없이 와서 막노동 아니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맡아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겨 주셔서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의 일을 기획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간표도 없이 살고 방학 계획이라고는 잘 세워 본 적도 없었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런 점에서 힘들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몸이 힘들지만 일이 없을 때는 다들 너무 바쁘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했던 것도 힘들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데 주로 숫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힘들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활동 외에도 출, 퇴근시간 때 지하철을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4. 실습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처음에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라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현장에 갔다가 고생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상부터 건설까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한 부분에서는 아주조금 아쉬웁니다.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딱히 아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5. 실습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1월 달에 페인트칠하던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그만큼 1~2월 달 동안에 일들도 많고 활동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야 조금 몸이 풀린 것 같은데 3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이 아주 조금 아쉬웁니다. 정말 너무 좋았던 것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엑셀 작업 이었는데 엑셀이라고는 본적도 없고 한글문서도 잘 사용 못하는 제게 처음으로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습득하려하게 되고, 하다 보니 방법도 알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일처리에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3개월 동안의 인턴십 과정을 시작할 때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제가 가장 많은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이곳에 오게 되며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 씩 겪어가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고 적응하고 하며 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이런 실습과정을 다녀보았지만 주로 문화단체나 농업공동체 등 제 관심분야 쪽으로 경험을 하러 다녔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달, 3주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일을 했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같은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2월 달부터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는 몸도 좋지 않았는데 장기간 결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무리하게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지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냈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입니다.

2월 달에 제가 기획을 맡게 되었던 어린이 음악 워크숍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에 어떤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은걸 배우고 재미있어 할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외동으로 태어나 동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하는지 골머리가 아팠었는데 그것 또한 경험하지 않고 너무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갔을 때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대화를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싫어하는 저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너무나도 신나는 표정으로 맘이 날 때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렸던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많은 아이들과 워크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습 과정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어 힘들기도 하고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그냥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쉬고 싶을 때마다 쉴 수 없는 것이 사회이고 제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치열한 세상 잔인한 세상 이라고 불리 우지만 그만큼 자신의 꿈에 열정과 모든 것을 불태우며 노력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사무실(본사)에서 반 캠프에서 반 인 것 같네요 그만큼 활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인지 사무실(본사)에 적응한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3개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경험과 많은 배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③ 앞으로의 바람

앞으로 다음 인턴을 하는 친구들이 사회를 나가서 직접 부딪치다 보면 학교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보장받으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단체 선정하는 과정 기간을 늘려주었으면 하고 공공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공공성의 기준을 낮추어보아도 좋을 것 같다.

맥(주)놀이

맥놀이 / 2.8~6.5

김현정

목차

1. 맥놀이 입문

- 내가 왜 일로 왔지?
- 여긴 어디…?

2. 맥놀이 활동

-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뭔가 나뻐고 다 바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 재은 성은 애, 이름은 기예요. 겁나 말을 안 들어요.
- 심각함을 느끼게 만들어 준 수요시위
-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인권연극제 서기
- 性소수자
- 극단 맥놀이에서 한 연극!

3. 맥놀이를 마무리하며

- 소감. 난 어찌 살 것인가….
- 잘 있다 갑니다!

1. 맥놀이 입문

- 내가 왜 여기 왔지?

처음 인턴 장소를 정할 때 신중하게 정했다. 왜냐하면 내가 접하지 않은 주제이거나 나랑 맞지 않는 취지를 가진 사회단체 안에서는 14주 동안 적응하다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서이다. 내 목표와 맞는 단체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

“너는 무빙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곁돈 것 같아.” -내가 충격 받은 희석 쌤의 말 중-

맞아도 너무 맞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이제 마냥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때마침 나이 많은 덕산친구인 양갱이 아는 지인 중에 극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기에 추천해 주었는데 그게 ‘맥놀이’였다. 전화를 해봤는데 감사히도 흔쾌히 오라고 하셨다. 이거 너무 운 좋은 거 아닌가? 단체명이 맥놀이인지 맥노리인지 맥널이인지도 잘 모르는데 바로 와도 된다고 해서 불안했다.

맥놀이분들이 때마침 덕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덕산에 오신다고 했다. 학교에도 올 일이 있으셔서 만나 이야기를 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좋아하는 것을 하되,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았다. 단체선정은 아주 딱딱 척척 맞았다. 인턴하기 전의 나의 목표는 인권운동에 문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쓰이느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했다.

- 이곳은 어디...?

이름: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역사: 대학교 국문과 학생들이 인권문제의 심각함을 느껴 만든 모임이다. 처음에는 인권을 실천하는 모임이었지만, 연극하는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문화 활동을 하고, 인권을 주제로 한 연극을 올리면서 극단 활동도 해왔다.

내가 경험한 맥놀이 활동은 크게는 3가지로 지역 활동, 문화사업 기획, 극단 활동으로 나뉜다. 극단 활동은 하반기에 하는 건지 내가 거의 하지 못했다.

지역 활동으로는 ‘유모어 프로젝트’가 있다. 유모어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 ‘세상과 연애하기’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극 워크샵, 재활용 악기 워크샵 등 많은 주제로 수업을 한다. 지역 활동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지역 내만 아니라 수도권 안에 갈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맥놀이가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한다. 지역 활동은 이 외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맥놀이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가 간 2014년부터는 타 단체인 ‘장애인문화예술판’과 함께 인권연극제 추진을 제일 큰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인권연극제는 크게 4파트로 진행된다.

주제 공연	시민인권연극	인권연극 워크샵	인권공원
연극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극단을 섭외해서 ‘인권’을 주제로 한 연극을 올린다.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 그리고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공모해 인권을 주제로 한 연극을 올린다.	시민인권연극 전에 워크샵을 통해 시민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팀을 양성하고 작품 제작에 도움을 준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을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야외 공연, 워크샵, 전시, 플레시몹, 거리예술 등

이 연극제의 좋은 점은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관심이 없던 시민들도 인권연극제를 통

해 소수자의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극을 하고 싶어 신청한 사람들은 워크샵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고, 연출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연출을 할 수 있다.

맥놀이는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활동가 개개인의 프로젝트가 정말 많다. 지역 청소년들을 모아서 마을신문을 만드는 청소년 기자단, 관악구 학생들이 할머니들 반찬을 만들어드리는 반찬 봉사, 은빛사랑방이라는 노인정에 계신 할머니들과 함께 연극 만들어서 올리는 프로젝트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내가 모르는 활동도 많을 것이다.

2. 맥놀이 활동

-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뭔가 나빠고 다 바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맥놀이 활동가분들이 나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일이 없다!! 인턴 시작 후 일주일은 정말 멘붕! 내가 맥놀이 사람들과 친하다면 "일을 주세요! 제가 할 일이 뭐죠?"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말도 못 붙이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인턴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느껴본다는 '나 빼고 다 바쁜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활동가 은지 쌤과 가까워지고 어렵게 이야기를 해봐서 나온 일은 오픈마이크 기획이다. 카페 '세상과 연애하기'는 서울대입구 2번 출구에서 갈 수 있는 카페이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이며, 맥놀이가 레몬청을 만들어 납품하여 레모네이드를 판매하고 생킨 수익으로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워크샵, 프로젝트 등을 할 수 있다.

카페에서 오픈마이크 공연을 하면 카페 홍보도 되고, 지역 뮤지션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제공된다. 예전에도 세상과 연애하기에서 오픈마이크 공연을 기획했었다가 지속적으로 기획을 할 활동가가 없어서 보류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내가 오픈마이크 기획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죽 받았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오픈마이크 공연은 '봄, 화이트데이'라는 이름처럼 설레고 달콤한 분위기 안에서 어쿠스틱 공연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붙였다. 워낙 공연 팀이 많았는데 실제 관객은 8명이 다였다. 티켓 값은 감동후불제로 진행했다. 섭외된 팀은 관악구에 있는 마을연예기획사 '놀자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생 팀, 진규와 정인쌤 팀, 내가 아는 언니 양갱 팀, 흥덕고등학교 고등학생 팀이었다.

학교에서 행사 기획할 때랑 달랐는데, 홍보 부분에서 차이가 컸다. 사실 우리 학교는 장소가 워낙 좁아서 3일 전에 홍보해도 다 알지만, 카페에서 공연을 하려면 이 카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내가 혼자 다 홍보를 해야 되서 애를 많이 먹었다. 관악구에 있는 네 군데의 대안학교를 다 돌고 왔다.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포토샵을 해야 되는데 당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애먹고 나니 이후에는 수월하게 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궁지에 몰려야 사람이 어떻게든 하고 배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인턴하면서는 더 많이 배우려고 내가 자처해서 궁지에 몰린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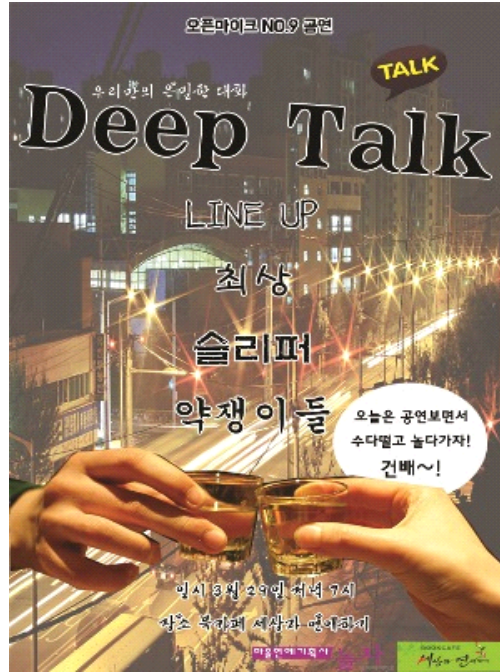
오픈마이크를 진행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건 모르는 사람과 일을 많이 하고 부딪쳐 본 것이다. 한 차례 공연을 하고 나니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학생분들이 있어서 세 차례 공연을 같이 기획했다. 개개인의 성향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잘 타이르면서 더 좋은 공연을 만들었다. 처음 보는 공연 팀을 섭외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 공연에 또 부르면서 친해졌다. 원래 이 오픈마이크의 모토는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지만 하고 나니 공연 팀, 기획 팀과도 좋은 관계가 맺어진 것 같아서 재밌었던 프로젝트였고 공연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

봄, 화이트데이

<Line up>



일시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장소 세상과 연애하기



『하루가 너무 지친다』
하루를 힐링시켜주는 어쿠스틱공연이
오늘 하루 마무리엔 좋겠다

정연애 기획사 2권



Line Up

관자놀이 . 최상 . 비르크림파스타

Day
2014.5.10, 토요일 7:00

Place
서울대입구 북계재 세상과연애

[자유롭게 공연]입니다



오마오마 11번째 오른마이크
늦은시각에 들리는, 음악이 부르는 소리



공연 팀이 내 포스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돌을 걷어차고 이불을 적시며 울다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오른마이크 기획을 하면서 '대가 없이 하는 일'을 내가 졸업하고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봤다. 활동가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도 같은 마음인지 생각을 해보았다. 세상에 몇 없는 특이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인턴하면서 다 만난 것 같다.

- 재들은 성은 애, 이름은 기예요. 겁나 말을 안 들어요.

일주일에 2~3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워크샵 진행을 도왔다. 그리하여 수요일에는 공릉에, 금요일에는 마포에 가는

데 이때 지옥철(지옥+지하철)을 경험하곤 했다. 활동할 때 이름을 ‘샬리’라고 해서 워크샵을 할 때도 아이들이 샬리 쌤이라고 불렀다. 계속 부르다 보니까 애들이 샬러리맨 쌤, 샬러드 쌤 등등 계속 이상하게 불러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을 지 모르겠다.

워크샵의 주제는 리사이클링이고, 워크샵의 목표는 재활용 악기를 만들어서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워크샵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어야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한테 존댓말을 써야 하고, 수업을 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에겐 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게 놔둬야 된다고 활동가분들께선 말했지만, 그 말이 아이들에게 무심하게 들릴까봐 하기 힘들었다.

리사이클링 워크샵에 짜인 일정 중 초, 중반쯤에서 연극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들에게 결말이 없는 딜레마 상황을 대본으로 준 다음에 결말을 짓고 직접 연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주선 동료 중 두 명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심각한 상황들이 적혀 있는 페이퍼를 들고 읽는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금 차분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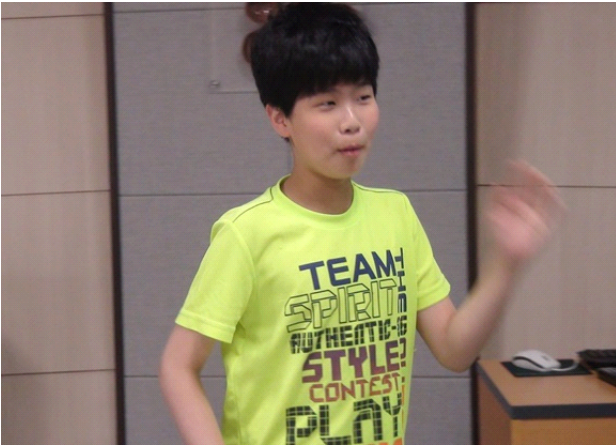
사실 이 수업은 간디학교 학생들이 해 봐도 좋을 듯 했다. ‘살면서 네가 동의한 것은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쉽게 답변하지 못한다. 초등학생 아이들마저도 자신이 동의해서 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해야 하지 않을까?

아주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 곳도 갔지만, 일진들이 모여 있는 청소년복지센터에도 워크샵을 나갔다. 일진들과 수업하다가 울 뻔 했던 적이 있다. 하루는, 내가 담당한 모둠 안에서 여자애들 두 명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한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간디학교에서는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줄줄이 이어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다른 활동가분들은 욕은 해도 되는 것이고, 욕을 하는 아이들이 욕을 하면서 나쁜 점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졌기에 나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가분들은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욕을 하든, 쌍욕을 하든 가만히 있으면서 모른 척을 하신다. 아이들이 하는 욕을 모른 척 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무심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되돌아보기도 했다. 가끔 활동가 분들도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욕 나올 정도의 힘든 일이 워크샵 할 때 있었고, 재밌었던 일도 워크샵 안에 있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연극 수업이 있을 때였다. 희생이라는 주제의 대본을 들고 리딩을 한 다음 결말을 지어야 했는데, 내용은 ‘우주선이 임무를 완수하고 지구로 돌아오던 중 산소통이 날아가서 산소가 부족하기에 5명 중 2명이 죽어야한다’였다. 근데 이 자식들이 아무것도 안 하길래 “엄청 어이없는 내용도 괜찮아”했더니 갑자기 우주선 선장이 도라에몽을 들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이야기로 하자고 해서 그 내용으로 연극을 한 기억이 있다. 내 동갑내기들과 노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

워크샵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바뀌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세세하게 아이들이 수업에 관심을 기울여 준 것 같다.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한 것은 엄청난 발전이다. 게다가 맨날 옆드려 자던 애가 수업에 와서 대충이라도 수업을 듣는 걸 봤을 땐 수업이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길거리 공연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이들 사진!!!!!!보고싶당 ㄱㄱ

- 심각함을 느끼게 만들어 준 수요시위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수요시위에 가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인권연극제 서기를 하다가 정대협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기하면서 정대협씨가 누군까 생각했다. 정대협을 인권연극제에 섭외를 하기 위해 활동가분과 함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갔다. 가서 들은 세미나 주제는 베트남 참전에 관련된 것이었다.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는 별이가 논문으로 쓴 적이 있기에 놀랄 일은 아니었다. 전쟁으로 피해 입은 여성과 어린이들은 전 세계에 있고, 일본이 설치한 위안소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알면 알수록 마음 아픈 역사이다.

박물관 아래에서부터 이어폰을 들으며 올라올 때까지 할머니들의 억울함이 벽에서도 보이고, 영상에서도 보이고, 글에서도 보였다. 할머니들의 사진과 함께 있는 말 중에 기억에 남았던 말은 ‘제가 살아있는 증거인데 왜 증거가 없다고 하십니까?’였다. 이런 증거들이 많지만 일본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전쟁 성폭력을 인정하는 고노담화³⁾를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대협은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3)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고노 담화[河野 談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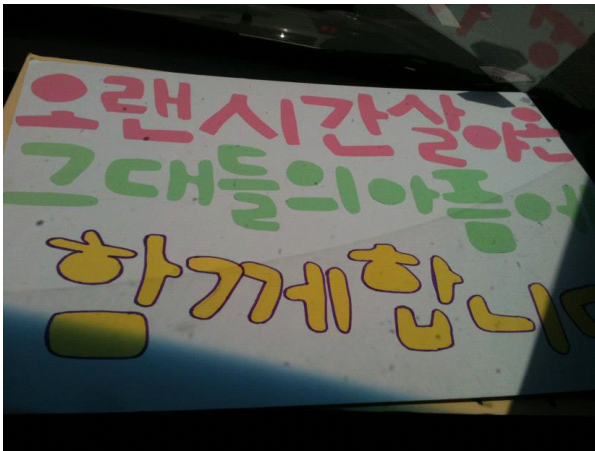


윤미향 대표의 경과보고



1128차 수요시위

그에 덧붙여서 후세에 이 내용을 알리도록 교과서에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성명서에 적혀 있었다. 내가 갔던 수요시위는 1122차부터 1128차였다. 수요시위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알바 최소은(19)과 알바 오지영(19)을 써서 함께 피켓을 만들었다.



알바를 고용해서 만든 수요시위 피켓

수요시위 첫 날에 갔을 때, 기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나한테 인터뷰도 해 가고 사진도 찍어갔는데, 1122차 수요시위에 기자들이 많이 온 이유는 다음 날 ‘한국과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가 열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속적인 시위를 들은 한일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 논의하는 척이라도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것일까. 아마 후자인 듯하다.

정대협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들은 질문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왜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는 베트남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에게 공식 사과를 바라는가?” 난 이 질문이 보잘것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나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 내가 이 질문에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은 우리가 알아야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수요시위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역사를 잊지 말라’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역사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요즘 읽고 있는 《군대를 버린 나라》라는 책에 보면 인권 선진국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나라의 일에 국민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평화로운 나라라면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기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수행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다.

수요시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이 오고 고등학교생들이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몫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를 알고 싶은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다. 자신의 나라의 잘못을 알고 바로잡으려는 일본인들이 고맙고 동지 같아서 좋았다.

-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인권연극제 서기

맥놀이와 장애인문화예술판과 함께 추진하는 [제1회 인권연극제] 회의의 참여하여 중요한 '서기'를 맡았다. 내가 참여한 시기는 섭외와 홍보, 이어가기 세미나 진행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와서 회의만 주구장창 하고 못 알아듣는 게 많았다. 정대협이 사람인줄 알고 정대협 씨라고 적은 적도 있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를 탈레스타 평화연대라고 적은 적도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서기를 시작했으니 알아듣는 것만 적는 듣기 평가가 되었다.

일주일마다 한 번 수요일마다 인권연극제를 갈 땐 머리 고생이 너무 심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서기를 하기 때문에 판 짓하고 잘 수가 없어ㅋㅋㅋㅋㅋㅋ 이런 고통 처음이었다... 또 회의는 제일 졸린 아침 10시에 해요... 맥놀이의 장점은 일 있을 때만 나가는 건데, 인권연극제 회의는 10시에 시작하는데다가 월곡역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다. 게다가 인권연극제는 내가 오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연극제에서 내가 한 일은 회의 때 서기한 것 밖에 없다.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서 무척 고민했다.

'이 큰 사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인권연극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나?'. 더 많은 소수자들에 대해서 듣고, 소수자들을 만난 것이 인권연극제가 나에게 준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양 썸이 말하기를,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공부가 된다고 이야기하셨다. 인권 연극제를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됐다.

인권연극제 회의 장소는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에 갈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몇 보였다. 판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며, 절대 장애인들을 보호받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질 것 따지고, 할 이야기는 하는. 판의 배우로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본다. 일부러 그들을 배려하려고 티 내지 않는 것이 좋았다. 판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풍물 워크샵 '소리여행'에서는 내가 풍물하는 것을 도와드려야 할 줄 알았는데 적응하다 보니 나는 배우분들과 같이 페트병을 들고 춤을 추고 있고, 같이 있는 판 배우분처럼 뿔망치를 치고 있더라. 전혀 보호받을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놀려서 내가 보호받을 대상이 된 적도 있다.



판 배우 분들과 함께하는 소리여행 워크샵

판 배우분들과 같이 광화문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받지 못한 장애인분들의 사망소식이 이어지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나와 배우분들은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서명을 부탁한다고 고래고래 외쳤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 자기 살기 바쁜 우리나라에서 남의 일에 관심을 써주는 건 힘든 일인가 보다.

장애인의 인권과 함께 알게 된 소수자 인권은 베트남 참전의 피해자들이다. 인권연극제에서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어가기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어가기 세미나는 누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하여 이런 소수자들의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이어가기 세미나는 베트남 사회적기업 ‘아담’의 권현우 선생님이 베트남 참전의 진실의 대한 강연을 해주셨다.

사실 한국이 일본에게 공식 사과를 바라면, 한국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의 피해는 어린이, 여자, 민간인들이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찾아가서 봉사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세미나 안에서 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베트남에는 위령비가 많이 지어지는데, 그 중에 베트남 하미마을에도 위령비가 있다. 하미마을 위령비는 한국에서 지어준 것이다. 위령비 뒤에는 한국인들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악독한 짓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으나, 한국정부는 베트남에게 위령비에 적은 글을 지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지우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연꽃 그림으로 악독한 짓을 덮어두었다고 한다. 우리는 예쁜 연꽃 그림 안에 있는 진실을 알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

- 性소수자

인권연극제를 꾸려나가는 집행위원들끼리 인권 스터디를 시작했다. 원래 맥놀이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하는 스터디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방문한 시기에는 모두 바빠서 스터디가 없었다. 근데 인권연극제에서 내가 인권스터디를 할 수 있다니!!! 눈을 부릅뜨고 경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첫날 발제는 맥놀이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이었다. 맥놀이의 꽃미남 황준연씨가 발제를 해서 한껏 기대했는데 나도 발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화났다. 내가 성소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맥놀이가 강하게 주장하는 성소수자의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때 하리수가 나타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나왔던 장난, ‘남자는 주먹, 여자는 가위, 하리수는 보’가 기억난다. 그래서 보를 낸 아이는 애들이 “너 하리수야?”라는 농담을 던졌다. 어릴 적에는 성전환에 대한 것을 징그럽게 봤다. 사실상 하리수는 여자로 성전환을 했고, 하리수가 남자를 좋아하면 하리수는 이성애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눈에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

2014년 퀴어 퍼레이드의 주제 문구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였다. 이 문구는 누구나 가지는 사랑의 권리를 혐오스러움으로 덮어서 그들의 권리를 못 누리게 하는 사회의 시선에 한마디 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인권연극제의 한 파트인 ‘이어가기 세미나’ 강연을 맥놀이의 황준연 씨가 ‘퀴어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화들이 나왔다.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남자친구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소수자들에게는 상처이고, 그들을 다수가 정해 놓은 일반적인 사회에 숨게 하는 말이라고 느껴졌다.

사랑하는 이와 손잡고 거리를 걷는 게 소원이고, 이성애와 똑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사실 성소수자들에 입장을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의 대해서 세미나가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혐오스럽게 보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해보았다.

나는 동성애에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말도 웃겨. 동성애는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동성애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호모포비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혐오하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그들이 혐오할 권리를 내가 막는 것이다.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이에게는 묘한 느낌을 갖게 한다. 성소수자에 대해 별 생각 없던 내가 한 번 더 저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간절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장. 그것이 맥놀이가 기획하는 인권연극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세미나를 들었으나, 동성애 인권의 대한 교육을 한번 접해보는 생각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를 배울수록 수많은 질문들이 나에게 온다. 내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다.

- 극단 맥놀이에서 한 연극!

밀양 북 콘서트에서 ‘인권연극제’ 이름으로 연극을 올리게 되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내가 극단 맥놀이에서 연극을 한다 니!!!! 기대됐다. 내가 맡은 역할은 마을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누가 희생을 할지 결정을 하다가 임신한 척하면서 희생을 피하는 ‘명자’ 역할이다.

잊지 못할 나의 대사들...

명자 : 조금씩 나눠먹으면 위떡유?

명자 : 네? 지가 왜유?

명자 : (갑자기 허구역질을 한다) 우욱, 우욱

명자 : 지가 이런 말씀까정은 안 드릴려고 했는디요. 저 임신했시유.

명자 : 네, 모처럼 마을을 위해서 다가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왔는디, 참말로 안타깝네유. 위떡유? 지가 그냥 확! 희생을!

명자 : 저희가 잠깐 미쳤었나봐유 가지 마세유 어르신 네?

마당극은 디테일한 연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관객에게 잘 들리기 위해서 “우욱...”이라는 대사는 “우욱!!!!!!!!!!!!!!!!!!!!!!!!!!!!우우
ㄱ구아우우우욱!!!!!!!!!!!!!!” 라고 해야 했다. 잊지 못할 것 같다...

3. 맥놀이를 마무리하며

- 소감. 난 어찌 살 것인가...

세상에 있는 많은 소수자들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몇몇의 소수자들과 친해지고 얼굴 아는 사이가 되었던 게 좋다. 이날 아니면 언제 장애인분들과 풍물을 해봤을까. 언제 밀양을 위해서 연극을 해 봤을까. 언제 내가 게이랑 밥 먹 으면서 이야기를 해 봤을까. 언제 아이들이 나보고 쌤이라고 불렀을까. 인턴이 아니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해 볼까.

워낙 다양한 일을 해서 모든 일 하나하나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인턴을 끝내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활동가라는 직업 이다. 내가 경험한 인권활동가라는 직업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바쁘고, 피곤하다. 제일 힘든 것은 힘겹게 이 사회를 바꾸려 해도 고생한 결과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사회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의 청소년,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한 사람이 바른 사회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100명이 한다면 반드시 사회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인턴 기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당일 이후에도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전 국민이 학생들을 애도하며 한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사실 나라 전체가 애도하는 분위기를 나로써 처음 느껴봤다. 뉴스에는 전원 구조라는 거짓말이 나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다가오고 사건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져갔다. 세월호 참사는 내가 사는 나라를 믿을 수 없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잡는 행동을 것이 후세의 몫이라고 수요시위에서 들었다. 세월호 참사를 잊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수요시위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시위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해 열심히 시위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분들은 천 번이 넘도록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 공식 사과를 외쳤다. 그리고 점점 사회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동을 조금이나마 시작하고 있다. 항상 수요시위를 생각하면서 사회와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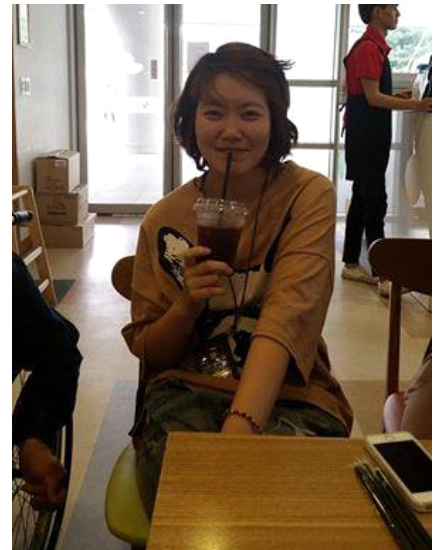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이 사회는 따뜻한 것 같다. 더 따뜻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 잘 있다 갑니다!

맥스에서 기타 치는 아저씨랑 매직카펫라이드 부른 것도 생각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 것도 기억나고, 숙취 때문에 수요 시위 못 간 것도 기억나고, 인권연극제 MT 가서 트럼프 카드로 홀라한 것도 기억나고, 할머니들 연극 도와 드리느라 할머니 여덟 분께 비비크림 발라드린 것도 기억나고, 애기들 다섯 명이 나한테 화내면서 하기 싫다고 한 것도 기억나고, 애들하고 도라에몽 연극한 것도 기억나고, 오픈마이크 공연한 것도 기억나고, 기획하다 공연 팀이 짜증나서 온 것도 기억나고, 오픈마이크 끝나고 기획 팀이랑 공연 팀이랑 다리 밑에서 기타친 것도 기억나고, 밀양북콘서트 가서 공연으로 징치고 임신한 연기한 것도 기억나고, 맥놀이가 해준 인턴 빠이 파티도 기억나고!!!!!!!!!!!!!!!!!!!!!!ㅠ

같이 활동하던 맥놀이 활동가분들께 감사한 것이, 전혀 학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 줘서 더 적응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상담하면 잘하고 있다고 해주고, 집을 떠나 외로워서 장난을 치면 받아주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밥 먹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 좋은 인턴이었다.





하자에서 3개월 인턴 하자!

하자센터 - 2.3~6.3

최민현

목차

1. 첫발

- 하자는
- 하자에 가게 된 계기
- 하자에 온 목적

2. 걸어온 길

- 하자에서 한 일들

3. 돌아보며

- 하자에서 느낀 점
- 마무리

별첨자료

- 하자마을인문학 조별토론 자료

1. 첫발

- 하자는

1996년 12월 18일에 개관한 하자센터는 연세대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청소년 직업 체험센터'이다. 로드스콜라(여행학교-트래블러스맵), 영셰프(요리학교-오가니제이션 요리), 집밖에서 유유자적 프로젝트(무중력 청소년을 위한 음악학교-유자살롱), 소풍가는 고양이/달콤한 꼬끼리(청소년 창업학교-연금술사) 등의 하자네트워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사업인 하자허브는 목공방, 자전거공방, 적정기술공방 등 자급 기술과 생활 기술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면서 자활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도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과 장인들이 청소년과 시민을 만나고 기술을 전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 하자에 가게 된 계기

처음에는 평소 관심이 있던 농사를 지으려 홍성에 있는 협업농장에 가려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관심사인 대안교육 쪽을 찾아보던 중, 규모는 간디보다 크지만 다른 방식의 대안교육 현장인 하자센터에 갈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하자에 관해 찾아보고 이곳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오게 되었다. 라는 말은 너무 뻘하고 실은 평소 하자센터에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찾아보고 알아보던 중 점점 이곳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자리가 잡혀있는 곳이라 생각했고 인턴으로 내가 가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게 되었다.

- 하자에 온 목적

일단 12년째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나로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대안교육과는 다른 하자의 네트워크학교라는 시스템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대안교육과는 다른 방식이었고 그 방식의 교육은 어떤지 보고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6학년의 로망, 인턴십을 하며 사회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보고 싶었다. 물론 무빙스쿨을 하며 해보긴 했지만 그것은 일하기보단 배우는 입장이 컸던 것 같고 그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커피와 베이킹을 하며 일을 해보고 노동력을 나누고 싶었고, 검사검사 내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고 카페를 운영하며 운영하는 법과 노하우 등을 얻어 가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하자 네트워크에 일부가 되어 함께 해보려고 하자에 가게 되었다.

2. 걸어온 길

- 하자에서 한 일들

하자는 기본적으로 판돌, 죽돌, 모두 별명을 쓴다. 하자에서 쓴 내 별명은 방글이, 방글이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는 카페 운영이었다. 주 업무인 카페 운영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여러 사람과 이야기 하고 웃을 수 있다는 점이였다. 특히 중등 죽돌들이 와서 떠드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다. 죽돌은 하자에서 학생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학생은 죽돌, 선생은 판돌 등으로 부른다.

처음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법을 몰라 홍대에 있는 카페바인에 가서 커피 만드는 법과 운영 등을 배웠다. 카페 운영 초반에는 주문도 잘 안하고 수줍음 타며 얼굴만 기웃거렸는데,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져서 나중에는 쉬는 시간 내내 이야기도 할 정도로 녹아들었다. 친해진 계기로는 신 메뉴인 딸기 슬러시와 '그런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히 딸기 슬러시는 만든 이후 중등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내가 하자에서 한 친해지기 프로젝트인데 3회 차에서부터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카페를 운영하며 여러

번 베이킹을 했었는데 도구가 별로 없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라 아쉬웠다. 만든 것들 중에 가장 인기 있던 것은 브라우니였던 것 같다.

하자에서의 경험들 중 가장 나에게 중요했던 경험은 아무래도 잔소리다. 멘토쌤인 두부의 잔소리 덕분에 많은 글씨 교정이 되었고 수월한 카페 운영이 됐다. 만약 두부가 없었으면 정말...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법이나 일하는 법을 배웠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며 경험을 쌓고 일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카페바인

첫 주에 하자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며 천천히 익숙해지던 중 나는 커피 교육을 받으러 '카페바인'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자에서 있고 싶은 마음만 들고 외부로의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기로 했으니 주저하지 않고 가기로 하고 바로 교육 일정을 잡았다. 약 3주 정도 홍대에 있는 '카페바인'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 바인에 간 날. 첫 날이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테스트했고 그 후 핸드드립과 라떼 위주로 배우기로 했다. 실은 오래간만에 뽑아보는 커피라 기억도 잘 안 나고 기계도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바인에 매니저님이 하나하나 다시 알려주면서 감을 찾게 도와주시며 알려주셨다. 이때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에 개인 가게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나 비결 같은 것들은 잘 안 알려주는데 매니저님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본적인 것들과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알려주시면서 "너도 나중에는 너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될 거야. 그때 나에게 한잔 내려줘"라 말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난 바인에서 최대한 많이 배워가고 싶었고 내가 배우는 것을 즐겼기에 바인에서의 활동이 즐거웠다. 짧다면 짧은 바인에서의 교육을 짧게 적자면 손님에서 직원이 되었고, 내가 사회에서 자리 잡는 법을 배웠다.

인문학 강의

하자에서 하자 죽들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다섯 차례 진행했는데 나는 그 중 네 번 참석했다. 처음에 담당 판들이 강의를 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50분 정도 가지고, 모둠별로 준비한 간식을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당 판들이 마무리 이야기를 한 뒤 모든 사람들이 포크댄스 추고 끝나는데 포크댄스 추는 시간이 너무 신기했다.

일단 강의 자체는 역시 선생님마다 재미있는지 없는지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들과 인기 있는 주제들로 강의를 했고 대체로 상당히 쉽게 풀어 얘기해주셨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내 조가 하자 밖으로 인턴 나가있는 사람들을 모은 조여서 대부분 수업에 1~2명씩 빠졌다. 그리고 조금 토론이 안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 진행이 혼잡한 면도 있었다. 우리조가 간식을 준비하는 날에는 같이 모여 스콘을 만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와 혼자 스콘 300개를 구워 힘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래도 인문학 강의는 상대적으로 내용자체가 정말 쉽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문학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토론에 관한 내용은 별첨자료로 내가 서기한 것을 넣어뒀다.

프로젝트 그런데

그런데 프로젝트는 내가 하자에 자리잡기 위해 계획한 프로젝트다. 손님은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단순한 프로젝트이지만 쉽게 친해지기 힘든 초반에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름이 '그런데'인 이유는 '그래서' 다음으로 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다 '카페를 이야기 하는 카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듣고 끝내는 말이 아닌 다음을 이어줄 '그런데'라고 짓게 되었다.

‘그런데’는….

처음 그런데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가 하자에 자리 잡아 가는 것에는 도움이 됐지만 소통하는 카페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대답하기 힘들고 글 이다 보니 서로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듯하다. 하지만 내가 자리를 잡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해줘서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

요렇게

요렇게는 그런데 프로젝트 질문 중 가장 많이 나온, 빵을 같이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5월 말 쯤, 중등 죽돌을 대상으로 시간을 잡아 같이 쿠키를 만들 사람을 6명 정도 진행했다. 만드는 과정은 정말 재미있었는데 결과물이 실패였다. 사브레를 만들었지만 슈가파우더인 줄 알고 산 설탕이 커피용이라 매우 달아져서 먹기 불편했다. 하지만 다 같이 즐겁게 만들었고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 다행이다.

발표

인턴이 끝나고 6월 3일 나는 방글이로서 하자 내부에서 인턴십 발표를 했다. 발표 준비가 정말 힘들었지만 미리 해놓으면 학교에서 좀 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발표 시간까지 정해두고 맞춰서 했다. 발표를 끝내고 중등 죽돌들이 선물을 줄 때에는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비싸다고 못 만든다 한 걸 들었는지 크림치즈를 파리바게트에서 사서 줬다. 정말 감동 아닐까. 선생님의 마음을 약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발표를 준비하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애드리브로 어찌어찌 커버해서 무사히 발표를 마치고 모든 하자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인턴을 마쳤다. 하자에서는 처음 받는 인턴이었다고 하지만 인턴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다.

여담으로 발표하고 이틀 뒤 청소하러 또 와서 사람들이 놀란 건 안 비밀.

3. 돌아보며

- 하자에서 느낀 점

일단 역시 대안교육은 모든 곳의 철학과 생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은 없던 것 같다. 카페를 하며 쉬는 시간마다 학생을 만났고 얘기했는데 결코 하자 생활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 중 내가 본 하자의 장점은 미래에 관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곳이 하자다’라는 느낌을 나는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재미있게 느낀 건 별명을 쓰는 것이었는데, 별명을 쓰는 덕에 중등과 청년 과정 사람들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자기만의 이름이 있으니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것 말고도 느낀 것은 많았다. 일반적인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느껴졌고 앞에 말한 듯 하자만의 느낌도 있었다. 결국 내가 느낀 하자의 느낌은 모두가 친구 같은 공동체라는 느낌이었다.

책임감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언젠가는 해야 하니

천천히 조금씩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언젠간 해야 할 일이니 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그걸 보며 드는 생각은 자신이 하기 싫어서 미뤄 나중에 힘들더라도 지금은 놀 거야! 라는 생각이 싫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자신이 책임지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좋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면 더 힘들고 고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즐거웠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하자에서 든 이유는 내가 할 일을 미뤄서 고생하다 들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재미있으면 됐지 않나 싶다.

배려

서로 다른 스타일에 대한 생각은 커피를 배우면서도 하자에서 일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며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선호하는 것이 있고 선호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지 않기에 부딪치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면 자신이 알던 것과 또 다른 새로운 점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다. 하자에서 생활하며 가장 많이 본 것이 배려인 듯하다.

삶의 길

내가 하자에서 인턴하며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 인 것 같다. 서로 다른 스타일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게 사람마다 사는 법이 있고 공동체마다 사는 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살든 장단점은 전부 있고 그것을 감수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안 것 같다.

- 마무리

마무리 준비를 하며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대부분 한 말들이 언제나 방글이가 웃고 있어 좋았다고, 그래서 쉽게 말걸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인턴이 너무 짧다는 것과 프로젝트를 크게 하지 못해 내가 생각하던 '소통하는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들 좋았다고 해줘서 인터뷰를 하며 매우 감사했고 아쉽기도 했지만 후련하기도 했다.

마무리 과정이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배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덕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던 것 같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굳이 지금 내 기분을 설명하자면 후련하면서 아쉽고 다 끝난 기분인데 아닌 것 같은 애매한 기분이다.

사실 처음에 하자에 와서 얘기할 때만 해도 하자에 관해 잘 몰라 카페 운영만 잘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 카페바인에서 커피를 배우다 보니 내가 하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카페 운영도 있지만 하자의 교육철학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인턴을 시작하고 카페 일보다는 인문학 강의와 프로젝트 그런데에 집중했다. 그렇게 인턴을 하다 보니 막상 카페는 하자 사람들과 만나는 매개였을 뿐 사람과 만나 얘기하며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다. 다 끝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카페로 오지 않고 하자에 인턴을 왔다면 그래도 다른 방식이 아닌 결국 같이 얘기하고 놀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별첨 자료

- 마을 인문학 캠프 조별 토론 내용

(총 14 모둠, 나는 14 모둠)

하자 마을 인문학 입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다.

1강. 생각을 살리고- 이 우연한 만남, 전환을 위한 1년 (강사: 조한, 토론: 희옥스)

말을 쉽게 거는 사람: 타인과 친해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으면 나에게 대한 정보를 줘라.

사람은 소통을 하며 성장한다. '진화' '개인과 사회'

'종의 진화'

인간이 가장 고등생물이고 가장 우월하다?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의 진보'

불, 도구, 직립 보행, 목축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현대 사회

필요성의 의한 새로운 문명. 적응과 진화(발달) '진보'

'불필요한 진보' 영상 (Steve Cutts의 Man)

'거시/미시 진화, 그리고 개인과 구조'

'변화의 선두' 한명이 시작하고 두 명이 하고 세 명이 같이하면 같이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

영상 (Sasquatch Dance Festival)

'마을, 돌봄 공동체와 창의적 공유지대'

모듬 토론 (50분 동안 흩어져 모듬별로 토론 하는 시간)

거품: 티핑 포인트 영상 인상 깊다.

지우: 동영상 2번째 꺼 너무 부정적이다.

루시드: 무언가 하나라도 해보자 해서 왔고. 두 번째 영상이 인상 깊었다. 인간이 혼자 지구를 독점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이기적이라 생각한다.

마: 인상 깊은 것은 무신론이라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놀라웠다.

바라: 과연 이 세상의 주체는 무엇인가?

제니: 소속된 것이 싫다. 과연 해답은 무엇인가?

고운: 두 번째 영상. 평소에 놓치고 살았던 것, 지금 당장에 벽차 생각하기 싫은 것을 보니 죄책감이 든다.

방글이: 나.

새암: 조안이 말한 인간이 아메바보다 낫다. 라는 말이 위험하다 생각한다.

2번째 영상 관련 토론.

마: 지우 긍정적인 부분이 뭐야?

지우: 식물일날 나무 심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여줬다.

거품: 이 영상은 발전에 관한 것을 비춘 영상이라 부정적 이었던 것 같다.

루시드: 인간이 지구 전체를 혼자 쓰는 영상처럼 보였다.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거품: 나 같은 경우는 지구를 인간의 것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거품: 제니가 말한 주제로 얘기해보자 꼭 해답은 마을인가?

루시드: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제니: 하자 같은 거.

마: 자주 보는 사람들이 같이 노는 것.

세암: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힘들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이상적일 뿐….

제니: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모이면 해결이 된다. 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내 심리는 단체에 있더라도 계속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방글이: 공동체는 하나의 철학이다.

마: 공동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소속된 걸 싫어하고. 이상적인 말인 것 같다. 요즘은 자기 자신 살기 바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의 대한 무관심이 되는 것 같다.

거품: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피곤하면 잠시 숨어 쉬어도….

루시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은 편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공동체는 방글이 얘기한 것이라 비슷하다. 공동체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나눠주고 남을 배려하는 것.

거품: 공동체 경험했다 하는 사람이 방글이 뿐? 대부분 조금 한 것인가요? 루시드가 항상 배려하는 공간이라 했는데 그런 것이 피곤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루시드: 배려도 남에게 신경 쓰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너머 갈 수 없는 것이 배려이다. (이해)

거품: 하자 이야기 해봐요.

제니: 저는 작년에 하자에 와서 단체에 소속 되니 든든해지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인턴 생활하고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든다.

고운: 소속감이 좋다. 로드스쿨라를 예로 들자면 누구나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려면 서로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좋다.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목적지, 길이 하나인 것 같다.

마: 유자는 별로 공동체라기보다는….

루시드: 제가 유자에 있으면서 그곳은 무거운 느낌은 없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대개 편하게 지냈다. 저번에 공연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공동체 같았다. (거기는?? 소속감이 조금 떨어지는 듯함)

(다들 토론을 많이 안 해봄. 올해 들어 안 해본 사람도 있음)

거품: 첫 날이고 이 멤버 계속 토론할건데 다음번에는 서로 토론 할 것을 나눴으면 함.

조에 대한 내 생각.

너무 소속감이 떨어진다. 대화를 보면 유자를 거기를 등으로 말에 자기 자신이 같이 있지 못하다. 다른 조에 비해 말이 없는 것 같고 대화가 끊어진다. 두부 말씀으로는 전부 인턴인 조라고 해서 그렇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부 공동체와 소속감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있고 없더라도 약간 이상의 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모듬 발표

1조: 작업장 로드스쿨라 신입생 조. 키워드 '진화' 결론내기는 너무 힘들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극단적이다. 두 명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2조: 자기소개 후 진행 동영상을 보며 너무 현실적이었다. 너무 철저히 인간중심적으로 돌아간 것 같다. 사회에 대한학교에 대한 인식이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호랑이와 원숭이 영상은 호랑이는 우리고 원숭이는 기득권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조안이 도입부에 말씀하신 '청소가 명상이 된다.'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작년에도 네트워크 학교가 모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이 일이 더 친해지고 가까워 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3조: 인문학이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 각자가 이해한 인문학을 얘기했다. 넘겨짚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된다. 티핑 포인트 영상에서 한사람이 하면 거기에 또한 사람이 붙고 또 붙다보면 그런 것이 인문학이 아닐까?

4조: 자기소개 후 영상 'Man'을 보고 충격적이지만 예정된 미래 같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과장됐었지만 인간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린 어떡하지? 라 생각했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앞으로만 갔지만 우린 뒤를 돌아보자. 라 생각했다. 춤추는 사람 영상은 처음에 춤추는 사람 멋지다 닳고 싶다 라 했고 다른 사람은 힘을 주는 두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사람도 있었다.

5조: 자기소개 때 취미나 관심사를 얘기했다. 강의 내용은 알 것 같지만 모르겠지만 알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Man'을 보고 충격적이고 리얼했다.

6조: 자기소개. 조는 사람도 있었다. 첫 시간이라 인식의 짝을 튀우는 시간인 것 같다. (Man) 영상을 보며 나는 저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있을까? 저 영상이란 나랑 뭐가 다를까? 생각 했고 춤추는 영상은 나는 저 중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했다. 과연 마을은 무엇일까? 하자는 마을일까? 라는 얘기를 했다.

7조: 무엇이 인상적인지 이야기를 했다. 창의성은 무엇인가? 연대는 무엇인가? 등 질문을 했고 조금 강의가 어려웠다고 한다. 영상은 6조와 같은 이해가 어려웠다. 등

8조: 영상 이야기를 많이 했다. 'Man'과 춤추는 영상. 'Man'은 2번째 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두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외계인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춤은 6조와 같은 난 처음 춤을 추는 사람인가. 두 번째인가. 진보와 진화에 대해 얘기하다. 조금 희망차게 끝났다.

9조: 세 학교가 있는데 그 분위기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안이 서로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 했는데. 그것에 관해 얘기했고 춤 영상을 보며 개인이 모여 사회를 만든다. 준거집단이란 뭘까? 준거집단 이라 생각하면 하자가 생각나지만 과연 하자가 준거집단인가 라고 생각했다. 과연 나의 고민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준거집단이라 할 수 있는가? 준거집단이 형성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그러면 준거집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것 같다. 나는 과연 어떤 준거집단을 만들고 싶은가? 라 생각했다.

10조: 다들 처음에는 어색했다. 각자 관심사와 맥락이 달라 어색했던 것 같다. 각자 이해를 어찌 했는지 이야기를 했고 좋은 시간 이었는데 어려웠다. 과연 인간이 가장 뛰어난가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 마지막에 토론주제가 없어서 애매했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다음시간에는 토론 주제를 가져오기로 했다.

11조: 처음에는 자유롭게 얘기하자 했는데 눈치만 보다가 얘기하면서 진보와 퇴보에 관해 얘기를 했다. 끝까지 진보하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 길을 온 길을 내려오는 것인지 다른 길을 내려가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퇴보는 다른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퇴보는 진보의 반대말이 아니다 라고 했다. 마무리로는 앞으로 보면 훈훈하게 인사하는 걸로 결정했다.

12조: 자기소개 후 인상적인 것이 진화도 창조이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했고 대부분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단어여서 얘기하기 힘들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왜 전환을 위한 1년인지 얘기하려 했다.

13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사람의 기억력이 짧아 노트를 하는 것이 좋다. 로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같이 사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 좋지만 조금 힘들다 마치 1000개의 CCTV가 있는 기분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진화와 진보가 무엇일까? 진화는 알겠는데... 진보도 중요한 것 같다. 처음이 중요한 것 같다 등의 얘기했다.

14조: 인턴생 모음 조 자기소개 후 2번째 영상 얘기.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와 죄책감을 느꼈다. 등으로 나뉘고 자기 경험에 비춰 얘기한사람도 있었다, 한 친구가 마을만이 정당인가에 대하여 얘기했고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 후 하자마을이 어떤 공간인가에 관해 얘기했고 친구가 있어 좋았고 기댈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15조: 신입 판돌 조는 리플을 달기로 함.

하자 마을 인문학 입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다.

2강. 기운을 살리고- 무중력 시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은 어디에 있을까? (강사: 아키)

사회적 기업 유유자적 살롱 공동 대표 아키.

1막 무기력?

무기력이 뭘까?

몸에 힘이 빠지고 어떤 것도 하기 싫은.

왜 그랬을까?

아키: 학생 때 학교 친구가 두 명밖에 없었다, 자신은 무기력했다. 근데 과연 무기력이란 무엇일까?

영상 (중국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시설)

그들은 고독하다. 그들은 인터넷을 하며 살지만 인간의 대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독할 것이다.

이들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화난다, 슬프다, 이해할 수 없다, 등 반응이 온다.

자금은 무중력 시대이다, 무중력은 공간이나 물질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도 있다.

사람과 소통하려면 끌어 당겨야 한다. 물론 그것도 자동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을 끌어 당겨야 소통 할 수 있다.

영상 (Gravity 영화 예고편)

아키: 마지막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없어지는 소리. 그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라비티는 인간의 외로움과 위험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았다. 우리 안에 걸쳐있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멀리 있지만 큰 곳으로 끌려가려 하고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은 붙어 있다.

무기력과 무중력의 차이

팽이: 차이는 자신의 문제냐 다른 것의 문제냐의 차인 것 같다.

무기력은 자기 자신 안에서 고장 난 것 이다.

무중력 하다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맞는 곳에 있느냐.

2막

멘봉의 버뮤다 삼각지대.

세 가지 감정의 악순환

우울하다(마음, 심리)

외롭다(관계, 상호작용)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회 활동, 행위의지)

이 세 가지가 계속 순환한다. 그럴수록 빠져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세 가지가 전부 생기기전 주변에 도움을 청해라.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찾아가기 중력&인력= 매력

2강 속제

하자 마을 안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찾고, 이유를 쓰기

* 사람

* 공간

* 일(프로그램)

모둠 토론.

1. 서기와 발표 정하기. (가위바위보)ㅋㅋㅋㅋㅋㅋ

마 결정

2. 감상평

루시드: 매우 집중되고 흥미로운 주제였고 굳이 꼽자면 그레비티 트레일러가 인상 깊다. 무중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수동적인 삶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남에게 움직이는 그런 것.

그래서 무중력과 무기력을 좋게 보지 않았다.

Q&A

비판적이라 생각 하시는 거죠?

- 조금

한 번도 무기력이나 무중력 상태에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무기력은 개인의 문제인 것 같다. 즐기던 것이 질릴 때 빠지는 것 같다.

아기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의 탓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토론 경험이 없어 생각이 꼬이고 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마: 아키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라... 우리가 말하는 히키코모리나 그런 사람을 유자에서는 무중력 청소년이라 한다. 무중력 청소년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툭 치면 날아갈 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다.

지우: 나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말씀 하신 것을 격어 봤다. 학교를 자퇴하고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유자에 와서 많이 회복 되었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적당 선을 지킨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관심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말 트는 것도 1달 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

제니: 저번보다 집중이 조금 안 됐다. 나도 저 상태에 빠진 적이 있는데 아키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중력을 찾아 가라 했다.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 번 무중력을 찾는 것에 생각을 하게 됐다.

바라: 생각이 조금 필요.

나: 무중력은 가족관의 관계에서 있는 것 같다.

고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멘봉의 삼각지대 인 것 같다 나는 무기력 상태에 자주 빠진다, 그래서 드라마를 자주 본다. 아무런 할 일 없을 때. 멍 때리고 본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그랬다. 그냥 이 생각이 났다.

세암: 저는 이 세 가지의 감정이 없지만 그렇기에 뭔가 더 붕 떠있는 느낌?

루시드: 나도 유자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 확실히 무중력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바라: 아키 강의를 듣고 공감만 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다. 방글이의 말을 듣고 실패를 인정하면 나아진다는 말을 자신 은 실패를 인정하면 더욱 빠질 것 같다.

루시드: 긍정적이면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

나: 슬퍼하되 후회하지 말아요.

루시드: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어찌 생각 하시는지... (치료방법과 당사자들의 행동)

(처음에는 어찌 청소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의 중독 상황을 보고 쌍방의 잘못된 것 같다.)

고운: 아키가 말씀 했는데 정말 고독해서 게임을 할 수 밖에 없었나? 집에 여동생이 있는데 총게임을 매우 많이 한다.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게임을 한다. 과연 무슨 환경 때문에 문제인가.

루시드: 외로운 뿐만 아니라 놀이 문화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다.

나: 너무 황설수설 적기 힘들다.

루시드: 사회를 바꾸려면 어른들 뿐이다.

바라: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과가 보이는. 그런 것에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하게 되는 글을 읽어 본 적 있다.

지우: 즉각 적인 보상이 있고 재미있으니까. 간편하게 집에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재미있으니까.

하자 마을 인문학 입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다.

4강. 공간을 살리고- 삶 디자인 공동생활 거점 (강사: 활)

시작- 영상 (식수 관련)

자연 = 모두의 것 -> 산업혁명-> 산업팽창 -> 공급사회

공급 사회 100% 시장의존의 삶 = 돈 우선사회 =

경쟁 -> 남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고립 -> 돈이 없으므로 생기는 무기력

활은 자본주의와 자신만의 노 머니 사회를 나눠 돈을 벌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지만 활동을 하고 놀 때에는 노 머니 사회에서 활동 한다. 돈이 없어도 즐겁게 놀기 위해.

쌀은 돈으로는 별로 안 되지만 들고 있으면 행복해진다. 물물 교환은 서로가 즐겁다.

돈이 많이 안 들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조별 토론

사회: 지우

서기: 방글이

지우: 돈이 아닌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나중에 한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

거품: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돈으로 사야하는 것이 아쉽고 흐름을 바꾸기 힘드니 2층집을 지어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다.

방글이: 요약.

거품: 핵심 단어는 공급 사회. 원래는 스스로 하던 자급의 생활이 점점 돈으로 삶을 공급받는

방글이: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2층집에 살아갈 수 있다면. 될 것 같다.

고운: 친구들과 만나려면 용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놀지 못한다. 공급받는 삶을 살지 않고 적어도쌈 채소쯤은 내가 키우는 걸로...

바라: 활이 보여주신 제비 사진을 보고 그건 제비여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 했다. 하자 안에서는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하기 힘들 것 같다.

제니: 운동해야 한다 생각하고 가장 먼저든 생각이 헬스 등록이었다. 생각해보니 옆에 있는 강변을 걸으면 될 것을 왜 내 생각이 소비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이 없이 친구랑 어찌 놀지 모르겠다.

돈이 없으면 생활하지 못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해줄 수 있을까.

인맥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 돈을 많이 쓰는 친구들과 놀면 돈이 없어지고 돈을 안 쓰는 사람들과 놀면 돈은 안 쓰게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

고운: 쌈 채소?

바라: 고운이 키운 거 서리하는 정도?

거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정도?

제니: 요리?

지우: 딱히 없는 것.

방글이: 자급 기술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것도 자급 기술이다.

돈이 아니더라도 삶에 중요한 것

친구, 시간, 지식, 지혜, 음악, 가족, 소통, 관계, 취미

하자 마을 인문학 입문: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다.

5강. 기술을 살리고- 아라우에서 밀양까지: 거대기술의 탄생, 그 이후 (강사: 학이)

과학자는 나쁜 놈?

가능성이 있지만 모른 척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조별 토론

로폴 바라: 세상에 새로운 물건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건 물건 탓이라 생각했는데 미국총기협회의 말(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을 듣고 감동이 왔다.

방글: 총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고운: 저는 총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말에 이해가 안 간다.

마: 어떤 기술이 발명됐을 때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 어떻게 해도 항상 나쁜 사람은 있으니까 악용될 것 같다.

거품: 신이 만약 있다면 인간을 원시 시대로 되돌릴 것 같다. 기술이 발전하면 끝은 그렇게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식이 아닐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처럼.

마: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방글: 어차피 지구는, 우주는 죽는다. 끝이 있다. 결국 끝이 있기에 나는 내 세대를 신경 쓰겠다. 제 삶은 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장이니까.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크게 후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후대가 나를 나쁜 놈이다 생각 안하게끔 하려고 사는 거고 후대를 생각 안하고 사는 사람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는 거고. 인문학은 답이 없고 저에게 인문학은 내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갖는 시간.

제니: 총기협회가 가치중립성의 논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 같다. 그걸 어떻게 반박하지?

고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발명한 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라: 노벨상의 노벨이 만든 다이내마이트는 처음 광부를 위해 만든 것

방글: 애초에 광부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니고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쓰면 좋겠다고 싶었다. 사람들이 다이내마이트를 전쟁에 쓰니까 충격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만든 것이다.

거품: 기술과 자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자작업장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알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만약 몰랐더라면 나는 정말 악인이 됐겠구나 싶다.

거품: 반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죄는 누구나 짓지만 반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다.

100일간의 시민활동가 생활

참여연대 - 1.6~4.20

장기증

목차

1. 제 인턴을 소개합니다.

- 동기와 목적
- 참여연대가 뭐요

2. 참여연대 인턴 13기 프로그램

- 33명의 청춘들과 함께한 7주

3. 시민참여팀 자원활동가!

-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4. 인턴이 끝난 후에

- 미디어 홍보팀 자원활동
-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
- 인턴십 자체 평가

그 외

별첨자료

1. 저의 인턴십을 소개합니다.

1-1. 동기와 목적

내가 중학교 3학년 당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길거리 집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사회의 문제가 넘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것이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후로 답답한 기분에 과거의 사건들을 공부하고 현재 사회 이슈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3년이 동안 나에게는 두 차례의 무빙스쿨이라는 기회가 있어 당시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나갔지만 단순한 나의 성장에 그쳤다는 것이 매번 아쉬웠다.

나는 내 노력으로 좀 더 넓고 다양한 곳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나에게도 이롭고, 조금이나마 사회에도 이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참여연대에 지원했다. 굳이 참여연대라는 큰 단체를 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시민단체가 사회에 주는 영향, 실질적인 활동과 구조를 몸으로 느끼고 파악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인턴십 일정>

- 1월 6일~2월 20일

오전- 시민참여팀 자원활동(회원 관리 프로그램(MRM) 업데이트, 일상 업무 지원)

오후- 참여연대 13기 인턴 프로그램 합류(일원으로 참여)

- 2월 20일 ~ 4월 12일

오전 오후 관계 없이 시민참여팀 자원 활동(회원 관리 프로그램(MRM) 업데이트, 일상 업무 지원), 미디어 홍보팀 자원 활동(인터넷 상의 홍보 현황 파악, 인적 네트워크 정리 작업)

- 4월 12일~ 5월 30일

이 기간은 주기적으로 출퇴근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기에 틈틈이 찾아가 일을 도와드리고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 기획 및 참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을 함께 했다.

1-2. 참여연대가 뭐요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내용을 자신들의 가치로 삼고 활동하는 ‘권력 감시단체’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권력이라 칭하고 그들을 감시한다는 것에 반감을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은 전혀 그리 불공평한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권력을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하여 보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에 지배 받는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침묵한다면 권력은 점차 커지며 자유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한다. 이에 동의하며 함께 나서거나 혹은 일, 생활에 치여 함께 행동할 수 없어 후원을 통해 참여하는 많은 회원분들이 계신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로 시작했다. 20년을 거치며 국제적인 정부세력의 폭력을 감시하는 평화군축센터,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부조리를 감시하고 함께하는 민생희망본부 등을 만들어내고 지금껏 영역을 넓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발횟수는 500건이 넘어 ‘고발연대’라는 별명도 붙었고, 현재 회원 수가 14,000명가량 된다. 참여연대를 찾아보면 그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니,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단체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재정에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1.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다. 2013년도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2%로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회비는 최소 5,000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2.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다. 정부 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다.

3. 참여연대는 재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연다. 이때,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다.

요즘은 초창기 회원 분들과 오래 상무하시는 간사님들이 나이가 드셨기에 젊은 2~30대층의 유입이 시급했다. 다행히도 그 점은 2014년이 20년째가 되면서 20주년 총회도 크게 열고, 젊은 층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아카데미 수업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끌어내는 것에 성공한 듯 싶다. 상근자도 신입 간사를 모집했는데 대부분 20대의 젊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다시금 건물 내에 활기가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2. 참여연대 인턴 13기 프로그램

2-1. 33명의 청춘들과 함께한 7주

처음 나의 멘토를 담당하신 김한보람 간사님은 인턴십 중 상세한 일정은 첫 주에 천천히 함께 계획해 보자고 하셔서, 나름 머리는 굴러보았지만 내게 정보가 없고 원체 적극적인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도 살 높은 산다고, 인턴십을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와서 ‘젊은 층들을 위한 연수 차원으로 13기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라며 일정이 오후에 진행되니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다. 나로서는 또래에 가까운 형, 누나들과 많이 만나보고 편한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흔쾌히 지원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인턴십 참가자로 뽑혔고 어쩌다 최연소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가 되었다.

참여연대
청년인턴 13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모집인원 35명 (수령으로 선별)
지원자격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활동기간 2014. 1. 6(월) ~ 2. 20(목)
총 7주, 주4일(오후 2시-6시, 총 108시간)
활동내용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사회운동 강연 및 토론 + 직접행동 기획 및 실행
접수마감 12. 23(월) 자정
접수방법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접수
홈페이지 www.peoplespower21.org
인센티브 인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 시민운동현장 체험 / 인턴 13기 수료증 발급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 02-723-4251 intam@pspd.org

당시의 13기 인턴 모집 공고

일	시간	주제	강사	주요 내용
1월 20일(월)	14:00-15:30	토론	민주주의에 관하여 제 워고. 토론자가 (2)	김민준 <청자가 떠난 자리>
	16:00-17:30	토론	문화·종교 공부하기 (1)	정희 <그리고 싶은 것> 보고. 토론자가
2월 21일(화)	14:00-15:30	강연	정치철학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	정치철학을 통해 시민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개념을 탐색
	16:00-17:30	토론	문화 워킹샵	문화에 대한 '문화'의 정의를 둘러싼 워킹샵을 통해 본 문화의 가치
1월 22일(수)	12:00-13:00	강연	수요집회 참석	일반론 워킹샵 주제 재검토 촉구하는 수요집회
	14:00-15:30	강연	인턴십의 역할	인턴십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월 23일(목)	14:00-15:30	강연	인보적 성격인가?	인보적 성격, 인보적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
	16:00-17:30	토론	직업행동 기획하기 (2)	직업행동 기획한 직장에서 공유하기
1월 27일(일)	14:00-15:00	토론	민주주의에 관하여 제 워고. 토론자가 (3)	우석훈, 박근일 <대한행 시대>
	15:00-16:00	강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턴십을 통해 이야기
1월 28일(월)	14:00-15:30	토론	문화·종교 공부하기 (2)	정희 <책 읽는 방법> 보고. 토론자가
	16:00-17:30	강연	행동과 통찰을 연결하는 논리로 바라보기	행동과 통찰을 연결하는 논리를 통해 우리는 사회 인본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29일(수)	14:00-15:30	강연	행동, 복지를 고민하다	기초생활급부금 수급자 지원
	16:00-17:30	토론	직업행동 기획하기 (3)	직업행동 기획한 직장 가기, 예산안 제기
2월 30일(목)				실 연휴

인턴 13기 일정표 중 발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보고서에는 추려 쓰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 유형을 간략화하자면 이렇다.

- ① 강연 ② 토론 ③ 회의(모임) ④ 방문 ⑤ 이동, 직접행동

인맥이 많은 참여연대인지라 강연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각 분야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솔직담백한 분들이셨고, 방문 및 이동 하며 배우는 시간도 나의 눈과 귀를 트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보고서에는 위 분야별로 제일 기억에 남고 유익했던 프로그램을 1~2개 정도 소개하려고 한다.

① 강연

<국정원 사건, A부터 Z까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국정원을 생각하면 속이 쓰릴 정도로 억울하다. 그만큼 인턴을 시작하기 전 학교에서도 후배, 친구들과 즐기치게 공부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덕분에 국정원에 대한 강연을 듣는 것과 동시에, 국정원 사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던 '김용판', '원세훈' 등의 재판에 몸을 던졌던 박주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막상 마주친 박주민 변호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 보였다. 그동안 신념을 다해 자신의 일에 임했고, 압박도 많이 받으며 살아온 인물이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강연 내용은 복잡한 뜻이 없고 단순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총정리하여 질의응답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었는데, 담당 변호사였던 만큼 사건의 전말과 시차에 따른 정치인들의 행동이 뜻하는 의미들을 열심히 설명해주셨다.



특히나 단순히 '이놈 나쁘다'라는 식의 내용을 떠나서, 국정원 사건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빗대어 우리의 지식이 굳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던 기분 좋은 강연이었다. 조용히 듣기만 했던 나도 이 분에게는 질문 공세를 날렸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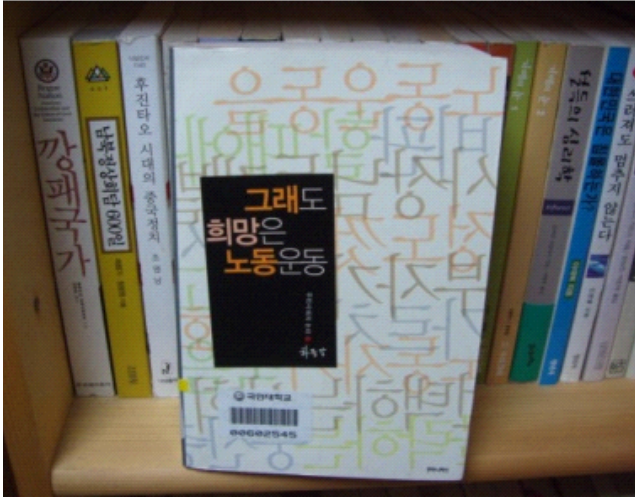
② 토론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고 토론하기> - 하종강,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단순하다면 단순한 방식이지만 유익했다. 33명이 조를 나누어 인턴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한 주에 한 조씩 책을 선정해 다 갈

이 읽고, 그 주를 맡은 조가 약간의 책 소개와 함께 책과 관련된 토론 주제를 몇 가지 정해오는 것이다.

내가 속해있던 조가 맡은 주제는 ‘노동’이고, 책 선정은 하종강 선생님의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었다. 평소에도 좋아하던 주제와 책이니만큼 반가웠다. 책에서는 하종강 선생님이 노동운동 연구가로서 전국 각지의 부당 해고자와 같은 노동법의 악용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사연을 담고 있다. 그리고 조금은 주관적인 하종강 선생님의 대처방안과 생각들을 적어놓으셨다.



더 재밌는 것은 하종강 선생님이 집필해왔던 책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강연해왔던 내용을 엮으면 좋은 책이 될 것이라는 팬(?)들의 제안으로 펴내기 시작한 책이라고 한다.

덕분에 우리는 노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당시의 토론 주제는 이렇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왜 필요한가?

> 최저임금 5210원, 적당한가?

등으로 함께 고민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형, 누나들의 진짜 사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노동의 현실이 한층 깊게 다가올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③ 방문

<국민 참여재판 방청> - 국민 참여재판을 실제 방청하고 사법 영역에서의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 토론

이 프로그램은 13기 인턴십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민단체들도 방문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내게 제일 크고 깊게 다가왔던 방문 일정이었다.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된지라 나도 싱숭생숭했다. 이렇게 기회가 되어 찾아간 곳은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주변이 넓고 역 근처에 있어 찾아가기 쉬운 곳이었다.

재판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한 남성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여 동생과 둘이 살게 되었는데, 생활 또한 빈곤한 쪽이었고 젊은 나이부터 잡일로 돈을 벌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성격이 착해 화 한번 내지 못하고 순진한 분이라 늘 속고 살며 분한 나날을 보내고,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어 약간의 생활비로 살던 남성이 새벽에 편의점 옆을 지나가다가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핸드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괜히 처지를 비교하며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부엌칼을 가방에 넣고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 사건이다.

물론 피해자의 상해 없이 피의자가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총동적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사법의 영역으로선 그 정도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가 보다.

그 사건의 판결을 함께 방청하면서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그런 죄인을 열심히 변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국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닌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자료 사진들과 그가 원래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들이 마음을 찡하게 했다. 그와 반대로 검사들 또한 인상이 매섭고 말투가 사람을 옥죄게 만드는 것이... 아무나 법 조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검사 측, 변호 측의 주장과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난 후 점심시간을 끼고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처음 법정에서의 순간을 보내서인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판결 시간이 찾아왔다. 그 분에 대한 판결은 3년의 집행유예였다.

비록 그 죄는 씻을 수 없으나 본인의 평소 행실과 미수 사건이라는 점, 그렇게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된 듯하다. 대부분 방청객들이 동의할 만한 훌륭한 판결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3년을 좋은 모습으로 생활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총동적으로 벌인 일에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 판결을 담당하신 판사님은 이번 판결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턴들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받고 친절히 대답해 주셨다. 나이가 얼핏 봐도 50대 후반이신데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시겠다니 이렇게 열혈법조인이 계신다는 것이 기뻐다.

졸업하고 시간이 남을 때면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더라.

④ 직접행동

- I+KBS, 병든 KBS를 치료해드립니다.

직접행동! 해석하기 애매한 이름이다.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직접행동? 정말 아리송했다만. 말 그대로 직접행동이다. 내가 세상에 불공평하다 외치고 싶은 것,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들, 각자의 이상을 품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집회도 대규모 직접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온 후에 생각해보니 인턴 기간 전체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직접행동을 기획, 행동한 것은 꽤나 많은 노력의 투자와 그에 걸 맞는 배움이 있었다.

시작은 당연히 직접행동 조부터 짜야 했는데, 1월 6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다함께 MT를 떠났다. 장소는 무작정 따라가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렇게 떠난 엠티에서 직접행동을 재밌고 의미있게 실행한 남성 2인조의 이야기인 '에스맨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직접행동 조를 정했다.

1차적으로 조그마한 종이를 각자 3개씩 가지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제일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키워드를 적어보라고 해서, 난 듣자마자 '언론'을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비슷한 영역끼리 묶어서 종이가 많은 부분을 하나의 주제로 정하고 원하는 주제로 들어가 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육, 정치, 언론, 노동 정도가 나왔다.

나는 그 중 '언론' 조에 들어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봐도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굴러가는 것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정부가 언론 매체들을 붙잡고 은폐시켜 대다수의 국민들이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렇게 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근 한 달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프로그램 시간에만 4번의 회의와 따로 시간을 잡아 틈이 날 때마다 모여서 준비를 했다.

우리 조는 언론과 정치·경제 권력의 유착 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합리한 일들이 공정하게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던 중 공정성 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KBS의 주장을 접

하게 되었고, 과연 광고를 없애고 수신료를 인상하면 방송의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 정보를 알고 있던 나도 이 이야기를 잘 풀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토론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현재 KBS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지금의 공영방송이 권력비판이 없는 뉴스보도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KBS 사장의 임명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공영방송을 구성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시청자, 즉 국민이 빠져있다는 점이였다. 특히 KBS의 경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비해 주요임원의 임명, 프로그램 편성, 비평 등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고 있는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언론조는 KBS가 진정 국민의 방송이라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직접행동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인 홍대입구역에서 진행했다. 의사 가운데 입을 병들어 있어 제 기능을 못하는 KBS에게 약을 처방하자는 의미로 약 봉투와 약의 의미를 담은 초콜릿을 나눠주며 KBS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제안을 이야기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KBS직원이 울지도 몰라! 라고 하며 상상했던 장면이 실제로 연출되어 신기하기도 했다. 우리의 의견과 활동이 KBS 직원들 사이에서 번져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도 갖게 되었다.

물론, 아직 이 문제는 그대로 진행 중이고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변한 것도 크게 없다. 하지만 후일에 시민운동가로 살든 아니든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나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직접행동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성공한 시민운동은 이러한 경험들의 누적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다.

● 마지막을 장식하는 수료식!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처음엔 형, 누나들뿐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미운 정 고운 정 다 주고받으니 끝나갈 즈음엔 서로 아쉬워할 뿐이었다.

형식은 1층 카페에서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벽을 따라 맛있는 음식거리들을 진열해놓고 자유롭게 먹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물론 그 전에 각 조별 직접행동의 과정 및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과 우리를 담당하신 김주호 간사님이 PPT와 함께 우리를 떠나보내는 소감도 이야기해주셨다.

나는 오전엔 2층에 위치한 시민참여팀에서 활동하고 오후에는 13기 인턴을 병행해서 사실 다른 인턴들만큼이나 아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자신들보다 어리고 미숙한, 특히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

이 친근하게 대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인연이 되면 꼭 다시 만나서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들 분위기에 취해 시끌벅적해져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료식은 아니었다만 시끄럽게 즐겁게 마치는 것도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다.

나에게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남았기에 아쉬워하면서도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그래도! 역시 친하게 지냈던 기억에 나를 잊지 않은 몇몇 형, 누나들은 자주 찾아와 점심 한 끼를 쿨~하게 사주곤 했다. 인맥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훗날 보다 멋지게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며... 안녕~



3. 시민참여팀 자원 활동가!

약 7주간을 오전에는 자원 활동, 오후에는 13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보냈다. 길다면 길지만 최소 14주 이상을 지내야하는 인턴십의 특성상 절반 이상 남은 셈이다. 이제 꿀 같은 만남의 연속을 멈추고 오전 오후 모두 2층 시민참여 팀에서 일하게 된다.

시민참여팀의 소개를 잠시 하자면, 시민들 간의 연대를 위해 기존 회원들을 위한 월례 모임과 비회원을 포함한 주변 시민들의 인문지식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느티나무', 보다 많은 신규 회원의 가입을 위한 활동과 자원 활동가 관리를 담당하며 회원관리 프로그램인 'MRM'을 통해 우편물과 가입 여부 등 모든 업데이트도 관리한다.

초반에 인턴십과 병행했기 때문에 짧은 활동시간으로는 나의 담당이 정확히 잡히지 않고 다들 꽤나 바쁘신 터라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부서별 회의에서 회원님들의 우편물 관리를 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고 난 그런 일이라도 전담하는 것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다. 익숙해지는 건 내 몫이겠다고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약 14,000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참여연대다.

반송된 우편물 체크해서 연락드리고 회원들마다 프로필, 연락처 등의 문제 있으면 일일이 전화해서 고치고 전화도 안 되면 메일 보내고... 그 횟수의 누적이 엄청나다보니 이것조차 만만히 볼 일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정문

덕분에 나만의 독창적인 시민참여 프로젝트나 모임 구성은 꿈도 꿀 새 없이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디 내가 맡은 일만 하라. 군말 없이 업무를 보는 젊은 인턴은 좋은 타겟이었다.

3층은 주로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저것 손이 필요한 곳이 있었나보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들 있다면 첫째 그나마 엑셀을 정상적으로 다룰 줄 알았다는 것과 둘째, 4층과 5층에 민생희망본부와 사법, 행정 감시센터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외근이 잦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 정도 있다.

주로 했던 업무는

- 후원 회원 분들에게 매달 보내드리는 월간지 ‘참여사회’, ‘복지동향’ 두 권의 반송 처리 작업

이며 그 외에

- 매년 1회 진행되는 정기총회 준비
- 지역회원 만남의 날, 회원 월례모임 등의 행사 내용 홍보 및 인원 파악을 위한 전화 작업
- 지하 1층 ‘네티나무 홀’에서 오후 7시 무렵 진행되는 ‘아카데미 네티나무’ 강좌 준비 작업
- 비정기적인 기자회견 참여

이었는데, 늘어놓고 보니 일을 다양하게 접해보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주로 2층 시민참여 팀에서 일을 했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었지만 참여연대의 본 모습은 4, 5층에 있었으니 옆에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괜히 아쉬워하는 이유는 처음 참여연대에 가고 싶어 했을 때 기대했던 부분이 업무에 반영되지 못해서인 것 같아서다. 말하자면, 보다 다양한 분야와 격렬한 기자회견 및 집회 참여 기회, 사회의 부조리·경제적인 수탈에 대응하는 일 위주로 지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일에 치이며 참여연대를 둘러보니 당장에 내가 뛰어 들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익숙해졌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의 자유로움이 없었던 이유는 참여연대는 규모와 영향력이 크고 전문적인 곳이었으며 나는 반대로 지식과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간디학교를 졸업해서 훗날 시민단체의 상근자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줄 수 일이 손에 꼽는다. 그럼에도 내가 일을 조금이나마 빨리 찾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두 번의 무빙스쿨에서 배운 눈치밥과 학교에서 정보수집 능력을 열심히 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상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쓰고 싶는데 대부분의 기억이 나에게 새로웠고 미래를 열어준 기억이었던 것 같다. 굳이 쓰자면 역시 땀이 치거나 제일 힘들었던 걸 쓰고 싶다. 이번에 내가 참여연대에서 일하게 된 기간이 운이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 득과 실이 뚜렷했다.

운이 좋은 것은 일 년에 4번뿐인 청년 인턴십 프로젝트를 때맞추어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초반에 일만 하지 않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상근자분들과도 만나고, 무엇보다 나처럼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에서의 열렬한 활동을 원하는 32명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내 인턴십 활동 중 무엇보다 감사한 인연이 되었고 원하던 배움을 한층 풍부하게 배울 수 있었다.

운이 나빴던 것은 한~참 바쁠 때 갔다는 것... 인턴 기간 중 매해 진행되는 정기 총회가 겹쳤는데 하필이면 이번 해가 참여연대 20주년이어서 평소보다 규모가 배는 크다고 하신다. 기꺼이 축하할 일이지만 준비를 도와야 했던 나로서는 몇 주간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터와 산더미 같은 작업 내용을 보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다른 곳에 간 친구들도 그렇듯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일정이 취소되었다. 그렇다고 취소된 일정을 아쉬워 할 사항도 아니고 일이 끝날 무렵이었으므로 괜찮다.

결과적으로 나의 일상 업무는 회원들에 관련된 일 위주로 했으며 지속적이었고 원하는 바와는 다른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일 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속적인 시민운동이란 무엇인지, 간사님들은 어떤 사고를 하며 일하시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참여연대 뒤쪽 골목에 있는 '옥이네'라는 밥집에 1인분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점심으로 그것을 먹고 나면 늘 힘이 솟았다. 힘찬 시민운동에는 맛난 밥이 필요한 것 같다.

4. 인턴이 끝난 후

4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나의 정식 인턴은 끝났다. 그런데 인턴 기간 중 서울에서 현준이와 원룸을 잡고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바로 내려가 버리면 모든 금액을 현준이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좀 걸려서, 아직 서울에서 할 일도 충분히 많고 하니 5월 말까지 서울에 남기로 했다.

남은 시간 그렇게 관광도 하고 먹고 놀고 싶었지만 내가 남을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아직 참여연대에서 할 일이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인턴 기간의 속박에서는 자유로운데다가 맡은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채택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매일 출근할 필요는 없었다.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래 다양한 형태의 자원활동이 있으니 일단 넘어가자.

그렇게 추가된 1달여의 기간 중 나는 장기적인 임무로 '미디어 홍보' 팀이라는 소규모 팀의 자원 활동을 맡았고, 서울 각 지역의 길거리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을 도와드렸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 기획 및 참여했다.

미디어 홍보팀에서의 자원 활동은 크게 두 가지를 맡기셨는데 참여연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 중 일정 기간 사이에 올린 글들의 반응을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작업이 있었고, 참여연대 각 부서별로 인연이 있거나 자주 강연을 하시는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즉 연락망을 재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두 가지였지만 둘 다 며칠로는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막막했지만 딱히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전으로 내려갈 때까지 페이스북 현황 조사는 끝냈지만 인적 네트워크 작업은 끝맺지 못해했다. 믿고 맡기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죄송하고 마음에 걸린다.

다른 일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구 천만인 서명'을 각 시민단체마다 일정 인원을 채워서 합치기로 했는데, 참여연대도 10만 명의 서명을 책임졌기에 나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따라다녔다. 참여연대가 있는 경복궁역 근처에서 진행하기도 했고,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지정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것 또한 일이 끝나갈 무렵 서울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날이었는데, 안산에서 유가족 분들이 직접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

게 서명운동을 하였다. 이 날은 눈시울이 너무 붉어져서 목청껏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절하게 외쳐도 휘방꾼도 있었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본분대로 계속 압박하고.... 나도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파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유가족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과에는 상처가 따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를 기획·참여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동반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좌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 학생들은 캠퍼스 별로 모여서 '테이블 토크'라는 소규모 단위 토론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인턴십 멘토셨던 김주호 간사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테이블 토크를 진행해보자고 하셔서 청년 활동가 양성사업을 지지하는 나도 함께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사람이 적으면 그 자리에 둘러앉아서 하고 많아진다면 조를 나눠서 각자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다. 김주호 간사님, '공간 민들레'에서 대안교육을 배운 자원활동가 전서운 양이 주축이 되었고 나는 늦게 정보를 받아서 조금 도움을 준 것 뿐이다.

첫 날은 홍보 용지를 잔뜩 뽑아서 주변에 중·고등학교 주위를 배회하며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다. 오랜만에 해 보는 일이라 손에 익지도 않고 요즘 친구들이 무섭게 생겼지만 의외로 잘 받아주고 친절한 모습에 안심했다. 익숙해지니까 순탄하게 나눠 주고 끝냈다.



청소년 세월호 테이블 토크 홍보지

첫 날 내가 나눠준 것 외에도 전서운 학생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꽤 넓은 영역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 것 같다. 내용도 청소년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생각을 들여보자는 취지라서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당일(5/23/금) 저녁 7시가 다가와 우리는 테이블 토크 준비를 끝마쳤다. 기획했던 입장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아무도 안 오면 어찌지? 분명 서로 어색할 텐데 어떻게 풀어가지? 그래봤자 생각 없이 불안해한다고 해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봤고 덕분에 같은 동네 살던 소은이와 친절한 민현이가 같이 하러 와 주셨다.

그렇다면 일반학교 친구들은?? 다행히도 시간 맞춰 무리지어 하나 둘 와주셨다.



나를 포함한 14명의 테이블 토크!

준비했던 과자, 음료수도 깔끔히 해치울 수 있겠구나 싶어 한 숨 놓았다. 드디어 2시간가량의 테이블 토크가 시작되었고 진행은 김주호 간사님이 맡아주셨다.

처음엔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세월호'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칠판에 하나씩 적어보는 걸로 시작했다. 역시나 초면이라 다들 우왕좌왕하며 양보하기 바빴지만 칠판에 적힌 단어들에 공감대를 이루어서인지 간사님의 우월한 진행 실력 덕분인지 다들 긴장이 풀려가던 것 같다. 그 후에는 청소년들답게 과자를 먹으며 수도도 많이 떨고, 참사 후에 주변 친구·이웃들의 변화가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했으면 하는지 등의 내용을 서로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다. 확실히 청소년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이해도 빠르고 친해지는 것도 금방이다. 어쩌다 보니 EBS에서도 촬영이 와서 친구들과 인터뷰도 몇 개 따고 기분이 좋아지셔서 돌아가신 모양이다.

2시간을 조금 넘긴 테이블 토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초점을 해답을 찾는데 두지 않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 청소년들의 마음가짐, 대처 방안에 두었으므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느꼈다.



처음 본 친구들과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나도 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6년의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으로서 주류가 되는 일반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며 어느 정도까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소수지만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반학교의 친구들도 사회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며 친구들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졸업해도 또래의 청년들과 현 사회문제나 역사·정치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열띤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눈에 띄어 훗날 벌어질 투쟁들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

훌륭한 친구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감사하다.

- 인턴십 자체 평가

이것으로 인턴십도 끝났다.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니 불현듯 첫 개인 무빙스쿨을 계획할 때가 생각한다. 모험심과 두려움으로 뚝뚝 뭉친 나는 수용이랑 국토순례를 계획했고 무참히 침몰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대장정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준비할 때는 응원해 주셨던 쌤들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다. 뭐, 까라면 까라고 각자 단체 정해서 순조롭게 다녀오긴 했다.

무빙스쿨 두 번 중에서 첫째는 ‘한발 레츠’에서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대안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배웠고, 둘째 ‘드롭인 센터’에서 가출청소년들과의 소통으로 약자의 인권을 맞보고 왔다. 그리고 참여연대로 와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 무빙스쿨에서 배운 것이 인턴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닥달하던 쌤들에게 감사하며 힘이 났다.

삼천포로 왔는데, 내가 인턴십 계획서를 발표할 때부터 알게 모르게 단체의 크기와 나의 역량에 대한 비교를 당했었던 것 같다. 물론 참여연대는 그럴만한 단체였고 내가 끼어들기 힘든 곳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7주를 주로 내 또래 대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류해 보냈기 때문이다.

인맥 쌓는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몰랐던 것이, 이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미리 행동하고 있던 ‘청년연대’의 일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깊은 상근자들과도 이야기하고 그 주위에 다른 상근자분들과도 얼굴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난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상 업무가 더 많은 시간적 비중을 차지했기에 그 관계가 이어져서 일상 업무에서 불편한 관계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정리하는 것도 수월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시민단체와 사회의 관계와 영향력, 구조 등이 있었는데 주관적인 의견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세 달 간 일을 하며 참여연대를 지켜보니 궁금했던 내용과 한계를 알게나마 알 수 있었다. 우선 한계라고 느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를 이용한 사기에 무언가를 빼앗긴 시민들은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 시민단체라면 자신들을 도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민단체를 돌고 돌아 참여연대로 찾아온다. (일단 제일 크니까) 그리고 대부분 진행되는 형식이 자신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법적 사기를 당해서 억울하고 소송을 걸기 위해 혹은 항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참여연대가 좀 도와 달라. 라고 하시는데 참여연대가 해 줄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진즉에 다른 시민단체들이 해주었을 것이다. 자긍력이나 크기와는 무관하게 시민단체는 법적으로 개인의 재판을 도울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물론 돈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크겠지만...

억울하고 급박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몇 번이나 물어봐도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점점 화가 나신 요청자분들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뱉으시며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하는 시민과 도와주려는 시민단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혼동된다. 우리나라의 법적 구조의 모순인지 아니면 회원 수·크기에 비례하지 못하는 참여연대의 규모인지... 구조적 문제도 딱히 없어 보였지만 결과 속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0년 당시 ‘총선시민연대’를 조직해 ‘낙천낙선운동’을 이끌어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에 와서 14,000명에 이르는 회원 수와 비교되게 100명 이하의 상근자들과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재정적·조직적으로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물론 여러 방면으로 뼈저덕거리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힘겹게 해낸 일도 많고 실제 사회 문제에 기자회견으로 이렇다 할 발언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여전히 적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첫 사회적 파장으로 MB 정부 당시 광우병 소고기 사태와 한미 FTA 체결이 임박했을 때도 참여연대의 흔적을 많이 봤다.

사실 시민단체를 장시간 가까이 접한 것은 참여연대가 처음인지라 내가 활동한 시간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글로는 서투르도록 몸으로 터득한 배움을 앞으로 내가 할 일이나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좋고 밥이 맛있어서 좋았다. 나에게 연대의 필요성과 용기를 준 인턴십이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인터뷰>

대상 : 김주호 간사님

1. 처음 참여연대, 혹은 시민단체를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 고교 시절 책을 읽다 시민단체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던 중 관심이 생겨 참여할 방법을 알아보다가 참여연대 9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한 것이 계기이다.

2. 참여연대는 크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나요?

- 제일 큰 의사결정기구인 회원 총회가 있고, 그 밑으로 위원회들을 거쳐 사무처들이 각자의 활동으로 시민들과 연대하여 사회 회복에 힘쓰고 있다.

3. 얼마나 일하셨고,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 정식 간사가 된 지는 2~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턴십 프로그램 후에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부서에서 자원 활동을 하시다가 간사가 되기로 마음먹으셨고, 현재는 시민참여팀에서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맡고 있다. (인턴십 진행, 청소년 탐방가이드, 청년 활동가 양성 사업 기획 등)

4.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 / 힘이 들 때를 꼽자면?

- 아무래도 맡은 일이 일이다보니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혹은 자원 활동가들이 시간이 지나 활동가가 되거나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신다.

반대로 참여연대에 원한을 품은 어버이연합 등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와서 앞뒤 사정없이 도와달라고 밀어붙이는 분들과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그 또한 이해하는 부분들이기에 그다지 힘에 부치지 않는다고 한다.

5. 간사님이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현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질문 한 번에 대답)

- 기층이 같은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매번 지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크지만 과거의 독재 정권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시민운동가, 시민들의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있었고 지금은 꽤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진보했다고 본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가 더 커지고 구조적인 문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비교적 어린(저 같은) 청소년들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매우 반갑고 앞으로도 힘찬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활동하는 회원들의 상당수가 40대 후반 ~ 50대의 분들이라 젊은 친구들이 참여하는 폭이 넓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7. 각 세대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크고, 그만큼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사회에 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나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 기층이처럼 이렇게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자원 활동을 해주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혼자 힘들다면 뜻이 맞는 친구들과 캐리 스터디 그룹 형식의 모임을 꾸려서 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기층이 같은 유경험자들이 먼저 나서주면 더 좋겠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권을 말하다

인권운동사랑방 - 2.17~5.31

최소은

목차

I. 시작하기 전

1.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 1) 인권운동사랑방을 선택하게 된 계기
 - 2)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II. 시작

1. 적응하기
 - 1)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 2) 인권? 인권활동가?
2. 알아가기
 - 1) 여러 가지 교육
 - 2) 인권교육워크숍
3. 함께 하기
 - 1) 안산 월담 활동
 - ① 안산 선전전
 - ② 문화제
 - 2) 밀양
 - ① 현장
 - ② 밀양 송전탑 중단 1인 시위
 - ③ 밀양 북콘서트
 - 3) 기자회견
 - 4) 집회, 문화제
 - 5) 인권영화제

III. 끝

1. 느낀 점
2. 인터뷰
3. 일지

IV. 부록

1. 틈날 때마다 찍은 사진들
2. 시골쥐, 서울쥐로 변신!!: 나의 서울 생활기

I. 시작하기 전

1.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 왔다. 바로 인턴십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막상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막막하고 쉽게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냥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생각하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갈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개인 무빙을 경험하고 보니 두 번 모두 어린이, 아동에 관련된 곳이었고 쌤들도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곳으로 가 보라고 하셨다. 내 생각에도 다시 비슷한 분야로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도 이전에 해 왔던 것들과 비슷할 것 같았다. 인턴십은 기간이 무빙에 비해 길기도 하고 대충 때우다 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분야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1) 인권운동사랑방을 선택하게 된 계기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곳들과는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하다 사회단체를 가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섰다. 단지 막연하게 사회단체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쌤의 추천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을 알게 되었고, 인권이라는 주제와 내가 지금까지 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활동이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2)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인권운동사랑방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 억압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인권을 배운다는 믿음과 실천 위에 1993년 창립했다. 인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쓰일 수 있게 고민한다. 목소리가 외면당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대한다. 그게 현장이든 다른 것이 되었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한다.

II. 시작

1. 적응하기

1)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사랑방은 한번 방문했었지만 그때랑은 또 느낌이 달랐다. 사실 그때는 내가 인턴십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되게 먼 이야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위해 사랑방에 갔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분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 것 같다. 내 성격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낯도 가리고 말도 잘 안하기도 하고, 다들 말도 없으신 것 같고. 물론 나중에는 모두와 나름 친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편해지긴 했다.

그리고 사무실이 ‘인권교육센터 들’,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이렇게 다 같이 쓰고 있어서 사랑방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었다. 초반에는 어제 본 사람에서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신기했다. 사무실 공간이 좋았던 것은 이 세 단체가 같이 밥을 먹고, 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의 밥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같이 밥 먹을 때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2) 인권? 인권활동가?

처음 일주일 동안 ‘인권 오름(주간인권신문)’에 사랑방이 쓰는 기사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꼭 봤다. 내가 봤을 때는 한 4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그 기사들을 읽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나도 뭐가 뭔지 머리가 복잡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아쉽다. 사랑방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알고 있던 인권은 흔히 약자, 소수자들이 침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멀게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보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깨졌다. 나는 인권을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인권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대회’도 다녀왔다. 인권활동가대회는 2박 3일로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나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서 좋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토론을 할 때는 졸았다. 뭔가 이때부터 나랑 토론은 안 맞는 거였나 싶기도 하고!! (이후 토론회나 회의하는 자리에서 많이 졸았다.) 인권활동가대회는 내가 활동을 하면서 만날 사람들을 미리 만나 본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가끔 활동을 하다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했다.

2. 알아가기

1) 여러 가지 교육

인턴십을 하면서 중간 중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 우선 제일 여러 차례 받은 건 임금교육이었다.

“2013년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는 인권운동의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하며 그 하나의 활동으로 반월시화공단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실마리로 ‘임금’을 정했다.”

그래서 임금제도의 이해, 공단 노동자 임금요구안 조사 결과를 통해 본 노동자의 삶, 노동조합과 임금, 최저임금을 한 주제로 네 차례 정도 한 것 같다. ‘임금제도의 이해’나 ‘최저임금 투쟁의 흐름과 쟁점’은 조금 어려워도 그럭저럭 이해를 했는데 나머지 주제는 솔직히 즐기기도 많이 즐겼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자료 다시 읽어봐야지 하고 넘겼던 것 같다.

그리고 인권제도 이해와 활용, 반차별 운동의 역사와 차별금지법 등 인권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배울 시간도 많았는데 왜 그리 즐겼는지 모르겠다. 내가 즐겼던 것에 굉장한 아쉬움이 남는다.

2) 인권교육워크숍-인권교육센터 ‘들’

인턴십이 마무리되어 갈 시기에 인권교육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인권교육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숍이었는데 나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아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 인권감수성, 차이와 차별, 인권의 가치, 인권의 권리목록 & 쟁점 살피기, 인권교육 기획과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으로 움직이면서 놀고 시작을 했다. 그리고 모둠별 활동이라 내가 부담을 덜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 모둠별로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들어주고 하면서 나는 더 알아갔던 것 같다.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참여하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강해서 조금 부딪히는 것도 봤던 것 같다. 나는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워크숍 시간이 마무리 될 때쯤 마무리 강좌를 들으면서 정말 명언도 많이 듣고 많이 깨우쳤다. 필기를 하지 않아 내 기억 속에서 좀 빨리 사라진 게 아쉽지만.

3. 함께하기

1) 안산 월담 활동

사랑방에서 중심활동이라 할 수 있는 월담 활동이다. 월담은 안산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모임이다.

① 안산 선전전

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외부 활동으로 기억된다. 선전전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모임 '월담'을 소개하고, 매월 다른 여러 가지 소식과 노동관련 설명, 일터와 일하면서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나눠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말도 못 붙이고 어떻게 나눠 줘야 하나, 안 받는 사람이 좀 밉기도 하고 속으로 오만 걱정을 다 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나눠주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힘들다.

4월 선전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선전전을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다. 지하철 거의 첫차를 타고 안산으로 가서 선전전하고, 좀 있다 또 선전전하고 좀 쉬다가 다시 선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되게 천천히 갔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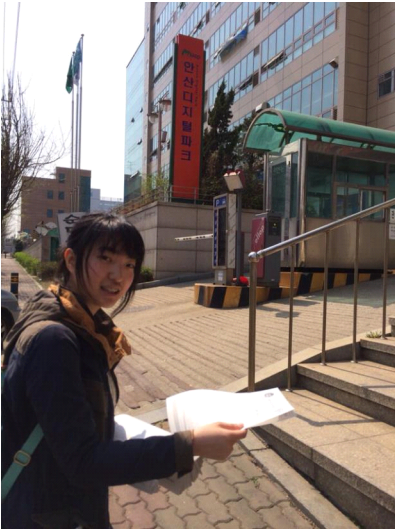
② 문화제

월담 문화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안산역에서 한다.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플랜카드 걸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다음 안산역 주변에서 선전물을 조금씩 나눠주고 7시부터 문화제가 시작한다. 문화제는 발언을 하고 공연도 보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내가 처음 월담 문화제를 봤을 때와 최근 문화제를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들도 조금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처음 문화제를 볼 때는 경찰들이나 역 관리자 분들이 오셔서 시작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

나도 발언을 했다. 정말 그 당일 오후에 발언을 해 보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안산 선전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최소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네요. 사실 이 소식을 오늘 오후쯤에 들어서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공단이라는 단어도 낯설었어요.

그리고 월담 선전전을 하면서 잘 받아봐 주는 사람,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 찬찬히 읽어가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도 냉정하게 지나치거나 한번은 식당 근처에서 소식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곳을 청소하는 아저씨가 물어 보시길래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친절하게 다가갔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나눠주지 말라고 했을 때는 당황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소식지를 보고 문화제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괜찮아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월담이 더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내용



월담 선전전을 하는 모습



월담 문화제에서 발언을 하다



월담 문화제 공연

2) 밀양

① 현장

밀양에는 세 번 정도 다녀왔다. 첫 번째는 ‘밀양을 살다’ 책에 들어갈 사진 작업하는 일정에 따라갔다. 정택용 사진가, 미류와 함께 다녔는데 골안마을, 보라마울, 127번 농성장까지 둘러볼 수 있었다. 곳곳마다 공사가 끝난 송전탑도 보였다. 송전탑을 볼 때는 참 답답했다. 그래도 송전탑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 할머니들도 만나 볼 수 있어 좋았다.

두 번째는 밀양 희망콘서트 ‘밀양의 봄’을 보러 갔다. 여러 가지 판매 부스나 참여하는 부스도 보고 공연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는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에서 준비한 긴급밀양연대 일정에 같이 다녀왔다. 다른 사람들은 불침번도 썼는데 나는 좀 편하게 다녀온 듯하다. 가서 자고 맛있는 밥 먹고 움막 밖에 햇볕도 쬐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다. 같이 127번에서 만나서 얘기 나누는 연대자 분, 마지막에 보였던 수녀님들, 같이 있었던 사진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와중에 그 곳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 분들을 보면 먹먹해지기도 했다.



밀양 127번 농성장

②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1인 시위

3월 11일 후쿠시마 3주기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역 근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찌나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조용하게 피켓을 들고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걱정이 없어지니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 한번쯤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보다는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3/11 후쿠시마 3주기 기자회견

③ 밀양 북콘서트

5월 27일, 밀양 구슬프로젝트 '밀양을 살다' 책 북콘서트가 열렸다. 당일 오전에 할매, 할배들께 전하는 응원 메시지 판을 만들고 북콘서트가 시작하기 전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 판매 테이블에서 응원메세지도 받고 상품들 판매도 했다. 나는 거의 판매 테이블에 있다가 북콘서트가 끝나갈 쯤에 들어가서 토크와 마무리 공연을 봤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뜻 깊은 시간이었다.



3) 기자회견

기자회견도 참여했다. 처음 기자회견에 갔을 때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 주변에 경찰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번은 질서유지선도 있었다.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4) 집회, 문화제

인턴십을 하면서 밖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많이 했던 게 집회나 문화제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집회에서 경찰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랬는데, 점점 지나면서 경찰이 많아졌고 간혹 소음관리나 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다.

집회와 문화제들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여러 사람들이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밤을 새운 것이다. 원래 집회 정리 후 청와대로 가려 했지만 이리저리 막혀서 결국 청운동 사무소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는 다 같이 뉴스를 보고 오전에는 문구가 적힌 노란리본을 매달고 종이배를 접어 경찰버스에 붙였다. 밤에는 몰랐는데 오전이 되니까 되게 피곤했다. 그 와중에 우리를 에워싸고 경찰버스를 세우고 경찰들이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 짜증이 나기도 했다.



경찰 버스에 붙인 노란 종이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숙 농성 문화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숙 조합원 분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셨는데 그곳에 필요한 물품도 전해드리고 저녁 문화제도 참여했다. 그곳에서도 경찰을 볼 수 있었다. 삼성 건물 주변과 좀 떨어진 곳에도 가는 곳마다 보였다. 삼성건물 주변으로는 경찰버스와 경찰들이 짝 둘러싸고 있었다. 정말 공권력의 힘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월급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두 조합원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경찰이 주검을 탈취해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주검을 탈취해가다니.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아무리 팍팍한 사회에 살고 있다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 5월 28

일 수요일 일지 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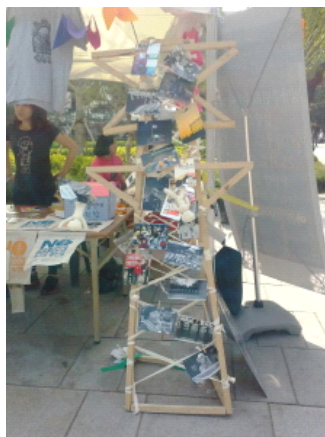
진짜 가끔 큰 집회에서 경찰병력들을 볼 때 경찰이 되게 많다고 느꼈다. 진짜 쓸데없이 많다고 느낀 적도 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항상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폭력을 쓰는 건 무슨 행동인지. 정작 보호는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게 아니지 않나. 공권력은 왜 자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묻기에만 급급한지, 모여서 행동하려는 사람들을 가리기에만 급급한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5) 인권영화제

5월 22~25일 인권영화제가 진행되었다. 영화제를 하기 전에는 밀양 부스에서 쓰일 밀양 부스 홍보 배너를 같이 만들고 부스에서 나눠드릴 선전물을 자르는 작업, 세월호 천만인 서명지 만들기 등 곳곳에 쓰일 것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밀양 부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스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무료 스티커 타투를 해 드리기도 했다.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의 알아서 놀거나 영화 보러 돌아다니는 게 많다. 부스에는 천 배지, 《밀양을 살다》 책, 티셔츠, 엽서 등 다양한 물품이 많아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거나 구입해가기도 했다.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모든 영화를 다 보진 못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 ‘밀양전’과 ‘대한문을 지켜라’이다. 밀양이나 대한문 모두 내가 사랑방에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가 본 곳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답답함과 함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가슴은 너무 답답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

영화라는 매체로 이 사회 안에서 자본으로 인해 인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는지 영화들을 보면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III. 끝

1. 느낀 점

사랑방에 있었던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다.

활동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안산에서 선전전을 할 때 점심시간에 공장 근처 식당에서 나눠줬다. 처음에는 솔직히 노동과 노동자에 관련된 선전물이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공단 주변 노동자 분들이 더 많이 볼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또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흔쾌히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것 또한 나의 편견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밀양에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늙어서까지 이렇게 고생하다 죽어야 되냐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정말 마음이 아팠다. 왜 이 사회는 힘없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외면하기만 할까, 내가 이곳에서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걸까. 밀양을 다녀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졌다. 방문과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은 것인지 내가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많이 방문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뿐이다.

행동하게 되다

나의 인턴십 중 80%는 외부 활동, 그 중에서도 집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인턴기간 중 처음 집회에 갔을 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그 장소도 다양하고 모이는 사람들 수도 달랐다.

삼성서비스지회 농성 문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보건복지부 장관 사죄 투쟁, 대한문 투쟁 문화제-석방기념 및 해고자 복직 촉구 투쟁, 해고 복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촛불행동, 故황유미 씨 7주기 추모문화제, 노동절 집회 등 이름도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회는 사람의 죽음도 쉽게 잊히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회에서 처음에는 팔을 흔드는 것도 어색하고 민중가요도 편하지가 않았다. 진짜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투쟁을 외치는 것도 어색하고 조금은 강해보이는 그런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초반에는 적응이 안 됐다.

기자회견은 질서유지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로 지나가는 시민들과 기자회견을 참가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듯한 느낌이었고 집회를 할 때 정말 수많은 경찰과 경찰버스로 차벽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왜 사람들의 외침을 자꾸 막으려고만 하는 건지, 행동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통제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화도 많이 나고 계속 답답하기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행되는 사람과 그사람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외치며 혹시나 나도 연행이 될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많은 집회 장소에서 무서우면서도 신경 쓰였던 경찰, 말로만 듣고 어딘가에 가려져 있던 공권력의 힘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권력과 힘으로 대할 뿐,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을 만나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사랑방을 비롯한 '들', 인권영화제 식구들 모두 좋은 분들이신데 조금 더 빨리 친해지지 못해 아쉽다. 나중에 계속해서 사랑방 자원 활동가로 활동 하게 될 때 다시 만나야겠다.

밀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쌍차 노동자 분들, 인권활동가대회나 여러 장소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모두 기억에 남는다. 물론 얼굴 한 번 비치는 정도이고 내가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

인권은 흔히 말하는 소수자나 약자가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내가 인권은 더 넓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어느 한 권리만 침해된다고 해서 그 권리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리도 다 이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인권은 얼마나 더 깊게 이해하고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사실 난 한 번도 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 스스로가 나에게 인권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한다면 인간의 권리,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지켜지지는 못하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권리라 쉽게 짓밟히고 그 짓밟히는 권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인권도 다르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

지금 이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권리인 만큼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활동가는, 그리고 나는

인권운동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봐도 어렵고 힘든 싸움인 게 보여서 답답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활동가는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사회에 질문을 던져야 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처음에 내가 인권활동가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 말조심이나 단어 선택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했었는데 인권활동가라고 특별한 건 없었다. 다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후에도 인권활동가로서의 삶을 살게 될지, 인권운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떠나서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뭐든지 연대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운동들도 해 보고 싶다.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다.

2. 인터뷰

-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Q. 사랑방을 알고 오게 된 계기

A. 제가 원래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주단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의의 이별과 불의의 시련과 계약 종료와 프로젝트 탈락과 이런 게 끼어서 단체 활동을 정리하고 놓고 있었어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때 당시 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국가인권위 농성을 들어갔었거든요.

그 농성의 주축 중 한 명이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었고 거기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중에 저랑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때 잠 잘 사람이 없다 그래서 농성장에 와서 잠 좀 자라 해서 가서 명숙을 만났고 명숙을 그 전에도 본적은 있었는데 명숙이 논다니간 사랑방에 오면 어떻겠냐.

그 때 석진(인권운동사랑방 돌움활동가)이 상임하다가 상임 그만두고 안식년 들어가는 시점이어서 반차별 활동가가 없었고 반차별 활동을 하러 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사랑방으로 왔죠. 자원 활동을 3개월 해야 상임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상임하러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Q. 사랑방에 처음 왔을 때 느낌, 첫인상

A. 사랑방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이상한 애들이 많았어요.(웃음) 상임이 그 때는 미류랑 민선이랑 최은아, 명숙만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자원 활동 할 때부터 하던 일들이 조금 있어서 그 일들을 하고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서 되게 바빴어요. 그 때가 희망버스가 막 시작될 때여서 원래는 들어와서 좀 적응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없이 갑자기 일을 해야 됐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맨날 짜증났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자원 활동 더 할걸.. 여기가 어떤 데 인줄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뭇 모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좀비처럼 부러먹을 줄이야 이러면서.

Q.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A. 원래는 제가 대학을 다녔었어요. 대학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 메이데이 집회를 갔다가 그 때 이주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단속 관련해서 크게 발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향이 지방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를 봤어요. 그 전까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집이 지방이니까 공단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관심이 가서 2003년부터 수원에 있는 이주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뭐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이주단체에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주운동을 처음에 시작했죠. 사랑방 오는 건 사실 그 때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부족함들? 사랑방이 담론이나 인권의 이론이나 인권의 정책을 비롯한 내용들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제가 이주단체에 있다 보니까 맨날 상담만 하느라 정신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랑방에서 좀 더 배우고 싶었죠. 여러 다른 운동하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Q. 인권활동/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이나 고민

A. 활동과 관련된 고민은 이주단체에 있을 때는 담론이라던가 약간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랑방에 와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많은 걸 접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런 방식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성격인가에서는 헛갈려 하고 있어요. 좀 저는 이렇게 작은 단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게 좀 더 잘 맞거든요. 상담이나 심터 같은 데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관계 맺는 게 훨씬 더 편한 성격이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쓴다거나 인권 오름을 편집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부대끼는 일이라서 잘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줘야 되나 서울 생활이 싫기도 하고.

Q. 뿌듯하거나 좋은 점

A.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같아요. 접하지 못했던 단위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2011년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농성을 했었거든요, 시청 점거하고. 그 때 거기 상황실에 있었어요. 그 때 성소수자 운동이 처음으로 농성 같은걸 한 거였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그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거의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이어말하기 같은 반차별 운동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농성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고 차별금지법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었긴 한데...

그 때 농성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주일 안에 상황이 종료돼서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일주일 했는데 다른 농성 할 때 30, 40분 농성할 때 자주 가고 아니면 500, 600일 농성하는 데도 있으니까 되게 짧은 시간인데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죠.

Q. 인권운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A. 인권운동은 조그마하잖아요. 단체도 많이 없고. 사실 인권운동이라고 명명되는 단체, 운동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우선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권운동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만들고 사회에 좀 던지고. 근데 그게 뭐 크게 파장을 일으키진 못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계속 바뀔 수 있게 하는 거고.

운동사회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사회에 보수적인 면모들을 운동사회는 여전히 갖고 있고 고학력, 남성, 나이 이런 거에 대한 권위가 되게 센 운동이고. 소수자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이나 아니면 인권운동처럼 작은 운동들에서 말하는 것들이 운동사회에 큰 자극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당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을 비롯해서 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운동사회 내에서 그런 것을 던지면서 계속 새롭게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적으로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력이 크진 않죠. 그런데 용산이나 용산싸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전폭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 인권운동이고, 큰 대중운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신경 쓰지 않는 싸움을 크게 만들어가고, 사회적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가고. 쌍차 투쟁 같은 경우도 쌍차 뿐만 아니라 주변에 되게 많은 단체들이 붙어서 같이 역할을 했던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인권운동이 해 왔던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인권활동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강하고 굳세고 투쟁적인데 자기 기준도 되게 명확하고 이런 까칠한 사람의 모습을 인권활동가들이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되게 많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Q. 인권활동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

A. 모르겠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Q. 사랑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

A. 지금도 보면 미류가 범대위를 들어가 있고, 근데 원래 범대위 들어가기 전에도 용산이나 이런 많은 활동을 쫓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꾸준히 반차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정록도 자유권, 경찰관리 이런 거부터 해서 쫓 하고 있었어요. 민선은 여러 가지 일. 각 자 일을 하고 있긴 한데 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많이 주려고 해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사실은 조직의 역할인거니까. 정록이 월담 활동 고민을 하는 거에 같이 이야기 하고 그 전에는 잘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피곤하죠. 좋은데 피곤해.(웃음)

Q. 내 삶에서 인권운동이란

A.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직장을 다닌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인권운동을 하다보니까 계속 하고 있고.

사실 되게 다양한 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 이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르게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운동의 문화, 조직의 문화라는 게 저한테 되게 불편하게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운동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 운동자체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속에서도 잘 맞고 그런 가치에 맞춰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으니까. 사실 제 친구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방향에 놓여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 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하면서 내가 선택한 가치로써가 인권 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조직에 들어 온 거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Q. 사랑방을 알고 오게 된 계기

A. 예전에 다른 단체에 있었을 때 사랑방이랑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었고, 사랑방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를 구성하고 만들고 활동가 조직으로써의 어떤 지향이나 정체성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정도로 알고 있었어. 인권이라는 사안이 모든 사안에 걸쳐있기도 하다는 거. 보통 사랑방이 약간 비주류적인, 소수파적인 입장을 많이 내고 그런 활동들을 해 왔다는 것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내가 사랑방에 들어갈 즈음에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방향을 하던 시절이었어.

내가 구체적으로 딱히 어떤 분야의 인권운동이나 어떤 운동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일단 내가 사랑방에서 활동하면 내 계획이나 내 전망에 서면 그것을 잘 지지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 거 같아.

Q. 사랑방에 처음 왔을 때 느낌, 첫인상

A. 나는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사랑방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워크숍을 많이 했던 말이야. 한 달에 한번 정도씩 12년 여름부터 한 7, 8개월 한 것 같은데 그 논의를 주로 하게 돼서 나한테 사랑방 활동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걸 물으면 나는 그 20주년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지금 사랑방 체계를 바꾸고 팀별해체하고 중심활동을 하면서 이런 세팅의 느낌?그래서 예전 사랑방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를 거 같아.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들도 그럴 테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방 이미지는 자유권 팀, 반차별 팀, 사회권 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꽤 많은 수의 자원 활동가들이 각각 결합되어 있고 자원 활동가 모임이 되게 중요한 구조로 된 사랑방인데 나는 그 경험이 많진 않은 것 같고.

Q.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A. 나한테는 인권운동이라고 할 때 앞에 인권이 중요하지 않고 운동이 더 중요한 거 같아. 사실 운동을 먼저 생각하고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앞에 붙는 말이 어쩔 때는 인권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노동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사랑방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는 인권이라는 화두가 결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기보다 일단 사랑방에 온 다음부터 인권을 좀 더 고민하게 된 거지. 그럴 때 나는 인권은 뭔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수 있게 되는 자기 동기부여, 그런 감정, 결의, 생각 이런 것과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

Q. 사랑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이나 고민/좋은 점, 뿌듯한 점

A. 이건 힘든 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랑방이라는 조직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 사랑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긴 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추억이 되니까. 예를 들면 다른 단체 사람들이 보면 사랑방이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 조직. 월요일 날 하루 종일 회의를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조직이다. 회의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각자 다 강하다. 그래서 갈등도 많고 힘들고 어렵다.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20주년 논의를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부터 하게 돼서 그 정수를 맛 본거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사랑방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지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이 각자 자기 고집도 세고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방의 과거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싸우면서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내 왔단 말이야.

그런 정해진 답이 없는 속에서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북적북적 대면서 만들어내고 이야기하고 운동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사랑방의 힘이고 저력인 거 같아. 그냥 관료적으로 주어진 일, 또는 당연히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 과정은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나 사랑방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

Q. 인권활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A.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인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전에는 뭔가 인권단체들이 정부나 어떤 사람들을 비판할 때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비판이거나 비판 받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논쟁이기 보다는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 보통 신문 시장에서 반인권적이다 이런 수준에서 인권운동이 사회에 갖는 발언력이라는 건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제도화 되거나 권력이 스스로 활용하기도 하는.

박근혜가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간혀놓은 거 가지고 인권침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그런 거일 수 있고 북한 인

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하는 방식일수도 있고.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서로 경합하는 언어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제도화 되거나 권력을 갖는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 만큼 사랑방 같은 인권단체가 이야기 하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랑방의 고민도 주로 언론이나 국회나 제도권 영역에 대해서 스피커를 대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활동 영역보다는 그런 인권이나 운동이 정말로 자기 힘을 스스로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했을 때 과거 역사를 돌아 봤던 거지.

90년대 인권운동이 나름 되게 활발하게 꽃을 피웠는데 사실 그 힘은 80년대 대중들의 싸움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광을 얻고 나타났던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테고 그거를 가로막는 힘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인권을 실현하는 길은 그것을 만들고 조직하는 길 인거고.

그러면 다시금 그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게 없으면 되게 공허한 그냥 좋은 말들, 권리영역들 이런 거에 그냥 멈추게 된다는 고민을 사랑방은 했던 거지. 그래서 중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말했던 인권과는 다르긴 다르지. 다른 인권운동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

A. 글썸.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건 인권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운동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단체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반 농담 삼아 반 진심으로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게 있거든. 애네 앞에서 말실수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사안에 대해서 까칠하게 이야기할 거 같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 할 텐데. 사실 나는 그런 걸 내가 사랑방에 있는 동안은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진 않고 나도 인권감수성이나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 오히려 인권활동가라면 결국에는 인간의 권리잖아. 사람의 권리고. 그러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게 있을 텐데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특성의 개인을 더 많이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사람이 산다는 건 어떤 건지,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난 그런 면에서도 사랑방이 20주년 논의를 하면서 했던 거에 맞닿아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그 전까지는 세계 인권선언이나 법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나 다 이야기 하는 인권 권리목록을 있잖아. 그런 걸 중심으로 이런 권리가 보호되어야 된다 국가에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인권침해야 하는 차원으로 이미지로 인권단체/인권운동을 생각해 온 게 있고 사회에서 인권단체나 인권운동이나 그런 역할이나 그걸 하겠지 라고 기대했던 게 있던 거잖아.

Q. 인권활동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소양,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

A. 나는 그런 권리목록 이전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누가 누구 차별한다고 하고 누가 누구를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관계가 만들어 지는 건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지. 나도 그렇고 사랑방 사람들도 그랬을 거 같아.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고. 사랑방이 안산에서 공단 노동자들 만난다고 할 때도 거기서 활동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일 것 같은데, 기존에 노동운동이 공단노동자들을 별로 염두 해 두지 못 해왔다고 평가를 하거든.

조직화가 잘 될 만한 큰 노조나 큰 공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냥 노조, 노동자, 노동운동 이런 거 다 빼고 실제로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투명하게 바라보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조직화해야 되고,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과제가 있는데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노총에 있는 사람들, 금속노조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실제로 그 노동자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권활동가라면, 인권운동이라면 더욱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인권단체가 노동자들을 조직하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인권단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

Q. 내 삶에서 인권운동과 사랑방이란?

A. 계속 사랑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전에 학생운동하고 다른 단체

에 있었을 때에 다른 단체 운동을 정리할 땐 어쨌든 그 단체 활동이나 그 운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던 말이야. 근데 만약에 사랑방을 그만둔다고 할 때는 그거랑은 다를 거 같아. 왜냐면 사랑방 활동을 통해서 어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랑방 운동이 나에게 그런 동력을 준 거 일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차원에서 사랑방 운동이나 인권운동은 내 운동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

3. 일지

<인턴십 예순 두 번째 날>

2014/05/20/화요일

* 금요일 -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 플래시몹

오전 - 세월호 추모시민 폭력연행 경찰규탄 기자회견 / 오후 - 탄원서 정리, 영화제 밀양 부스 홍보 배너 만들기

5월 17일, 18일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와 만민공동회가 있었는데 경찰은 신고 된 집회와 행진경로를 막았고 해산하고 있는 시민들, 지나가고 있던 시민들을 연행했다. 나는 집에서 인터넷기사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심각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학생들을 연행할 때 반바지 같이 가벼운 옷차림이었는데 그 분들 연행을 남경들이 하다가 성추행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항의해서 여경들이 연행을 했지만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도 경찰들과의 대치가 있었다. 장소가 경찰청 정문이었는데 경찰들이 그 곳으로 가는 인도를 모두 막아서 가지 못하게 했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 겨우 할 수 있었다. 경찰들은 오늘 삼성 노동자들이 항의 방문을 한다고 그 이유를 대며 인도를 막아서고 있었다.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협하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통행 길을 막고 있었다. 그렇게 기자회견이 끝나갈 쯤 경찰들이 어디론가 우르르 몰려갔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삼성 노동자 분들이 오고 있어서였다. 정말 그 많던 경찰이 줄지어 이동하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성 노동자 분들 기자회견에 잠시 있다가 명숙이 탄원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작업을 하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왔다. 사무실에 와서는 영화제 때 밀양부스를 운영하는데 그 곳에 세워둘 홍보 배너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 같이 해서 그나마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IV. 부록

1. 틈날 때마다 찍은 사진들

<인권활동가 대회>



<월담 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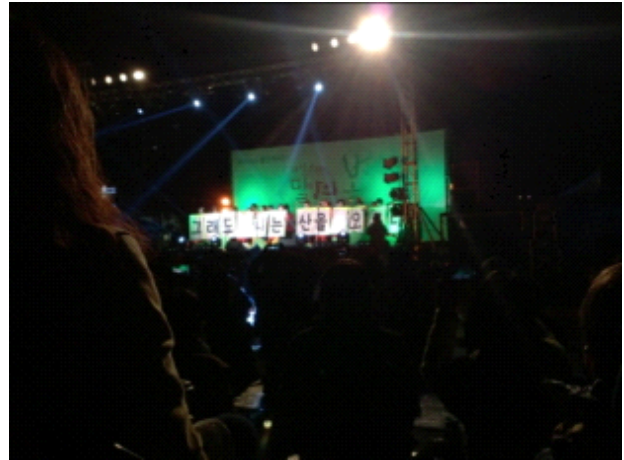


<밀양 희망콘서트>





아무리 막아도 헬기는 뜨고



그래도 나는 산을 오른다

<밀양-127번 농성장>



<행사>

- 후쿠시마 3주기, 탈핵 문화제



- 416명이 함께 만드는 노란리본 플래시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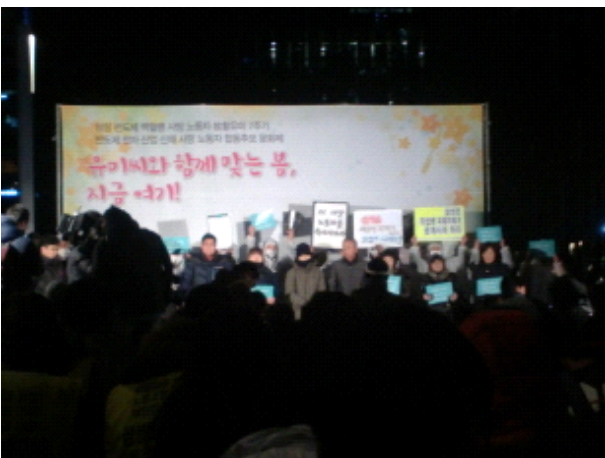


<집회, 문화제>

- 김정우 동지 석방환영 및 해고자복직 촉구 투쟁문화제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 7주기 추모문화제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공식사과 촉구 촛불집회



-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동



- 5월 8~9일 청운동



2. 시골쥐, 서울쥐로 변신!! : 나의 서울 생활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딱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했다. 이리 저리 사람들에게 치이기도 하고 내가 적응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내가 지영이와 현정이와 같이 지내야 할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뭔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보다도 더 작았던 원룸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이 북적북적 대는 서울이 처음에는 진짜 정신도 없고 힘들었다. 인턴십도 인턴십이지만 서울이라는 곳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건물도 뭐가 그리 다 커보였던지. 그래서 초반에는 실 때 밖에도 별로 안 나갔던 것 같다.

하지만 밖에서 하는 활동을 하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점점 돌아다니는 것에 재미를 붙였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울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사람 많은 걸 안 좋아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복잡하다고 말하던 내가 나중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놀러 다니기 좋다고. 끝날 때는 오히려 서울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은 서울이 정신없긴 하다.

서로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3개월을 보냈던 시간도 나름대로 추억이 될 것 같다. 자기 전에 항상 수다를 떨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시켜먹기도 하면서, 우울할 때는 고민도 들어주던 지난 3개월의 하루하루가 마냥 좋은 날만 있진 않았지만 돌아켜보면 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BUT!! 좋아보여도 집 나오면 개고생이긴 하다. 괜히 저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다.